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이 책의 특징과 구성

이 책의 특징

01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여 국어영역 '문학' 과목을 충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개발한 수능 연계 교재입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 및 교과서를 바탕으로 출제된 여러 문항을 통해 다양한 제재와 유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02 ▸ '교과서 개념 학습 → 적용 학습 → 실전 학습'의 단계를 통해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03 ▸ 갈래별로 다양한 영역의 작품들을 고루 수록하였으며, 서답형과 수능형 문항을 통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러두기

❶ 본 교재에 수록된 작품은 가급적 교과서 표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❷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출문제를 참고하여 고전 문학 작품을 현대어로 풀어서 수록한 경우가 있고, 현대 문학 작품도 오늘날의 표기로 고쳐서 수록한 경우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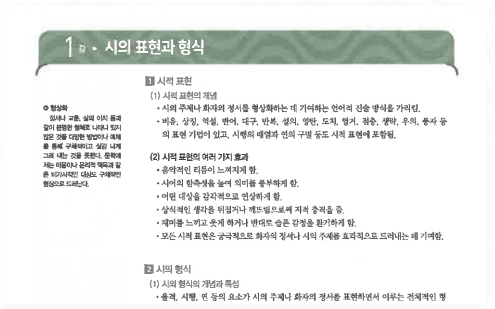
❸ 문학 작품은 원문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현대어로 윤문하였습니다.

이 책의 구성

• 1부 교과서 개념 학습

[교과서 개념 익히기] '문학' 교과서와 교육 과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문학' 과목의 기본 개념을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작품으로 이해하기] 기본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갈래별로 다양한 영역의 작품들을 읽고 서답형과 수능형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문학' 과목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강 · 시의 표현과 형식

1 시적 표현

(1) 시적 표현의 개념

• 시의 주제나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는 언어적 진술 방식을 가리킴.
• 비유, 상징, 역설, 반어, 대구, 반복, 설의, 영탄, 도치, 열거, 점층, 생략, 우의, 풍자 등의 표현 기법이 있고, 시행의 배열과 연의 구별 등도 시적 표현에 포함됨.

(2) 시적 표현의 여러 가지 효과

• 운악적인 리듬이 느껴지게 함.
• 시어의 함축성을 높여 의미를 풍부하게 함.
• 어떤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상하게 함.
• 상식적인 생각을 뒤집거나 역도일으로써 지적 충격을 줌.
• 재미를 느끼고 웃게 하거나 반대로 슬픈 감정을 환기하게 함.
• 모든 시적 표현은 궁극적으로 화자의 정서나 시적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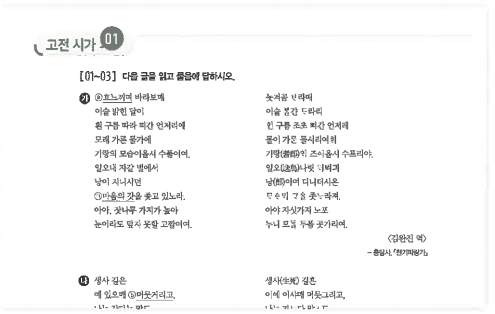
2 시의 형식

(1) 시의 형식의 개념과 특성

• 율격, 시행, 연 등의 요소가 시의 주제나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면서 이루는 전체적인 형

• 2부 적용 학습

교과서 기본 개념을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시행된 모의 평가와 수능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표적인 작품을 선별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항으로 개념 적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전 시가 01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호느끼여 바래보내
이슬 맑힌 날이
흰 구름 따라 피난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일오(逸烏)냇가랑 조약돌에
낭이 지니시던
ⓑ바올의 갓을 좇고 있노라.
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리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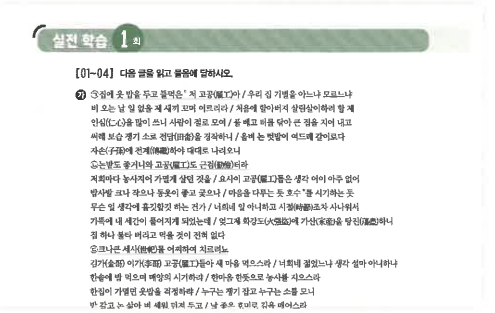
눈서릴 모르매
이슬 불갠 두렷이
한 구름 조촌 피난 언저리
몰이 가온 물시리이히
기랑(耆郎)의 즈이올시 수프리아.
일오(逸烏)냇가랑 조약돌에
낭(郎)이여 디니더시온
ᄆᆞᄉᆞᆷ 가올 좃ᄂᆞ라져.
아아 자싯가지 높호
누ᄂᆡ 모ᄃᆞᆯ 두ᄒᆞᆷ 곳 기랑이여.

〈김완진 역〉
– 충담사 '찬기파랑가'

(나) 생사 길은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생사(生死) 길은
이에 이시매 머뭇그리고,

3부 실전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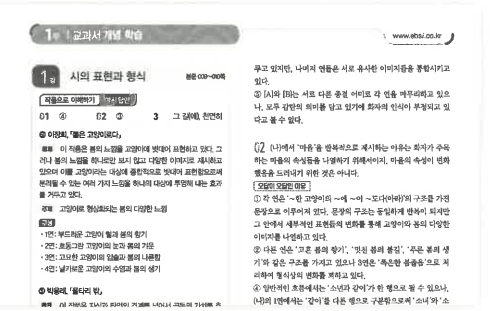
교과서 개념 학습과 적용 학습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갈래별로 다양한 작품과 실전 문제를 실었습니다. 총 3회 분량을 제시하여 실전 감각을 익히고 '문학' 과목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전 학습 1회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답과 해설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세한 해설을 제시하였습니다. 작품 해제, 주제를 제시한 후, 구성이나 줄거리로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정답이 정답인 이유'와 '오답이 오답인 이유'까지 모두 설명하여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부 교과서 개념 학습

www.ebsi.co.kr

1강 시의 표현과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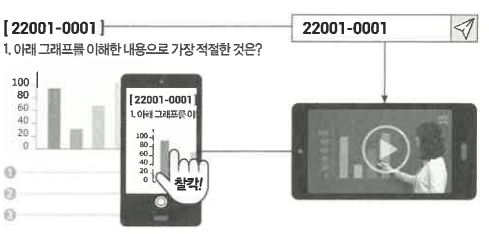
본문 020~067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정서 갈무리

01 ④ 02 ③ 3 그 집에, 천연의

학생 EBS 교재 문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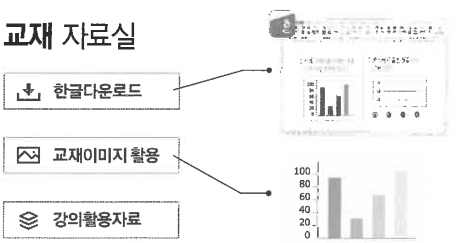
EBS 단추에서 문항코드나 사진으로
문제를 검색하면 푸리봇이 해설 영상을 제공합니다.



※ EBSi 사이트 및 모바일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진 검색은 EBSi 고교강의 앱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 교사지원센터 교재 자료실

교재 문항 한글 문서(HWP)와
교재의 이미지 파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교사지원센터(http://teacher.ebsi.co.kr) 접속 후 '교사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

이 책의 차례

1부 교과서 개념 학습

1강 | 시의 표현과 형식
봄은 고양이로다(이장희) / 울타리 밖(박용래) 9

2강 | 시의 내용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작자 미상) /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 ~(작자 미상) 12

3강 | 소설의 서술상 특성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 15

4강 | 소설의 내용 구성 요소
박씨전(작자 미상) 19

5강 | 극의 특성과 극문학의 구성 요소
정직한 사기한(오영진) 23

6강 | 교술 문학의 특성과 구성 요소
조침문(유씨 부인) 27

7강 | 작품의 작가 및 독자 맥락
유리창 1(정지용) 31

8강 | 작품의 문학사적, 상호 텍스트적 맥락
춘향전(작자 미상) / 수정가(박재삼) 34

9강 | 작품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
무너진 극장(박태순) 39

2부 적용 학습

고전 시가

01 찬기파랑가(충담사) / 제망매가(월명사) 44

02 서경별곡(작자 미상) 46

03 월곡답가(정훈) 49

04 짚방석 내지 마라 ~(한호) / 청초 우거진 골에 ~(임제)
곡구롱 우는 소리에 ~(오경화) 51

05 사랑이 거짓말이 ~(김상용) / 임이 헤오시매 ~(송시열) 남은 다 자는 밤에 ~(송이)
어이 못 오더냐 ~(작자 미상) 53

06 누항사(박인로) 56

07 자도사(조우인) 59

08 덴동 어미 화전가(작자 미상) 63

09 유산가(작자 미상) 66

10 본조 아리랑(작자 미상) / 신고산 타령(작자 미상) 68

11 습수요(이달) / 산민(김창협) 72

12 어부단가(이현보) 74

현대시

01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김소월) / 산곡 – 함주시초 5(백석) 76

02 님의 침묵(한용운) / 모란이 피기까지는(김영랑) 79

03 황혼(이육사) / 쉽게 씌어진 시(윤동주) 82

04 낙화(조지훈) / 플라타너스(김현승) 85

05 도봉(박두진) / 그리운 그 사람(김용택) 87

Contents

06 향아(신동엽) / 폐가에 부쳐(김관식) 90
07 성북동 비둘기(김광섭) / 길(신경림) 93
08 누룩(이성부) / 얼은 강을 건너며(정희성) 96
09 바다와 나비(김기림) / 안개의 나라(김광규) 99
10 참깨를 털면서(김준태) / 배를 매며(장석남) 101
11 이별 이후(문정희) / 강변역에서(정호승) 104
12 파밭 가에서(김수영) / 별을 굽다(김혜순) 107

고전 산문

01 주몽 신화(작자 미상) 110
02 용소와 며느리바위(작자 미상) 114
03 국선생전(이규보) 118
04 이생규장전(김시습) 122
05 서재야회록(신광한) 126
06 설생전(오도일) 130
07 송반궁도우구복(작자 미상) 134
08 소현성록(작자 미상) 138
09 황새결송(작자 미상) 142
10 적벽가(작자 미상) 146
11 계우사(작자 미상) 150
12 제석본풀이(작자 미상) 154

현대 소설

01 달밤(이태준) 158
02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박태원) 162
03 서투른 도적(현진건) 165
04 논 이야기(채만식) 169
05 잔등(허준) 173
06 너와 나만의 시간(황순원) 177
07 후송(서정인) 181
08 도요새에 관한 명상(김원일) 185
09 겨울 나들이(박완서) 189
10 명랑한 밤길(공선옥) 192
11 아주 느린 시간(최일남) 195
12 도도한 생활(김애란) 199

극 · 수필

01 양주 별산대놀이(작자 미상) 202
02 수레 제도(박지원) 206
03 통곡헌기(허균) 210
04 낙치설(김창흡) 212
05 알(이강백) 215
06 불모지(차범석) 218
07 장마(윤흥길 원작, 윤삼육 각색) 221
08 뿌리 깊은 나무(김영현 · 박상연) 225
09 산촌 여정(이상) 228
10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 줍니다(신영복) 231

이 책의 차례

갈래 복합

01 열하기유(서호수) / 연행가(홍순학) 234

02 나무도 바이 돌도 없는 ~(작자 미상)
사씨남정기(김만중) 239

03 의산문답(홍대용) / 추사 글씨(김용준) 244

04 존재의 테이블(나희덕) / 구부러진 길(이준관) 248

05 금 따는 콩밭(김유정) / 토막(유치진) 252

06 최척전(조위한)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윤흥길) 258

07 전기(傳記)의 개념과 구성, 성격
정시자전(석식영암) / 소전(박제가) 264

08 강호사시가(맹사성) / 상춘곡(정극인) / 곡목설(장유) 268

09 산은 적적 월황혼에 ~(작자 미상)
만언사(안도환) / 세 선비의 꿈(성현 엮음) 274

10 문학이 바라보는 역사적 경험 / 고가(정한숙)
산은 알고 있다(신석정) 278

11 '낯설게 하기'와 시의 표현 / 조깅(황인숙)
종소리(이재무) 283

12 현대 소설에서 고향의 의미 / 탈향(이호철)
눈길(이청준) 286

3부 실전 학습

1회 [01~04] 고공가(허전) / 용사음(최현) 294

1회 [05~08] 비유 읽기 방법과 비유의 기능
시(박목월) / 살림(이병률) 298

1회 [09~11] 소대성전(작자 미상) 301

1회 [12~15] 삼대(염상섭) 305

2회 [01~03] 도산십이곡(이황) 309

2회 [04~08] 이름 없는 꽃(신경준)
옹고집전(작자 미상) 312

2회 [09~11] 아마존 수족관(최승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김기택) 317

2회 [12~15] 산거족(김정한) 319

3회 [01~04] 빌려줄 몸 한 채(김선우) / 맨발(문태준) 323

3회 [05~08] 잉여 인간(손창섭) / 불신 시대(박경리) 326

3회 [09~12] 정과정(정서)
개야미 불개야미 ~(작자 미상)
애오잠병서(이달충) 330

3회 [13~15] 옥단춘전(작자 미상) 333

www.ebsi.co.kr

1부

교과서 개념 학습

www.ebsi.co.kr

1강 • 시의 표현과 형식

1 시적 표현

(1) 시적 표현의 개념

- 시의 주제나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는 언어적 진술 방식을 가리킴.
- 비유, 상징, 역설, 반어, 대구, 반복, 설의, 영탄, 도치, 열거, 점층, 생략, 우의, 풍자 등의 표현 기법이 있고, 시행의 배열과 연의 구별 등도 시적 표현에 포함됨.

(2) 시적 표현의 여러 가지 효과

- 음악적인 리듬이 느껴지게 함.
- 시어의 함축성을 높여 의미를 풍부하게 함.
- 어떤 대상을 감각적으로 연상하게 함.
- 상식적인 생각을 뒤집거나 깨뜨림으로써 지적 충격을 줌.
- 재미를 느끼고 웃게 하거나 반대로 슬픈 감정을 환기하게 함.
- 모든 시적 표현은 궁극적으로 화자의 정서나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여함.

▶ 형상화

정서나 교훈, 삶의 이치 등과 같이 분명한 형체로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다양한 방법이나 매체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감 나게 그려 내는 것을 뜻한다. 문학에서는 마음이나 윤리적 덕목과 같은 비가시적인 대상도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난다.

2 시의 형식

(1) 시의 형식의 개념과 특성

- 율격, 시행, 연 등의 요소가 시의 주제나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면서 이루는 전체적인 형태나 구조를 가리킴. 크게 고정된 형식과 자유로운 형식으로 구별됨.
- 시의 형식은 문화적으로 형성된 시 고유의 체계와 관습에 기반을 두고 있음.

(2) 시의 형식의 층위들

- **갈래**: 민요, 시조, 가사, 자유시 등
- **담화 양식**: 독백, 대화, 편지, 전화 통화의 형식 등
- **문학적 기법**: 아이러니(반어), 알레고리(우의) 등
- **구조**: 수미상관, 선경후정, 대칭 등
- **진술 형태**: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 이야기시, 극시 등
- **형태**: 시행 및 연의 배열 등
- **화자-청자의 관계**: 독백, 대화 등
- **시상 전개**: 원경-근경, 외부 풍경-내면세계, 과거-현재-미래 등

▶ 표현과 형식의 관계

시적 표현은 그 의미의 폭이 매우 넓어서 형식의 의미를 포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표현과 형식을 별도의 개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형식을 표현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독백과 대화

독백은 화자가 자신을 청자로 삼아 하는 말이고, 대화는 청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다. 따라서 청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질문, 명령, 청유 등 말을 건네는 형식은 대화에 해당한다. '~입니다' 등의 높임말도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화적 형식에 해당된다.

작품으로 이해하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흔 봄의 향기(香氣)가 어리우도다.

[A]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밋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폭은한 봄졸음이 떠돌아라.

[B]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生氣)가 뛰놀아라.

– 이장희, 「봄은 고양이로다」

(나)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낮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렇게

천연(天然)히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殘光)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 박용래, 「울타리 밖」

[22001-0001]

01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에서 형상화된 고양이의 특징들이 [B]에서 직유 표현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② [A]는 봄의 정경 묘사가 주를 이루는 반면, [B]는 고양이의 외양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③ [A]와 [B]의 각 연들은 고양이와 봄이 가지는 서로 상반된 속성을 강조하여 봄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A]와 [B]는 모두 봄에 대해서는 부드럽거나 고요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나서 역동적이거나 날카로운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⑤ [A]와 [B]는 서로 다른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시상이 전개되어 가면서 봄과 고양이의 유사성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부정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22001-0002]

02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가)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가)의 3연 둘째 행에서 '봄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형식상의 변화로 볼 수 있다.
③ (나)에서는 '마을'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변화하는 마을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1연은 '소년과 / 같이'로 행을 나눔으로써 '소녀'와 '소년'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나)의 2연에 나타난 비유 표현들은 화자가 바라는 삶의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다.

[22001-0003]

03 **(나)의 구성상 특징을 〈보기〉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작품에서 골라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나)를 구성하는 네 개의 연들은 서로 긴밀하게 이어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각 연의 내용들을 서로 이어 주는 장치들이 작용한다. 화자는 먼저 1연에서 '들길'을 바라보며 사랑스러운 감정을 나타내는데, 그 공간적 배경을 2연에서는 지시 관형사를 활용하여 (　　)(으)로 나타내면서 1연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또한 2연에서 사용한 '~듯'의 비유 표현들은 4연에 등장하는 '마을'들과도 연결되는데, 이 연결 속에서 (　　)(이)라는 시어가 2연과 4연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표현들을 관념적인 의미로 연결해 줌으로써 세 연이 긴밀하게 이어지는 데 기여하고 있다.

2강 • 시의 내용

1 시적 화자의 정서

(1) 정서의 개념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기분을 가리킴. 희로애락(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이 대표적인 정서에 해당됨. 시적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반영됨.

(2) 정서의 종류

- 긍정적인 정서: 사랑, 존경, 예찬, 환희, 동경, 희망, 기대 등
- 부정적인 정서: 미움, 분노, 공포, 비애, 우수, 절망, 원망 등

(3) 정서의 특징

- 서정시는 다른 갈래에 비해 화자의 정서가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갈래이며, 정서는 곧 시의 주제가 되기도 함.
- 한 작품 안에는 여러 가지 정서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 지배적인 정서가 있을 수 있음.

◎ 서정시(抒情詩)

서정은 본래 정서를 풀어낸다는 의미를 지닌다. 서정시는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한 시를 가리킨다. 서사시나 극시, 교술시도 있으나 대부분의 시는 서정시에 해당된다.

2 소재

(1) 소재의 개념

- 시를 창작하는 데 바탕이 되는 모든 사물, 인물, 현상, 경험 등을 뜻함.
- 개인적 체험, 자연, 사회 현상, 인생 등 세상의 모든 것이 시의 소재가 됨.
- 한 작품 안에 있는 다양한 소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제재라고도 함.

(2) 소재의 함축적 의미

- 시에서 쓰이는 주요 소재에 해당되는 시어는 대체로 함축적 의미를 지님.
- 함축적 의미는 작품 내·외적 맥락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에서 지시적 의미와 구별됨.
- 함축적 의미는 집단적으로 전승되어 공유된 것도 있고, 시인이 개성적으로 창조해 낸 것도 있음.

◎ 함축적 의미와 지시적 의미

함축적 의미는 지시적 의미와 동떨어진 채 형성되지 않고 오히려 지시적 의미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단어의 지시적 의미를 파악한 뒤 다른 시어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3 태도와 어조

- 태도는 시적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화자가 대응하는 방식을 가리킴. 이러한 태도는 목소리의 결에 해당하는 어조로 나타남.
- 딱딱한/부드러운, 온화한/냉정한, 거만한/겸손한 태도 등이 있고, 농담조/조롱조/고백조, 직설적/반어적 어조 등의 구별이 있으며, 말하는 목적에 따라 질문/감탄/명령/부탁/간청/위로/격려/보고하는 어조 등으로 구별하기도 함.

작품으로 이해하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톨쩌귀* 수톨쩌귀 배목걸쇠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이따금 하 답답할 제면 여닫아 볼까 하노라

– 작자 미상

*장지: 방과 방 사이, 또는 방과 마루 사이에 칸을 막아 끼우는 문.
*돌쩌귀: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 여닫는 데 쓰는 두 개의 쇠붙이.

나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개
산지니 수지니 해동청 보라매 쉬어 넘는 ㉠고봉(高峰) 장성령 고개
그 너머 임이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어가리라

– 작자 미상

[22001-0004]

01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초장에서는 불완전하게 종결되는 문장의 반복으로 율격을 형성하고 있다.
② 중장에서는 서로 연관성 있는 사물들을 열거하여 운율을 조성하고 있다.
③ 초장에서 반복된 구절을 중장에서 다시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④ 초장 및 중장의 화자가 질문하고 종장의 화자가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⑤ 초장과 중장에서는 소망을, 종장에서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2001-0005]

02 **㉠의 의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자의 곁으로 오지 않는 임이 화자에게 내세운 핑계이다.
② 화자로 하여금 임과의 재회를 단념하게 하는 지형적 조건이다.
③ 소식이 끊어진 임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단절감을 표상하는 자연물이다.
④ 임과의 재회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염원을 부각하기 위해 설정된 장애물이다.
⑤ 임을 만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 성취가 불가능함을 암시하는 비유적 소재이다.

[22001-0006]

03 〈보기〉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다. ⓐ와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작품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서정시에서 화자의 정서는 대개 결핍과 그 반대 방향에 있는 충일을 잇는 선 위의 어느 지점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한 작품 안에서 두 가지 이상의 정서가 공존하기도 한다. 가슴에 창을 달고 싶다는 상상적 소망을 형상화하고 있는 (가)에서는 결핍 쪽에 가까이 있는 (ⓐ)함이라는 정서가 지배적으로 나타나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나)에는 두 가지 방향의 정서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은 사랑하는 임이 부재중이라는 정황에서 결핍 쪽에 기울어진 정서가 엿보인다. 그런데 만일 이 작품이 언젠가는 다가올 만남의 순간에 대한 설렘을 보여 준다고 본다면, (ⓑ)(이)라는 표현에서는 충일 쪽에 놓여 있는 정서를 엿볼 수 있다.

3강 • 소설의 서술상 특성

1 소설에서의 서술

사건의 내용을 언어로 나타내는 행위와 그 결과를 뜻하며, 크게 이야기의 구성과 이야기의 전달로 나뉨. 전자는 사건과 사건의 선후 관계나 인과 관계를 짜는 방법이고, 후자는 시점과 거리, 사건과 인물 제시 방식, 문체 등에 대한 전략적 선택과 관련됨.

2 서술상의 특성을 구현하는 요소들

(1) 시점

이야기 속의 인물 및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위치와 이야기 전달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됨.

서술자의 위치 \ 이야기 전달 방법	인물 및 사건의 내면적 분석	인물 및 사건의 외부적 관찰
서술자가 작중 인물인 경우	주인공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경우 → 1인칭 주인공 시점	주변 인물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경우 → 1인칭 관찰자 시점
서술자가 작중 인물이 아닌 경우	서술자가 이야기 외부의 전지적 존재로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거나 인물 및 사건을 논평하는 경우 → 전지적 서술자 시점	서술자가 이야기 외부의 관찰자로서 시선에 포착되는 장면이나 겉으로 드러난 말에 국한하여 서술하는 경우 → 3인칭 관찰자 시점

초점화자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 특정 인물을 초점화자라고 한다. 초점화자는 네 가지 유형의 시점을 취하는 소설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

거리

거리는 소설을 매개로 한 소통에 참여하는 작가, 독자, 서술자, 인물의 사이가 가깝거나 먼 정도를 가리킨다. 대체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에서는 서술자의 주관이 생생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가깝고,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에서는 서술자의 객관적 태도로 인해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멀어진다.

(2) 사건과 인물 제시 방식

서술자가 사건이나 인물을 드러내는 방식은 말하기(telling)와 보여 주기(showing)로 구별됨. 전자는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사건, 인물의 성격, 상황을 설명·해설·요약·논평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주로 서술자가 인물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서술하는 방법임.

(3) 문체

작가가 언어를 구사하는 개성적인 방식을 가리킴. 구어와 문어, 관념적인 단어와 구체적인 단어, 수식어가 많은 문장과 수식어가 적은 문장, 긴 문장과 짧은 문장, 부드러운 표현과 딱딱한 표현, 직설적 표현과 함축적 표현, 표준어와 방언 중 어떤 것이 주로 구사되는지 등에 의해 결정됨.

(4) 어조와 태도

특정 인물이나 작중 현실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가 어조를 통해 나타남. 반어적·풍자적·냉소적·비판적·동정적·호의적·낙천적·해학적 태도 등으로 나타남.

작품으로 이해하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허 생원은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얼금뱅이 상판을 쳐들고 대어설 숫기도 없었으나 계집 편에서 정을 보낸 적도 없었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 충줏집을 생각만 하여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밑이 떨리고 그 자리에 소스라쳐 버린다. 충줏집 문을 들어서 술좌석에서 짜장* 동이를 만났을 때에는 어찌 된 서슬엔지 빨끈 화가 나 버렸다. 상 위에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계집과 농탕치는 것을 보고서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녀석이 제법 난질꾼인데 꼴사납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돌아다니누나. 그 꼴에 우리들과 한몫 보자는 셈이지. 동이 앞에 막아서면서부터 책망이었다. 걱정두 팔자요 하는 듯이 빤히 쳐다보는 상기된 눈망울에 부딪힐 때 결김에 따귀를 하나 갈겨 주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다. 동이도 화를 쓰고 팩하게 일어서기는 하였으나 허 생원은 조금도 동색하는 법 없이 마음먹은 대로는 다 지껄였다. 어디서 줏어먹은 선머슴인지는 모르겠으나, 네게도 아비 어미 있겠지. 그 사나운 꼴 보면 맘 좋겠다. 장사란 탐탁하게 해야 되지, 계집이 다 무어야. 나가거라 냉큼 꼴 치워.

그러나 한마디도 대거리하지 않고 하염없이 나가는 꼴을 보려니 도리어 측은히 여겨졌다. 아직도 서름서름한 사인데 너무 과하지 않았을까 하고 마음이 섬짓해졌다.

(중략)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두 도무지 알 수 없어."

허 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 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 왔다. 그렇다고 싫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 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B]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붓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께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 선 동이에게는 확적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장 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줏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

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나,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지." / "팔자에 있었나 부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놈팽이가 있는 것두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단 말야. 짐작은 대고 있었으나 성 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날 판인 때였지. 한집안 일이니 딸에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련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인지로 줄행랑을 놓은 건 그 다음 날이렷다."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왼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판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꼴은 꿩 궈 먹은 자리야.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어. 항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두 진저리 나지…… 그러나 늘그막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드는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구 이 생애와두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벌이구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래야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산길을 벗어나니 큰길로 틔어졌다. 꽁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총각두 젊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렷다. 충줏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설게 생각 말게."

"처,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웬 제격인가요.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허 생원의 이야기로 실심해한 끝이라 동이의 어조는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다.

"아비 어미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붙이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 "그런 법이 세상에."

생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껄껄들 웃으니 동이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는 없었다.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짜장: 과연. 정말로.
*대궁: '대'의 방언. 꽃을 받치는 줄기.
*장도막: 한 장날로부터 다음 장날 사이의 동안을 세는 단위.
*가제: 갓.
*확적히: 정확하게 맞아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게.

[22001-0007]

01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여러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면서 사건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②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에 거리를 두면서 인물의 행동만을 묘사하고 있다.
③ 특정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사건에 대한 자신의 내면을 고백적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④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주로 특정 인물의 시각을 중심으로 인물 간 갈등을 전하고 있다.
⑤ 부도덕한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고 사건에 대한 논평을 통해 성격적 결함이 드러나게 하고 있다.

[22001-0008]

02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허 생원은 충줏집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
② 조 선달은 장돌뱅이 생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정착의 의지를 드러낸다.
③ 산길을 벗어난 직후 동이의 실수를 지적하는 허 생원에게 동이는 사과한다.
④ 성 서방네 처녀와의 인연으로 인해 허 생원은 봉평에 대한 애착을 지니고 있다.
⑤ 조 선달은 허 생원에게 여러 번 들은 이야기를 싫은 내색 없이 맞장구를 치며 듣는다.

[22001-0009]

03 〈보기〉는 수업의 한 장면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쓰시오.

보기

학생: 선생님, 어떤 비평가는 이효석 작가에 대해 '소설의 형식을 가지고 시를 읊은 작가'라고 평가했던데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선생님: 이효석 작가의 소설에서 서정적이고 감각적인 문체가 그만큼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B]를 한번 볼까요? 작가는 세 사람이 걷는 밤길의 풍경을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색채의 뒤섞임이 눈에 띄네요. 어떤 소재를 통해 어떤 색채를 드러내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4강 • 소설의 내용 구성 요소

서사(敍事)

서사는 본래 '일을 순서대로 행하다.', '일을 차례대로 펼치다.'라는 의미이다. 서사 문학은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선후 관계와 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 소설은 서사 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갈래이다.

1 인물

(1) 인물의 개념

- 인물은 흔히 성격(character)이라고도 하지만, 인물은 외부에서의 관찰 대상을, 성격은 그 인물의 내적 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둘을 구별하기도 함. 이때 성격은 작품에서 인물이 수행하는 고유한 역할을 통해 드러나는 개성을 뜻함.
- 인물의 성격은 어떤 사건 속에서 보이는 그의 말과 생각, 행동, 그리고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드러남.

(2) 인물의 말과 생각, 행동

- 인물의 말과 생각에는 그의 자연관, 인간관, 처세관 등의 가치관이 담겨 있음. 인물의 말과 생각은 직접 인용의 형식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간접 인용의 형식으로 제시되기도 함.
- 인물의 행동 또한 그의 가치관을 표상하며 어떤 의도나 상황의 산물임. 행동은 서술자의 말로도 드러나고 인물의 말로도 드러남.

2 사건

(1) 사건의 개념

작품 속에서 발생하고 진행되는 온갖 일들을 가리킴. 대개 한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결합되어 연속적으로 전개됨. 인물들의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고, 인물들의 행동이 곧 사건으로 제시되기도 함.

(2) 사건의 연쇄

스토리와 플롯

여러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을 '스토리(story)'라고 하고, 여러 사건이 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플롯(plot, 구성)'이라고 한다. 뒤에 일어난 사건을 먼저 일어난 사건보다 더 앞에 배치할 수도 있으므로, 하나의 스토리도 서로 다른 플롯으로 제시될 수 있다.

-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사건들은 선후 관계만을 맺기도 하고 인과 관계를 맺기도 함.
- 사건의 인과 관계를 바탕으로 플롯이 만들어지고, 플롯은 일반적으로 '발단 – 전개 – 위기 – 절정 – 결말'의 단계를 갖춤.

3 배경

(1) 배경의 개념

- 공간적 배경은 사건이 일어나는 곳의 지리적 위치나 구체적인 장소를, 시간적 배경은 인물의 행동이 연출되고 사건이 벌어지는 시대, 시기, 계절, 밤·낮 등의 시간을 말함.
- 사회 현실이나 역사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사회적 배경, 작중 인물의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심리적 배경, 어떤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적 배경도 있음.

(2) 배경의 기능

인물의 행동과 사건에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로서,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작품의 주제 구현에 기여함. 또한 독자로 하여금 생동감을 느끼게도 하며, 배경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도 함.

작품으로 이해하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호장이 군사들에게 호령해 일시에 불을 지르니, 화약 터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며 사방에 불이 일어나 화광이 충천했다. 이때 박 씨가 계화에게 명해 옥병수를 던지게 하고, 왼손에 옥화선을, 오른손에 백화선을 들고 오색실로 부적을 매어 화염 속에 던졌다. 그러자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화염이 도리어 호진 쪽으로 향했으며, 호국 군사들 중 화염에 싸여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고 불에 타 죽은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더라. 용골대가 크게 놀라 급히 군사들을 물러나게 하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조선에 나온 뒤 칼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호통 소리 한 번에 조선의 항복을 받았는데, 어찌 일개 아녀자가 불쌍한 동생을 죄 없이 죽이고 십만 대병마저 거의 죽였으니, 더할 나위 없이 분하다. 무슨 면목으로 우리 대왕과 왕비를 뵙겠는가?"

이에 한우가 통곡하고는 여러 장수를 불러 의논했다.

"아무리 해도 저 여자를 당해 낼 수가 없구나. 저 여자에게 복수하기는커녕 항복도 받을 수가 없으니, 이제라도 급히 행군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구나."

호군들이 장안의 미색들과 왕비와 세자 삼 형제를 강제로 이끌고 호국으로 떠나려 하니, 온 백성의 통곡 소리가 장안에 진동했다. 이때 박 씨가 계화에게 명령해 적진을 향해 크게 외치게 했다.

"무지한 오랑캐 놈은 들어라. 너희 왕이 무도해 너 같은 젖비린내 나는 놈을 보내 존귀한 우리나라를 침략하니,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패배했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가느냐? 만일 우리 왕비를 데려가면 내가 너희를 모조리 죽일 것이니, 목숨을 보전하려거든 모셔 가지 마라."

호장이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네 말이 하찮고 가소롭도다. 우리가 이미 네 국왕에게 항서를 받았으니,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우리 마음이로다. 그러니 그런 말은 하지도 마라."

이렇듯 호장이 수없이 능욕하니, 계화가 또다시 외쳐 말했다.

"너희가 한사코 내 말을 거역하려 한다면 우선 내 재주부터 보아라."

계화가 말을 마치고 무슨 진언을 두어 번 외우니, 갑자기 공중에서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나며 급한 큰비가 억수로 쏟아져 천지가 아득했다. 또한 눈보라가 크게 일어나고 우박이 담아 붓듯이 쏟아지더니 순식간에 소나기와 우박이 얼음이 되어 호적의 말굽은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고 사람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호장이 그제야 깨닫고 말했다.

"당초 군사를 일으킬 때 우리 왕비께서 분부하시기를, '조선에 나가거든 우의정 집 후원은 절대 범하지 말라.'하셨다. 그런데도 짐짓 깨닫지 못하고 순간의 분노만 생각하다가 왕비의 분부를 거역해 화를 당하여 십만 대병을 태반이나 죽이고 죄 없는 동생을 죽였구나. 무슨 면목으로 대왕과 왕비를 뵙겠는가? 상황이 다급하게 되었으니, 지금이라도 박 씨에게 비는 것이 좋겠소."

호장들이 말에서 내려 스스로 손을 묶고 팔문진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애걸하며 말했다.

"소장들이 군사를 일으켜 조선에 들어와 사방을 돌아다녔으되 한 번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 신명하신 박 부인께 무릎을 꿇고 비나이다."

그러고는 또 애걸했다.

"부인의 말씀이 왕비는 데려가지 말라 하시니, 분부대로 할 것입니다. 이제 길을 열어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소서."

호장들이 여러 번 간절히 애걸하니, 박 씨가 그제야 주렴을 걷고 크게 꾸짖어 말했다.

"너희를 씨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여 없애려 했으나, 내가 부득이 천명에 따라 너희를 용서하노라. 우리나라가 불행해 너희에게 강화를 당했으나, 무엇 때문에 우리 왕비를 모셔 가려 하느냐? 너희 말대로 왕비는 모셔 가지 마라. 너희가 부득이 세자를 모셔 간다고 하니, 이 또한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거니와 부디 조심해서 모시고 가라. 나는 여기 앉아서도 만 리 밖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불편하게 모시면 내가 신장을 보내 너희 왕과 죄 없는 백성을 모두 함몰하겠노라. 부디 내 말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명심하기 바라노라."

[중략 부분 줄거리] 박 씨는 호장들과 호국 군대를 보내며 의주에 있는 임 장군을 만나고 가라고 명령한다. 마침 도성의 소식을 듣고 급히 내려오던 임 장군은 호장들과 호국 군대를 만나게 되고 임 장군은 호국 군대를 크게 무찌른다.

이때 임 장군은 호국 장졸들을 단칼에 무찌르고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는데 사자가 와서 임금의 전교를 드렸다. 장군이 북향 사배하고 받들어 보니 이러했다.

"오호라, 국운이 불행해 모월 모일에 호병이 달려들어 도성을 습격함에 짐은 남한산성으로 피난했으나, 호국의 십만 대병이 들어와 호장의 호통 한마디에 어쩔 수 없이 강화를 했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하늘이 정한 운명인 듯하도다. 매우 분하고 한심하나 이미 끝난 일이다. 경의 충성이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 경은 길을 열어 호장을 돌려보내라."

임 장군이 다 읽고 나서 칼을 던지고 대성통곡하며 말했다.

"아아, 슬프다. 조선 만고의 소인이 국권을 농락해 이처럼 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명천은 어찌 이토록 무심하시오?"

통곡을 그친 장군이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다시 칼을 들고 나가 호장을 사로잡아 땅에 엎어뜨리며 꾸짖어 말했다.

"네 나라가 지금까지 지탱하게 된 데 우리 조선의 도움을 받은 줄도 모르고 무지한 오랑캐 놈이 이처럼 하늘의 뜻을 어기고 우리나라를 침략했으니, 네놈들을 씨도 없이 다 죽이려 했으나 이미 강화를 맺었기에 왕명을 거역하지 못해 너희를 살려 보내노라. 그러니 부디 세자와 대군을 평안히 모셔 가서 착실하게 공경하라."

임 장군은 한 번 통곡한 뒤 문을 열어 호국 군사들을 내보냈다.

– 작자 미상, 「박씨전」

[22001-0010]

0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용골대는 동생의 죽음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였다.
② 용골대는 호국 왕비의 분부를 지키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다.
③ 계화는 박 씨의 명령을 받고 호국 군사들에게 도술을 부렸다.
④ 박 씨는 왕비와 세자를 모셔 가지 말 것을 호장에게 명령하였다.
⑤ 임 장군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 호국 군사들을 살려 보내기로 하였다.

[22001-0011]

0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ㄱ~ㅁ이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보기

ㄱ. 호장이 조선의 왕에게 항서를 받음.
ㄴ. 호국의 십만 대병이 조선을 침략함.
ㄷ. 임 장군이 조선의 왕으로부터 전교를 받음.
ㄹ. 호장들이 박 씨에게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함.
ㅁ. 계화의 공격을 받아 호국 군사들 상당수가 죽음.

(→ → → →)

[22001-0012]

03 〈보기〉의 ㉠에 들어갈 알맞은 어구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작자 미상의 「박씨전」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군담 소설로, 여성 영웅인 박 씨의 초인적인 능력을 통해 호국에게 당한 치욕스러운 패배를 소설 속에서나마 설욕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대리 만족을 느끼게 했던 작품이다. 특히 이 글에 등장하는 (㉠)은/는 호국 군사들이 침범했던 공간으로, (㉠)에 대한 침범을 계기로 박 씨와 계화의 영웅적 활약상이 드러나게 된다.

( )

5강 • 극의 특성과 극문학의 구성 요소

1 극의 특성

- 극은 희곡이나 시나리오를 대본으로 삼아 인간의 갈등을 배우의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하므로 '행동의 문학' 또는 '현재화된 인생 표현'으로 불림.
- 극은 배우와 무대, 촬영 기법, 관객 등의 요소를 염두에 두고 구성됨.
- 극은 갈등의 예술이라 할 정도로 한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나 인물 간 갈등의 생성, 전개, 해결 또는 해소가 극의 전개에서 중요한 축이 됨.
- 극에서 갈등은 중심 사건을 주도하고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주동 인물과 그를 방해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반동 인물 사이에서 주로 일어남.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의 대사와 행동에서 갈등이 제시되어야 극적인 효과가 선명하게 드러남.

2 희곡과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

(1) 대사

- 등장인물의 말을 가리킴. 인물 사이에 전개되는 '대화', 상대역이 없는 가운데 등장인물이 혼자 말하는 '독백'이 있음. 연극에서는 등장인물이 자신의 의도나 생각을 관객에게 말해 주되 무대 위 다른 인물은 듣지 않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방백'이 있음.
- 극 중 인물의 성격과 생활 환경, 신분 등을 드러내고, 플롯을 진전시키며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수단이 됨. 무대에 재현되지 않는 사건도 대사에 의해서 드러날 수 있음.

(2) 행동

- 극에서 등장인물은 대사를 구사하며 의사를 표현하고, 몸을 움직여 상황을 만듦. 대사 없이 행동만으로 상황과 정서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음.
- 등장인물의 행동은 표정이나 어조와 함께 지시문을 통해 알려 줌.

◎ 지시문(지문)

희곡에서 지시문은 행동 지시와 무대 지시로 구분된다. 행동 지시는 등장인물의 동작, 표정, 어조, 위치 등에 관한 지시이고, 무대 지시는 무대 장치의 변화, 소도구의 처리, 음향, 조명 등에 관한 지시이다. 시나리오에서는 지시문이 촬영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촬영 기법, 편집 방식을 드러낸다.

3 희곡과 시나리오의 비교

희곡	시나리오
• 연극의 대본 • 무대라는 조건으로 인해 시간적·공간적으로 제약이 크고, 등장인물의 수도 제한됨.	•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 •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등장인물의 수에서도 제약을 덜 받음.

작품으로 이해하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시키려는 가족이 유령 회사를 차려 놓고, 착하면서도 약간 미련한 사람이 사원으로 지원하기를 바란다. 이후 옛 애인으로 인해 억울하게 절도 횡령죄를 뒤집어쓰고 전과자가 된 청년이 취직을 하러 유령 회사로 찾아온다.

청년: 그럼 저를, 저 같은 전과자라두 채, 채용하시겠단 말씀입니까?

사장: 자네 사정이 그러니 낸들 오불관언으로 내버려 둘 순 없잖어, 헛헛……. 난 자네의 정직하구 착실한 게 마음에 든단 말야.

청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하겠습니다. 일생을 두고.

사장: (사무실로 나오며) 자, 이리 나오게. 사원들을 소개할 테니. (갑, 을, 병, 정을 차례로 가리키며) 이분이 전무, 이분이 무역과장, 이분이 회계과장, 이분이 타이피스트……. 군의 이름은 뭐랬지?

청년: 이창수라고 불러 주십쇼.

사장: 어, 이창수. 오늘부터 우리 사원이니 그리 아슈. 그러구 회계과장. / **사원 병:** 네.

사장: 당장 용돈두 필요할 테니 이달 월급일랑 선불하도록 하쇼. 우리 회산 외국인 상대라 옷채림두 단정히 해야거든. 우선 양복두 한 벌 짓구 구두두 매게구.

사원 병: 현금은 딸라 지폐밖에 없는뎁쇼. / **사장:** 더욱 좋지. 왜 딸라 못 쓴댔어?

청년: (사원 정에게) 아씨, 염려하신 덕분으로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사원 정: 참 잘됐군요. / **사원 병:** 그럼 이게 이달 월급입니다. 백 딸라.

청년: ㉡백 딸라! 이렇게 많이 주셔요? 이게 우리 돈으로 얼맙니까?

사원 병: 흐흐…… 당신이 좋으면 우리도 좋으니까……. / **사원 갑:** 그럼 오늘은 일찌감치 퇴근해두 괜찮소. 별로 일도 없으니까. / **사원 을:** 양복점하구 양화점은요, 길가 바로 맞은편에 있으니까…….

사원 병: 어디 미끈허니 갈아입어 보쇼. 예쁜이가 뭐라고 허나.

청년: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아씨. (복도로 퇴장)

사원 정: 꼭 성공하셔요. / **사원 병:** (사원 정의 목소리로) ⓐ그래야 우리도 산답니다.

(중략)

사원 병: 아버지, 왔어요, 왔어. / **사장:** 누가 왔다구 야단들이냐? / **사원 정:** 아녜요, 아버지. (귓속말)

사장: 글쎄 그럴 줄 알었지. 사람 놈이 너무 미련하더라. 얘들아, 실수했단 안 된다. 자칫하단 아버지 아들 할 것 없이 다아 떼 가구 밑천 놓는 판이다. 정신 바짝 채리구 아예 사장이니 과장이니 해선 못 쓴다. / **일동:** 네, 아버지. / (청년과 형사, 복도로 등장)

형사: 여기냐? / **청년:** 네. / **형사:** 틀림없지? / **청년:** 틀림없어요. 여기서 받았어요. (노크)

사장: 너, (사원 갑에게) 가서 문을 열어라. 그리구 너희들은 살림방을 꾸미는 척하구 있어.

사원 을: 아버지, 난, 난 자꾸만 떨려. 그냥 달아나 버리죠, 아버지.

사장: 에끼 못난 자식! 사내 녀석이 그래가지구서야 어데다 쓰겠니?

(사원 갑, 왼쪽에 있는 도어를 연다. 형사와 청년, 들어선다.) / **형사**: 사장 계십니까? / **사원 갑**: 사장이요?

형사: 회사 책임자 말이오. / **사원 갑**: 우리 아버지 말씀이오? 세대주는 아버지올시다만 어데서 오셨죠?

형사: 용산서원인데요, 저 여기가 간편무역사죠? / **사원 갑**: 간편무역사?

청년: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전무입니다. 그리구 회계과장이 제 지장을 찍구 돈을 내주셨어요. 그렇죠, 전무 선생님?

형사: 지금 말이 옳습니까? / **사원 갑**: 전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청년: 아까 그러지 않았어요, 왜.

형사: 헛헛……. 이 젊은 친구가 아직두 발악을 합니다그려. 저, 사장을 잠깐…….

사원 갑: 그런 분은 없다니까요. / **형사**: 참, 사장이 아니라 춘부장을 좀 봤으면 합니다.

사원 갑: 네, 그러시죠. 아버지, 손님 오셨습니다. / **사장**: 오냐, 침대 맡긴 것 가져왔느냐? (나온다.)

청년: 오! 사장님! / **형사**: 선생이 간편무역 사장이십니까? / **청년**: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루…….

사장: 잘못 아시구 오신 모양이군. / **사원 갑**: 용산서에서 오셨어요.

사장: ㉢나한테? 무슨 일루? / **형사**: 이 남자가 선생 회사에 취직했다는뎁쇼.

사장: 천만에! 대체 누구입니까? 이 남자는 난 생면부지올시다.

청년: 아닙니다. 사장,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금방 제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전 여기 사원이에요, 사장. / **형사**: (뺨을 갈기며) 임마, 아직두 거짓말이야. 응?

청년: 아녜요. 나으리는 몰라요, 나으린! 아씨! 회계과장 증인이 있습니다. 아씨! 아씨가 아십니다. 회계과장이 한 달 월급을 선불해 주시구, 양복을 사 입으라구 딸라 지폐를 주셨어요!

형사: 임마, 떠들지 말어. 글쎄 이 미련한 친구가 누굴 속여 보겠다구 백 불짜리 지폐를 위조해 가지구 백주에 서울 네거리를 횡행합니다그려. 헛헛……. 그러군 월급을 받았다? ㉣(머리를 갈기며) 임마, 뭐 양복을 짓겠다구? 가짜 돈을 찍으려면 남이 봐두 그럴듯하게 맨들어. 진짜 백 불짜린 구경도 못 했을 자식이. 가자, 임마. 실례 많았습니다. / **사장**: 원, 천만에요.

청년: 사장! 나으리! 제겐 아무 죄도 없어요. 제발. 미련은 하지만 나쁜 짓을 한 적은 한 번두 없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이구 그 지긋지긋한 감옥살일 어떻게 허라구 이러십니까? 이러시길. 사장! 구두두 사서 신구 양복두 새로 맡기구 추천서두 일없고 신원 보증두 일없다고 그러시지 않었어요. 사장! 아씨를 만나게 해 주세요, 아씨를. 아씨는 거짓말을 안 하실 겁니다. 아씨! 아씨!

형사: 임마, 떠들지 말어, 가자! (억지로 끌고 나간다.)

청년: ㉤(복도로 해서 오른쪽으로 끌려가며) 회계과장, 아씨, 사장. 왜 제게 취직자리를 줬어요. 취직만 안 했더라면 감옥에도 안 가고…… 감옥엘, 감옥엘…… 저 사자앙…… 너무합니다. 사자앙!

(사장과 사원 갑, 사장실로, 사원 정은 복도로 가서 청년이 간 뒤로 물끄러미 바랜다.)

사장: 결국 또 실패지. 이번엔 얼마나 찍었드냐? / **사원 갑**: 시험 삼아 삼백 장만 찍었어요.

사장: 흥, 삼만 불이로구나. (지갑에서 진짜를 꺼내 대조하며) 어디가 다른가 좀 자세히 보아라.

사원 갑: 도안이 좀 이상하다 했더니만.

– 오영진, 「정직한 사기한*」

*사기한(詐欺漢): 습관적으로 남을 속여 이득을 꾀하는 사람. 사기꾼.

[22001-0013]

01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청년을 속인 것에 대한 도덕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②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부각하고 있다.
③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청년의 수행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표출하고 있다.
⑤ 자신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을 보여 주고 있다.

[22001-0014]

02 **윗글을 연극으로 상연한다고 할 때, 연출자의 계획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생각하지도 못한 호의를 받게 되어 기쁜 상황이므로, 감격에 겨워하는 듯한 표정이 적절하겠군.
② ㉡: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과 다른 것을 상대방이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맘에 들지 않는다는 듯한 어투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해.
③ ㉢: 낯선 이의 방문과 자신이 관련이 없음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므로, 벌어진 상황에 대해 의아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 해.
④ ㉣: 상대방의 말이 거짓임을 확인하게 된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태도로 세차게 때리는 동작이어야 하겠어.
⑤ ㉤: 뜻하지 않게 범죄자가 되어 붙잡혀 가는 상황이므로, 억지로 끌려가며 억울해하는 표정이 역력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22001-0015]

0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제목이 지닌 의미를 '청년'의 경우에 적용하여 서술하시오.**

보기

'모순 형용'은 의미상 서로 반대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말을 함께 사용하여 독특한 효과를 노리는 표현상의 기교를 말한다. 이러한 모순 형용의 개념을 활용하여 '정직한 사기한'이라는 제목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6강 • 교술 문학의 특성과 구성 요소

1 교술 문학의 특성

- 자유로운 형식과 다양한 표현 방식을 가진 문학 갈래로서, 전문적인 작가가 아닌 사람들도 쉽게 쓸 수 있음. '수필'로 지칭되는 글이 대표적인 교술 문학임.
-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글쓴이의 자기 성찰과 사유가 분명히 드러나고, 작품 속의 '나'는 원칙적으로 글쓴이 자신임.
- 교훈이나 가르침[교(敎)], 설명이나 알림[술(述)]을 목적으로 창작되며, 다른 갈래에 비해 글쓴이의 가치관이 더 분명히 드러남.

▶ 수필

수필(隨筆)은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라는 뜻으로, 본래는 어떤 글의 갈래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었다. 문학의 분류에 대한 이론이 발전하면서 서정, 서사, 극을 제외한 나머지 산문적인 글을 통칭하는 갈래 명칭으로 굳어져 쓰이고 있다.

2 교술 문학의 구성 요소

(1) 형식

-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임.
- 일반적인 서술 형식 외에도 일기, 편지, 기행문, 이야기 등의 형식이 차용되기도 함.

(2) 표현과 문체

- 비유(의인화 포함), 상징, 역설, 반어 등의 시적인 표현은 물론이고 설명, 논증, 묘사 등의 기법도 동원하여 글쓴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함.
- 대화를 삽입하여 소설이나 극의 형식을 취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기도 함.
- 다양한 표현 자질들은 어휘의 종류, 문장의 길이 등에 의해 형성되는 문체적 특성과 결합하여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함.

(3) 주제

- 교술 문학의 내용과 주제는 일상적 경험에서 얻는 주관적인 감상에서부터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와 성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함.
- 교술 문학의 주제에는 글쓴이의 개성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포착된 인간의 삶에 대한 진실이 함축되어 있음.
- 교술 문학은 다른 갈래에 비해 주제가 더 명시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음.

작품으로 이해하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세차(維歲次) 모년 모월 모일에 미망인 모씨는 두어 자 글로써 침자(針子)에게 고하노니, 인간 부녀의 손 가운데 종요로운 것이 바늘이로되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한 바이로다.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은 나의 정회가 남과 다름이라. 오호통재(嗚呼痛哉)라,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 지 우금(于今) 이십칠 년이라 어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리오. 슬프다.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行狀)*과 나의 회포를 총총히 적어 영결(永訣)하노라.

연전(年前)에 우리 시삼촌께옵서 동지상사(冬至上使)* 낙점(落點)을 무르와 북경을 다녀오신 후에 바늘 여러 쌈을 주시거늘, 친정과 원근 일가(一家)에게 보내고 비복(婢僕)들도 쌈쌈이 낱낱이 나눠 주고, ㉡그중에 너를 택하여 손에 익히고 익히어 지금까지 해포 되었더니, 슬프다. 연분이 비상하여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으되 오직 너 하나를 연구(年久)히 보전하니,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지 아니하리오. 아깝고 불쌍하며 또한 섭섭하도다. 나의 신세 박명하여 슬하에 한 자녀 없고 인명이 흉완(凶頑)*하여 일찍 죽지 못하고, 가산이 빈궁하여 침선(針線)에 마음을 붙여, 널로 하여 시름을 잊고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더니 ㉢오늘날 너를 영결하니, 오호통재라, 이는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하심이로다.

아깝다 바늘이여, 불쌍하다 바늘이여, 너는 미묘한 품질과 특별한 재질을 가졌으니, 물중의 명물이요, 철 중의 쟁쟁(錚錚)이라. 민첩하고 날래기는 백대의 협객이요, 굳세고 곧기는 만고의 충절이라. ㉣추호(秋毫) 같은 부리는 말하는 듯하고, 두렷한 귀는 소리를 듣는 듯한지라. 능라(綾羅)와 비단에 난봉(鸞鳳)과 공작(孔雀)을 수놓을 제, 그 민첩하고 신기함은 귀신이 돕는 듯하니, 어찌 인력이 미칠 바리오. 오호통재라. 자식이 귀하나 손에서 놓일 때도 있고, 비복(婢僕)이 순하나 명을 거스를 때 있나니, ㉤너의 미묘한 재질이 나의 전후(前後)에 수응(酬應)함을 생각하면, 자식에게 지나고 비복에게 지나는지라. 천은(天銀)으로 집을 하고 오색으로 파란을 놓아 곁고름에 채였으니 부녀의 노리개라. 밥 먹을 적 만져 보고 잠잘 적 만져 보아 널로 더불어 벗이 되어, 여름낮에 주렴(珠簾)이며 겨울밤에 등잔을 상대하여, 누비며 호며 감치며 박으며 공그릴 때에 겹실을 꿰었으니 봉미(鳳尾)를 두르는 듯, 땀땀이 떠 갈 적에 수미가 상응하고, 솔솔이 붙여 내매 조화가 무궁하다. 이생에 백년 동거하렸더니, 오호애재(嗚呼哀哉)라, 바늘이여.

금년 시월 초십일 술시(戌時)에, 희미한 등잔 아래서 관대(冠帶) 깃을 달다가 무심중간(無心中間)에 자끈동 부러지니 깜짝 놀라와라. 아야 아야, 바늘이여, 두 동강이 났구나.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이 산란하여, 마음을 빻아 내는 듯, 두골(頭骨)을 깨쳐 내는 듯 이윽도록 기색혼절(氣塞昏絕)하였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만져 보고 이어 본들 속절없고 하릴없다. 편작(扁鵲)*의 신술(神術)로도 장생불사 못하였네. 동네 장인(匠人)에게 때이련들 어찌 능히 때일쏜가? 한 팔을 베어 낸 듯, 한 다리를 베어 낸 듯, 아깝다 바늘이여, 옷섶을 만져 보니 꽂혔던 자리 없네. 오호통재라, 내 삼가지 못한 탓이로다.

무죄한 너를 마치니 백인이 유아이사라*, 누구를 한하며 누구를 원(怨)하리오. 능란한 성품과 공교한 재질을 나의 힘으로 어찌 다시 바라리오. 절묘한 의형은 눈 속에 삼삼하고 특별한 품재(稟才)는 심회가 삭막하다. 네 비록 물건이나 무심치 아니하면, 후세에 다시 만나 평생 동거지정(同居之情)을 다시 이어 백년고락(百年苦樂)과 일시생사(一時生死)를 한가지로 하기를 바라노라. 오호통재라.

– 유씨 부인, 「조침문」

* **행장**: 죽은 이의 평생 내력을 적은 글.
* **동지상사**: 해마다 동짓달에 중국에 보내던 사신의 우두머리.
* **흉완**: 흉악하고 모짊.
* **편작**: 중국 춘추 시대의 이름난 의사.
* **백인(伯仁)이 유아이사(由我而死)라**: 백인이 나로 말미암아 죽었네. 어떤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죽음에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22001-0016]

01 **〈보기〉는 윗글의 형식과 관련된 설명이다.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단락을 찾아 쓰시오.**

보기

조문(弔文)은 본래 죽은 사람의 생전의 공덕을 기리고 사후에 저승에서 명복(冥福)을 누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글이다. 「조침문」은 이러한 조문의 형식을 빌려 와서 두 동강으로 부러진 바늘을 애도하는 글로서, 이 중에서 바늘의 공덕은 (ⓐ) 번째 단락에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

[22001-0017]

02 **〈보기〉는 윗글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 ⓐ와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찾아 쓰시오.**

보기

교술 문학에서는 실재적인 시 · 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글쓴이가 직접 겪은 사건을 소재로 삼는 경우가 많다. 「조침문」에서는 글쓴이가 아껴 왔던 바늘이 부러지는 사건이 창작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다만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으)로 명시되어 있는 데 반해 (ⓑ)(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 공간이 규방 혹은 안방이라는 점이 암시적으로만 제시되어 있다.

[22001-0018]

03 **문맥을 고려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바늘과 함께한 세월의 지속성을 강조하여, 그 바늘에 대한 애도가 필요하다는 글쓴이의 인식을 정당화하고 있다.

② ㉡: 바늘과 맺은 인연의 각별함을 부각하여, 글쓴이가 한낱 물건에 불과한 바늘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③ ㉢: 초월적 존재의 힘에 대한 긍정을 통해, 바늘과의 영원한 이별을 보편적인 섭리에 따른 일로 수긍하려는 글쓴이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 바늘의 형상을 생명체에 빗대어 표현하여, 글쓴이가 평소에 바늘을 자신과 교감을 나누는 인격체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⑤ ㉤: 자식 및 비복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침선을 성공적으로 하게 된 공을 바늘에게 돌리려는 의도를 보여 주고 있다.

7강 • 작품의 작가 및 독자 맥락

1 작가 맥락

(1) 자기표현으로서의 문학

- 작가는 불행한 일, 부끄러운 일, 자랑스러운 일, 감격적인 일 등 어떤 사건을 보거나 겪었을 때 소통의 욕구나 치유의 의지 등을 바탕으로 이런 경험들을 작품으로 형상화함. 따라서 문학 작품은 작가의 체험, 사상, 감정의 표현물로 볼 수 있음.
- 이때 작가의 창작 동기, 전기적 사실, 심리 상태 등이 작품 이해의 주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 독자는 '누가, 그 사람의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왜 썼는가?' 하는 물음을 통해 작품에 접근할 수 있음.

◎ 표현론

작가 맥락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에 접근하는 관점을 '표현론'이라고 한다. 문학 작품에 대한 외재적 관점 중의 하나이다.

(2) 작가 맥락의 요소

- 작가의 사회적 정체성: 작가의 출신 및 성장 지역, 성, 성장기의 계층적 특성, 생애 주기별 역사적 사건, 직업 등의 사회적 경험, 동일 세대의 역사적 특수성 등
- 작품의 창작 동기: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게 된 특정한 계기나 상황

2 독자 맥락

(1) 문학의 미적, 인식적, 윤리적 효용

- 독자는 문학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정서적인 감흥과 미적인 감동을 얻고, 인간사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며 윤리적 교훈을 얻기도 함.
- 독자는 때때로 과거의 어느 독자가 경험한 감동과 교훈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도모할 수 있음. 이때 과거의 독자와 현재의 독자는 대화적 관계를 형성함.

◎ 효용론

작품과 독자 맥락의 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을 '효용론'이라고 한다. 문학 작품에 대한 외재적 관점 중의 하나이다.

(2) 독자 맥락의 요소

- 독자의 사회적 정체성: 독자의 세대적, 성적, 지역적, 계층적 특성 등
- 독자의 개인적 취향: 작품 및 작가에 대한 선호 등
- 독자의 개인적 발달 수준: 경험의 폭과 깊이, 지적 수준, 감수성, 공감 능력 등

작품으로 이해하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 정지용, 「유리창 1」

[22001-0019]

0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정지용의 「유리창 1」은 시인이 29세 되던 1930년에 쓴 것으로, 갑작스러운 병으로 자식을 잃은 젊은 아버지의 비통한 심경을 노래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미묘하게 변하는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하면 독자들도 아이를 잃은 아버지의 절절한 심정과 이를 심미적으로 승화하려는 태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① 유리에 비친 대상을 '차고 슬픈 것'이라고 한 것에서, 아이가 죽은 후의 상실감으로 괴로워하며 지냈을 화자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군.
② 입김을 불자 유리에 어린 대상이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고 한 것은, 아이와의 추억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군.
③ 유리에 분 입김을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는 행위에는, 죽은 아이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군.
④ '물먹은 별'을 반짝이는 '보석'이라고 한 것에는, 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심미적으로 승화한 화자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군.
⑤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는 아이의 부재를 확인한 화자가 느끼는 비애감을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군.

정답과 해설 5쪽

[22001-0020]

02 다음의 ㉠과 ㉡에 들어갈 적절한 시어를 쓰시오.

> 역설 중에는 하나의 대상을 상호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시어로 수식하는 방법이 있다. 이 시에 나오는 '외로운 황홀한 심사'가 이에 해당한다. 유리를 닦는 화자가 지닌 모순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시구에서 '(㉠)'은/는 '너'와 함께할 수 없는 현실을 인지한 데서 오는 부정적 정서를, '(㉡)'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 너머로 잠시나마 '너'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오는 긍정적 정서를 표현한 것이다.

[22001-0021]

03 다음은 윗글을 감상한 독자의 반응이다. ⓐ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단, '이승'과 '저승', '소통'과 '단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

> 초등학교 때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크게 절망했던 적이 있었어. 그때 나는 할아버지의 인자한 웃음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매일 눈물을 흘렸는데, 어느 날 꿈에 그리워하던 할아버지를 만났고, 너무 기뻐 할아버지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어. 하지만 꿈에서 깨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꿈을 꾸기 전보다 더 슬퍼졌던 적이 있어. 이 작품에 나오는 '유리'에는 '꿈'과 유사한 ⓐ<u>두 기능</u>이 있는 것 같아.

8강 • 작품의 문학사적, 상호 텍스트적 맥락

1 문학사적 맥락

(1) 문학사적 맥락의 개념과 특징

- 문학 작품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문학 갈래의 존속, 공동체의 정신과 상상력, 풍속과 사회상 등 문학의 역사와 관련된 사실과 배경을 가리킴.
- 문학 작품은 일정한 언어문화의 지평 안에서 여러 가지 문학적 관습을 매개로 하여 작가와 독자 사이에서 소통됨. 한 작품은 선행하는 다른 작품들의 영향을 받아 창작되고 동시대의 수많은 다른 작품들과 공존하면서 문학사적 맥락에 편입됨.
- 독자는 문학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읽음으로써 작품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조망할 수 있음.

(2) 문학사적 맥락의 요소

- **역사적 갈래의 전개 과정**: 문학 작품들은 특정한 갈래로 분류되는데, 그 갈래는 역사적으로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겪게 됨. 각각의 갈래에는 내용, 형식, 표현의 측면에서 다른 갈래와 구별되는 고유의 문학적 관습이 있음.
- **문학사적 영향 관계**: 문학 작품은 앞선 시대의 문학 작품이 지닌 내용, 형식, 표현의 영향을 받음. 그 영향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음. 특정한 문학적 요소들은 긍정적으로 계승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계승되기도 함.
- **사회·문화적 상황, 역사·시대적 상황**: 문학 작품은 그 작품이 창작되고 향유되는 시기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며, 개별적인 역사적 사건과 시대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산출됨.

▶ 이론적 갈래와 역사적 갈래

서정, 서사, 극, 교술은 어떤 문화권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갈래'라고 한다. 이에 비해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특정한 문화권에 존속했던 문학 양식을 가리켜 '역사적 갈래'라고 한다. 가령 시조는 한국의 문학사에 자리 잡고 있는 역사적 갈래의 명칭이지만, 이론적 갈래로는 주로 서정 갈래에 포함된다.

2 상호 텍스트적 맥락

- 모든 문학 작품은 잠재적으로나 현상적으로나 다른 작품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 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상호 텍스트성이 성립함.
- 패러디된 작품에서와 같이 주어진 작품 안에 다른 작품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가 상호 텍스트적 맥락의 대표적인 사례임.
- 상호 텍스트성은 직접적인 영향 관계와 무관하게 독자가 스스로 발견하거나 구성할 수도 있음. 이 경우 각 작품에 담긴 모티프, 이미지, 소재, 주제 등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주목하여 읽음으로써 작품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거나 심화할 수 있음.

작품으로 이해하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령과 관노가 뒤섞여서 춘향 집 앞에 당도하니, 이때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관노가 오는지 모르고 주야로 도련님만 생각하여 우는데, 망측한 환을 당해 놓았으니 소리가 화평할 수 있으리오. 남편 잃고 독수공방하는 계집아이라 청승이 들어 자연히 슬픈 목소리가 되었으니 보고 듣는 사람의 심장인들 아니 상할쏘냐. 님 그리워 설운 마음, 입맛 없어 밥 못 먹고 잠자리가 불안하여 잠 못 자고, 도련님 생각 오래되어 마음이 상했으니 피골이 상접이라. 양기가 쇠진하여 진양조*란 울음이 되어,

갈까 보다 갈까 보다 / 님을 따라 갈까 보다
천 리라도 갈까 보다 / 만 리라도 갈까 보다
비바람도 쉬어 넘고 / 날진수진*, 해동청 보라매도 쉬어 넘는
높은 산꼭대기 동선령 고개라도 / 님이 와 날 찾으면
나는 발 벗어 손에 들고 / 나는 아니 쉬어 가지
한양 계신 우리 낭군 / 나와 같이 그리는가
무정하여 아주 잊고 / 나의 사랑 옮겨다가
다른 님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서럽게 울 때, 사령 등이 춘향의 슬픈 소리를 듣고, 사람이 목석이 아니거든 어찌 감동하지 않겠느냐.

(중략)

"저 계집은 무엇인고?" / 형리 여쭈오되,
"기생 월매의 딸이온데 관청에서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삽내다."
"무슨 죄인고?" / 형리 아뢰되,
"본관 사또 수청 들라고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수청 아니 들려 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이로소이다." / 어사또 분부하되,
"네가 수절한다고 관장(官長)에게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쏘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名官)이로구나. 어사또 들으시오. 층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 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삐 죽여 주오." / 하며,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옥 문간에 와 계실 제 천만당부하였더니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 어사또 분부하되,
"얼굴 들어 나를 보라."

하시니 춘향이 고개 들어 위를 살펴보니, 걸인으로 왔던 낭군이 분명히 어사또가 되어 앉았구나. 반 웃음 반 울음에,

"얼씨구나 좋을시고 어사 낭군 좋을시고. 남원 읍내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에 봄이 들어 이화춘풍(李花春風) 날 살린다. 꿈이냐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로다."

한참 이리 즐길 적에 춘향 어미 들어와서 가없이 즐겨 하는 말을 어찌 다 설화(說話)하랴.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 아니 좋을쏜가. 어사또 남원의 공무 다한 후에 춘향 모녀와 향단이를 서울로 데려갈새, 위의(威儀)가 찬란하니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아니 칭찬하랴. 이때 춘향이 남원을 하직할새, 영귀(榮貴)하게 되었건만 고향을 이별하니 일희일비(一喜一悲)가 아니 되랴.

놀고 자던 부용당아 / 너 부디 잘 있거라 / 광한루 오작교며 / 영주각(瀛洲閣)도 잘 있거라
'봄풀은 해마다 푸르건만 /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른 시(詩)는 / 나를 두고 이름이라
다 각기 이별할 제 / 길이길이 무고하옵소서 / 다시 보기 기약 없네

이때 어사또는 좌도와 우도의 읍들을 순찰하여 민정을 살핀 후에, 서울로 올라가 임금께 절을 하니 판서, 참판, 참의들이 입시하시어 보고서를 살핀다. 임금께서 크게 칭찬하시며 즉시 이조 참의 대사성을 봉하시고 춘향으로 정렬부인을 봉하신다. 은혜에 감사드리고 물러나와 부모께 뵈오니 성은(聖恩)을 못 잊어 하시더라. 이때 이조 판서, 호조 판서,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다 지내고 퇴임한 후에 정렬부인으로 더불어 백년동락(百年同樂)할새, 정렬부인에게 삼남삼녀(三男三女)를 두었으니 모두가 총명하여 그 부친보다 낫더라. 일품 관직이 대대로 이어져 길이 전하더라.

– 작자 미상, 「춘향전」

* **진양조**: 국악의 한 곡조. 느리고 애원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소리.
* **날진수진**: 날진은 야생의 매, 수진은 사람의 손으로 길들인 매나 새매.

(나) 집을 치면, 정화수(精華水)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의 신선한 우물집이었을레. 또한 윤이 나는 마루의, 그 끝에 평상(平床)의, 갈앉은 뜨락의, 물 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레. 서방님은 바람 같단들 어느 때고 바람은 어려 올 따름, 그 옆에 순순(順順)한 스러지는 물방울의 찬란한 춘향(春香)이 마음이 아니었을레.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을까나.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山神靈)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 산과 언덕들의 만 리(萬里)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水晶)빛 임자가 아니었을까나.

– 박재삼, 「수정가」

[22001-0022]

01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형리는 어사또에게 춘향의 무고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② 춘향 어미는 어사또의 정체를 눈치채고 춘향의 상황을 전하려 하고 있다.
③ 춘향은 서울로 올라가며 고향을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임금은 어사또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살핀 후 이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⑤ 어사또는 형리가 언급한 죄목을 인정하지 않는 춘향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22001-0023]

02 다음은 (나)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이 시는 각 연마다 동일한 어미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반복 사용된 어미	기능	시적 효과
1연	-을레	(예스러운 표현으로)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에 대해 조심스럽게 추측할 뿐 자신의 감정을 직접 노출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이는 독자가 적극적으로 (ⓑ)을/를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2연	(ⓐ)	어떤 일에 대한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22001-0024]

03 〈보기〉는 (가)와 (나)를 감상한 후, 학생이 작성한 자료이다. ㉠~㉤에 대해 학생이 생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전 소설인 (가)는 오늘날까지 문학 작품 창작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나)는 (가)를 차용하여 변형한 작품으로, 두 작품은 상호 텍스트성을 중심으로 감상할 수 있다. 두 작품을 ㉠~㉤의 측면에서 서로 비교해 보자.

(가) ➡ (나)

비교 기준	
㉠	주요 사건
㉡	갈등 양상
㉢	공간의 특성
㉣	인물의 특성
㉤	서술자 또는 화자의 시선

① ㉠: (가)의 춘향이 도련님과 이별 후 그리움 때문에 우는데, (나)의 춘향도 서방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흐느끼는군.

② ㉡: (가)에서 춘향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낭군의 변절을 의심하고 있는 데 반해, (나)에서 춘향은 산신령의 초월적 힘에 기대어 낭군의 절개를 확신하고 있군.

③ ㉢: (가)의 집은 춘향이 거주하는 현실적인 공간이지만, (나)의 집은 춘향의 깨끗한 마음을 표상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나타나는군.

④ ㉣: (가)에서는 춘향이 어사또에게 하는 말을 통해 춘향의 굳은 의지가 드러나고, (나)에서는 물의 이미지를 통해 춘향의 순결한 성품이 드러나는군.

⑤ ㉤: (가)에서는 서술자가, (나)에서는 화자가 낭군을 향한 춘향의 사랑을 빛의 이미지로 형상화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군.

9강 • 작품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

반영론

문학 작품을 현실 세계의 반영이라 보고, 재현의 대상이 된 현실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에 접근하는 관점을 '반영론'이라고 한다. 사회·문화적 상황, 역사적 배경 등이 작품의 현실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1 사회·문화적 맥락

(1) 사회·문화적 맥락의 개념

- 한 사회에서 같은 문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싼 사회적 제도나 질서, 그들이 지닌 보편적인 정신 자세나 태도의 총체적 연관성을 가리킴. 문학 작품에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됨.
- 독자들은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읽음으로써 작품의 주제 의식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삶의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음.

(2) 사회·문화적 맥락의 요소

- **당대의 다양한 이념이나 사상**: 문학 작품은 작가가 살아가는 특정한 시기, 특정한 사회의 다양한 이념이나 사상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제기하기도 함.
- **당대의 사회 제도, 문화적 관습**: 문학 작품은 특정한 시기, 특정한 사회의 사회 제도, 문화적 관습을 반영하기도 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제기하기도 함.
- **사회 질서에 대응하는 화자나 인물의 삶의 방식**: 작품 속 화자나 인물들은 사회 제도나 관습에 대해 대항, 순응, 회피 등의 태도를 보임.

사회·문화적 맥락과 역사적 맥락의 관계

두 종류의 맥락이 분명한 차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에 비해 역사적 맥락은 구체적이다. 그래서 종종 사회·문화적 배경은 드러나더라도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은 숨어 있는 경우가 있다. 가령 일제 강점기에 창작된 김유정의 「봄·봄」에는 전통적인 농촌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나타나지만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적 맥락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2 역사적 맥락

(1) 역사적 맥락의 개념

- 한 작품을 창작하는 계기가 되거나 그 작품의 배경이 되는 특정한 시기의 역사적 사건을 가리킴.
- 독자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작품을 읽음으로써 작품에 담긴 주제 의식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역사에 대응하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2) 역사적 맥락의 요소

- **역사적 사건**: 왕조 교체, 식민 통치, 전쟁 등 국가 및 민족 단위의 사건은 물론이고 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회적 사건이 작품의 배경이나 소재가 됨.
-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물질적·정신적 환경**: 새로운 문물의 도입이나 생성, 기존 문물의 소멸, 그리고 이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나 물질적·정신적 환경의 변화가 작품에 반영됨.

작품으로 이해하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맑은 날씨였으나, ㉠시내의 풍경은, 우리가 전혀 낯선 도시에 마악 닿았을 적에 받는 서먹서먹한 인상을 우리에게 줄 만큼 바뀌어 있었다. 군인들이 거리마다 도열해 서 있었으며, 곳곳에 **바리케이드**가 쳐 있었다. 불타 버린 건물들, **탄흔(彈痕)이 남아 있는 포도(鋪道)**에서 우리는 마치 전쟁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기라도 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태양은 더욱 뜨겁고 하늘은 더욱 맑고 푸르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무관심한 표정 속에 흥분을 감추고 있었다. 서로들 경계심을 풀지 않으면서도, 비상시의 사람들답게 **날카로운 호기심과 분노**에 떠는 표정을 간간이 지어 보이고 있었다. 거리에는 **계엄사의 포고문**이 붙어 있었고, 노(老)대통령의 담화문도 게시되어 있었다. **집총한 군인들**은 호각을 불며 시민들이 혹시 대열을 지어 데모라도 벌일까 봐 경계하고 있었다. 민간인들은 군인들의 시선을 피하여 **우울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태양은 직접 도시의 상공으로 접근해 왔으며, 바람은 더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이윽고 우리는 도심 지대를 벗어났다.

우리는 중랑교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서울을 벗어났다. 우리는 망우리 입구에서 시외버스를 내려 허덕허덕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늘은 여전히 한가로운 느낌을 주는 푸른 빛깔을 띠고 있었다. ㉡공동묘지는 성숙한 봄의 한가운데에, 별로 무덤이라는 느낌을 주지도 않으며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거기에는 죽은 사람들의 고단한 흔백이 닥지닥지 붙어 있었다. 죽음은 다만 광물성(鑛物性)의 의미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 듯했다. 부정 선거와 오도된 민주주의를 규탄하다가 죽어 버린 **스물한 살짜리 청년의 시체**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평길이의 무덤을 찾아내느라고 애를 먹었다. 한 시간 이상이나 헤매서야 간신히 찾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평길이의 무덤은, 설사 그것이 평길이의 무덤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평길이와는 관련이 없을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죽어 버린 친구가 결국은 그 시체(屍體)를 남기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종달새 소리를 들었으며, 소나무 사이를 거쳐 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으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움이 트는 잡초를 보았으며, 뜨거운 태양의 냄새를 풍기는 소주를 핥았다. 이윽고 우리는 사자(死者)에게 허리를 굽혀 절을 한 뒤에 그곳을 떠났다. 먼 지방으로부터 서울을 향하여 다가오는 시외버스는 그런데 만원이 되어 있었다. 엄밀하게 계엄령의 울타리를 치고 있는 그 속으로 끼어들어 가려고 하는 버스의 느릿느릿한 속도에도 우리는 그러나 그 계엄령을 잊어먹고 있었다. 다만 우리는 사자로부터 멀어져 가서, 그 사자를 사자가 되게끔 만든 도시의 생명 속으로 끼어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중략 부분 줄거리] 정부의 부정부패를 규탄하며 모인 데모대는 어느 순간 정치 깡패인 임화수가 운영하던 극장으로 가자는 구호와 함께 평화 극장으로 향하고, 데모대에 끼어 있던 '나'는 그들과 함께 극장으로 들어간다. 극장에 들어간 데모대는 점차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극장의 기물을 부수기 시작한다.

그때 나 또한 무대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이미 막이며 스크린은 산산조각으로 찢겨져 있었으며, 무대의 마룻바닥도 엉망으로 망가져 있었다. 나는 무대에서 객석을 향하여 서 있었다. 수많은 관객을 매혹시

키던 아름다운 배우가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펴고 자신의 연기를 자랑하던 모습을 도저히 상상할 수는 없었다. 그때 내 눈에 비쳐진 광경은 너무도 비현실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어둠과 밝음의 경계는 뚜렷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어둠보다는 밝은 쪽이 더욱 광기를 내포하고 있었다. 아래층이고 이 층이고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마치 원시인들과도 같이 깩깩 고함을 지르며 제멋대로 날뛰고 있었다. 여기저기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는 곳에 마치 이 세계에 종말이 다가왔다는 것처럼 이상한 냄새를 피우며 연기가 퍼져 가고 있었다. 우당탕우당탕 소리가 겹쳐 올라, **무자비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무조건 만세를 부르며 절규하는 자들도 있었다. 나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아서, 점점 매캐한 냄새를 풍기는 연기를 맡고 있었다.

[A] 아마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불만스러워할 때 막연히 느끼는 그러한 방심 상태일는지도 모른다.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무질서에로의 해방 상태. 이런 본능이야말로 **최루탄을 맞으면서도** 애써 진행시켜 갔고 대열을 만들어 갔던 데모의 다른 한쪽 면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데모의 바깥쪽에는 법률적인 것, 도덕적인 것, 종교적인 것, 심지어는 신화적인 것이 이를 지켜 주고 있을 것이나, 데모의 그 안쪽에는 이런 도취, 이런 ㉮공동 무의식이 잠재되어 있을 것이었다. **오류에 빠진 질서**를 파괴하여, 인간을 속박시키던 것들을 풀어 버리고, 구차한 사회생활의 규범과 말 못할 슬픔과 **부정부패**에 대한 울분을 훌훌 떨구어 버리고 나서, 하나의 당돌한 무질서 상태를 만드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조만간에 극장을 몽땅 태우고 말 것이었다. 여기저기서 어느덧 불길은 심상치 않은 세력으로 번져 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흥분은 더욱 가세되어 있었다.

– 박태순, 「무너진 극장」

[22001-0025]

0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인물들 사이의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공간이고, ㉡은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② ㉠은 현실에 대한 무관심과 무기력함이 지배하는 공간이고, ㉡은 삶에 대한 열정과 생동감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③ ㉠은 사회적 현실이 주는 긴장감이 느껴지는 공간이고, ㉡은 사회적 현실에서 비롯된 긴장감을 느끼기 어려운 공간이다.

④ ㉠은 인물들이 현실의 문제를 자각하게 하는 공간이고, ㉡은 인물들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간이다.

⑤ ㉠은 파괴된 풍경을 통해 황폐함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다.

[22001-0026]

02 문맥상 ㉮가 의미하는 바를 [A]에서 찾아 다섯 어절로 쓰시오.

[22001-0027]

0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2년에 걸친 이승만의 장기 집권은 권력의 부정부패와 그로 인한 많은 사회 모순을 낳게 되었다. 불의한 현실을 자각한 민중들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감정이 폭발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3·15 부정 선거였다. 4·19 혁명은 이런 배경 속에서 촉발된 사건이었다. 민중들은 마침내 부정한 권력에 맞서 치열하게 저항했으며, 군경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선량한 민중들이 희생되는 비극이 벌어졌다.

① '바리케이드', '계엄사의 포고문', '집총한 군인들'은 데모하는 시민들에게 가해졌던 억압적인 분위기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② '날카로운 호기심과 분노', '우울하게'는 불의한 현실과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당시 민중들의 감정 상태를 나타낸 것이겠군.
③ '탄흔이 남아 있는 포도', '스물한 살짜리 청년의 시체'는 4·19 혁명이 가진 비극적인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④ '무자비한 전투가 벌어지고', '최루탄을 맞으면서도'는 군경의 무력 진압에 맞서 민중들이 저항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겠군.
⑤ '오류에 빠진 질서', '부정부패'는 12년간 지속된 장기 집권과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 모순을 지칭하는 것이겠군.

www.ebsi.co.kr

2부 적용 학습

www.ebsi.co.kr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일오내 자갈 벌에서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좇고 있노라.
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늣겨곰 ᄇᆞ라매
이슬 ᄇᆞᆯ갼 ᄃᆞ라리
힌 구룸 조초 ᄠᅥ간 언저레
몰이 가ᄅᆞᆫ 믈서리여히
기랑(耆郎)ᄋᆡ ᄌᆞ싀올시 수프리야.
일오(逸烏)나릿 ᄌᆡ벼긔
낭(郎)이여 디니더시온
ᄆᆞᅀᆞᄆᆡ ᄀᆞᄉᆞᆯ 좃ᄂᆞ라져.
아야 자싯가지 노포
누니 모ᄃᆞᆯ 두폴 곳가리여.

〈김완진 역〉

– 충담사, 「찬기파랑가」

나 생사 길은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생사(生死) 길흔
이에 이샤매 머믓그리고,
나ᄂᆞᆫ 가ᄂᆞ다 말ᄉᆞ도
몯다 니르고 가ᄂᆞ닛고.
어느 ᄀᆞᄉᆞᆯ 이른 ᄇᆞᄅᆞ매
이에 뎌에 ᄠᅳ러딜 닙곧.
ᄒᆞᄃᆞᆫ 가지라 나고
가논 곧 모ᄃᆞ론뎌.
아야 미타찰(彌陁刹)아 맛보올 나
도(道) 닷가 기드리고다.

〈김완진 역〉

– 월명사, 「제망매가」

[22001-0028]

0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자가 오르고자 하는 물아일체의 경지이다.
② 화자가 느끼는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감이다.
③ 화자가 대상과 동병상련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④ 화자가 살아가면서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이다.
⑤ 화자가 품어 온 의구심을 해소하게 하는 실마리이다.

[22001-0029]

02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와 달리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② ⓐ는 ⓑ와 달리 이별로 인한 망설임으로 인해 유발된 것이다.
③ ⓐ는 ⓑ와 달리 대상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심정이 표출된 것이다.
④ ⓑ는 ⓐ와 달리 과오에 대한 성찰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⑤ ⓑ는 ⓐ와 달리 문제에 대한 화자의 극복 의지가 내포된 것이다.

[22001-0030]

0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전 시가에서는 자연물을 통해 시적 배경을 나타내거나, 자연물이 지닌 속성이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나 태도, 대상의 모습이나 특성, 시적 상황이나 분위기 등을 드러내기도 한다.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나타낸 (가)와 대상에 대한 추모의 정서를 담은 (나)도 자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① (가)의 '수풀'은 화자의 시선이 머무는 자연물로, 화자가 따르고자 하는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고 볼 수 있군.
② (가)의 '가지가 높'은 '잣나무'는 고결한 이미지를 환기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③ (가)의 '눈'은 계절적 배경과 관련된 것으로,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시련을 이겨 내는 대상의 모습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군.
④ (나)의 '어느 가을 이른 바람'은 시간적 배경의 변화를 나타냄으로써 역동적인 시적 분위기를 정적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군.
⑤ (나)의 '잎'이 '이에 저에 떨어'진다는 표현은 화자가 추모하는 대상과 이별하게 된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이 **서울이지마는**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닦은 곳 아즐가 닦은 곳 **소성경*** **고외마른***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이별할 바엔 아즐가 **이별할 바엔 길쌈베 버리고**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괴시란대* 아즐가 괴시란대 **울면서 좇겠나이다**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B]
구슬이 아즐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끈이야 아즐가 끈이야 끊어지리까 나난*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천 년을 아즐가 천 년을 홀로 살아간들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신(信)이야 아즐가 신이야 끊어지리까 나난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배 내어 아즐가 **배 내어 놓느냐 사공**아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네 각시 아즐가 **네 각시 음란한 줄 몰라서**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가는 배에 아즐가 **가는 배에 얹**었느냐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대동강 아즐가 **대동강 건너편 꽃**을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배 타 들면 아즐가 **배 타 들면 꺾으리이다** 나난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 작자 미상, 「서경별곡」

* **소성경**: 작은 서울.
* **괴시란대**: 사랑하신다면.
* **고외마른**: 사랑하지마는.
* **나난**: 의미 없이 흥을 일으키는 여음구.

[22001-0031]

0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에는 임과의 이별을 감당하지 못하는 화자의 슬픔이, [B]에는 임과의 이별을 참아낼 수 있게 된 변화의 계기가 제시되어 있다.
② [A]에는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는 화자의 모습이, [B]에는 이별을 한다고 해도 임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을 것이라 다짐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③ [A]에는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기 위해 화자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B]에는 임과의 인연을 지속하기 위해 화자가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열거되어 있다.
④ [A]에는 떠나려는 임을 따라갈 수 없게 된 화자의 처지가, [B]에는 떠나간 임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화자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⑤ [A]에는 떠나려는 임의 제안을 거절하는 화자의 모습이, [B]에는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불가능한 상황을 떠올리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22001-0032]

02 〈보기〉의 밑줄 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작품에 언급된 소재의 의미나 성격을 이해하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작품의 '끈'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이라는 상황과 '끊어지리까'라는 구절을 통해 바위에 떨어졌을 때 깨어지는 구슬과는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고, 떨어져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특징을 환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연에 제시된 '서경'이나 '길쌈베'는 어떤 구절들을 활용하여 그 의미나 성격을 이해하면 좋을지 말해 볼까요?

① '서경'은 '서울이지마는'과 '소성경'을 통해 번화한 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서경'은 '닦은 곳'을 통해 기반을 잘 갖추었다는 특징이, '고외마른'을 통해 화자가 떠나기 싫어하는 곳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③ '길쌈베'는 '이별할 바엔 길쌈베 버리고'를 통해 임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버릴 수도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④ '길쌈베'는 '괴시란대'를 통해 화자가 임의 사랑을 받게 된 사연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까닭이 확인됩니다.
⑤ '서경'과 '길쌈베'는 '울면서 좇겠나이다'를 통해 화자에게 매우 소중한 것임이 확인되어, 오히려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강조하는 소재가 됩니다.

[22001-0033]

03 〈보기〉와 관련지어 '3연'의 화자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방어 기제'는 두렵거나 불쾌한 정황이나 욕구의 불만에 직면한 인간이 불안이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취하는 적응 행위를 말한다. 이 작품 속 화자도 임과의 이별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화'와 '전위'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다.

'합리화'는 이미 벌어진 상황 속에서 자책감이나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내 자아가 상처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신 포도'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위'는 문제의 초점을 바꾸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상대적으로 수용하기 쉬운 생각으로 바꾸는 방어 기제를 말한다. 이는 문제의 핵심이 아닌 대상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라는 속담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① '합리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사공'에게 어찌하여 '배 내어 놓느냐'라고 표현한 것은 이별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사공'에게서 찾아 상처를 줄이려는 행위일 수 있겠군.

② '합리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임이 '배 타 들면 꺾으리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은 이별이 지속되는 원인이 임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화자가 느끼는 자책감을 줄이려는 심리와 관련이 있겠군.

③ '전위'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네 각시 음란한 줄 몰라서'와 같이 전체 상황과 무관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핵심이 아닌 대상에게 분노를 표출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행위일 수 있겠군.

④ '전위'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사공'을 사람들을 '가는 배에 얹'는 능동적 주체로 표현한 것은 강을 건너는 임의 선택을 사공이 주도한 것처럼 초점을 바꾸어 받아들이려는 방어 기제일 수 있겠군.

⑤ '전위'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대동강 건너편 꽃'을 언급하며 임을 불신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건너편 꽃'에 초점을 맞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수용하기 쉽게 만드는 행위일 수 있겠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 사람 지금 사람 이목구비 같건마는
나 혼자 어찌하여 옛 사람을 그리는가
지금도 옛 사람 계시니 그가 내 벗인가 하노라 〈제1수〉

청송(靑松)으로 울타리를 삼고 ㉠백운(白雲)으로 장(帳) 두르고
초옥(草屋) 삼간(三間)에 숨어 계신 저 내 벗님
흉중에 진념(塵念)*이 없으니 그를 사랑하노라 〈제4수〉

벗님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용추동 밖이요 구름 다리 위로다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노라 〈제5수〉

뫼는 첩첩(疊疊)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고인(故人)의 집터가 바라봐도 볼 수 없다 / 마음만 길 알아 두고 오락가락하노라 〈제7수〉

상산(商山)의 채지(採芝)하러 부디 넷이 갈 것인가*
따라올 이 없는데 우리 둘이 가옵시다 /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 듣도 보도 마옵시다 〈제9수〉

– 정훈, 「월곡답가」

* 진념: 속세의 명예와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
* 상산의 채지하러~넷이 갈 것인가: 한나라 고조 때 네 사람의 백발노인이 세상의 어지러움을 피하여 상산(商山)에 숨어 버섯을 캐며 살았다는 고사를 가리킴.

[22001-0034]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1수〉에서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며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② 〈제4수〉에서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의 모습을 묘사하며 화자가 바라보는 풍경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③ 〈제5수〉에서는 대조적 의미를 지닌 화자의 동작을 반복하여 제시하며 대상에게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④ 〈제7수〉에서는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을 만나기 위한 화자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⑤ 〈제9수〉에서는 청유의 내용을 달리하며 화자가 바라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2001-0035]

0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벗'이 화자를 찾는 것을, ㉡은 화자가 '고인'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자연물이다.
② ㉠은 '벗'의 시선을 외부에서 내부로, ㉡은 '고인'의 시선을 내부에서 외부로 전환하는 자연물이다.
③ ㉠은 현실과 소통하기 위해 '벗'이 선택한, ㉡은 현실과 멀어지기 위해 '고인'이 선택한 자연물이다.
④ ㉠은 세상에 대한 '벗'의 거부감을, ㉡은 화자와 '고인' 사이의 물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자연물이다.
⑤ ㉠은 부정적 상황을 이겨 내기 위한 '벗'의 노력을 환기하는, ㉡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좌절하는 '고인'의 모습을 환기하는 자연물이다.

[22001-0036]

0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작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특정 대상이나 사람, 공간 등을 활용하여 전달한다. '월곡에게 답하는 노래'라는 뜻을 지닌 이 작품에서도 작가는 '월곡'을 떠오르게 하는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하여 현재 만날 수 없는 '월곡'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월곡을 '벗'이라 부르며 월곡의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① '지금 사람'과 달리 '옛 사람'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으로, 화자는 '옛 사람'을 벗이라 말하며 월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초옥 삼간'은 '내 벗'이 머물고 있는 공간으로, 화자는 '흉중에 진념'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월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③ '용추동 밖'과 '구름 다리 위'는 화자가 '벗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로, 화자는 '밤마다 외로운 꿈'에서만 '벗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며 월곡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고인의 집터'는 월곡의 부재를 떠오르게 하는 공간으로, 화자는 그곳에 가는 방법을 알지 못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상산의 채지'는 화자가 월곡과 함께하고 싶은 일로, 화자는 '우리 둘'이 가자고 말하며 세상을 멀리하고 싶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짚방석(方席) 내지 마라 낙엽(落葉)엔들 못 앉으랴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 **달** 돋아 온다
아이야 **박주산채(薄酒山菜)**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 한호

나 청초(靑草) 우거진 골에 자느냐 누웠느냐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묻혔느냐
잔 잡아 권할 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 임제

다 곡구롱(谷口咿)* 우는 소리에 낮잠 깨어 일어나 보니
작은아들 글 읽고 며늘아기 베 짜는데 어린 손자는 꽃놀이한다
마초아 지어미 **술** 거르며 맛보라고 하더라

– 오경화

*곡구롱: 꾀꼬리가 우는 소리의 한자 표현.

[22001-0037]

0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을 부르는 표현을 통해 시상 전개의 흐름을 전환하고 있다.
② 물음의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을 향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③ 색채 이미지를 대비하여 이상적 공간에 대한 지향을 나타내고 있다.
④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⑤ 대조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자연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드러내고 있다.

[22001-0038]

02 (다)에 대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곡구롱 우는 소리'는 화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삶을 응시하는 계기가 되고 있군.
② '낮잠'을 잘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평안한 삶을 누리는 상황임을 알 수 있군.
③ '작은아들', '어린 손자'가 함께 언급되는 것에서 삼대가 영위하는 가족의 삶을 짐작할 수 있군.
④ '며늘아기 베 짜'기와 '작은아들'의 '글 읽'기는 병치되어 성별에 따른 행위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군.
⑤ '어린 손자'의 '꽃놀이'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분주함과 대비를 이루어 화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군.

[22001-0039]

0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에 사용된 어떤 소재는 그것의 인접성에 의해서 인간의 다양한 정황이나 관념을 드러내는 시적 수단이 된다. 이때 연상 작용의 결과로서 인접성은 두 대상이나 개념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서로 가까이 있거나 물리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는 물론 사건의 원인과 결과 같은 논리적인 관련을 맺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인간의 구체적인 일상 경험에 인식의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인간의 사고나 태도의 의미를 밝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① (가)에서 '달'은 어제 지고 오늘 다시 돋아 오므로 주기를 두고 반복되는 시간적 인식 속에서 자연의 순환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있다.
② (가)에서 '박주산채'는 화자가 그것을 쉽게 얻을 수 없는 공간에 머물러 있는 상황과 관련되어 이루기 어려운 이상을 대변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③ (나)에서 '홍안'이 사라지고 '백골'만이 묻힌 상황은 시간적 흐름에 의한 대상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있다.
④ (나)에서 '잔'은 잡아 권할 이가 없다는 점에서 대상의 부재라는 원인으로부터 비롯되는 인생의 허무감이라는 관념을 담아내는 수단이 되고 있다.
⑤ (다)에서 '술'은 '지어미'가 걸러 남편인 화자에게 '맛보라고' 권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황 속에서 부부 사이의 돈독한 정을 연상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랑이 거짓말이 임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 와 뵌단 말이 긔 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뵈리오

– 김상용

나 임이 혜오시매 나는 전혀 믿었더니
날 사랑하던 정(情)을 **누구에게 옮기신고**
처음에 믜시던 것이면 이다지도 설우랴

– 송시열

다 남은 다 자는 밤에 내 어이 홀로 앉아
전전불매(輾轉不寐)하고 **임 둔 임을 생각**는고
차라리 내 먼저 싀어서 제 그리게 하리라

– 송이

라 **어이 못 오더냐 무슨 일로 못 오더냐**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城)**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궤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고 쌍배목* 외걸새에 용거북 자물쇠로 깊이깊이 잠갔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더냐**
한 달이 서른 날이어니 날 보러 올 하루 없으랴

– 작자 미상

*뒤주: 쌀 따위의 곡식을 담아 두는 세간의 하나.
*쌍배목: 쌍으로 된 문고리를 거는 쇠.

[22001-0040]

01 **(가)~(라)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양한 경험에서 화자가 얻게 된 윤리적 교훈이 드러나 있다.
② 대상과의 관계에서 결핍을 느끼는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③ 자신의 과거 행적으로 인해 화자가 갖게 된 회한이 드러나 있다.
④ 범접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⑤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당혹감을 느꼈던 화자의 경험이 드러나 있다.

[22001-0041]

02 (가)~(라)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② (가)와 (라)는 연쇄법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나)와 (다)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④ (나)와 (라)는 시구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⑤ (다)와 (라)는 점층법을 사용하여 고조되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22001-0042]

0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선 시대의 시조에서 사랑은 매우 중요한 소재 가운데 하나였다. 그중 남성 사대부들이 사랑의 정감을 노래한 시조들은 당대의 정치 현실과 관련된 맥락에서 임금에 대한 태도를 읊은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 예로 이조 판서, 우의정 등 요직을 역임하고 병자호란 때 왕족이 피란한 성의 함락을 막기 위해 화약에 불을 질러 순절한 김상용이 지은 (가), 그리고 조선 후기 노론(老論) 세력의 거두로 정치적 부침(浮沈)이 심했던 인물인 송시열이 지은 (나)와 같은 작품을 들 수 있다. 한편 (다)에서 알 수 있듯 조선 시대에는 기녀들도 사랑의 정한을 서정성 짙은 시조에 담곤 했는데, 여기에는 기녀들의 사랑이 현실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웠던 사회적 조건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① (가)에서 '잠 아니 오'는 것이 임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고 본다면 이를 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절을 한시도 잊지 않는 작가의 태도와 관련지을 수도 있겠군.
② (나)의 '누구에게 옮기신고'를 통해 작가와 노론 세력이 정치적으로 쇠한 상황을 이 작품의 창작 배경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겠군.
③ (나)에서 '처음에 믜시던' 것은 애초에 임금이 노론 세력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던 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군.
④ (다)에서 '임 둔 임을 생각'한다는 것은 기녀들의 사랑이 현실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웠던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군.
⑤ (다)의 '차라리 내 먼저 싀어서'에는 극한의 상황을 언급할 정도로 애절한 사랑의 정한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군.

[22001-0043]

04 〈보기〉를 바탕으로 (라)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평시조의 초·중·종장은 각각 네 개의 마디가 운율의 기본 단위를 이루고, 의미상으로는 대체로 두 개의 마디가 하나의 구(句)를 이루기 때문에 각 장은 두 개의 구로 구성된다. 그래서 시조의 형식을 3장 6구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글자 수를 엄격하게 제한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종장의 첫째 마디를 3음절로 고정하는 것은 형식상의 규칙적 특성이다.

한편 이러한 평시조와 차이를 보이는 양식으로서 사설시조가 지닌 형식적 특성은 파격의 자유로움이라 할 수 있다. 평시조의 규칙을 따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종장의 첫째 마디를 3음절로 한다는 일반적인 규칙 외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형식상의 파격적 자유는 조선 후기에 다양한 주제의 사설시조가 창작 및 향유되는 데에 영향을 끼쳤으며, 시적 상황을 해학적으로 제시하는 사설시조 중에서 그 수단으로 장황한 열거를 사용한 작품의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형식적 파격이라는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초장은 '어이', '못 오더냐', '무슨 일로', '못 오더냐'라는 네 개의 마디로 구성되어 평시조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② '너 오는'으로 시작해 '아니 오더냐'로 끝나는 중장이 평시조와 달리 길어졌기 때문에 이 작품은 3장 6구라는 형식적 틀을 벗어나 있다.

③ '성', '담', '집'을 축조하고 '뒤주' 속의 '궤'에 '너'를 놓은 뒤 단단히 잠근다는 내용의 장황한 열거는 형식상의 파격적 자유와의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시적 상황을 해학적으로 제시한 예로 볼 수도 있다.

④ '한 달이'는 이 작품이 다른 사설시조들과 공유하는 형식적 규칙성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⑤ '한 달이 서른 날이어니 날 보러 올 하루 없으랴'라는 종장은 평시조와 달리 두 개가 넘는 구(句)로 구성되어 있어 형식상의 파격을 보여 주고 있다.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리고 우활(迂闊)*한 건 이내 위에 더는 없다
길흉화복(吉凶禍福)을 하늘에 부쳐 두고
누항(陋巷) 깊은 곳에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썩은 짚을 땔감 삼아
닷 홉 밥 서 홉 죽(粥)에 연기(煙氣)도 하도 할샤
얼마 만에 받은 밥에 헐벗은 자식들은
장기 벌여 졸 밀듯 나아오니
인정천리(人情天理)에 차마 혼자 먹을런가
덜 데운 숭늉에 빈 배 속일 뿐이로다
생애(生涯) 이러하다 장부(丈夫) 뜻을 옮길런가
안빈일념(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옳게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어하다
㉡가을이 부족(不足)거든 봄이라 유여(有餘)하며
주머니 비었거든 병(甁)에는 담겼으랴
다만 하나 빈 독 위에 어른 털 돋은 늙은 쥐는
탐욕스럽고 멋대로 구니 대낮의 강도(强盜)로다
겨우 얻은 것을 다 쥐구멍에 빼앗기고
㉢석서삼장(碩鼠三章)*을 시시(時時)로 음영(吟詠)하며
탄식(歎息) 무언(無言)하며 머리 긁을 뿐이로다
이 중(中)에 탐욕스런 악귀는 다 내 집에 모였구나
빈곤(貧困)한 인생(人生)이 천지간(天地間)에 나뿐이라
기한(飢寒)이 절신하다 일단심(一丹心)을 잊을런가
(중략)
㉮강호(江湖) 한 꿈을 꾸언 지 오래러니
먹고살 걱정으로 어지버 잊었도다
물가를 바라보니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낙대 하나 빌려사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가라 하랴
다툴 이 없는 건 다만 이뿐인가 여기노라
이제야 소 빌리기 맹세(盟誓)코 다시 말자
무상(無狀)한 이 몸에 무슨 지취(志趣) 있으리마는

두세 이렁 밭논을 다 묵혀 던져 두고
있으면 죽(粥)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 말렸노라
내 빈천(貧賤) 슬히 여겨 손을 헤다 물러가며
남의 부귀(富貴) 불이 여겨 손을 치다 나아오랴
인간(人間) 어느 일이 명(命) 밖에 삼겼으리
가난타 이제 죽으며 부유하다 백 년(百年) 살랴
㉣원헌(原憲)*이는 몇 날 살고 석숭(石崇)*이는 몇 해 산고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는
내 생애(生涯) 이러하되 설온 뜻은 없노라
단사표음(簞食瓢飮)을 이도 족(足)히 여기노라
평생(平生) 한 뜻이 온포(溫飽)에는 없노라
태평천하(太平天下)에 **충효(忠孝)를 일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붕우(信朋友) 외다 할 이 뉘 있으리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삼긴 대로 살렸노라

– 박인로, 「누항사」

* **우활**: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름.
* **석서삼장**: 임금이 과중하게 세금을 거두어 백성들을 착취함을 큰 쥐에 비유하여 풍자한 시.
* **유비군자**: 문채(文彩)가 나는 군자라는 뜻으로, 학식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이르는 말.
* **원헌**: 공자의 문하에서 가난을 감내하며 성리학적 수양에 힘썼던 인물.
* **석숭**: 중국 진나라 때의 부호.

[22001-0044]

0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을 통해 타인에게 봉사하며 살아왔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 대구의 방식을 통해 부정적인 상황이 해소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 옛 문헌의 작품을 인용하여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④ ㉣: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물아일체를 실현한 것에 대한 만족감을 부각하고 있다.
⑤ ㉤: 과거의 실제 인물을 끌어들여 자신의 생각이 그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2001-0045]

02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와 ⓑ는 모두 화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것이다.
② ⓐ와 ⓑ는 모두 화자가 절망감을 느끼고 좌절하게 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③ ⓐ는 화자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이고, ⓑ는 화자가 더 이상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이다.
④ ⓐ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삶이고, ⓑ는 화자가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⑤ ⓐ는 화자가 자신의 운명을 깨닫게 된 계기이고, ⓑ는 화자가 운명을 거부하게 된 계기이다.

[22001-0046]

03 〈보기〉에 제시된 (가)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 「누항사」의 전반부에는 궁핍한 참상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를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가가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가)궁핍한 처지의 화자를 내세워 임진왜란 직후 나라 전체가 피폐해진 상황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향촌 사회에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지식 계층이었던 작가가 전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궁핍한 삶을 묘사하여 전후의 비참한 현실을 제시하면서, 성현의 올바른 도가 행해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곤궁한 현실에 굴하지 않으려는 다짐과 곤궁한 현실 속에서도 유교적 도의를 굳건히 지키면서 살겠다는 선비로서의 당위를 드러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① '누항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 두고'와 '풍조우석에 썩은 짚을 땔감 삼아'에 드러나는 궁핍한 모습은 전란 후 피폐해진 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② '인정천리에 차마 혼자 먹을런가'와 '탐욕스럽고 멋대로 구니 대낮의 강도로다'에는 성현의 올바른 도가 행해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③ '생애 이러하다 장부 뜻을 옮길런가'와 '기한이 절신하다 일단심을 잊을런가'는 곤궁한 현실에 굴하지 않으려는 선비로서의 다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④ '안빈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와 '충효를 일삼아'에는 곤궁한 현실 속에서도 유교적 도의를 굳건히 지키면서 살겠다는 선비로서의 당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⑤ '겨우 얻은 것을 다 쥐구멍에 빼앗기고'와 '이 중에 탐욕스런 악귀는 다 내 집에 모였구나'에 드러나는 비참한 현실은 전란으로 인해 궁핍하게 살아가는 백성들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생이 몇 날이며 이내 몸 어이할꼬
주렴(珠簾)을 손수 걷고 ㉠옥계(玉階)에 내려가
오색구름 깊은 곳에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안개문 구름창 천리만리 가렸구나
인연이 없지 않아 하늘이 아셨는가
외로운 청란(靑鸞)으로 ㉡광한궁(廣寒宮) 날아올라
듣고서 못 뵙던 임 첫낯에 잠깐 뵈니
내 임이 이뿐이라 반갑기를 가늠할까
이렇게 뵙고 다시 뵐 일 생각하니
삼천 명의 미인들 아침저녁으로 모시고
궁궐의 고운 여인 좌우에 벌였는데
수줍은 **빛바랜 화장**을 어디 가 자랑하며
탐탁지 않은 태도를 누구에게 자랑할까
난간에서 피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옥경(玉京)을 떠나서 ㉢하계(下界)에 내려오니
인생 박명(薄命)이 이처럼 생겼던가
쓸쓸한 십 년 세월 그림자 벗을 삼고
아쉬운 마음에 혼자 하는 말이
임은 내 임이라 날을 어찌 버리시는가
생각하시면 그 아니 불쌍한가
정조를 지키고 귀신께 맹세하여
좋은 때 돌아오면 다시 뵐까 하였더니
과연 내 임이 전혀 아니 버리시어
삼천 리 약수(弱水)*에 청조사(靑鳥使)* 건너오니
임의 소식을 반가이 듣겠구나
여러 해 헝클어진 머리 틀어서 집어 꽂고
두 눈의 눈물 자국에 분도 아니 발라
먼 길 멀다 않고 허위허위 들어오니
그리던 얼굴을 본 듯 만 듯 하고 있어
심술궂은 시샘은 어찌하여 한단 말인가
알록달록 무늬 짜서 고운 비단 만들듯이
옥돌 위 쉬파리가 온갖 허물 지어내니
내 몸에 쌓인 죄는 끝이 없거니와

하늘에 해가 있어 임이 짐작 안 하실까
그것일랑 던져두고 서러운 뜻 말하려니
백 년 인생에 이내 임 만나 보아
산과 바다에 맹세한 **사랑의 첫 말씀** 믿었더니
그사이 무슨 일로 이 맹세 버려두고
옥 같은 얼굴을 홀로 두고 그리는가
사랑이 싫증 났던가 박복한 탓이런가
말하면 목이 메고 생각하면 가슴 끔찍
(중략)
풍상(風霜)이 섞어 치고 수많은 꽃 떨어지니
여러 떨기 국화는 누구 위해 피었으며
천지가 얼어붙어 삭풍(朔風)이 몹시 부니
하루를 볕을 쬔들 열흘 추위 어찌할까
은침(銀鍼)을 빼내어 오색(五色)실 꿰어 놓고
임의 터진 옷을 깁고자 하건마는
㉣천문구중(天門九重)에 갈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 **깊은 정을 임이 언제 살피**실까

[A]
음력 섣달 다 지나니 봄이면 늦으리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집집마다 대문을 차례로 연다 하되
자물쇠를 굳게 잠가 ㉤침실을 닫았으니
눈 위의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가의 매화는 몇 봉오리 피었는가
간장(肝腸)이 다 썩어 넋조차 그쳤으니
천 줄기 눈물은 피 되어 솟아나고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빛조차 어두워라
황금이 많으면 매부(買賦)나 하련마는*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비칠쏘냐
평생토록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다
언어에 공교(工巧)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풀어서 헤아리고 다시금 생각하니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오
창에 비친 매화 달에 가느다란 한숨 다시 짓고
아쟁을 꺼내어 원망의 노래 슬피 타니
거문고 줄 끊어져 다시 잇기 어려워라

차라리 **죽어서 자규(子規)의 넋**이 되어
밤마다 이화(梨花)의 피눈물 울어 내어
오경(五更)에 잔월(殘月)을 섞어 **임의 잠을 깨우**리라

– 조우인, 「자도사」

※ **약수**: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으로, 길이가 삼천 리나 되며 기러기의 깃털도 가라앉을 정도로 물의 부력이 약하여 건널 수 없다고 함.
※ **청조사**: 파랑새.
※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마는**: 중국 한나라 무제 때 황후 진아교가 당시의 문장가인 사마상여에게 황금을 주고 부를 짓게 하여 자신에게 무심했던 무제의 마음을 돌려 총애를 받게 된 일을 가리킴.

[22001-0047]

01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눈 위의 서리'와 '뜰가의 매화'에서 관찰한 현상을 제시하며 현재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변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② '반벽청등'에서 '창에 비친 매화 달'로 시선을 이동하여 계절의 흐름을 강조하고 있다.
③ '황금이 많으면'이라는 가정적 상황과 '뒤집힌 동이'에 해가 비치는 현실의 상황을 대응하여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④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조물주의 처분'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현실을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아쟁을 꺼내어' 노래를 하는 상황과 '거문고 줄 끊어져' 연주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을 병치하여 화자의 내적 갈등이 전환되는 원인을 부각하고 있다.

[22001-0048]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에서 임을 보고 싶어 하는 화자의 바람은 ㉡에서 임을 만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② ㉡에서 화자는 임과의 재회를 기약하지 못한 채 ㉢으로 내려오는 것을 아쉬워한다.
③ ㉢에서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화자는 ㉣에서 임과 재회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④ ㉢에서 화자는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에서 임을 그리워한다.
⑤ ㉣에 가기 위해 화자는 자물쇠로 ㉤을 닫고 세상과 단절하며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22001-0049]

0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우인은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인목 대비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시를 통해 표출했는데, 조우인의 반대편에 있던 대북파는 조우인의 시에 광해군에 대한 불경스러운 마음이 드러났다고 모함한다. 이로 인해 조우인은 3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자도사」는 이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조우인은 이 작품에서 자신의 처지를 지상으로 적강한 선녀에 비유하고, 임금을 천상계의 옥황에 비유하며 임금에 대한 충정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모함한 대북파를 비난하고 있다. 또한 조우인은 자연물을 통해 임금의 소식을 알게 되는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억울한 심정과 이를 몰라주는 임금에 대한 원망도 드러내고 있다.

① '삼천 명의 미인들'과 '궁궐의 고운 여인'들과 달리 화자가 '빛바랜 화장'과 '탐탁지 않은 태도'를 자랑한 것은 작가가 불경스러운 마음을 드러냈다고 모함을 받은 이유에 해당하겠군.
② '청조사'는 임이 계신 곳에서 '삼천 리 약수'를 건너 날아왔다는 점에서, 작가에게 임금의 소식을 전하는 자연물에 해당하겠군.
③ '옥돌 위 쉬파리가 온갖 허물'을 지어낸 후 '사랑의 첫 말씀'을 버려두고 임이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작가가 자신을 모함한 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몰라주는 임금도 원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④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 꿰어 놓고' 임의 옷을 깁고 싶지만 자신의 '깊은 정을 임이 언제 살피'실지 걱정하는 모습은 임금에 대한 마음을 남녀 관계에 빗대어 드러낸 것에 해당하겠군.
⑤ '죽어서 자규의 넋'이 된 후 밤마다 '임의 잠을 깨우'겠다는 말을 통해, 임금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려는 작가의 바람을 알 수 있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덴동이를 들쳐 업고 **본고향**을 돌아오니 / 이전 강산 의구하나 인정 물정 다 변했네
우리 집은 터만 남아 쑥대밭이 되었구나 / 아는 이는 하나 없고 모르는 이뿐이로다
그늘진 **은행나무** 그 모습 그대로 날 기다렸네 / 난데없는 [두견새]가 머리 위에 둥둥 떠서
불여귀 불여귀 슬피 우니 서방님 죽은 넋이로다 / 새야 새야 두견새야 내가 올 줄 어찌 알고
여기 와서 슬피 울어 내 설움을 불러내나 / 반가워서 울었던가 서러워서 울었던가
서방님의 넋이거든 내 앞으로 날아오고 / 임의 넋이 아니거든 아주 멀리 날아가라
두견새가 펄쩍 날아 내 어깨에 앉아 우네 / 임의 넋이 분명하다 애고 탐탐 반가워라
나는 살아 육신이 왔네 넋이라도 반가워라 / 근 오십 년 이곳에서 내 오기를 기다렸나
어이할꼬 어이할꼬 후회막급 어이할꼬 / 새야 새야 우지 마라 새 보기도 부끄러워
내 팔자를 맘에 새겼다면 새 보기도 부끄럽잖지 / 첨에 당초에 친정 와서 서방님과 함께 죽어
저 새와 같이 자웅 되어 천만년이나 살아 볼걸 / 내 팔자를 내가 속아 **기어이 한번 살아 보려고**
첫째 낭군은 그네 타다 죽고 둘째 낭군은 괴질에 죽고 / 셋째 낭군은 물에 죽고 **넷째** 낭군은 불에 죽어
이내 한 번 잘 못 살고 내 신명이 그만일세 / 첫째 낭군 죽을 때에 나도 함께 죽었거나
살더라도 수절하고 다시 가지나 말았다면 / 산을 보아도 부끄럽잖고 저 새 보아도 무안하지 않지
살아생전에 못된 사람 죽어서 귀신도 악귀로다 / **나도 수절만 하였다면** 열녀각은 못 세워도
남이라도 칭찬하고 불쌍하게나 생각할걸 / 남이라도 욕할 거요 친정 일가들 반가워할까
잔디밭에 멀거니 앉아 한바탕 실컷 우노라니 / 모르는 **안노인** 나오면서 웬 사람이 섧게 우나
울음 그치고 말을 하게 사정이나 들어 보세 / 내 설움을 못 이겨서 이곳에 와서 우나이다
무슨 설움인지 모르거니와 어찌 그리 설워하나 / 노인께선 들어가오 내 설움 알아 쓸데없소
예의도 못 차리고 땅을 허비며 자꾸 우니 / 그 노인이 민망하여 곁에 앉아 하는 말이
간 곳마다 그러한가 이곳 와서 더 섧은가 / 간 곳마다 그러리까 이곳에 오니 더 서럽소

(중략)

안방으로 들어가니 늙으나 젊으나 알 수 있나 / 부끄러워 앉았다가 그 노인과 한데 자며
이전 이야기 대강 하고 신명타령 다 못할러라 / **엉송이 밤송이 다 쪄 보고 세상의 별 고생 다 해** 봤네
살기도 억지로 못 하겠고 재물도 억지로 못 하겠데 / **고약한 신명도 못 고치고** 고생할 팔자는 못 고치네
고약한 신명은 고약하고 **고생할 팔자는 고생하지** / 고생대로 할 지경엔 그른 사람이나 되지 말지
그른 사람 될 지경에는 옳은 사람이나 되지그려 / 옳은 사람 되어 있으면 남에게나 칭찬 듣지

[A] 청춘과부 시집가려 하면 양식 싸 갖고 가서 말리려네 / 고생 팔자 타고나면 열 번 가도 고생이지
이팔청춘 청상들아 내 말 듣고 가지 말게 / 아무 동네 화령댁은 스물하나에 혼자되어
단양으로 개가했다더니 겨우 다섯 달 살다가 / 제가 먼저 죽었으니 그건 오히려 낫지마는
아무 동네 장림댁은 갓 스물에 청상 되어 / 제가 춘광* 못 이겨서 영천으로 가더니만
몹쓸 병이 달려들어 앉은뱅이 되었다데

– 작자 미상, 「덴동 어미 화전가」

*춘광: 이성을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

[22001-0050]

0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본고향'의 자연 경치가 확연히 달라져 있는 모습에 '나'는 상실감을 느낀다.
② '은행나무'는 귀향의 지표로서 '나'는 그것에서 '본고향' 본연의 모습을 느낀다.
③ 약 오십 년 만에 '본고향'으로 돌아온 '나'는 이웃 사람들을 모르는 척하고 대한다.
④ '안노인'은 '나'가 울고 있는 사정을 알고자 물어보지만 '나'는 침묵하고 울기만 한다.
⑤ 여러 장소에서 항상 서러움만을 겪어 왔던 '나'는 '본고향'에서 더 큰 서러움을 느낀다.

[22001-0051]

02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한 행위에 대한 의사 표명을 가정하여 그 실행을 만류하고 있다.
② 부정적인 사례들을 나열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③ 청자를 명시함으로써 화자의 뜻이 전달되어야 할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④ 화자의 체험을 시간 순으로 제시하여 특정 행위의 한계를 부각하고 있다.
⑤ 인물과 지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사건 발생의 실제성을 확보하고 있다.

[22001-0052]

03 두견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자가 사별한 임의 현신으로 간주한다.
② 화자가 느끼는 슬픔의 정서가 투영되어 나타난다.
③ 화자가 반가워하면서도 수치심을 느끼는 대상이 된다.
④ 화자가 과거에 했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⑤ 화자가 새로운 임을 만나는 소망을 갖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22001-0053]

04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여성의 수절을 미덕으로 삼은 유교적 가부장제의 통념이 지배하던 당시 사회에서, 덴동 어미가 기존의 자신을 극복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성장에 도달한 과정은 통과 의례(通過儀禮)의 성격을 갖는다. 인간 성장에 대한 원형적 구조로서 통과 의례는 자신이 속했던 기존의 사회 질서에서 벗어나는 '분리', 분리가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시련을 겪는 '전이', 시련을 극복하고 사회로 돌아와 새로운 모습이나 지위를 획득하는 '통합'의 단계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을 겪으며 덴동 어미는 삶의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삶의 본질로 받아들여 달관하는 한편, 남성에게 의존하여 고난을 피해 가려고 했던 기존의 모습에서 벗어나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립의 경지로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① '첫째'에서 '넷째'까지 이르도록 화자가 거듭하여 시집가는 것은 수절이 미덕이던 기존 가부장제의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행위이므로 통과 의례에서 '분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군.
② 화자가 '기어이 한번 살아 보려고' 다시 한번 시집가기를 결심하고 이행한 것은 남성에게 의존함으로써 삶의 고난을 피해 가려고 노력을 다하는 화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군.
③ '엉송이 밤송이 다 쪄 보고 세상의 별 고생 다 해' 본 경험은 분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화자가 온갖 시련을 겪은 상황을 말하므로 통과 의례에서 '전이'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군.
④ '나도 수절만 하였다면', '남이라도 칭찬하고'는 화자가 다시 시집간 것을 후회하며 기존 사회로 돌아와 사람들과 화합을 이룬 모습이므로 통과 의례에서 '통합'에 속한다고 볼 수 있군.
⑤ '고약한 신명도 못 고치고', '고생할 팔자는 고생하지'에서 인간이 살면서 겪는 고난을 삶의 본질이자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달관하는 화자의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란춘성(花爛春城)하고 만화방창(萬化方暢)이라
때 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개 구경** 가세
죽장망혜(竹杖芒鞋) 단표자(單瓢子)로 천리강산 들어가니
만산홍록(滿山紅綠)들은 일년일도(一年一度) 다시 피어
춘색(春色)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창송취죽(蒼松翠竹)은 창창울울(蒼蒼鬱鬱)한데 기화요초(琪花瑤草) 난만(爛漫) 중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난다
유상앵비(柳上鶯飛)는 편편금(片片金)이요 화간접무(花間蝶舞)는 분분설(紛紛雪)이라
삼춘가절(三春佳節)이 좋을시고 도화만발점점홍(桃花滿發點點紅)이로구나
어주축수애삼춘*이라더니 무릉도원이 예 아니냐
양류세지사사록(楊柳細枝絲絲綠)한데 황산곡리당춘절(黃山谷裏當春節)*에 연명오류(淵明五柳)*가 예 아니냐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 지어
충천(沖天)에 높이 떠 두 날개 훨씬 펄펄
백운간(白雲間)에 높이 떠 천리강산 머나먼 길에
어이 갈꼬 슬피 운다
원산 첩첩 태산 주춤 기암은 층층 ㉠장송은 낙락
응어리 구부러져 광풍에 흥을 겨워 / 우쭐 활활 춤을 춘다
층암절벽 상에 폭포수는 콸콸 수정렴(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룩 저 골 물이 솰솰
열의 열 골 물이 한데로 합수(合水)하여
천방져 지방져 소쿠라지고 펑퍼져
넌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흩어지니
소부(巢父) 허유(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예 아니냐**
주곡제금(奏穀啼禽)은 천고절(千古節)이요 적다정조(積多鼎鳥)는 일년풍(一年豊)이라*
일출낙조가 눈앞에 벌였으니 경개무궁(景槪無窮)이 좋을시고

– 작자 미상, 「유산가」

* **어주축수애삼춘**: 당나라 시인 왕유가 지은 「도원행」의 한 구절 '어주축수애산춘(漁舟逐水愛山春. 고깃배가 물결 따라 오르내리며 산에 물든 봄빛을 사랑하네.)'의 오기인 듯함.
* **양류세지사사록한데 황산곡리당춘절**: 버드나무 가는 가지가 실처럼 늘어져 푸른데 황산곡 속에 봄철을 만남.
* **연명오류**: 무릉도원에 대한 이야기인 「도화원기(桃花源記)」를 쓴 진(晉)나라의 문인 도연명이 집 앞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심은 것을 가리킴.
* **소부 허유**: 고대 중국 요임금 때 기산 영수에서 은거하던 이들의 이름.
* **주곡제금은 천고절이요 적다정조는 일년풍이라**: 주걱새 우는 소리는 천고의 절개요 소쩍새가 우니 일 년 농사 풍년 들겠네.

[22001-0054]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폭포의 아름다운 모습을 직유법을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② 꽃과 나무의 색채 대비를 통해 숲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흐르는 물을 묘사하면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④ 기러기를 감정 이입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작품의 지배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⑤ 이상적인 공간을 언급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경치로 인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22001-0055]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리듬감을 형성하는 열거의 대상 중 하나이다.
② 정서를 지닌 존재인 것처럼 의인화되어 있다.
③ 성장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계절적 배경을 부각하고 있다.
④ 움직임을 드러내어 정적인 대상과의 대비를 보여 주고 있다.
⑤ 풍경 묘사에 활용되어 작품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2001-0056]

0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유산가」는 조선 말기에 도시의 유흥 공간이 확대되면서 주로 신분이 낮은 직업적 가객들이 창작하여 가창하고 전승한 노래들을 통칭하는 '잡가' 중 하나이다. 처음에는 도시의 신흥 상공인 계층이 잡가를 듣고 즐기다가 점차 서민과 상류 양반층으로까지 잡가의 향유층이 확대되면서 언어 사용 양상도 변화하였다. 형식의 측면에서 볼 때 잡가에는 시조, 가사, 판소리, 민요 등 다양한 갈래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작품들이 있다. 예컨대 네 마디 율격이 연속되는 잡가는 가사에 뿌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잡가는 대중적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소재로 삼았기에, 내용이 매우 다양하며 전반적으로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경향을 띤다고 할 수 있다.

① 자연이 심신을 수련하는 공간이 아니라 '산천경개 구경'의 대상으로 그려진 것은 잡가가 지닌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경향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② 도시에서 가창된 노래이면서도 '죽장망혜 단표자로 천리강산 들어가니'처럼 깊은 산속의 상황을 소재로 삼은 것은 대중적 흥미를 고려한 선택이었을 것 같아.
③ '춘색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는데'에서 드러나는 율격이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점을 통해 형식 면에서는 기존 갈래인 가사에 뿌리를 둔 작품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④ '어주축수애삼춘이라더니'처럼 중국의 한시 구절을 인용한 것은 상류 양반층으로 확대된 향유층의 취향을 고려한 언어 사용 양상이 드러난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⑤ '기산 영수가 예 아니냐'는 신분이 낮은 직업적 가객들이 도시의 유흥 공간에 주로 머물던 것이 반영된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민씨의 팔촌이 되려무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띄여라 노다 가세 〈1연〉

남산 밑에다 장춘단을 짓고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 총만 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띄여라 노다 가세 〈2연〉

[A] ┌ 밭은 헐려서 신작로 되고
└ 집은 헐려서 정거장 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띄여라 노다 가세 〈5연〉

말깨나 하는 놈 재판소 가고
일깨나 하는 놈 공동산 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띄여라 노다 가세 〈6연〉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띄여라 노다 가세 〈10연〉

[B] ┌ 풍년이 왔다네 풍년이 와요
└ 삼천리강산에 풍년이 와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띄여라 노다 가세 〈11연〉

– 작자 미상, 「본조 아리랑」

나 신고산 우루루루 **함흥 차** 가는 소리
구고산 **큰애기** 반봇짐만 싼다
어랑 어랑 어허야 어러럼마 띄여라 연사연이로구나 〈1연〉

[C] 어린아해 밥 달라고 발버둥질 치는데
영감님은 술만 먹고 양산도만 하누나
어랑 어랑 어허야 어러럼마 듸여라 연사연이로구나 〈3연〉

[D] 정든 님을 다리고 산나물을 갈까
우리 오빠 따라서 봉천 차를 탈까
어랑 어랑 어허야 어러럼마 듸여라 연사연이로구나 〈5연〉

바람 많은 세파에 부대끼는 이내 몸
언제 언제나 **걱정 구름**을 면할가
어랑 어랑 어허야 어러럼마 듸여라 연사연이로구나 〈9연〉

상개굴 큰애기 님 오기만 기다리고
푸릇푸릇 봄배추는 봄비 오기만 기다린다
어랑 어랑 어허야 어러럼마 듸여라 연사연이로구나 〈10연〉

[E] 독수리 날뛰자 병아리 간곳없구요
무심한 기차 뚝 떠나자 우리 님 간곳없구나
어랑 어랑 어허야 어러럼마 듸여라 연사연이로구나 〈11연〉

부령 청진 가신 님 돈 벌면 오고
공동묘지 가신 님 언제나 오나
어랑 어랑 어허야 어러럼마 듸여라 연사연이로구나 〈12연〉

– 작자 미상, 「신고산 타령」

[22001-0057]

0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예전과 달라진 개인적 삶의 양상이 나타나 있다.
② 구체적 공간을 언급하고 해당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을 드러내고 있다.
③ 다양한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시적 정황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초월적 세계에서의 삶을 떠올리고 해당 세계에 대한 지향을 표현하고 있다.
⑤ 각 연의 상황을 다채롭게 구성하여 특정한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22001-0058]

02 〈보기〉와 관련지어 (가)의 〈1연〉, 〈2연〉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민씨 가문의 사람인 명성 황후가 살해된 지 5년 후인 1900년, 고종 이희는 충성을 바치다 먼저 떠난 신하들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지금의 중구, 즉 남산 밑에 '장충단'을 지었다. 처음에는 을미사변과 갑오년에 순직한 신하들을 대상으로 제사를 올렸고 추후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에 순의, 사절한 문신들도 대상에 포함하였다. 장충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 새로 조직한 신식 군대가 군악을 연주하며 조총을 쏘았다. 국권을 상실한 후 장충단은 결국 일제의 지시에 의해 폐사되고 만다. (가)의 '장춘단'은 '장충단'을 말하는 것으로, (가)의 1, 2연은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① 조선의 임금이 '이씨'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연〉의 '이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에는 충성을 바치다 죽음을 맞이한 신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투영되어 있군.
② 명성 황후가 '민씨'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연〉의 '민씨의 팔촌이 되려무나'는 임금의 외척들이 임금의 친족보다 더 큰 권세를 누리던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③ 1900년에 장충단을 지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2연〉의 '남산 밑에다 장춘단을 짓고'를 통해 이 민요의 가사가 형성된 시기와 역사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군.
④ 장충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 신식 군대가 군악을 연주했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2연〉의 '군악대 장단'은 신식 군대를 떠올리게 하려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군.
⑤ 국권을 상실하고 장충단이 폐사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2연〉의 '받들어 총만 한다'에는 개혁을 통해 더 나은 현실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투영되어 있겠군.

[22001-0059]

03 [A]~[E]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는 성격이 비슷한 두 개의 상황을 나열하여 변화하는 현실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② [B]는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며 의미를 강조하여 화자가 염원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③ [C]는 두 대상의 행동에서 공통된 요소를 찾아 부정적 세태를 풍자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④ [D]는 성격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상황을 병치하여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⑤ [E]는 자연물의 모습과 인간사의 모습을 나란히 두어 화자가 느끼는 비애감을 강화하고 있다.

[22001-0060]

0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의 각 연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민요의 사설을 장내 언술과 장외 언술로 구분하기도 한다. 장내 언술은 설정된 상황 안에 존재하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나 상황, 심리를 털어놓는 서술 방식이라면, 장외 언술은 상황 밖에 존재하는 화자가 혼잣말을 하듯 외부의 상황을 전달하는 서술 방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내 언술의 주된 내용은 화자가 스스로 당면하고 있거나 직접 관여하고 있는 사항인 경우가 많고, 장외 언술의 주된 내용은 화자가 관찰 대상과 거리를 두며 살펴보는 문제인 경우가 많다. 즉 제시된 상황에 얽매여 있을 때에는 장내 언술을,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때는 장외 언술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① (가)의 〈6연〉은 화자가 '말깨나 하는 놈', '일깨나 하는 놈'이 처하게 되는 상황을 거리를 두며 드러낸다는 점에서 장외 언술을 선택한 것이겠군.

② (가)의 〈10연〉은 임이 '나를 버리고 가시는' 상황을 언급하며 화자 자신의 처지와 심리를 털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장내 언술을 선택한 것이겠군.

③ (나)의 〈1연〉은 상황 밖에 존재하는 화자가 신고산 '함흥 차'의 모습과 구고산 '큰애기'의 행동을 관찰하여 드러낸다는 점에서 장외 언술을 선택한 것이겠군.

④ (나)의 〈9연〉은 '바람 많은 세파'나 '걱정 구름'에 얽매여 지내는 '나'의 당면한 상황과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장내 언술을 선택한 것이겠군.

⑤ (나)의 〈12연〉은 화자가 '부령 청진 가신 님'이나 '공동묘지 가신 님'을 기다리는 인물의 상황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장외 언술을 선택한 것이겠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밭에서 **이삭을 줍**는 어린애들 말이	田間拾穗村童語
	온종일 이리저리 주워야 ㉠소쿠리도 안 차요	盡日東西不滿筐
[B]	올해는 **벼 베는 이** 솜씨 **하도 좋**아	今歲刈禾人亦巧
	한 톨도 남김없이 **관창***에다 바쳤답니다	盡收遺穗上官倉

– 이달, 「습수요」

* 관창: 예전에, 관가의 창고를 이르던 말.

나

[C]	말에서 내려와 사람 부르니	下馬問人居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 보고는	婦女出門看
	초가집 안으로 맞아들이고	坐客茅屋下
	나그네 위하여 밥상 내온다	爲客具飯餐
[D]	바깥어른은 어디 계시오	丈夫亦何在
	아침에 쟁기 들고 산에 갔다오	扶犁朝上山
	산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	山田苦難耕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오	日晩猶未還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四顧絕無隣
	개와 닭들 비탈에서 서성대누나	鷄犬依層巒
	숲속에 사나운 호랑이가 많아서	中林多猛虎
	나물을 캐도 ㉡광주리에 못 차지요	采薵不盈盤
[E]	가련할손 이곳이 뭐가 좋아서	哀此獨何好
	가파른 **산골짝에 사는** 게요	崎嶇山谷間
	좋기야 하겠지요 **저 너머 평지**	樂哉彼平土
	가려 해도 **고을 관리** 겁이 난다오	欲往畏縣官

– 김창협, 「산민」

[22001-0061]

0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풍경이 변화하는 양상을 제시하여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의 삶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화자가 대상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된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유사한 모습을 지닌 자연물을 나열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⑤ 시적 상황을 구성하는 인물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2001-0062]

0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과 달리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물의 의지를 보여 준다.
② ㉠은 ㉡과 달리 공간적 배경이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곳임을 알려 준다.
③ ㉡은 ㉠과 달리 타인의 행위를 조롱하려는 인물의 의도를 담고 있다.
④ ㉠과 ㉡은 모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인해 인물이 결핍을 느끼게 한다.
⑤ ㉠과 ㉡은 모두 세상에 대한 인물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된 계기와 관련이 있다.

[22001-0063]

03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조선 시대 지식인 작가들은 현실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백성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를 한시로 담아냈다. (가)와 (나)의 작가 또한 순박한 향촌 백성들의 궁핍한 삶과 그들을 억압하는 부조리한 외부의 횡포에도 예리한 시선을 던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을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사실적으로 형상화하는 성과를 보여 주었다.

① [A]에서는 '이삭을 줍'고 [D]에서는 '산밭'을 가는 행위가 제시되는데, 이를 통해 백성들의 궁핍한 상황이 드러나고 있군.
② [B]에서는 벼 베는 솜씨가 '하도 좋'다고 비꼬는 표현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이삭 줍는 어린애들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작가의 시선이 드러나고 있군.
③ [B]에서는 '벼 베는 이'와 '관창', [E]에서는 '산골짝에 사는' 이와 '고을 관리'의 관계가 제시되는데, 이를 통해 백성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 관리들의 횡포 때문임이 드러나고 있군.
④ [C]에서 '나그네 위하여 밥상 내온' 사람에 대한 정보는 [D]와 [E]를 통해 제시되는데, 이를 통해 궁핍한 가운데 순박한 인정을 잃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군.
⑤ [D]에서는 향촌의 상황이, [E]에서는 이와 대비되는 '저 너머 평지'의 상황이 제시되는데, 이를 통해 부조리한 횡포에 맞서서 대응하는 백성들의 삶이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있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제1수〉

굽어보면 **천심 녹수(千尋綠水)** 돌아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가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제2수〉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 화총(蘆荻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 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제3수〉

산두(山頭)에 한운(閑雲)이 일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가 난다
무심(無心)코 다정(多情)한 것 이 두 것이로다
일생(一生)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제4수〉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 리(千里)**로다
어주(魚舟)에 누웠은들 잊은 틈이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제5수〉

– 이현보, 「어부단가」

* **노적 화총**: 갈대와 억새풀이 가득한 곳.
* **일반 청의미**: 보통 사람이 품은 맑은 뜻.
* **제세현**: 세상을 구제할 만한 어진 인물.

[22001-0064]

01 **어부(漁父)의 생애(生涯)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간의 흐름에 구애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다.
② 배를 타며 근심과 걱정을 잊으려고 하는 삶이다.
③ 자연과 친화를 누리며 한가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삶이다.
④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삶이다.
⑤ 고기를 낚는 고된 노동에서 정신적인 보람과 기쁨을 찾는 삶이다.

[22001-0065]

0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1수〉에서 〈제2수〉로 이어지며 나타나는 동일한 자연물의 역동적인 변모에 대한 묘사는 화자의 변화하는 심경을 대변하고 있다.
② 〈제1수〉와 〈제3수〉는 모두 자연물이 가진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혼란스러운 현실에 대한 화자의 경계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제2수〉와 〈제4수〉는 모두 화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느끼는, 주위 자연물들과의 일체감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제3수〉에서 〈제4수〉로 이어지며 나타나는 공간 이동은 화자가 느끼는 결핍감이 충족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제4수〉와 〈제5수〉는 모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삶의 전형을 형상화하고 있다.

[22001-0066]

0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부단가」에서 '강호 자연'과 '정치 현실'이라는 두 세계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심리적으로도 단절된 것처럼 그려지고 있으며 화자는 그 분열이 쉽게 초극될 수 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작품에서 강호 자연은 부패한 세속적 세계와 대립을 이루는 도덕적 영역으로 형상화되었다. 따라서 자연의 청정한 이미지는 두 세계의 대립적 분할을 전제로 한, 정치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결의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강호의 폐쇄성으로도 나타난다. 하지만 강호 자연의 그 고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포된 화자의 정치의식은 완전히 방관적이지만은 않았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① '천심 녹수'와 '만첩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는 '인세'와 대립을 이루는 폐쇄적 공간으로서 '무심'의 도덕적 영역으로 형상화된 것이라 할 수 있군.
② '십장 홍진'과 떨어져 있어도 '강호에 월백'을 떠올리는 화자의 모습에서 정치 현실에 완전히 방관적이지만은 않았던 화자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군.
③ '일반 청의미'는 부패한 세속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서 강호 자연이 가진 청정한 이미지에서 비롯되는 화자의 마음 상태라 할 수 있군.
④ '장안', '북궐'과의 거리를 '천 리'로 나타낸 것은 강호 자연과 정치 현실 사이에서 화자가 느끼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와 분열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군.
⑤ '어주에 누'워 있으면서도 잊지 못하는 대상을 '제세현'이라는 대안을 떠올림으로써 떨쳐 버리는 것에서 정치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결의를 엿볼 수 있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 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이처럼 떠돌으랴, 아침에 저물손에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동이랴, 남북이랴,
㉡내 몸은 떠가나니, 볼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이 아득임**은,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에.

그러나 어쩌면 황송한 이 심정을!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늘은 길이 이어 가라. **나는 나아가리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보이는 산비탈엔
㉢온 새벽 동무들 저 저 혼자…… 산경(山耕)을 김매이는.

– 김소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 **보습**: 쟁기, 극젱이 등 땅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의 술바닥에 끼우는, 넓적한 삽 모양의 쇳조각.

나 돌각담에 머루 송이 깜하니 익고
자갈밭에 아즈까리 알이 쏟아지는
잠풍하니* 볕바른 골짝이다
나는 이 골짝에서 **한겨울을 날려고 집을 한 채 구하**였다

집이 멫 집 되지 않는 골안은
모두 터앝*에 김장감이 퍼지고
뜨락에 잡곡 낟가리가 쌓여서

어니 세월에 뷔일 듯한 집은 뵈이지 않았다
㉣나는 자꼬 골안으로 깊이 들어갔다

골이 다한 산대 밑에 자그마한 돌능와집이 한 채 있어서
이 집 남길동* 단 안주인은 겨울이면 집을 내고
산을 돌아 거리로 내려간다는 말을 하는데
해바른 마당에는 꿀벌이 스무나문 통 있었다

㉤낮 기울은 날을 햇볕 장글장글*한 툇마루에 걸어앉어서
지난여름 도락구를 타고 장진(長津) 땅에 가서 꿀을 치고 돌아왔다는 이 벌들을 바라보며 나는
날이 어서 추워져서 쑥국화꽃도 시들고 이 바즈런한 백성들도 다 제집으로 들은 뒤에 **이 골안**으로 올 것을 생각하였다

– 백석, 「산곡 – 함주시초 5」

* **잠풍하니**: 잔풍(殘風)하니. 바람이 잔잔하게 부는.
* **터앝**: 집의 울안에 있는 작은 밭.
* **남길동**: 저고리 소맷부리에 이어서 대는 남색의 천.
* **장글장글**: 바람이 없는 날에 해가 살을 지질 듯이 조금 따갑게 계속 내리쬐는 모양.

[22001-0067]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나)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내면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② (가)는 (나)와 달리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시행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계절의 순환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의성어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22001-0068]

0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인간에게 특정 공간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 시에서도 자신이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한 조건으로 특정 공간에 가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많다. (가)는 일제 강점기 집과 땅을 빼앗겨 고향을 떠나 유랑하던 조선인의 정한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살려는 당대 조선인의 바람을 특정 공간에 대한 지향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는 현실의 삶에 지쳐 있던 시인이 함주 지역을 유랑한 체험을 담은 작품이다. 화자는 한겨울을 나기 위한 특정 공간을 찾고 있는데, 이는 답답한 삶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마음의 안식을 취하고 싶은 시인의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가)에서 집을 잃고 떠돌며 '새로운 탄식을 얻'었다는 것은 국권 상실로 인해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신세가 된 조선인들의 정한을 드러낸 것이로군.
② (가)에서 '자칫 가늘은 길'을 '나는 나아가리라'는 것은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어렵겠지만 그러한 현실을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로군.
③ (나)에서 '한겨울을 날려고 집을 한 채 구하'려고 한 것은 잠시나마 답답한 현실과 단절된 채 살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낸 것이로군.
④ (가)에서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을, (나)에서 '이 골안'은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을 나타낸 것이로군.
⑤ (가)에서 '별빛이 아득임'과 (나)에서 '날이 어서 추워져서 쑥국화꽃'이 시드는 것은 자신이 지향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화자의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로군.

[22001-0069]

0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과거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② ㉡은 새로운 삶을 꿈꾸지 않는 현재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③ ㉢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자신이 바라는 삶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④ ㉣은 소망이 조만간에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낸 것이다.
⑤ ㉤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겠다는 다짐을 나타낸 것이다.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야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참어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든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야서, ㉠한숨의 미풍에 날어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쓰」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러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골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얐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나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읜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옵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22001-0070]

0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떠나간 대상에 대한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②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③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④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화자의 체념적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22001-0071]

02 이미지의 활용을 중심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푸른 산빛'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깨치고'라는 시어를 통해 부정함으로써 화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② '옛 맹세'의 '굳고 빛나든' 이미지가 '차디찬'이라는 이미지로 전환됨으로써 화자와 '님'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③ '향기로운'과 '꽃다운'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님'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새 희망'이라는 관념을 '들어부었습니다'에서 연상되는 역동적 이미지로 연결함으로써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⑤ '사랑의 노래'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님의 침묵'이라는 상반된 이미지와 병치함으로써 화자가 느끼고 있는 회한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22001-0072]

0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느낀 허망함을 드러내고 있다.
② ㉡: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절망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③ ㉢: 접속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④ ㉣: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슬픔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⑤ ㉤: 의도적으로 어순을 도치시켜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22001-0073]

04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은 모두 대립적인 시어와 표현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시적 대상으로 인해 촉발된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반된 의미의 시어와 표현을 통해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을 형상화하기도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① (가)의 화자가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면서도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는 것은 대립적 의미의 표현을 병치하여 상황에 대한 화자의 새로운 인식을 드러낸 것이군.
② (나)의 화자는 '모란'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이었던 '봄'을 '모란'이 지는 슬픔의 계절로 인식함으로써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군.
③ (가)의 화자가 '염려'하는 행위와 (나)의 화자가 '삼백예순 날' '우'는 행위는 모두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적극적 노력을 형상화한 것이군.
④ (가)의 화자는 '슬픔'이 '새 희망'으로, (나)의 화자는 '내 보람'이 '설움'으로 변화하는 경험을 통해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 전환이 나타나고 있군.
⑤ (가)의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얐습니다'와 (나)의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는 모두 부정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극복 의지가 드러난 것이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골방**의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黃昏)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같이도
인간(人間)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 다오

저— 십이성좌(十二星座)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鐘)소리 저문 삼림(森林) 속 그윽한 수녀(修女)들에게도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囚人)들에게도
의지가지없는 그들의 심장(心腸)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고비 사막(沙漠)을 걸어가는 낙타(駱駝) 탄 **행상대(行商隊)**에게나
아프리카 녹음(綠陰) 속 활 쏘는 **토인(土人)들**에게라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地球)의 반(半)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 다오

내 오월(五月)의 골방이 ㉢아늑도 하니
황혼아 **내일(來日)**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암암(暗暗)히*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 이육사, 「황혼」

*암암히: 기억에 남은 것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하게. 또는 깊숙하고 고요하게. (처음 이 시가 발표된 잡지에는 '정정(情情)히'로 되어 있으나 이를 오식으로 보고 '암암히'로 교정한 초판본 시집의 표기에 따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견해가 우세함. 상기는 『육사시집(1946)』 초판본에 따라 표기한 것임.)

나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 첩 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 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 첩 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22001-0074]

0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명사형으로 연을 끝맺는 방식을 통해 시적 여운을 느끼게 하고 있다.
②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③ 동일한 행을 반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④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⑤ 특정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보여 주고 있다.

[22001-0075]

02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황혼에 기대하는 바를 강조하며, 황혼에 대한 화자의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② ㉡: 별들, 수녀들, 수인들의 연약함을 강조하며, 이들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드러낸다.
③ ㉢: 화자가 골방에서 현재 느끼는 감정을 강조하며, 황혼을 통해 화자가 얻는 가치를 드러낸다.
④ ㉣: 어릴 때의 동무들이 남아 있지 않음을 강조하며, 과거와 달라진 삶에서 느낀 화자의 상실감을 드러낸다.
⑤ ㉤: 삶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상태를 부각하며, 타지에서 안정된 삶을 살려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다.

[22001-0076]

0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육사와 윤동주는 방(房)의 이미지를 통해 현실이나 자기 내면에 대한 의식을 드러낸다. 이육사는 (가)에서 좁은 '골방' 안에 있는 화자가 자신으로부터 외부 세계로 관심을 넓혀 가며 타자 지향적 삶을 추구하는 모습과 미래에 대해 기대감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때 방에 고립되고 협소한 공간이 아닌 개방성과 확장성을 지닌 공간으로서의 이미지가 부여된다. 윤동주는 (나)에서 어둡고 고립된 방을 암울한 시대 현실과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는 공간으로 묘사한다. 시상 전개에 따라 방은 이전보다 밝아지는데, 이는 자아를 성찰하며 현실을 이겨 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① (가)에서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 나의 입술을 보내'는 것과 (나)에서 '최초의 악수'를 하는 것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군.
② (가)에서 '골방'에서 '인간'의 삶에 대해 '바다의 흰 갈매기들같'다고 표현한 것과 (나)에서 '육 첩 방'을 '남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화자 자신의 처지를 형상화한 것이군.
③ (가)에서 '골방'에서 '지구의 반쪽'을 떠올린 것은 방의 개방적이고 확장적인 이미지를, (나)에서 '나'의 모습을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이전보다 밝아진 방의 이미지를 드러낸 것이군.
④ (가)에서 '행상대'와 '토인들'을 떠올린 것은 관심을 외부 세계로 넓혀 가는 화자의 모습을, (나)에서 '시'가 '쉽게 씌어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 것은 자아를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군.
⑤ (가)에서 '푸른 커—튼을 걷'을 '내일'을 떠올린 것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나)에서 '학비 봉투를 받아'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은 현실을 이겨 내겠다는 화자의 결심을 나타낸 것이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꽃이 지기로소니 / 바람을 탓하랴.

주렴 밖에 성긴 별이 / 하나둘 스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 머언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 뜰에 어리어

하이얀 미닫이가 / 우련 붉어라.

㉢묻혀서 사는 이의 /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 저어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 울고 싶어라.

– 조지훈, 「낙화」

나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늘인다.**

먼 길에 올 제, / 홀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 김현승, 「플라타너스」

[22001-0077]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나)는 (가)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⑤ (가)는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나)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22001-0078]

0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인들은 시를 통해 자연에서 발견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형상화한다. (가)는 자연 현상이나 자연물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아름다움이 내면에 공명을 일으켜 유발한 특별한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나)는 자연물에서 발견한 숭고한 덕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인간으로서 본받을 만한 특성을 지닌 자연물을 예찬하고, 나아가 그러한 덕성을 지닌 자연물에 대한 동반자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① (가)에서 '하이얀 미닫이가 / 우련 붉어라.'는 떨어지는 꽃잎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대비되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표현한 것이군.
② (가)에서 '꽃이 지는 아침은 / 울고 싶어라.'는 꽃이 지는 모습이 화자의 내면에 공명을 일으켜 느끼게 된 서글픔을 드러낸 것이군.
③ (나)에서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늘인다.'는 넉넉한 사랑과 포용력을 지닌 플라타너스의 덕성을 예찬한 것이군.
④ (나)에서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플라타너스의 자세를 본받고 싶다는 화자의 바람을 표현한 것이군.
⑤ (나)에서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은 플라타너스에 대한 화자의 동반자적 인식을 나타낸 것이군.

[22001-0079]

0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을 통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② ㉡은 산을 유정물처럼 표현하여 시간이 경과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을 통해 화자의 시선이 외부에서 화자의 내면으로 옮겨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은 플라타너스가 꿈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 ㉤에는 플라타너스와의 인연이 언젠가 단절될 것이라는 화자의 절망감이 담겨 있다.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山)새도 날아와
우짖지 않고,

구름도 떠가곤
오지 않는다.

인적 끊인 곳,
㉠홀로 앉은
가을 산의 어스름.

호오이 호오이 소리 높여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 보나,

㉡울림은 헛되이
빈 골골을 되돌아올 뿐.

산그늘 길게 늘이며
붉게 해는 넘어가고

황혼과 함께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생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느뇨.

– 박두진, 「도봉」

(나) 오늘도 해 다 저물도록 / 그리운 [그 사람] 보이지 않네
언제부턴가 우리 가슴속 깊이
뜨건 눈물로 숨은 그 사람 / 오늘도 보이지 않네
모낸 논 가득 개구리들 울어
㉣저기 저 산만 어둡게 일어나
돌아앉아 어깨 들먹이며 울고
보릿대 들불은 들을 뚫고 치솟아
들을 밝히지만 / 그 불길 속에서도 그 사람 보이지 않네
언젠가, 아 언젠가는 / 이 **칙칙한 어둠**을 찢으며
눈물 속에 **꽃처럼** 피어날 / 저 **남산 꽃 같은** 사람
어느 어둠에 덮여 있는지 / 하루, 이 하루를 다 찾아다니다
짐승들도 집 찾아드는
㉤저문 들길에서도
그리운 그 사람 보이지 않네.

– 김용택, 「그리운 그 사람」

[22001-0080]

0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물과 인간의 속성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② 공간의 이동을 통해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③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④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역동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22001-0081]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화자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시 · 공간적 배경이다.
② ㉡: 공간에서 느껴지는 적막감과 공허함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 특정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 의인법을 활용해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⑤ ㉤: 시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가 느끼고 있는 그리움이 강조되고 있다.

[22001-0082]

03 (가)의 그대와 (나)의 그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대'는 화자가 느끼는 슬픔을 촉발하는 대상이고, '그 사람'은 화자가 느끼는 그리움을 위안하는 대상이다.
② '그대'는 화자가 연민의 정서를 느끼고 있는 대상이고, '그 사람'은 화자가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대상이다.
③ '그대'는 화자가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대상이지만, '그 사람'은 화자가 그 소재는 알고 있지만 만날 수 없는 대상이다.
④ '그대'는 화자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찾고자 하는 대상이지만, '그 사람'은 화자가 수동적인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다.
⑤ '그대'는 화자가 부정적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이고, '그 사람'은 화자를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대상이다.

[22001-0083]

04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박두진의 「도봉」과 김용택의 「그리운 그 사람」은 각각 일제 강점기와 1980년대의 암울한 시대 현실 속에서 작가가 느끼는 괴로움과 안타까움을 상징적인 시어와 비유적 표현을 통해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두 작품은 모두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데 자연물과 시·공간적 배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① (가)의 '산새'와 '구름'은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고독감을 형상화하기 위해 활용된 자연물이라고 볼 수 있군.
② (나)의 '꽃처럼'과 '남산 꽃 같은'은 1980년대의 암울한 시대 현실을 종식할 대상을 형상화하기 위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군.
③ (가)의 '이 밤'과 (나)의 '칙칙한 어둠'은 두 작품의 화자가 마주하고 있는 암울한 시대 현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군.
④ (가)의 '오직', '한갓'에는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나)의 '언젠가, 아 언젠가는'에는 희망을 잃지 않는 화자의 기대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군.
⑤ (가)의 '호오이 호오이'는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나)의 '보릿대 들불'은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최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쭉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 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 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끄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꾸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낼랑 고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 밤 비단 치마를 나부끼며 **떼 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허식: 실속이 없이 겉만 꾸밈.
*콩바심: 거두어들인 콩을 두드려 콩알을 털어 내는 일.

나 길을 가다 보니
외딴집 한 채가 비어 있었다.
㉢무슨 이 집의 연척(緣戚)*이라도 되는 양
앞뒤를 한 바퀴 휘둘러보다.
구렁 난 **지붕**에는
풀 버섯이 같이 자라고
썩은새* 추녀 끝엔 박쥐도 와서 달릴 듯하다.
먼지 낀 툇마루엔 진흙 자국만 인(印) 찍혔는데
떨어진 문짝 찢어진 벽지 틈에서
퀴퀴한 냄새가 훅 끼치고
㉣물이끼 퍼런 바가지 샘에
무당개구리 몇 놈이 얼른 숨는다.

이걸 가지곤
마른 강변에 덴 소 냅뛰듯
암만 바시대도
필경 먹고살 도리가 없어
별똥지기 천수답(天水畓)과 골아실 텃논이며
논배미 밭다랑이 다 버려둔 채
지게 품을 팔고
막벌이를 하더라도 도회지라야 한다고……
오쟁이* 톡톡 털어 이른 아침을 지었을 게고
가다가 차 안에서 먹을 보리개떡도 쪘을 테지만
한번 떠난 뒤 **소식이 없고**

장독대 옆에
씨 떨어져 자라난 맨드라미 봉숭아꽃도 피었네.
돌각담 한 모퉁이 대추나무에
참새 한 마리 포르르 날아들어
심심파적으로 **주인**의 후일담을 말해 주는 양
저 혼자 재재거리다 말고 간다.
㉤찌는 말복(末伏) 철 저녁 샛때
귀창 터지거라
쓰르라미만 쓰라리게 울고 있더라.

– 김관식, 「폐가에 부쳐」

* **연척**: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
* **썩은새**: 오래되어 썩은 이엉.
* **오쟁이**: 짚으로 엮어 만든 작은 섬. '섬'은 곡식 따위를 담기 위하여 짚으로 엮어 만든 그릇을 가리킴.

[22001-0084]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나)와 달리 청자를 호명하여 과거의 경험을 상기시키고 있다.
② (가)는 (나)와 달리 청유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그려 내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시구를 반복하여 대상이 지닌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22001-0085]

02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는 상황을 보여 준다.
② ㉡은 상승적 이미지를 통해 믿음이 실현될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보여 준다.
③ ㉢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집과 화자의 인연이 오래되었음을 보여 준다.
④ ㉣은 현재형 진술을 통해 계절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⑤ ㉤은 계절적 이미지를 배경으로 집을 보며 화자가 느낀 정서를 보여 준다.

[22001-0086]

0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현대시에서 고향은 현실과 대조되는 이상적인 세계, 혹은 과거와 달리 암울하게 변해 버린 세계로 그려지기도 한다. (가)에서 고향은 기억 속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세계이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순수한 존재로,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처럼 (가)의 고향은 현실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되찾아야 할 세계로 표현된다. 한편 (나)에서 고향은 산업화 과정에서 이촌향도로 인해 황폐해진 공간이다. 몰락한 고향에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사람들은 절망을 느끼고 도시로 떠나게 된다. 따라서 (나)의 고향은 농민으로서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공간이자 현실의 아픔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곳으로 나타난다.

① (가)에서 '고향'을 '병들지 않은 젊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순수했던 고향에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② (가)에서 '떼 지어 춤추'는 것을 '돌아가'야 할 '풍속'이라고 표현한 것은, 공동체적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을 이상적으로 인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겠군.
③ (나)에서 '외딴집'의 '주인'이 '소식이 없'다고 표현한 것은, 농민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 버린 고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겠군.
④ (가)에서 '환한 얼굴'은 자연 속에서 즐거운 삶을 사는 고향 사람들을, (나)에서 '참새 한 마리'는 절망스러운 삶을 사는 고향 사람들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⑤ (가)에서 '냇물 가'를 '구슬'이 흘러가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은 아름다웠던 고향의 모습을, (나)에서 '지붕'을 '풀 버섯'이 자라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은 황폐해진 고향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겠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 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루 가서
금방 따 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聖者)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 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 신경림, 「길」

[22001-0087]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구조의 시구를 활용하여 과거와 달라진 대상의 현재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② (나)는 (가)와 달리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화자가 바라는 바를 표출하고 있다.
⑤ (가)는 청각적 심상으로, (나)는 후각적 심상으로 생명력 넘치는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22001-0088]

02 〈보기〉의 ⓐ, ⓑ와 관련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는 산업화·근대화의 폐해를 그린 작품으로 평가되지만, '비둘기'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먼저 ⓐ'비둘기'를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현대 문명에 의해 훼손되고 파괴되는 자연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한다. 또 ⓑ'비둘기'를 보존보다는 개발을 중시하는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도시 변두리 주민을 형상화한 것이라 보기도 하고, ⓒ물질만을 중시하는 현대 문명에 의해 소외되어 살아가는 현대인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① ⓐ로 볼 때,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삶의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자연을 함부로 훼손함을 표현한 것이겠군.
② ⓐ로 볼 때,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친다는 것은 자연을 위협하는 현대 문명의 폭력성을 표현한 것이겠군.
③ ⓑ로 볼 때,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 가슴에 금이 갔다'는 것은 도시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을 본 도시 변두리 주민의 분노를 표현한 것이겠군.
④ ⓑ로 볼 때, 비둘기가 '지붕에 올라 앉아 /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낀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도시 변두리 주민이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⑤ ⓒ로 볼 때, '사랑과 평화의 새'인 비둘기가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 낳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은 정신보다 물질을 중시하는 현대 문명에 의해 소외를 경험하는 현대인을 표현한 것이겠군.

[22001-0089]

03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나)에서 길은 단순히 우리가 걷는 물리적 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작품에서 길은 인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길의 상징성과 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인생과 관련한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① ㉠은 실패의 경험들과 타인의 도움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고 믿는 이들이다.
② ㉡은 인생 전체로 볼 때, 인생에서 겪는 시련이나 고난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여기는 이들이다.
③ ㉢은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는 이들이다.
④ ㉠은 ㉢과 달리 자신들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닌 이들이다.
⑤ ㉡은 ㉢과 달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다양한 세상 경험에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다.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지 혼자 무력(無力)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어디 한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알맞은 바람 만나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엄동설한 칼별은 알고 있나니
무르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 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아 지금 감춰 둔 누룩 뜨나니
냄새 퍼지나니

– 이성부, 「누룩」

나 얼음을 깬다
강에는 **얼은 물**

깰수록 **청청한**
소리가 난다
강이여 우리가 이룰 수 없어
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
이 강을 이루는 물소리가
겨울에 **죽은 땅의 목청을 트고**
이 나라의 어린 아희들아
물은 **또한** 이 땅의 **풀잎에도 운다**
얼음을 깬다
얼음을 꺼서 물을 마신다
우리가 스스로 흐르는 강을 이루고
물이 제 소리를 이룰 때까지
아희들아

– 정희성, 「얼은 강을 건너며」

[22001-0090]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나)와 달리 의문형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② (나)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의인법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22001-0091]

02 **(가)와 (나)의 물이 지닌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자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② 다른 대상이 변화하도록 촉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③ 인간의 유한성에 대비되는 자연의 영속성을 부각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④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⑤ 상태에 따라 계절감을 드러내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22001-0092]

0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성부의 「누룩」과 정희성의 「얼은 강을 건너며」는 모두 억압적 정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를 갈망하는 작가의 의식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특히 이 두 작품에는 부조리한 시대 현실 속에서 핍박받는 민중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민중의 생명력과 자기희생, 연대 의식을 통해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기대가 드러나 있다.

① (가)의 '누룩'이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과 '죽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민중의 자기희생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② (나)의 '죽은 땅의 목청을 트고'와 '풀잎에도 운다'는 민중이 생명력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③ (가)의 '엄동설한'과 (나)의 '얼은 물'은 모두 민중이 핍박받던 억압적 정치 현실을 형상화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군.
④ (가)의 '덩달아서'와 (나)의 '또한'은 모두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는 민중의 수동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군.
⑤ (가)의 '냄새'가 '퍼지'는 것과 (나)의 '청청한 / 소리가 난' 것은 모두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작가의 기대가 드러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나 **언제나 안개가 짙은 / 안개의 나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안개 속에 사노라면 / **안개에 익숙해져**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안개의 나라에서는 그러므로
보려고 하지 말고 / ㉡들어야 한다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귀는 자꾸 커진다
하얀 안개의 귀를 가진 / **토끼 같은 사람들**이
안개의 나라에 산다

– 김광규, 「안개의 나라」

[22001-0093]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가)는 (나)와 달리 단정적 어조를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나)는 (가)와 달리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22001-0094]

0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시련에 굴복한 과거의 상황을, ㉡은 시련을 극복한 현재의 상황을 나타낸다.
② ㉠은 연약함을 느끼게 된 원인을, ㉡은 낙관적 태도를 가지게 된 원인을 보여 준다.
③ ㉠은 자연과 일체화되고 싶은 마음을, ㉡은 자연과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을 나타낸다.
④ ㉠은 삶에 대한 생각이 전환되는 계기를, ㉡은 삶에 대한 비애가 심화되는 계기를 보여 준다.
⑤ ㉠은 현실을 모른 채 이루어진 대응을, ㉡은 현실을 알기에 그로부터 도출해 낸 대응을 보여 준다.

[22001-0095]

0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작가는 때로는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내세우기도 한다. (가)는 바다를 나는 나비 이야기를 통해 막연하게 근대 문명을 동경했던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소망을 실현할 수 없는 일제 강점하의 현실을 깨달으며 느꼈던 비애감과 허탈함을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안개가 낀 나라의 이야기를 통해 1970년대 엄격한 통제 속에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의 상황과 이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을 드러냄으로써 부조리한 현실을 이겨 내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① (가)에서 '흰나비'가 '바다'를 '청무우밭'으로 판단했다고 표현한 것은, 근대 문명을 막연하게 동경했던 지식인들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겠군.
② (가)에서 '흰나비'를 '서글픈' 모습으로 표현한 것은, 근대화된 국가의 식민지가 되어 버린 조국의 현실에서 근대화의 냉혹함을 깨달은 지식인들의 비애를 드러낸 것이겠군.
③ (나)에서 '안개의 나라'는 '언제나 안개가 짙'다고 표현한 것은, 엄격한 통제로 진실을 감추는 부조리한 현실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④ (나)에서 '안개에 익숙해져'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억압적인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 것이겠군.
⑤ (나)에서 '토끼 같은 사람들'이 '하얀 안개의 귀'를 가졌다고 표현한 것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이겨 냈을 때의 상황을 드러낸 것이겠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그늘 내린 밭 귀퉁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턴다.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한 번을 내리치는 데도 힘을 더한다.
세상사(世上事)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 대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솨아솨아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도시(都市)에서 십 년을 가차이 살아 본 나로선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휘파람을 불어 가며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 댄다.
사람도 아무 곳에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려치면
참깨처럼 솨아솨아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되느니라."
할머니의 가엾어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 김준태, 「참깨를 털면서」

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22001-0096]

0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②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자기반성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③ 의인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
⑤ 대조되는 삶의 자세를 지닌 인물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22001-0097]

02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문학은 생각이나 정서와 같은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형상화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글로 형상화된 대상의 의미를 파악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작가가 표현하려 한 추상적 관념을 유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와 (나)는 모두 인물의 구체적 행위를 통해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에서는 할머니와 화자가 참깨를 터는 행위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표현하려 하였습니다. (나)에서는 배를 매는 행위를 통해 사랑의 본질과 속성을 드러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작품을 통해 작가가 나타내려는 추상적 관념이 무엇인지 말해 볼까요?

① (가)에서 '세상사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있다며 힘을 주어 참깨를 내려친다는 것은, 적은 노력으로 큰 성취를 얻었을 때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② (가)에서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된다며 할머니가 '나'를 꾸중하는 것은, 모든 일을 행할 때에는 순리를 따라야 한다는 깨달음을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③ (나)에서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 등 뒤로' 날아온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는 것은, 사랑이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시작된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④ (나)에서 '배가 들어와 / 던져지는 밧줄을 받'아 '어찌할 수 없이 / 배를 매게' 된다는 것은, 사랑은 운명처럼 불가항력적 성격을 지녔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⑤ (나)에서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라는 것은, 사랑을 하면 상대방을 제외한 다른 존재들은 무의미하게 여겨진다는 점을 보여 주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22001-0098]

03 (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에서 '젊은'은 할머니의 너그러운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는 '나'의 처지를 부각한다.
② (가)에서 '연이어'는 '한 번'으로 표현되는 화자의 성급한 태도가 변화했음을 나타낸다.
③ (나)에서 '천천히'는 '조용히'와 더불어 새로운 만남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표출한다.
④ (나)에서 '호젓한'은 '우연히' 시작된 사랑을 필연으로 만들 수 있다는 낙관적 자세를 나타낸다.
⑤ (나)에서 '온종일'은 '울렁이며'로 표현되어 있는 사랑의 감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너** 떠나간 지
세상의 달력으론 **열흘** 되었고
㉠내 피의 달력으론 **십 년** 되었다

나 슬픈 것은
네가 없는데도
밤 오면 잠들어야 하고
끼니 오면
입안 가득 밥알 떠 넣는 일이다

옛날 옛날 적
그 사람 되어 가며
그냥 그렇게 너를 **잊는 일**이다

이 아픔 그대로 있으면
㉡그래서 숨 막혀 나 죽으면
원도 없으리라

그러나
나 진실로 슬픈 것은

언젠가 너와 내가
이 뜨거움 까맣게
잊는다는 일이다

– 문정희, 「이별 이후」

나 **너를 기다리다가**
㉢오늘 하루도 마지막 날처럼 지나갔다
너를 기다리다가
ⓐ사랑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바람은 불고 강물은 흐르고
어느새 강변의 불빛마저 꺼져 버린 뒤
너를 기다리다가
㉣열차는 또다시 내 가슴 위로 소리 없이 지나갔다

우리가 만남이라고 불렀던
첫눈 내리는 강변역에서
내가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나의 운명보다 언제나
너의 운명을 더 슬퍼하기 때문이다
그 언젠가 겨울 산에서
저녁 별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며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렀던
바람 부는 강변역에서
나는 오늘도
㉤**우리**가 물결처럼
다시 만나야 할 날들을 생각했다

– 정호승, 「강변역에서」

[22001-0099]

0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역전적인 시간 구성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반어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③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⑤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을 통해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22001-0100]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화자가 '너'와의 이별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② ㉡: '너'와의 이별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③ ㉢: 이별 후에도 '너'를 향해 지속되는 화자의 사랑과 고통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④ ㉣: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너'를 기다리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⑤ ㉤: 사랑했던 '너'와 재회해야 한다는 화자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22001-0101]

03 (가)의 화자의 입장에서 ⓐ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랑의 모습이 인생의 여러 사건들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기억된다는 것
② 지나가 버린 사랑일지라도 나의 인생 속에서 추억이 되어 계속 존재한다는 것
③ 시간의 흐름 속에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랑도 역시 기다림이라는 것
④ 삶과 일상은 언제나 지속되며 이별의 아픔도 시간의 흐름 속에 잊혀 간다는 것
⑤ 사랑도 인생의 다양한 사건들처럼 나에게 다양한 감정을 체험하도록 한다는 것

[22001-0102]

0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문정희의 「이별 이후」와 정호승의 「강변역에서」는 모두 남녀 간의 이별을 소재로 이별의 아픔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두 작품은 모두 이별한 화자의 내밀한 심리를 드러내면서 이별한 사람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별에 대응하는 상이한 양상과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① (가)의 화자는 '네가 없는데도', '언젠가'와 같이 이별 이후의 시간에 이별한 사람이 잊혀 가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군.
② (나)의 화자는 '우리가 만남이라고 불렀던',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렀던'과 같은 표현을 통해 과거의 추억을 환기하며 '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군.
③ (가)는 '열흘', '십 년'과 같은 시간을 중심으로, (나)는 '첫눈 내리는 강변역'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너'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군.
④ (가)의 화자는 '너와 내가'라는 표현을 활용하여, (나)의 화자는 '우리'라는 표현을 활용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군.
⑤ (가)의 화자는 '잊는 일', '잊는다는 일'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의 화자는 '기다리다가', '다시 만나야 할 날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각각 이별에 대한 상이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 김수영, 「파밭 가에서」

* **석경**: 유리로 만든 거울.
* **조로**: 포르투갈어인 '조로(jorro)'에서 유래한 말로, '물뿌리개'를 의미함.

나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서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모두 붉은 흙 가면 같다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워 냈을까

무표정한 저 얼굴 속 어디에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속을
밀물져 가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하늘 한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
별들을 가마에서 구워 내는 분 계시겠지만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리겠지만
물이 쏟아진 듯 몰려가는
㉢땅속은 너무나 깊어
그 별빛 여기까지 닿기나 할는지

수많은 저 사람들 ㉣몸속마다에는
㉤밖에선 볼 수 없는 뜨거움이 일렁거리나 보다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불가마 하나씩 깃들어 있나 보다

저렇듯 십 년 이십 년 오십 년 얼굴을 구워 내고 있었으니
모든 얼굴은 뜨거운 속이 굽는 붉은 흙 가면인가 보다

– 김혜순, 「별을 굽다」

[22001-0103]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명령문을 활용하여, (나)는 의문문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가)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나)는 시적 대상을 호명하는 방식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대조되는 시어를 제시하여 화자의 의도를 보여 주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빗대는 방식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는 방식을 통해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22001-0104]

02 (나)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에 영향을 주는 초월적 존재가 머무는 공간이다.
② ㉡은 ㉠으로부터 괴리되어 있는 공간이다.
③ ㉢은 ㉡과 달리 인간의 운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④ ㉣은 ㉢에서 화자가 만난 인간의 특성이 형성된 공간이다.
⑤ ㉤은 ㉡과 ㉢을 포함하는 공간이다.

[22001-0105]

03 〈보기〉는 선생님이 안내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가)와 (나)는 '보아야 할' 것, 또는 '본'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의 화자는 자연물을 보아야 할 것으로 언급하며 변화의 과정에서 겪게 될 경험, 변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며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의 화자는 일상생활에서 본 사람들의 외면에 대한 인상을 드러낸 후, 그 속에 감추어진 힘의 근원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외면과는 달리, 내면에 삶에 대한 열정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 (나)를 감상해 볼까요?

① (가)에서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는,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겠군.
② (가)에서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는, 기존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날 때 새로운 삶이 실현될 수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겠군.
③ (가)에서 '묵은 사랑이 /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 젖어 있을 때'는, 화자가 변화의 과정에서 겪었던 내면의 갈등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④ (나)에서 '불가마 하나씩 깃들어 있나 보다'는, 사람들의 무표정한 겉모습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나타낸 것이겠군.
⑤ (나)에서 '모든 얼굴은 뜨거운 속이 굽는 붉은 흙 가면인가 보다'는, 사람들의 내면에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조 동명 성왕(東明聖王)은 성이 고씨(高氏)이고 이름은 주몽(朱蒙)이다. 이에 앞서 부여(扶餘) 왕 해부루(解夫婁)가 늙도록 아들이 없자 산천에 제사를 지내어 대를 이을 자식을 구하였다. 그가 탄 말이 곤연(鯤淵)에 이르러 큰 돌을 보더니 마주 대하며 눈물을 흘렸다. 왕이 이를 괴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옮기니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금색의 개구리 모양이었다. 왕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는 바로 하늘이 나에게 후사를 내려 주신 것이다."라고 하며 거두어 기르고, 이름을 금와(金蛙)라 하였다. 그가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다.

후에 그 재상 아란불(阿蘭弗)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전에 하늘[天]이 저에게 내려와 말하기를, '장차 내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곳을 피하라. 동해 물가에 땅이 있으니 이름을 가섭원(迦葉原)이라 하는데, 토양이 기름지고 오곡(五穀)이 자라기 알맞으니 도읍할 만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란불이 마침내 왕에게 권하여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東扶餘)라 하였다. 옛 도읍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으니,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으나 스스로 천제(天帝)의 아들 해모수(解慕漱)라 칭하며 와서 도읍하였다. 해부루가 죽자 금와가 왕위를 이었다. 이때 태백산(太白山) 남쪽 우발수(優渤水)에서 여자를 만났다. 여자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저는 하백(河伯)의 딸이고 이름은 유화(柳花)입니다. 여러 동생들과 함께 나가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 한 남자가 있어 스스로 말하기를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 하고 저를 웅심산(熊心山) 아래 압록강 인근의 방 안으로 꾀어 사통하고 곧바로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갔다고 꾸짖어 마침내 우발수에서 귀양살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금와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방 안에 가두었는데, 해가 비치어 유화가 몸을 끌어당겨 피하였으나 햇빛이 또 따라와 비쳤다. 그로 인하여 임신하여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다섯 되 정도 되었다. 왕이 알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다. 다시 길 가운데에 버렸으나 소나 말이 피하였다. 나중에는 들판에 버렸더니 새가 날개로 덮어 주었다. 왕이 알을 쪼개려고 하였으나 깨뜨릴 수가 없어 마침내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그 어미가 물건으로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남자아이가 껍질을 부수고 나왔는데 골격과 의표(儀表)가 영특하고 호걸다웠다. ㉡나이가 겨우 7살이었음에도 영리함이 범상치 않아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부여의 속어에 활을 잘 쏘는 것을 '주몽(朱蒙)'이라 하는 까닭에 그것으로 이름을 지었다.

금와에게는 일곱 아들이 있어 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 재주와 능력이 모두 주몽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맏아들 대소(帶素)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가 아니며, 그 사람됨이 용감합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려우니, 청컨대 그를 제거하시옵소서."라고 하였다.

[A] 왕이 듣지 않고 그에게 말을 기르도록 하였다. 주몽이 날랜 말을 알아보고 먹이를 줄여 야위게 하고, 둔한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하였다. 왕은 살찐 말을 자신이 타고, 마른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후에 들판에서 사냥하였는데, 주몽이 활을 잘 쏘기 때문에 화살을 적게 주었으나, 주몽이 잡은 짐승이 매우 많았다. 왕자와 여러 신하들이 또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주몽의 어머니가 은밀히 이를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알려 주며 말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해치려 한다.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 안 되겠느냐? 지체하여 머물다가 욕을 당하는 것보다 멀리 가서 뜻을 이루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였다.

주몽이 이에 오이(烏伊)·마리(摩離)·협보(陜父) 등 세 명과 친구가 되어 가다가 엄사수(淹淲水)에 이르러 건너려고 하였으나 다리가 없었다. 추격해 오는 병사들이 닥칠까 두려워 물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는 천제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오늘 도망하여 달아나는데 추격자들이 다가오니 어찌하면 좋은가?"라고 하였다.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으므로 주몽이 건널 수 있었다. 이후 물고기와 자라가 곧 흩어지니 추격해 오던 기병들은 건널 수 없었다.

주몽이 가다가 모둔곡(毛屯谷)에 이르러 세 명을 만났다. 그 가운데 한 명은 삼베옷[麻衣]을 입었고, 한 명은 기운 옷[衲衣]을 입었으며, 한 명은 수초로 엮은 옷[水藻衣]을 입고 있었다. 주몽이 묻기를, "그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姓)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인가?"라고 하였다. 삼베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름은 재사(再思)입니다."라고 하였고, 기운 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름은 무골(武骨)입니다."라고 하였으며, 수초로 엮은 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름은 묵거(默居)입니다."라고 하였으나, 성씨는 말하지 않았다. 주몽이 재사에게 극씨(克氏), 무골에게 중실씨(仲室氏), 묵거에게 소실씨(少室氏)라는 성씨를 주고, 무리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바야흐로 하늘의 크나큰 명령을 받아 나라의 기틀을 열려고 하는데 마침 이 세 명의 현명한 사람을 만났으니, 어찌 하늘께서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마침내 그 능력을 살펴 각기 일을 맡기고 그들과 함께 졸본천(卒本川)에 이르렀다.

주몽은 그 토양이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자연 지세가 험하고 단단한 것을 보고 드디어 도읍하려고 하였으나,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었기에 단지 비류수(沸流水) 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나라 이름을 고구려(高句麗)라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고(高)를 성씨로 삼았다. ㉤이때 주몽의 나이가 22세로, 한(漢) 효원제 건소(建昭) 2년, 신라 시조 혁거세 21년 갑신년이었다. 사방에서 듣고 와서 따르는 자가 많았다. 그 땅이 말갈 부락에 잇닿아 있기에 침입과 도적질의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그들을 물리치니, 말갈이 두려워 굴복하고 감히 침범하지 못하였다.

왕이 비류수 가운데로 채소 잎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상류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사냥을 하며 찾아서 비류국(沸流國)에 도착하였다. 그 나라의 왕 송양(松讓)이 나와서 보고 말하기를, "과인이 바다 깊숙한 곳에 치우쳐 있어서 일찍이 군자를 보지 못하였는데, 오늘 서로 만나니 또한 다행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그대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였다. 왕이 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천제의 아들로서 모처에 와서 도읍하였다."라고 하였다. 송양이 말하기를, "우리는 여러 대에 걸쳐 왕 노릇을 하였다. 땅이 작아 두 주인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 그대는 도읍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에게 빌붙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왕이 그 말을 분하게 여겨 그와 더불어 말다툼을 하고, 또 서로 활을 쏘아 기예를 겨루었는데, 송양이 당해 낼 수 없었다.

– 작자 미상, 「주몽 신화」

[22001-0106]

0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아란불은 하늘에게 들은 바를 전하며 금와에게 도읍을 옮길 것을 권했다.
② 송양이 두 나라의 존속 기간 차이를 언급하면서 건넨 말은 주몽의 반감을 샀다.
③ 해부루는 유화가 낳은 알이 상서롭지 않다고 여겨 그것을 버리거나 깨뜨리려 했다.
④ 주몽은 말갈과 손을 잡고 고구려의 외교적 실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다.
⑤ 대소는 주몽을 견제하기 위한 말을 함으로써 자기 아버지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가 있었다.

[22001-0107]

02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하여 ㉠~㉤을 설명한 내용 중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영웅적 인물의 삶을 다룬 이야기 중에는 주인공이 <u>고귀한 혈통</u>을 지닌 존재로 <u>신이한 탄생</u> 과정을 보이는 것이 많다. 버려졌다가 구출되어 삶을 이어 가게 되는 주인공은 <u>비범한 능력</u>을 지녔지만 <u>시련에 봉착</u>하고, <u>조력자</u>의 도움에 힘입어 실력을 쌓은 뒤 결국 시련을 극복하고 위업을 달성한다. 「주몽 신화」는 우리 문학에서 이와 같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최초로 보여 준 이야기로서 조선 후기 영웅 소설을 비롯한 후대의 문학 작품들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① ㉠: 주몽이 인간임에도 난생(卵生)을 한다는 점에서 '신이한 탄생'에 해당한다.
② ㉡: 주몽이 아주 어렸을 적부터 '비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③ ㉢: 주몽이 경쟁자들에 의해 가혹한 '시련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알게 한다.
④ ㉣: 주몽이 천상과 지상의 신성한 존재들과 연관된 '고귀한 혈통'임을 말해 준다.
⑤ ㉤: 주몽이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주변 국가에 많았음을 드러낸다.

[22001-0108]

03 윗글의 [A]와 〈보기〉의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구려 건국 신화인 「주몽 신화」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전하는데 문헌마다 조금씩 내용의 차이도 존재한다. 예컨대 이규보의 「동명왕편」에서 주석으로 기술된 『구삼국사(舊三國史)』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아서, 『삼국사기』에 수록된 윗글과 차이를 보인다.

[B] 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의 뜻을 시험코자 했다. 주몽은 속으로 한을 품고 어머니에게 말하되 "나는 천제의 손(孫)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을 먹이고 있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남쪽 땅으로 가서 국가를 세우고자 하나 어머니가 계시기로 감히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되 "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속 썩이던 것이다. 내가 듣기로는 먼 길을 가는 사람은 모름지기 좋은 말에 힘입는다고 했으니 내가 말을 골라 주겠다." 하고 드디어 말 기르는 데로 가서 긴 말채찍으로 마구 치니 말이 모두 놀라서 달리는데 한 누른 말이 두 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넘었다. 주몽은 그 말이 준마임을 알고 몰래 말 혀끝에 바늘을 찔러 놓았더니 그 말은 혀가 아파서 물과 풀을 먹지 못하고 야위어 갔다. 왕이 마목을 순행하다가 여러 말이 모두 살찐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마른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주몽이 이를 얻어서 바늘을 뽑고 더욱 잘 먹였다.

① [A]와 달리 [B]에서 주몽은 어머니 때문에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주저하고 있군.
② [A]보다 [B]에서 주몽이 날랜 말을 알아보게 되는 과정이 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군.
③ [B]와 달리 [A]에서 주몽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군.
④ [B]와 달리 [A]에서 어머니는 주몽에게 앞으로 닥칠 위험을 일러 주며 도피를 권유하고 있군.
⑤ [A]와 [B] 모두에서 주몽은 나중에 자신이 얻고자 하는 말을 일부러 야위게 만들고 있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소는 장연읍에서 한 이십 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장연읍에서 그 서도 민요로 유명한 몽금포 타령이 있는 데거든. 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 인지 바로 길 옆에 그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 할 거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 얘기지. 옛날에 그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재[長者] 첨지네 집터 자리라 그래. 장재 첨지네 집터 자린데, 거게서 그 영감이 수천 석 하는 부자루 아주 잘살구 거기다 좋은 집을 짓구서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깍쟁이가 돼서,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도와두 주지 않구,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래서 거기 사람들이 말하자면, '돼지, 돼지' 하는 그런 영감이라네.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이 구걸을 와두 당최 주질 않구, 또 대개 중들이 인지 그 시주를 하러 와두 도무지 주지를 않구, 그런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갬인데,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 인지 그 용소 있는 데서 한 이십 리 가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거게서 그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구서, 우정 인지 그 집을 찾어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서,

"이놈, 너이 중놈들이란 것은 불농불사*하구, 댕기면서 얻어만 먹구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루 인지 쌀 한 톨이라두 줄 수가 없으니까 가라구."

소리를 질러두 그대루 그 중이 이제 가지를 않구섬날 독경(讀經)을 하구 있으니까, 이 영감이 성이 나서 ㉢지금은 대개 삽이라는 게 있지마는 옛날에는 저 그것을 뭐이라구 하나, 부삽이라구 하나, 그거 있는데 그걸루 두엄 더미에서 쇠똥을 퍼 가주구서는,

"우리 집에 쌀은 줄 거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하구서는 바랑에다가 쇠똥을 옇단 말야. 그래두 그 중은 조금두 낯색두 변하지 않구서, 거저 '나미아미타불*'만 부르다가 그 쇠똥을 걸머진 채 바깥으루 나오는데, 그 마당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그 장재 첨지의 며느리가 인제 쌀을 씻구 있다가, 그 광경을 보구서, 그 중 보구서는 얘기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생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두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구."

그러면서 쌀, 씻든 쌀을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퍼섬낭, 그 바랑에다 여 줬단 말야. 그러니께 그 중이 며느리보고 하는 말이,

"당신 집에 인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당신 빨리 집으루 들어가서, 평소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어 있는지, 두세 가지만 가지구서 빨리 나와서는, 저 불타산을 향해서 빨리 도망질하라구."

그랬단 말야.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급히 자기 집으루 들어가서, 방 안에 자기 아들을, 뉘어서 재우든, 아이를 들쳐 업구, 또 그 여자가 인지 명지를 짜던 그 명지 도토마리를 끊어서 이구 나오다가, 그 또 자기네 집에서 개를, 귀엽게 기르던 개를 불러 가지구서 나와서는, 그 불타산을 향해서 달음박질루 가는데, 어린애를 업구 명지 도토마리를 이구, 개를 불러 가지구 그 불타산을 향해서 얼마쯤 가는데, 그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리면서 뇌성벽력을 하더니 말야. ㉣근데 그 중이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냐면,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두 절대루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는 거를 부탁을 했는데, 이 여인이 가는데 갑자기 뇌성벽력을 하면서 그 벼락 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

래서 뒤를 돌아봤단 말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됐어.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구 말았다는 게야. 개두 그렇게 화석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데, 그 지금두 그 불타산 아래서 얼마 내려오다가서 그 비슥하니 거기 사람들은 이것이 며느리가 화석 된 게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 역시 사람 모양 하고, 뭐 머리에 뭐 인 거 같은 거 하구, 그 아래 개 모양 걷은, 그런 화석이 아직도 있단 말야. 한데 그때 그 이 벼락을 치면서 그 장재 첨지네 그 집이 전부 없어지면서 그만 거기에 몇백 길이 되는지 모르는 이제 큰 소(沼)가 됐단 말야. ㉤한데 그 소가 어느 만침 넓으냐 하면, 여기 어린이 놀이터보담두 더 넓은데, 이거 고만 두 배쯤 되는 품인데 그 소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물 나오는 소리가 쿵쿵쿵쿵쿵 하면서 그 곁에 가면 이제 지반이 울린단 말야. 이리 이리 너무 물이 많이 나와서 그 물을 가지구서 몇만 석 되는,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수천 정보에 그 평야에, 논에 물을 소에서 나오는 물 가지구서 대는데, 그 물은 아무리 비가 와두 느는 벱이 없구, 아무리 가물어두 주는 벱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깊으나 볼라구 명지실을 갖다가, 돌을 넣어서는 재니까 명지실 몇을 넣어도 도무지 끝을 몰른다는, 그만침 깊은 소가 됐단 말야.

– 작자 미상, 「용소와 며느리바위」 (김용규 구술)

※ **불농불사**: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는다.'라는 불농불상(不農不商)의 오인으로 여겨짐.
※ **나미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구술한 대로 표기한 것임.

[22001-0109]

01 **㉠~㉤과 관련지어 '설화의 구연과 채록 과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연하는 내용이 어떠한 설화의 유형인지에 대한 구연자의 판단이 ㉠과 같이 제시되기도 한다.
② 구연한 내용을 받아 적는 과정에서 ㉡과 같이 어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그대로 채록되기도 한다.
③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 같이 청자에게 더 익숙할 것이라 판단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④ 청자도 알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내용을 언급할 때 ㉣과 같이 전체를 요약하여 전달하기도 한다.
⑤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과 같이 청자와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나 정보를 활용하기도 한다.

[22001-0110]

0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전설의 담화 구조를 해석할 때 담화의 방향이나 목적, 기준 따위가 될 수 있는 표지를 '지표성'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전설과 관련된 '지표성'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증명성**: 전설의 담화 구조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증거물이 생겨난 이유나 존재 생성의 과정을 증명하는 데 활용되는 특성
- **인과성**: 전설의 담화 구조가 증거물이 사라지게 된 원인이나 증거물의 소멸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활용되는 특성
- **유일성**: 전설의 담화 구조가 특정 증거물에 새로운 이름이 붙은 이유를 설명하거나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가졌음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는 특성
- **환기성**: 전설의 담화 구조가 증거물 자체나 증거물의 성격을 활용하여 특정한 교훈이나 가치관을 환기하는 데 활용되는 특성
- **강조성**: 전설의 담화 구조가 신이하거나 영험한 사건, 비극성이나 희극성과 같은 특이한 이야기 자질을 부각하는 데 활용되는 특성

① '증명성'을 표지로 삼는다면 이 전설의 담화 구조가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용소'의 생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겠군.

② '인과성'을 표지로 삼는다면 이 전설을 통해 '장재 첨지네 그 집'이라는 증거물이 사라지게 된 까닭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군.

③ '유일성'을 표지로 삼는다면 이 '용소'가 다른 연못들과 구별될 수 있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 보아야겠군.

④ '환기성'을 표지로 삼는다면 탐욕스러운 '장재 첨지'가 벌을 받아 '장재 첨지네 그 집'이 '용소'가 된 사건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겠군.

⑤ '강조성'을 표지로 삼는다면 전설 속 '용소'가 '도무지 끝을' 모르고 '아무리 가물어두 주는 벱이 없'는 신이함이나 영험함을 지닌 곳으로 부각된다는 점을 살펴보아야겠군.

[22001-0111]

03 〈보기〉와 관련지어 '며느리가 화석 된 게라고 하는 바위'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장자못 설화'에서 장자, 도승, 며느리는 서사 구조의 중심을 이루는 인물이다. 장자는 개인적 탐욕만을 중시하는 부정적 인물이고, 며느리는 탐욕을 경계하며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이라면, 도승은 장자를 징치(懲治)하는 초월적 인물이면서 동시에 며느리에게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인물이다. 그런데 며느리는 도승이 부과한 금기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결국 바위로 변하고 만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인물이 단지 호기심이나 놀람 때문에 바위가 되고 마는 이런 금기는, 이상적 세계에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 한계를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

한편 인물의 형상을 한 바위와 관련된 전설은 절개 굳은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죽어서 돌이 되었다는 '망부석 설화'로 나타나기도 한다. 망부석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영구성을 지닌 돌에 투영한 것으로, 이때 망부석은 당시의 윤리적 기준에서 가치가 있는 삶을 구현한 상징물이라는 점에서 예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①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다 영구성을 지닌 존재로 변했다는 점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예찬의 대상이 되겠군.

② '금기'를 지키지 못해 '이상적 세계'에 이르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겠군.

③ '도승이 부과한 금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당시의 윤리적 기준'을 지키지 않고 본성만 따르려는 인간 유형을 상기시키는 것이군.

④ '이상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바위나 돌의 불변성을 통해 드러내고 있기에 '개인적 탐욕'을 뛰어넘으려는 인간들의 적극적 태도를 의미하는군.

⑤ '개인적 탐욕'을 지나치게 경계하다가 결국 바위로 변한 것이라는 점에서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을 조심하자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성(麴聖)의 자(字)는 중지이니 주천(酒泉)군 사람이다. 어려서 서막에게서 사랑을 받았는 바, 바로 그이가 이름을 지어 주고 자도 붙여 준 것이다. 먼 조상은 본시 온(溫) 사람이었는데, 항상 애써 농사지으면서 스스로의 생활을 충당하여 살았다. 정(鄭)나라가 주(周)나라를 칠 때 그를 사로잡아 돌아왔던 까닭에 그 자손 가운데는 정나라에 퍼져 사는 이들도 있다. 증조부에 관하여는 사관이 그 이름을 잃어버렸고, 조부인 모(牟)가 주천 땅으로 옮김으로 해서 한 집안을 이루었으매 드디어 주천군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인 차(醝)에 와서 비로소 벼슬하여 평원독우(平原督郵)가 되고 농사의 행정을 맡은 귀족인 곡씨(穀氏)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성을 낳은 것이다. 성은 아이 때부터 벌써 깊숙한 국량을 지니고 있었더니, 한번은 손님이 그 아비를 찾아왔다가 성을 눈여겨보고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이 마음 쓰는 그릇의 넘쳐남이 꼭 일만 굽이 파도와 같아서 맑힐래야 더 맑아질 게 없고 뒤흔들어도 흐려짐이 없으니 그대와 얘기함이 이 애 성과 즐기는 것만 같지 못하이."

장성하게 되자, 중산 땅의 유영, 심양 땅의 도잠과 더불어 벗하였다. 어느 땐가 두 사람의 하던 말이 있었다.

"하루 이 사람을 못 보면 속되고 쩨쩨함이 슬몃 고개를 든단 말야."

그래서 매양 만나 세월을 보내는데 피로함도 잊은 채 문득 마음이 황홀해서 돌아오곤 하였다. 고을에서 조구연(糟丘椽)으로 불렀지만 미처 나아가기도 전에 다시 청주종사(靑州從事)로 호출받았고 공경들이 번갈아 천거의 말을 드리니 임금이 명령을 내려 공거(公車)에 모셔 오라 하였다. 이윽고 불러 보았는데 임금이 그윽히 눈여겨보더니,

"이 사람이 주천의 국생이란 말인가? 짐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을 들어 온 지 오래도다."

하고 반긴다. 이보다 좀 앞서 태사(太史)가,

"주기성(酒旗星)이 크게 빛을 발합니다."

아뢰었는데, 얼마 안 되어서 성이 도착한 것이고 황제 또한 이 일로 인해 더욱 기이하게 생각하였다. 그 즉시 벼슬을 내려 주객랑중(主客郎中)을 삼더니 이윽고 국자좨주(國子祭酒)로 돌려 예의사(禮儀使)를 겸하게 했다. 널리 **조정의 모임 잔치며 종묘 앞에 음식 진상과 작헌례 등을 도맡게** 된 바, 취지에 맞지 않음이 없었다. 임금이 그릇감이라 여기고 일약 발탁하여 후설의 직임에다 두고 높은 예의로써 대접하던 것이니, 성이 입궐하여 뵈올 때마다 가마를 부린 채로 전(殿)에 오르게 하는가 하면, 국 선생이라 하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임금이 마음에 언짢음이 있다가도 성이 들어와서 뵙게 되면 큰 웃음꽃이 피어나니 무릇 그 총애를 입음이 모두 이런 식이었다. 성품이 너그럽고 편안하여 날이 갈수록 가까워졌으되 임금과 조금도 거슬려 보는 일이 없었다. 이로부터 **총애는 더욱 귀중하여져서 임금을 따라 잔치에 노닒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아들인 곡과 포, 역이 아비가 누리는 총애를 믿고 꽤 횡포가 자심하였더니, 중서령으로 있는 모영(毛穎)이 탄핵하는 상소를 올려 여쭈었다.

"괴임을 받는 신하가 총애를 남용함은 천하의 걱정하는 바인데, 이제 국성이 얼마 아니 되는 재간을 갖고 요행을 얻어 조정의 관등에 올라 지위가 3품에 나란히 서서 깊숙이 숨어 있는 도적을 안으로 불

[A] 러들이고 남의 몸과 명예를 손상시키기를 즐기옵니다. 까닭에 만인이 아우성치고 골치를 앓으며 괴로워하니 이야말로 나라를 고쳐 주는 충신이 아니라 실상은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는 도적이겠나이다. 성의 세 아들이 제 아비가 받는 총애를 믿고 기댄 나머지 횡포가 방자하여 사람들의 괴로움을 끼치는 바 되니, 청하옵건대 폐하께옵서는 한꺼번에 죽음을 내리시와 뭇사람 원망의 입을 막게 하소서."

이러한 글이 상주(上奏)되자 아들 곡 등이 그날로 독주를 마시고 죽었고, 성은 죄를 입고 밀려나 서인(庶人)이 되어 버렸다. 치이자 또한 진작부터 성을 좋아하던 까닭에 그 역시 스스로 수레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처음에 **치이자**가 골계를 잘해 임금의 사랑을 받고 국성과는 서로 벗을 하여 **임금이 출입을 할 때마다 임금의 속거(屬車)*에 의탁하곤 했다.** 치이자가 한번은 피곤하여 누워 있었는데 성이 장난 삼아,

"자네의 배가 아무리 불룩하니 크다지만 속은 텅텅 비어 있으니 무슨 소용 있으리!"

하였더니 그 대답인즉,

"자네 같은 따위 수백 명쯤이야 넉넉히 담아낼 수 있지!"

하였는데, 그 서로 우스개로 장난함이 이와 같았다.

성이 벼슬을 벗고 나니 제(齊) 고을과 격(鬲) 고을의 사이에 도적이 떼로 일어나 임금이 토벌하려 했으나 그 일을 제대로 맡을 만한 적당한 인물이 쉽지 않았기에 다시금 성을 기용하여 원수로 삼았다. 성이 군기를 엄숙하게 유지시킨 채 병졸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하면서 수성(愁城)에 물길을 터서 단 한 판의 싸움에 쳐 없애 버리고 장락판(長樂阪)*을 세운 후 돌아오니 황제는 그 공로로 상동후(湘東侯)를 봉하였다.

그러나 일 년 만에 상소를 올려 은퇴를 요청하였다.

"신은 원래 가난한 집의 자식으로, 어려서 빈천하여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팔려 다니다가 우연히 성군을 만나 뵈었는 바, 허심탄회로써 남달리 절 받아 주시와 침체 가운데서 건져 주셨으며 강호와 같이 용납해 주시었나이다. 제가 비록 너른 세상에 내놓은 조업이야 약간 있다고는 하나 나라의 체면에 윤기를 더함이 없었사오며, 전에 삼가지 못한 탓에 향리에 물러나 편히 있을 적에도 비록 얇은 이슬이 다하고자 떨구려고 드리운 중에 요행으로 남은 방울이 있어, 감히 해와 달이 광명을 기뻐하고 다시금 초파리가 낀 묵은 뚜껑을 열어젖히었던 것이옵니다. 또한 그릇이 차게 되면 엎질러짐은 사물의 떳떳한 이치입니다. 이제 신이 목이 타고 소피가 잦은 병에 걸려 목숨이 뜬 거품마냥 다해 가니, 바라옵건대 승낙하옵시는 말씀 한 차례로 물러나 여생을 보전케 해 주옵소서."

그러나 황제의 남달리 배려하심은 이를 윤허치 아니하고 대신 궁중의 사신을 파견해서 송계, 창포 등의 약재를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문병토록 하였다. 하지만 성이 거듭 굳이 사직할 뜻을 나타내는 데에는 임금도 더 하는 수 없이 허락하게 되니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 노후를 보내면서 천수를 마치었다.

– 이규보, 「국선생전」

*속거: 임금이 거동할 때 바로 곁에서 따르는 수레.

*장락판: 오래도록 즐거운 터전의 뜰.

[22001-0112]

0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성의 먼 조상은 주천군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② 국성의 증조부는 온 땅으로 옮겨서 한 집안을 이루었다.
③ 국성의 친구였던 치이자는 임금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
④ 국성의 조부는 사관이 그 이름을 잃어버려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다.
⑤ 국성의 부친은 평원독우 벼슬을 맡고 곡씨의 딸과 결혼하여 성을 낳았다.

[22001-0113]

02 국성을 술을 인격화한 인물이라고 할 때,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조정의 모임 잔치며 종묘 앞에 음식 진상과 작헌례 등을 도맡게' 되었다는 내용 이후에 [A]가 삽입된 것으로 보아, 중요한 행사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총애는 더욱 귀중하여져서 임금을 따라 잔치에 노닒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라는 내용 이후에 [A]가 삽입된 것으로 보아, 흥을 돋우기 위한 술도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③ [A] 이후에 '치이자'가 '임금이 출입을 할 때마다 임금의 속거에 의탁하곤 했다.'라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술을 마시고 거만한 태도를 지니게 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볼 수 있다.
④ [A] 이후에 '"자네 같은 따위 수백 명쯤이야 넉넉히 담아낼 수 있지!"'라는 '치이자'의 말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의 위험성을 경계한다고 볼 수 있다.
⑤ [A] 이후에 '성이 벼슬을 벗고 나니 제 고을과 격 고을의 사이에 도적이 떼로 일어'났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술이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경계한다고 볼 수 있다.

[22001-0114]

03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무릇 군신의 회의에는 임금이 꼭 순(醇)으로 짐작케 하니 그 나아가고 물러남과 그 수작에 거슬림이 없이 뜻에 들어맞았다. 이에 임금이 깊이 용납하여 말하였다.

"경이야말로 저 이른바 '곧을사 그 맑음이야, 그대 마음을 열어서 나의 마음에 물 대어 밝히는도다.' 하는 그런 이로다."

순이 권한을 쥐게 되자 어진 이와 사귀며 내빈과 접함이며 늙은이를 봉양하여 잔치를 베푸는 일, 신명에게 고사 드림과 종묘에 제사를 받드는 일 등을 앞장서서 맡아 주관하였다. 임금이 밤에 잔치 놀이를 할 때에도 오직 그와 궁인만이 곁에 모실 수 있었을 뿐 비록 왕과 가까운 신하랄지라도 참여치 못하였다. 이렇게 된 뒤로부터 임금은 곤드렁이가 되어 정사를 묻어 두게 되었다. 그러나 순은 입을 굳게 다문 채로 그 앞에서 간언할 줄 모르니, 예법을 지키는 선비들은 마치 원수와도 같이 그를 미워하게 되었으되 임금은 매양 그를 감싸고돌았다. 순은 게다가 돈을 거둬들여 재산 모으기를 좋아하며 시론(時論)이 그를 천하게 여기게 되었다. (중략) 일찍이 어전에 들어가 임금의 앞에 마주 대하고 아뢸 때 순이 본디 입에서 나는 냄새가 있으므로 임금이 싫어하며 말하였다.

"경이 나이 늙고 기운도 다해서 나의 쓰임을 이겨 내지 못하지 않는가!"

그러자 순은 마침내 관을 벗고 물러나면서 아뢰었다.

"신이 높은 벼슬을 받고 남에게 물려주지 아니하면 이에서 망신할까 저어하나이다. 부디 바라옵건대 신이 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그것을 제 만족하고 그칠 줄 아는 분수로 알겠나이다."

임금이 좌우에 명하여 부축하여 나갈 수 있게 하였다.

– 임춘, 「국순전」

① 〈보기〉에서는 윗글과 달리 주인공이 재물을 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윗글에서는 〈보기〉와 달리 주인공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윗글과 〈보기〉에서 모두 국가적 잔치나 제사에 주인공이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윗글과 〈보기〉에서 모두 주인공이 임금의 총애를 받아 권력을 얻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윗글과 〈보기〉에서 모두 주인공이 다른 신하의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경(二更)쯤 되어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그런데 회랑 끝에서 웬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걸음 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 씨였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詩書)와 인의(仁義)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 안을 한 번 엿보신 후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 꽃 앞에서 한 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는 은정이 백 년을 넘칠 것 같았지요.

[A]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장차 **평생을 함께하려고** 하였는데 **뜻밖의 횡액**을 만나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지요.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인정으로야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답니다.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의 신세가 된 것이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절의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쇠잔한 몸뚱이일망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 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겠습니까?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 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지요.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이제 추연(鄒衍)이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저도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봉래산에서 십이 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취굴(聚窟)에서 삼생(三生)의 향이 그윽이 풍겨 나오니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서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 보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시는 거지요?"

이생은 기쁘고도 감격하여 말하였다. / "그건 **바로 내가 바라던 바**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 앉아 그간의 회포를 풀었다. 그러다가 이생이 재산을 얼마나 도적에게 약탈당했는가에 대해 묻자 최 씨가 말하였다.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아무 산 아무 골짜기에 묻어 두었답니다."

이생이 또 물었다. /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에 있소?"

최 씨가 대답하였다. / "아무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랍니다."

두 사람은 그간의 **정회를 다 나눈** 후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다. 지극한 즐거움이 예전과 같았다.

다음 날 최 씨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혀 있다는 곳을 찾아갔다. 과연 금은 여러 덩이와 얼마간의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양가 부모님의 유골을 수습한 후 금과 재물을 팔아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였다. 묘소에 나무를 심고 제사를 드려 예를 극진히 갖추었다.

그 뒤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씨와 함께 살았다.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스스로 돌아왔다.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져서 비록 친척이나 손님들의 길흉사에 하례하고 조문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는 항상 최 씨와 더불어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금실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다.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하였다.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최 씨가 대답하였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중략)

이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하여 말하였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 드릴 수 있었겠소?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어버이 살아 계실 때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써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오.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소.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백 년 후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

최 씨가 대답하였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 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으니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답니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단지 저에게만 죄과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나뒹굴지 않게 해 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다. / "서방님, 부디 몸 건강히 지내세요."

말을 마친 최 씨의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22001-0115]

0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최 씨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이생으로 하여금 세상과 단절하게 하였다.
② 최 씨는 이생과 부부의 연을 이어 가기 위해 하늘의 뜻에 거역하여 환생하였다.
③ 이생은 최 씨가 죽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최 씨의 귀환을 수상하게 여겼다.
④ 이생은 죽은 부모에게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극진하게 다할 만큼 효행에 충실하였다.
⑤ 이생은 최 씨가 인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최 씨와의 재회를 후회하였다.

[22001-0116]

02 〈보기〉의 ⓐ와 ⓑ의 관점에 따라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의(寓意)란 다른 대상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하는 문학적 표현을 말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해석하면 작품 속에 그려진 사건과 인물들은 실제의 사건, 인물들과 서로 대응하게 되며, 역사적인 의의를 획득하기도 한다. 「이생규장전」 또한 우의로 읽는 것이 주제에 접근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수양 대군과 그의 일파가, 단종을 섬기며 절의를 지킨 충신들을 죽이고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사건인 '계유정난'을 작가가 우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작품의 의미는 '최 씨'를, ⓐ '단종'을 우의한 것으로 보느냐 혹은 ⓑ '충신의 일원'을 우의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① ⓐ의 관점에 따르면 '몸을 내맡기'는 것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 수양 대군에게 저항하던 단종이 자신의 목숨을 내주게 되는 일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겠군.
② ⓑ의 관점에 따르면 '평생을 함께하려고'는 끝까지 단종을 왕으로 섬기며 신하로서의 절의를 지키겠다는 충신으로서의 의지와 다짐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겠군.
③ ⓑ의 관점에 따르면 '육신이 찢기는 길'은 단종을 왕으로 섬기던 충신들이, 수양 대군과 그 일파의 뜻에 따르지 않다가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일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겠군.
④ ⓐ와 ⓑ 어떤 관점에 따르더라도 '짐승 같은 놈'은 단종을 섬기던 충신들을 죽이고,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수양 대군의 일파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겠군.
⑤ ⓐ와 ⓑ 어떤 관점에 따르더라도 '뜻밖의 횡액'은 단종이나 그를 섬기던 충신들에게 예기치 않게 일어난 사건인 계유정난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겠군.

[22001-0117]

0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생규장전」에는 애정 전기 소설의 주요 특징들이 잘 나타난다. 먼저 '전기(傳奇)'는 '기이한 것을 전한다'는 뜻으로, 현실계와 초현실계의 접촉에 의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환상성'과 '현실성'의 상반된 두 속성을 포함한다. 또한 애정 전기 소설의 남녀 주인공은 고독감을 지닌 인물들로 그려지는 가운데 남주인공은 소극적인 모습으로, 여주인공은 능동적인 모습으로 애정을 추구한다. 그들은 서로에게 독점적 애정을 보여 주지만 그 애정은 여러 가지 장애로 말미암아 지속되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남녀 주인공은 만남과 헤어짐을 주요 사건으로 겪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 숭고한 사랑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는 청춘 남녀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된다.

① 이승의 인물인 이생과 저승에서 '환생'한 인물인 최 씨가 만나 '정회를 다 나눈' 것에서 현실계와 초현실계의 접촉에 의한 사건을 다루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군.
② 최 씨가 '끝까지 잘해 보고 싶'다고 먼저 제안하자 이생이 '바로 내가 바라던 바'라고 응하는 장면에서 남주인공보다 더 능동적으로 애정을 추구하는 여주인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③ 이생과 최 씨의 애정이 지속되지 못하고 '세 번'의 '좋은 시절'이 있다가도 '어그러지기만' 하였다는 점에서 주인공들이 만남과 헤어짐을 겪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④ 최 씨가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에 빗대어지는 것과 최 씨가 떠난 뒤 결국에는 '홀로 살아남'게 될 이생에게서 주인공들이 고독감을 지닌 모습으로 형상화된 점을 확인할 수 있군.
⑤ 최 씨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인간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에서 주인공이 상대방에게 독점적 애정을 보여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사부가 있었다. 성명은 생략하고 적지 않는다. 옛것을 좋아하고 실의에 차 있었으며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했다. 가세가 비록 군색해도 품은 뜻만은 크고 넓었다. 일찍이 달산촌에 별채를 지은 적이 있는데, 문을 닫아걸고 왕래를 끊고는 오직 책만을 즐겼다. 이웃집도 그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다.

세월이 대황락*에 든 해, 한가위를 이틀 앞둔 때였다. 산비가 개고 나니 밤기운이 깨끗하고 고요했다. 먼 하늘이 맑았고 은하수가 흐르고 있었다. 밝은 달이 빛나고 맑은 이슬이 영롱했다. 송옥이 가을을 슬퍼하던 뜻이 오싹 생겨나고, 이백이 달을 즐기던 흥취가 은근히 일어났다. 서당을 걸어 나와 뜰을 거닐며 혼자 읊조렸다.

[A]
쩡! 쩡! 시냇가 나무 찍어 내는 소리뿐 / 고즈넉한 서재에는 이웃도 적다
약을 찧노라니 옥토끼만 불쌍한 듯하고 / 술잔을 멈추어도 누가 있어 달에게 물어볼꼬
단풍나무 숲속에선 이슬방울 듣는 소리 들리고 / 대목 골목 깊고 깨끗해 먼지조차 일지 않네
봉황 새긴 누각 떠나온 지 지금 몇 해런가 / 미인을 어찌 만나 뵈랴 더욱 시름겹도다

말을 마치고 마음 슬피 탄식하기를 서너 차례 하였더니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손으로 마른 오동나무를 더듬어 바깥에 자리 잡고 앉았다. 때는 밤도 이미 삼경인지라 전혀 인적이 없었다.

홀연 글방 안에서 두런두런 웃는 듯 말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선비는 가슴이 두근거려 왔다 갔다 하면서 숨을 죽이고 귀 기울여 들어 보니 과연 누군가 글방에 있는 듯했다. 선비는 도둑인가 의심하여 살그머니 맨발로 몇 걸음 다가서서 살펴보았다. 이때 달빛은 빈 창으로 흘러들어 방 안이 대낮 같았다. 창틈으로 은밀하게 엿보니, 모습도, 의관도 각기 다른 네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까만 비단옷**에 검은 관을 썼는데, 중후하고 꾸밈이 적었으며 가장 연장자였다. 또 한 사람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모자를 벗어 맨상투가 위로 도드라**져 있었으며 기품이 심히 날카로웠다. 또 한 사람은 **흰옷**에 **관건을 썼으며 용모가 백옥같이 희고 깨끗한 눈** 같았다. 또 한 사람은 **검은 옷** 검은 모자에 얼굴은 푸르게 칠한 것 같았으며 **극히 못생기고 작달막**했다. 네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능히 없음을 몸뚱이 삼아 삶을 거짓으로 삼고 죽음을 참으로 삼을 수 있을까? 누가 움직임과 고요함, 흑과 백이 한가지 이치임을 알 것인가? 내 그와 벗하리라!"

하고,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으며 말하기를, / "사, 여, 여, 뇌*라면 충분히 막역한 벗이 될 만하지?" 하면서 무릎들을 당겨 앉았다. / 흰옷이 말했다.

"오늘 밤 주인이 안 계시다고 우리가 방을 독차지해 즐기는 것이 너무 교만하지는 않은가?"

벗은 모자가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주인이 무리와 떨어져 홀로 살면서 함께 거처하는 자는 우리뿐이다. 살갗을 문지르고, 뼈를 부딪치고, 머리를 적시고, 등에 물이 스며드는 등 수고로운 일을 한 지도 아주 오래되었다. 나는 노둔하다는 놀림을 받았고, 자네는 **경박하다는 꾸지람**을 들었네. ㉡저 사람은 운명이 다하고, 이 사람 또한 흠결이 생겼다. 주인과 함께 거처하는 때가 얼마나 더 되겠는가? 그러니 이토록 밝은 달 아래 어찌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고는 ㉢조원진이 올린 사표의 "흰머리 늙은이 어디로 갈꼬? 일편단심이야 스러지지 않으리."*라는 구절을 읊으며 몇 차례 오열하는 소리를 내니, 좌중이 모두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끼며 눈물을 뿌리기도 하고 닦기도 했다. / 흰옷이 말하기를,

"한갓 남녘 관을 쓴 초나라 포로처럼 사좌*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 무엇으로 회포를 달랠 것인가?"

하고 벗은 모자를 희롱하였다.

[B] "자네는 검은 머리이면서 흰머리라 말하고, 속이 비었으면서 단심이라 일컬으니 되겠는가?

벗은 모자가 웃으며 말했다.

"고루하도다. 구망씨*는 시를 모르는구나! 이런 사람이 흰 바탕에 색을 칠한다는 뜻을 어찌 알겠는가?"

검은 옷이 까만 비단옷에게 눈짓하며 이르기를,

"두 사람은 입을 닫게나! 깎는 듯 가는 듯, 쪼는 듯 문지르는 듯하는 자라야 비로소 함께 시를 말할 만하도다." / 하니, 까만 비단옷이 희롱하기를,

"다른 산의 돌이라도 내 옥을 다듬을 수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먹을 다듬는다는 말은 못 들었네."

하였다.

그러자 검은 옷이 말하기를, / "그렇군! 과연 옥은 아니지!" / 하고는 서로들 손을 한데 잡고 웃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네 사람이 시를 짓는 것을 지켜보던 선비는 그들이 물괴라는 것을 알고 그들 앞에 나선다. 선비와 네 사람은 서로를 소개한 후 시를 지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 네 사람은 자신을 멀리 내버리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사라져 버린다.

선비가 방 안에 혼자 누웠으나 말똥말똥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만났던 일을 뒤미처 생각하니 거의 알 듯도 한데 해가 이미 창문을 비추고 있었다. 시동이 이상하게 여겨 와서 여쭈기를,

"오늘은 어째 늦게 일어나시는군요!" 하니, ㉣선비가 답하기를 / "간밤에 달이 너무 밝아 시를 읊조리며 정을 풀다 보니 아침에 곤하게 잠이 들었구나. 그걸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냐?"

하고는 일어나 방 안의 붓, 벼루, 종이, 먹을 살펴보았다. 옛날부터 소장하던 도기 벼루는 바람벽 흙덩이 때문에 떨어져 깨져 있었다. 한 자루 있는 붓은 붓대가 알록달록한 대나무였지만 머리 갑이 없었고 낡아서 글씨 쓰기에 적당치 않았다. 하나 있는 먹은 갈지 않고 남은 부분이 채 손끝 마디만큼도 되지 않았다. 종이는, 며칠 전 시동이 "여기 투박한 닥나무 종이가 있으니 장독 뚜껑을 덮겠습니다." 하여, 선비가 "그러려무나." 한 것이었다. 아이에게 종이를 가져오라 하여 살펴보았더니, 깨끗하고 두꺼웠다.

㉤이로써 모든 것이 분명하게 이해되었다. 즉시 그 종이로 나머지 세 물건을 싸고 으슥한 곳에 묻으면서 글을 지어 제사를 지내 주었다.

– 신광한, 「서재야회록」

* **대황락**: 십이지 중 '사(巳)' 자가 들어 있는 해. 여기서는 계사년(1533년)으로 추정됨.
* **사, 여, 여, 뇌**: 『장자』에 나오는 가상의 네 친구. 서로 막역지우임을 의미함.
* **흰머리 ~ 않으리.**: 남송 시대의 명재상 조원진이 참소를 받아 귀양을 가며 올린 사표의 일부임.
* **사좌**: 모든 사람이란 뜻. 여기서는 특히 네 사람을 강조하는 말로 쓰임.
* **구망씨**: 고대에 나무를 주관하는 관리. 여기서는 종이를 일컫고 있음.

[22001-0118]

01 **[A]와 관련지어 '한 사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나무 찍어 내는 소리'만이 쩡쩡 들리고 서재가 '고즈넉한' 정황을 통해 '이웃'과 교류하지 않고 지내는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② '술잔'을 기울이다 멈추어도 그 앞에 말을 건넬 사람이 없다는 표현을 통해 '뜰을 거닐며 혼자 읊조리'는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약을 찧'는 '옥토끼'와 '달'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백이 달을 즐기던' 것처럼 달을 즐기고 있는 자신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④ '먼지조차 일지 않'는 '대목 골목'의 분위기를 강조하여 '문을 닫아걸고 왕래를 끊'은 자신을 찾아오는 이가 전혀 없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⑤ '봉황 새긴 누각 떠나온' 이유를 제시하여 넓은 뜻을 품었던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해' 실의에 빠지게 된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보기〉를 바탕으로 02번과 03번의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이 작품은 몽환적 액자 구성이라는 점에서 '몽유록'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몽유록에 해당하는 작품은 아니고, '**문방사우(文房四友)**'를 의인화하였으면서도 문방사우의 일대기를 그려 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가전체(假傳體)' 작품도 아니다. 물괴가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전기적 요소가 보이지만, 애정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전기(傳奇) 소설'의 전통에서 벗어나 있다.

전체 서사에서 인물 간의 갈등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관찰을 통해 상대를 알아 가는 상황, 만남과 소통을 통해 소박하고 진실된 사귐으로 나아가려는 태도, 아끼던 사물과 이별하는 심리와 자세 등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깨달음을 통해 실체를 발견하는 상황이 효과적으로 제시된다.

[22001-0119]

02 '문방사우'와 관련지어 윗글의 네 사람을 표현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네 사람' 모두 주인과 함께 거처하며 오랜 기간 주인을 위해 수고를 해 온 존재로 드러내었다.
② 손끝 마디만큼도 남지 않은 먹의 상태를 보고, '검은 옷'을 '극히 못생기고 작달막'한 외양으로 그려 내었다.
③ 머리 갑이 없는 붓의 상태를 두고 '벗은 모자'를 '모자를 벗어 맨상투가 위로 도드라'진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④ 깨끗하고 두꺼운 종이의 상태를 고려하여 '흰옷'을 '관건을 썼으며 용모가 백옥같이 희고 깨끗한 눈' 같다고 설명하였다.
⑤ 흙덩이 때문에 깨진 벼루의 상태를 보고, '까만 비단옷'이 주인으로부터 '경박하다는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드러내었다.

[22001-0120]

03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네 사람이 모두 막역한 '벗'이 될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을 통해 '진실된 사귐'에 대해 언급하려는 의도가 확인되는군.
② ㉡: 물괴들이 '주인과 함께 거처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밝히는 장면으로, 인간이 아끼던 사물과 이별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군.
③ ㉢: 좌절감에 빠져 있던 이들이 '일편단심'을 다짐하고 있는 상황으로, 물괴라는 기이한 존재들의 대화 속에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내려는 의도가 확인되는군.
④ ㉣: 물괴들과 '시를 읊조리며 정을 풀다' 아침에야 잠이 들었다는 주인의 설명으로, 작가가 주인과 물괴의 만남을 몽유 경험으로 다루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⑤ ㉤: '모습도, 의관도 각기 다른 네 사람'과의 만남 이후 달라진 주인의 행동으로, 상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후 이별의 상황에 예의를 갖추게 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군.

[22001-0121]

04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대가 지적한 단점을 인정하고 고치려 하는 모습을 통해 인생의 교훈을 드러내고 있다.
② 고사 속 인물의 실수를 언급하여 상대방의 잘못을 깨우쳐 주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서로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희롱하는 상황을 조성하여 유희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④ 상대의 말실수를 하나하나 짚어 가며 받아치는 상황을 통해 해학적 분위기를 그려 내고 있다.
⑤ 각 인물에게서 발견되는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서로 예찬하는 상황을 그려 내고 있다.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청파리는 지금의 서울 남부에 있는 동리다. 이곳에 설생이라는 선비가 살았는데, 의기가 있고 문학을 좋아했다. 설생은 기이한 재주를 가진 이로서, 과거 공부에 힘썼지만 운수가 나빠 번번이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다.

광해군 말에 계축옥사*가 일어나자 세상사에 염증을 느끼고는 속세를 떠나 은거하고자 했다. 마침 친구 하나가 설생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 친구는 평소에 설생과 마음이 잘 통하던 이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손바닥을 치며 강개한 마음으로 시사(時事)를 논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설생이 이렇게 말했다.

"㉡삼강오륜이 무너졌으니 선비가 이 세상에서 어찌 처신해야 하겠는가! 나는 이제 은거하려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친구가 대답했다.

㉢"그게 바로 내 생각일세. 지금 자네 말도 있고 하니 함께 은거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계셔서 쉽게 허락할 수가 없네."

친구는 곧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중략 부분 줄거리] 한 달 뒤 친구가 찾아가 보니 설생은 훌쩍 사라진 뒤였다. 새 임금이 즉위하자 등용되어 승진을 거듭한 친구는 갑술년(1634) 어느 봄날,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 영랑호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배를 타고 있었다. 이때 멀리서 배를 저어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간 행방을 알 길 없던 설생이었다. 관찰사는 설생을 자기 배에 오르게 하고 몹시 기뻐하며 근황을 물었다.

"나는 지금 양양부 관아에서 동남쪽으로 6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회룡굴이라는 데 산다네. 몹시 외진 곳이라서 속인은 오는 이가 드물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 마침 오늘이 길일이고 시절도 좋기에 흥이 나서 문득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옛날 친하게 지내던 때의 일이며 헤어진 뒤의 일로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흥미진진하여 그칠 줄 몰랐다. 잠시 후 비가 조금 그치면서 바람이 일어 배가 쏜살같이 움직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앞산을 몇 개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설생이 일어나 말했다.

"내가 사는 곳이 여기서 그리 멀지 않네. 땅으로 걸어가면 수십 리쯤 될 걸세. 순풍이 불면 배를 타고 반나절이면 갔다 올 수 있지. 예전에 나에게 '평생 좋은 벗으로 지내며 서로 잊지 말자.'라고 하였으니 한번 들러 주었으면 하네."

관찰사가 좋다고 하고 배를 재촉하여 설생과 함께 떠났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즈음 육지에 이르렀다. 관찰사는 말과 따르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종들로 하여금 가마를 메게 하여 숲이 우거진 골짜기로 들어갔다. **험한 길을 힘들게 몇 리 걸어가니 푸른 벼랑이 우뚝 서 있었다.** 저절로 그렇게 깎여 모양이 기기묘묘했는데, 높이가 수십 길은 되어 보였으며 가운데가 벌어져 있었다. 벼랑을 둘러싸고 좌우로 콸콸 물이 쏟아지며 물과 바위가 부딪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벼랑 앞에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회룡굴'이라고 쓰여 있었다. 문 앞으로는 돌길이 구불구불 오른쪽으로 가파르게 나 있었는데, 좁고 험해 새들이나 다닐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A] 두 사람은 벼랑의 벌어진 곳을 지나 칡덩굴을 붙잡거나 등나무에 매달려 앞으로 나아갔으며, 어깨를 구부려 회룡굴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가 바로 설생의 집이었다. 굴 안의 땅은 터가 넓어 집 100여 채가 들어설 만한데, 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토지가 비옥했다. 물에서는 물고기를 잡고 산에서는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었으며, 뽕나무·배나무·밤나무 등의 나무도 많았다. 아마도 **옛사람이 일컫던 도원이나 귤주*가 바로 이런 곳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설생이 관찰사를 인도해 마루 위에 오르게 하고는 아이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채소를 담아내거라."

관찰사가 먹어 보니 **맛이 담박하면서도 달아 속세의 음식 맛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아름다운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기도 하고 물가에서 고기를 잡기도 하고, 숲속을 거닐기도 하고 연못가를 산보하기도 했다. 물고기와 새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구름과 안개가 마음을 즐겁게 했다.** **산봉우리와 수석의 괴이하고 웅장한 모습**이 사랑스럽고도 볼 만하여 아침저녁으로 천만 가지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 주니, 셈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모습이 몇 가지로 변하는지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관찰사는 기쁜 마음에 돌아갈 것을 잊고 며칠을 그곳에 머물렀다.

관찰사가 마침내 떠날 차비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며 설생에게 농담을 건넸다.

"산수가 맑고 기이한 곳에 사는 것이야 은자들이 본래 그렇다지만, 자네는 집도 이렇게 부유하니 산속에 살면서 어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단 말인가?"

설생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노닐며 오가는 곳은 여기뿐이 아닐세. 세상을 벗어나 살게 된 뒤로는 내키는 대로 산수를 유람하며 다니는 것을 몹시 좋아해서 하루도 안 다닌 적이 없지. 서쪽으로는 속리산의 기이한 경치를 찾고, 북쪽으로는 묘향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으며, 남쪽으로는 가야산에 오르고 지리산을 넘었어. 우리나라 산천 중 기이하고 빼어나다고 소문난 곳이라면 그 절반은 가 보았을 걸세. 그러다 마음에 맞는 곳을 만나면 풀을 베어 집을 짓고 산비탈을 깎아 밭을 만들었지. 그렇게 2년도 살고 3년도 살다가 싫증이 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 가 살았어. 이런 까닭에 내가 있었던 거처 중엔 산이 기이하고 물이 아름다우며 밭이 넓고 집이 좋기가 여기보다 열 배나 더한 곳도 여러 군데 있다네. 다만 세상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관찰사가 그 말을 듣고 기이하게 여기며 오래도록 탄식했다. 관찰사는 이별을 기념하여 시 한 편을 지어 설생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훗날 서울로 나를 찾아와 주게." / 그렇게 약속하고 떠났다.

㉣3년 뒤 설생이 서울에 가 관찰사를 찾았다. 관찰사는 마침 이조 판서로 있었는데, ㉤설생에게 벼슬을 주고자 했다. 하지만 설생은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세상으로부터 달아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뒤 관찰사가 예전에 갔던 '회룡굴'이란 곳에 다시 가 보았지만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고, 설생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 길이 없었다.

– 오도일, 「설생전」

* **계축옥사**: 계축년(1613)에 광해군이 인목 대비를 서궁에 유폐하고, 이복 대군인 영창 대군을 서인으로 만든 사건.
* **도원이나 귤주**: '도원'은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그려진 이상향이며, '귤주'는 풍토가 좋아 귤이 많이 나는, 중국 호남성의 섬임.

[22001-0122]

0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설생은 과거 급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뜻을 이룰 수 없었다.
② 설생은 길일에 외진 곳으로 거처를 옮기려고 배를 몰고 나타났다.
③ 설생은 과거의 약속을 언급하며 관찰사에게 회룡굴 방문을 요청했다.
④ 관찰사는 설생이 보통의 은자들과 다른 점을 거론하며 설생에게 농담을 했다.
⑤ 관찰사는 설생과 다시 이별하게 되는 것을 아쉬워하며 후일의 만남을 기약했다.

[22001-0123]

02 〈보기〉를 고려할 때, ㉠~㉤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신돈복의 야담집 『학산한언』과 이규경의 백과사전 『오주연문장전산고』에도 「설생전」과 거의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거기에서는 설생의 친구인 관찰사가 오도일의 조부인 오윤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오윤겸은 강원도 관찰사, 이조 판서, 좌의정 등을 지낸 문신이다. 중앙 정계에 있던 당시 계축옥사가 일어나자 그는 광해군에 반대하는 뜻을 품고 광주 목사로 물러앉기를 자원하기도 했지만 결국 관직을 그만두지는 않았으며, 인조가 반정으로 권좌에 오른 후에도 그 밑에서 고위직을 역임했다. 손자인 오도일 또한 인조의 계보를 잇는 임금 밑에서 부제학, 이조 참판, 병조 판서 등 요직을 거쳤기에 광해군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할 수는 없었다. 그가 「설생전」을 쓴 데에는 이러한 자기 가문에 대한 옹호도 창작 동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나) 「설생전」에는 '나아감[顯]'과 '물러남[隱]'에 대한 오도일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이 작품의 말미에는 설생에 대한 작가의 논평이 붙어 있는데, 그 일부는 이러하다. "선비는 세상이 태평하면 벼슬에 나아가 뜻을 펴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은둔하여 내 한 몸을 조촐히 한다. 이는 군자가 상황에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는 도이다. 설생은 혼란한 시절에 정치가 어지러우므로 은둔했지만, 어진 새 임금이 다시 나라를 일으키고 어진 뭇 선비들이 함께 일어서던 때에 관(冠)을 털고 기운을 내어 조정에서 벼슬을 했어도 괜찮았을 것이다."

① (가)를 고려할 때, ㉠을 통해 오도일은 조부가 비록 광해군 밑에서도 관직을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의로움을 아는 인물이었음을 알리고 싶었을 것 같아.
② (가)와 (나)를 고려할 때, 오도일은 자신이 요직에 앉은 시기가 ㉡과 같은 일이 벌어진 광해군 때와 달리 '나아감'을 선택할 때라고 여겼을 것 같아.
③ (가)를 고려할 때, ㉢을 통해 오도일은 계축옥사 당시에 조부가 곧장 은거하지 않은 데에 나름의 이유가 있었음을 말하려 했을 것 같아.
④ (나)를 고려할 때, ㉣로 보아 오도일은 설생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물러남' 대신에 태평한 세상으로 '나아감'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음을 보여 주려 했던 것 같아.
⑤ (나)를 고려할 때, 오도일이 생각하기에 ㉤은 어진 새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설생이 받아들여도 좋았을 법한 제안이었던 것 같아.

[22001-0124]

03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선 시대 문인들은 직접 산수(山水)를 유람한 뒤 유람의 경험과 자취를 기록한 산수유기(山水遊記)를 남겼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극소수 선비만 유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던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사랑채에 누워 타인의 산수유기를 읽으며 산수를 간접 체험하는 와유(臥遊)를 즐겼다. 대체로 산수유기는 목적지로 향하는 여정을 유람 주체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풍광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며 음미한다. 「설생전」의 회룡굴에 대한 서술에는 이러한 산수유기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창작된 17세기 당시 문인들에게 산수는 유교적 차원에서 도덕적 의미를 탐색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어지러운 현실을 잊는 도피처로 여겨졌고, 이에 따라 산수유기 속의 산수도 정신적 휴식을 보장하는 환상적 공간으로 그려질 때가 많았다.

① '험한 길을 힘들게 몇 리 걸어가니 푸른 벼랑이 우뚝 서 있'다는 진술은 산수유기에서 목적지까지의 여정을 드러낸 것에 해당한다.

② '옛사람이 일컫던 도원이나 귤주가 바로 이런 곳이리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관찰사가 산수를 간접 체험하며 와유를 즐기는 모습에 해당한다.

③ '맛이 담박하면서도 달아 속세의 음식 맛과는 전혀 딴판'이었다는 채소에 대한 설명은 회룡굴이라는 공간이 환상적 성격을 지닌 산수라는 사실을 부각하는 것이다.

④ '구름과 안개가 마음을 즐겁게 했'다는 것은 유람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관찰사의 관점에서 보고 느낀 바를 서술한 것이다.

⑤ '산봉우리와 수석의 괴이하고 웅장한 모습'에 대한 찬탄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풍광의 아름다움에 대한 유람 주체의 음미와 관련된다.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송씨 집안에서 도망친 하인 막동이는 최씨 집안의 양반 행세를 하며 돈을 모아 큰 부자가 된다. 고성의 인정 많은 부자 최승선으로 삼십 년간 지내던 막동이는 옛 주인의 아들 송생을 만난다. 막동이는 송생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고 사죄를 한 후 비밀을 지켜 줄 것을 부탁한다. 최승선은 송생을 조카라고 소개하며 후하게 대접하다가 서울로 돌아갈 때 큰돈을 주어 돕는다. 갑자기 부자가 된 송생에게 '험피'라는 별호를 가진 사촌 동생이 찾아와 부자가 된 연유를 묻는다.

험피 가로되, "진정을 털어놓지 아니하니 어찌 박대 아니랴. 재물 얻은 연유를 종시(終始) 바로 이야기하지 아니하느뇨."

(송)생이 가로되, "네 나의 재물 얻은 것을 알지 못하여 원한이 되니 내 실로 고하리라."

하고, 인하여 그 실상을 자세히 말한대, 험피 대로하여 가로되,

"형장이 수치를 무릅쓰고 도망한 종놈의 후한 뇌물을 받고 호형 호숙하여 그 강상(綱常)*을 어지럽히니 어찌 대단한 수욕이 아니리오. 내 마땅히 바로 고성으로 가 이 종의 패악한 죄상을 드러내어 하나는 형장의 수치를 씻고 하나는 풍속의 기강을 붙들리라."

하고, 말을 마치며 신을 들메고 바로 동문 밖으로 나가거늘, 생이 대경하여 급히 걸음 잘 걷는 자를 삯 주어 최승선에게 이 사연을 편지하고 또 실언한 허물을 자세히 하다.

궐자*가 배도(倍道)*하여 고성에 이른즉 승선이 바야흐로 친구로 더불어 바둑 두더니 편지를 드리매 펴보고 소불동념(少不動念)*하고 대소하여 일어나 가로되, "문득 소년 시절에 재주 배운 것이 뉘웃도다."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묻거늘 승선이 가로되, "향일에 재종질 왔을 제 내 우연 침약 공부를 하였다 자랑하였더니 재종질이 크게 기꺼 말하되, '제 동생 하나가 있는데 광질(狂疾)*이 있은즉 마땅히 완전히 맡아 치료하여 보내라.' 하니 나는 희언으로 하였거늘 저는 곧이듣고 과연 보낸다 하니 금명간에 마땅히 이를지라. 제공은 각기 귀가하여 문을 닫고 광인으로 하여금 횡행케 말라."

제인이 크게 두려워 다 집으로 돌아가 일동이 자취를 피하여 가로되, "승선 집에 광부가 온다." 하더라.

얼마 안 되어 험피 분기충천하여 크게 부르며 어지러이 꾸짖어 가로되, [A] "아무도 우리 종이요, 아무도 우리 종의 자식이라."

일동이 대소 왈, "진짜로 광부가 왔도다."

승선이 편안히 앉아 부동하고 건장한 노비 수십 인으로 하여금 둘러싸고 결박하여 즉시 집 뒤 곳간 가운데 구류하고 침과 바소*로써 다스리더니, 이윽고 동리 사람이 또 모이거늘 승선이 눈썹을 찡그어 가로되,

"이 조카*가 병이 이렇듯이 고질된 줄 뜻 아니하였도다."

제인이 가로되, "아깝다. 소년이 이런 병이 있으랴. 우리 광인을 많이 보았으되 이렇게 심한 자는 없다." 하더라.

밤이 깊으매 다 헤어지거늘 승선이 큰 침 하나를 가지고 홀로 험피 가둔 곳에 이르니 험피 입을 벌려 크게 욕하거늘, 승선이 듣고도 못 들은 체하고 침으로 어지러이 찌르니 피육이 다 터진지라. 험피 아픔을 견디지 못하여 살려 달라고 빌거늘, 승선이 계속해서 쑤시니 험피 여러 가지로 애걸하거늘, 승선이 이에 정색하고 책하여 가로되, "내 스스로 분의(分義)*를 지키어 먼저 내력을 털어놓았으니 진실로 마땅히 좋은 말로 상대

할 것이어늘 이제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니 남을 망하게 한 후에 말려느냐. 내 적수공권으로 기가(起家)하였으니 어찌 지각이 없어 너 같은 용우배*에게 낭패를 보랴. 당초에 검객을 보내어 중로에서 너를 처치할 일이로되 특별히 선대의 은혜를 생각하여 아직 네 생명을 보전하노니 네 만일 허물을 고쳐 어진 마음을 먹은즉 마땅히 부자의 집 사람이 되려니와 그렇지 아니한 즉 나는 불과 살인한 의원이 되리니 오직 네 스스로 헤량하여 정하라."

험피 그 충후함에 감동하여 그 이해를 헤아리고 이에 가로되, "만일 내 그 행실을 고치지 아니한즉 개자식이 되리라."

승선이 가로되, "지금부터 나를 숙부로 부르고 모든 사람이 만일 묻거든 여차여차 대답하라."

험피 가로되, "오직 명대로 하리이다."

승선이 이에 자제를 불러내어 일러 가로되, "송질의 병 빌미가 다행히 고황에 들지 아니하였기로 침을 많이 주었으니 마땅히 신기한 효과가 있으리라. 모름지기 좋은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그 원기를 돕게 하라."

승선이 자제와 비복을 거느리고 들어와 험피를 본대 험피 기꺼 절하여 가로되, "숙부가 병을 고치신 후로 신기 청명하고 병근이 쾌히 없으니 원컨대 고요한 집에 편히 누워 수일 조리하여지이다."

승선이 울어 가로되, "하늘이 송씨 향화(香火)*를 끊치 아니하시랴는가. 내 어제 차마 못할 일을 하여 네 살에 어지럽게 침을 주니 가위 골육상잔이라." 하고 인하여 새 옷을 입혀 데리고 외당에 나와 극진히 무휼하더라*.

얼마 안 되어 향리 다 모이거늘 승선이 험피로 하여금 면면이 절하여 뵈라 한대, 험피 공경하여 예를 하고 또 가로되, [B] "작일에 병이 대작하여 불성인사하니 모든 어른에게 능히 패만함*이 없더니이까."

이로부터 험피 예절에 맞게 행동하며 공순하더라.

한가히 머문 지 오륙 삭 만에 삼천금으로 보내니 험피 종신토록 감은(感恩)하여 다시 이 일을 누설치 못하더라.

– 작자 미상, 「송반궁도우구복」

*강상: 삼강과 오상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곧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이름.
*궐자(厥者): '그'를 낮잡아 이르는 말.
*배도: 이틀이 걸려 갈 길을 하루에 걸음.
*소불동념: 조금도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함.
*광질: 정신에 이상이 생겨 일어나는 증세. 광증.
*바소: 곪은 상처를 째는 데 쓰는 침.
*조카: 원문은 '족하(足下)'임.
*분의: 자기의 분수에 알맞은 정당한 도리.
*용우배(庸愚輩): 용우한 무리. '용우하다'는 용렬하고 어리석다는 뜻.
*향화: 향을 태우는 불. 제사를 이르는 말.
*무휼(撫恤)하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위로하고 물질로 돕다.
*패만(悖慢)하다: 사람됨이 온화하지 못하고 거칠며 거만하다.

[22001-0125]

0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생(송생)'과 '험피'는 '최승선'이 '생'에게 한 행동에 대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② '험피'가 '최승선'을 찾아간 것은 '풍속 기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자신도 '뇌물'을 받고 싶은 마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③ '최승선'은 '제인'들과의 사이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분란을 피하기 위해 먼저 사람들을 불러 '재종질'의 '동생'이 '광인'이라 소문낸 것이다.
④ '험피'는 '최승선'의 충후함에 감동하고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심적 갈등을 줄이고, '최승선'의 말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⑤ '험피'는 '최승선'과의 외적 갈등을 확대하지 않고 그의 양반 행세에 동참함으로써 훗날 '최승선'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2001-0126]

02 〈보기〉와 관련지어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선 후기에는 양난으로 인해 피폐해진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대내외적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농업, 수공업, 광업 분야에서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국제 무역이 증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문적 능력을 가진 중인과 부농층의 성장, 양반층의 급격한 증가, 상민층의 격감, 도망 노비의 증가가 함께 진행되었다. 결국 조선 후기는 양반 중심의 신분제가 크게 동요하면서 근대 사회의 기틀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중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구야담』은 민담과 야담을 소설 형식으로 기록한 한문 야담집으로, 내용이 풍부하고 세태 묘사가 자세한 것이 특징이다. 당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겪는 사회적 갈등과 새롭게 등장한 인물 유형, 급격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달라진 인식과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 또한 『청구야담』에 실려 있다.

① 하인 막동이가 '최승선'으로 살고 있는 이야기가 야담에 실리게 된 것은 실제로 도망 노비가 증가했던 당시의 현실 상황과 관련이 있겠군.
② 막동이가 '최승선'으로 살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양반 중심의 신분제가 동요하고 국내외 상업이 크게 발달하는 과정에서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겠군.
③ '최승선'은 출생 과정에서 결정된 서로 다른 신분에 따른 분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조선 후기 급격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달라진 자신의 위상을 활용하고 있군.
④ '최승선'이라는 인물은 맨손으로 집안을 일군 자신의 능력과 경제력에 대해 자부하고 있었기에 신분의 구별을 내세우는 양반 '험피'를 만났을 때에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군.
⑤ '최승선'이 자신이 '소년 시절'에 '침약 공부'를 했음을 사람들에게 알린 것은 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인식했기 때문이겠군.

[22001-0127]

03 윗글의 [A], [B]와 〈보기〉의 ㉠, ㉡을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양을 치는 소년이 심심함을 이기지 못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크게 외치며 소란을 일으키자, 동네의 어른들은 거짓말에 속아 무기를 가져오지만 매번 헛수고로 끝났다. 어느 날 정말 늑대가 나타나서 양치기 소년은 다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크게 외치지만 어른들은 더 이상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고, 아무도 도우러 가지 않았다. 결국 양치기 소년이 지키던 모든 양은 늑대에게 잡아먹힌다.

① [A]와 [B]는 진실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지만, ㉠과 ㉡은 진실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발화를 하고 있다.

② [A]와 [B]의 어조가 달라진 것은 화자의 의도가 달라졌기 때문이고, ㉠과 ㉡을 크게 외친 것은 청자가 잘 들어야 화자가 의도한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③ [A]와 ㉠은 화자가 확인하지 않은 사안을 판단 근거로 삼았고, [B]와 ㉡은 진실을 확인한 후 그것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④ [A]와 ㉡은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 내지 못했고, [B]와 ㉠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만 주위 사람들이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⑤ [A]와 ㉡을 사람들이 무시한 것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B]와 ㉠을 사람들이 수용한 것은 화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승상이 두 눈을 높이 뜨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무리 공주라도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곁에 있는 이들은 빨리 공주를 잡아 내려라."

말을 마치니 운성이 궁인과 시녀를 꾸짖어 내쳤다. 그러자 공주가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누가 감히 나를 범하겠느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공주를 두려워하였지만 승상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공주를 핍박하여 전(殿)으로 내려오게 하니 승상이 명령을 내려 공주를 사옥(私獄)에 밀어 넣었다. 승상이 즉시 붓과 벼루를 내어와 상소를 짓고 곧장 묘당(廟堂)으로 들어가 먼저 형부 상서 반영의를 불러 시아버지를 모욕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법전에서 알아 오라 하고 또 예부 상서 오문상을 불러 며느리가 시아버지 섬기는 예(禮)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대접하는 법을 알아 오라고 하였다. 한편으로는 집을 다스리지 못한 죄로 운성을 잡아 감옥에 넣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주의 행동을 금의부(禁義府)로 적어 보내고, 또 상소 하나를 올려 공주의 모습을 진술하여 죽이고자 하는 뜻을 아뢰었다. 황제가 표문을 보시고 크게 놀라 급히 부 황후와 상의하였다. 부 황후가 크게 노여워하며 말하였다.

"필부 소경은 어떤 사람이기에 나의 공주를 이렇게 핍박하여 업신여깁니까?" / 황제가 말하였다.

"황후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소경은 묘당 대신으로 주도권을 잡아 위엄이 짐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태자와 여러 왕들이라도 마음대로 처치할 것인데 하물며 공주가 그 슬하에 있으면서 방자하게 시아버지를 모욕하고 지아비를 죽이려 하니 그 죄가 가볍겠습니까? 모름지기 공주를 살리고자 하신다면 좋은 말로 소 승상을 위로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만일 예에 맞지 않게 노여워하면 반드시 소 승상이 운성과 공주를 모두 죽이고 스스로 죄를 청할 것입니다." / 드디어 팔왕을 불러 나가서 소 승상을 타이르라고 하시고 ㉠답서를 내려 말씀하셨다.

'짐의 자식이 이렇게 패악하니 법은 인정이 있을 곳이 아니니 경은 마음대로 처치하라. 다만 운성은 죄가 없으니 용서하고 형씨를 상원위를 봉하니 이전과 같이 하지 말고 공주는 국법으로 다스리라.'

소 승상이 전교를 듣고 화가 잠시 가라앉았으나, 사람들에게는 공주를 아직 본부 옥에다 두고 금의부로 옮기는 것을 천천히 하라고 하였다.

(중략)

이때 팔왕이 상의 명령을 받고는 소 승상을 찾아와 보았는데 소 승상이 얼굴에 노여움이 어리어 다만 사례하며 말하였다.

"저는 황족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거늘 어찌 대왕께서 와 보십니까?"

팔왕이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승상은 국가의 대신일세. 어찌 작은 혐의로 이런 말을 하는가?"

소 승상이 잠자코 대답하지 않았다. 팔왕이 조용히 말하였다.

"명현 공주가 죄를 지은 것은 소홀히 할 일이 아니나 황상의 낯을 보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소 승상이 오래도록 깊이 생각하다가 말하였다.

"원통한 것은 신의 부모를 욕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능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팔왕이 웃고는 말하였다.

"진실로 공의 말이 옳지만 어찌 마땅한 임시방편이 없겠는가? 상이 이미 법을 허락하셨는데 공이 감격하여 인정을 두지 않으면 군신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일세."

소 승상이 흔연히 웃고 칭찬하고 사례하며 말하였다.

"마땅히 대왕의 말씀을 받들 만하지만 일이 풍속을 교화하는 것에 관계하니 능히 존명(尊命)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 팔왕이 기뻐하지 않으며 말하였다.

"내가 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그대가 장차 공주를 죽이고 무슨 면목으로 성상께 조회를 드리고자 하느냐?" / 소 승상이 말하였다.

"제가 비록 잔인하고 악하나 승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강상의 죄인을 없애고 임금을 뵙는 것은 그 법을 무너뜨리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상은 어찌 사사로운 정으로 신하를 꾸짖으실 것이며 내가 또한 부끄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팔왕이 잠자코 말없이 돌아갔다. 소 승상이 곧 형부 상서를 불러 운성과 공주의 죄에 해당하는 법을 알아오게 하고자 하였는데 장자 운경이 들어와 말하였다.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글을 보내시어 회보(回報)를 알아 오라고 하십니다."

드디어 소매 가운데에서 꺼내어 받들어 드리니 소 승상이 빨리 꿇어앉아 두 손으로 받아 공손한 태도로 보았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너의 일이 비록 옳지만 공주의 사람됨은 네가 평소에 아는 바인데 어찌 따지겠느냐? 모름지기 늙은 어미의 말을 받아들여 운성을 풀어 주고 공주를 죽이지 마라.'

소 승상이 다 본 후 능히 거역하지 못해 드디어 머리를 숙이고 깊이 생각하는데 구 승상이 앞에 나아와 말하였다.

"형의 도량으로 어찌 주저할 뜻이 있겠습니까?" / 소 승상이 드디어 어머니의 글을 보고 말하였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이와 같으니 제가 실로 거역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주를 무사히 놓아주면 황제의 친척과 혈족의 교만함과 패악함을 돋우며 삼강 법도를 해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 승상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형은 이른바 충효와 뛰어난 절개를 지닌 군자입니다." / 드디어 권유하여 말하였다.

"저는 영존당 태 부인과는 자주 왕래하여 숙모와 조카의 관계가 있습니다. 숙모께서 어찌 형을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치시겠습니까? 형은 모름지기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소 승상이 좋아하지 않으며 마지못해 즉시 명을 내려 운성과 공주를 다 본부 옥중에 가두고, 죽이라고 하던 의논을 그쳤다. 칠왕과 팔왕 두 사람이 들어가 아뢰자 황제가 기뻐하였다.

– 작자 미상, 「소현성록」

[22001-0128]

0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황제는 다른 신하와의 차이점을 근거로 소 승상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② 구 승상은 태 부인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소 승상에게 태 부인의 명을 따를 것을 권유하고 있다.
③ 부 황후는 공주를 죽이려 하는 소 승상의 상소를 근거로 승상이 공주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하고 있다.
④ 소 승상은 황족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황제의 부탁 때문인지를 팔왕에게 묻고 있다.
⑤ 팔왕은 임금과 신하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근거로 소 승상이 인정을 베풀어 공주를 용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22001-0129]

0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공주에 대한 처형을 서두르라는 의도를, ㉡은 공주에 대한 처형을 철회하라는 의도를 담고 있다.
② ㉠은 공주를 향한 소 승상의 분노가 완화되는, ㉡은 공주와 관련된 소 승상의 걱정이 해소되는 계기가 된다.
③ ㉠은 법에 근거하여 공주의 처형을 결정할 것을, ㉡은 인정에 호소하며 공주에 대한 처형을 결정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④ ㉠은 공주와 황제의 관계를, ㉡은 공주와 운성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주에 대한 처형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⑤ ㉠은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언급하며 공주를 처형해야 한다는 점을, ㉡은 공주의 신분을 언급하며 공주를 처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22001-0130]

0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소현성록」은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가 확립된 17세기에 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에서 소현성의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갈등은 소현성과 그의 어머니에 의해 해결되거나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이 둘은 모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 및 가정의 대소사는 남성 가장이 정한다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다. 또한 황제의 딸인 명현 공주와 소씨 가문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 서사에서는 왕권보다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의 권위가 중시되고, 이 과정에서 가부장적 가문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유교 사상과 가족 구성원의 행동이 강조된다. 이런 이유로 이 작품은 당대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의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 수신서(修身書)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① 소 승상이 형부 상서와 예부 상서를 불러 지시하는 내용을 통해, 당시에는 가부장적 가족 제도의 행동 규범이 법전에 수록될 정도로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군.
② 공주가 시아버지를 모욕하고 지아비를 죽이려 했기에 공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 승상을 위로해야 한다는 황제의 말을 통해, 왕권보다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의 권위가 중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③ 황상의 체면보다는 부모를 욕한 일이 더 중요하다며 팔왕의 제안을 물리치는 소 승상의 모습을 통해, 왕권보다 가부장적 가족 제도의 권위를 중시하는 인물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④ 공주를 죽이는 일이 풍속을 교화하는 것과 관계된다는 소 승상의 말을 통해, 소 승상과 그의 어머니를 욕보인 공주의 행동은 당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의 행동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⑤ 삼강 법도의 해이함을 걱정하면서도 어머니의 글을 본 후 공주에 대한 처벌을 멈추는 소 승상의 모습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갈등 해결 과정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이 판단 준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옛날 경상도 땅에 큰 부자가 있었다. 그에게 유일한 골칫거리는 예의와 법도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재물을 얻어 간 일가친척 한 사람이 이제는 아예 재산의 반을 떼어 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보다 못해 부자더러 소송을 걸라고 권하고, 이를 받아들인 부자는 서울로 올라와 형조에 소송을 제기한다.

여러 날이 되도록 좌기(坐起)*되기만 기다리매 그사이 서리나 찾아보고 낌새나 얻을 일이로되, 제 이왕 그르지 아니하게 한 일을 전혀 믿고 아무 사람도 찾아보지 아니하고 그 절통한 심사를 견디지 못하여 그놈 속히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지라. ㉠그놈이 비록 놀기를 즐겨 허랑무도(虛浪無道)하여 주유사방(周遊四方)하매 문견(聞見)이 너르고 겸하여 시속 물정을 아는지라.

이때 송사에 올라와 일변 친구도 찾으며 형조에 청길을 뚫어 당상(堂上)이며 낭청(郎廳)이며 서리(胥吏) 사령(使令)까지 꼈으니, ㉡자고로 송사는 눈치 있게 잘 돌면 이기지 못할 송사도 아무 탈 없이 득승(得勝)하노니, 이는 이른바 녹피(鹿皮)에 가로왈 자를 씀*이라. 아뭏거나 좌기 날을 당하여 당상은 주좌(主座)하고 낭청들은 동서로 열좌(列座)하고 서리 등은 툇마루에서 거행할새 그 엄숙함이 비할 데 없더라. 사령에게 분부하여,

"양축을 불러들이라." / 하고 계하(階下)에 꿇리며 분부하되,

[A] "네 들으라. 부자는 너같이 무지한 놈이 어디 있으리오. 제 자수성가를 하여도 빈족(貧族)을 살리며 불쌍한 사람을 구급(救急)하거든, 하물며 너는 조업(祖業)을 가지고 대대로 치부하여 만석꾼에 이르니 족히 흉년에 이른 백성을 진휼(賑恤)도 하거든, 너의 지친(至親)을 구제치 아니하고 송사를 하여 물리치려 하니 너같이 무뢰한 놈이 어디 있으리오. 어디 자손은 잘 먹고 어디 자손은 굶어 죽게 되었으니 네 마음이 어찌 죄스럽지 아니하랴. 네 소위(所爲)를 헤아리면 소당 형추 정배할 것이로되* 십분 안서(安徐)*하여 송사만 지우고 내치노니 네게는 이런 상덕(上德)이 없는지라. 저놈 달라는 대로 나눠 주고 친척 간 서로 의를 상치 말라."

하며, / "그대로 다짐받고 끌어 내치라."

하거늘, 부자 생각하매 이제 송사를 지니 가장 절통하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놈의 청으로 정작 무도한 놈은 착한 곳으로 돌아가고 나같이 어진 사람을 부도(不道)로 보내니 효험이 있을까 하여 다시 꿇어앉으며 고하려 한즉 호령이 서리 같아 등을 밀어 내치려 하거늘 부자 생각하되,

'내 관전에서 크게 소리를 하여 전후사를 아뢰려 하면 필경 관전 발악(官前發惡)이라 하여 뒤얽어 잡고 조율(照律)*을 할 양이면 청 듣고 송사도 지우는데, 무슨 안을 못 하며 무지한 사령 놈들이 만일 함부로 두드리면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종신(終身) 어혈(瘀血)* 될 것이니 어찌할꼬.'

이리 생각 저리 생각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저 송사를 지고 가기는 차마 분하고 애달픔이 가슴에 가득하여 송관을 뚫어지게 치밀어 보다가 문득 생각하되,

'내 송사는 지고 가거니와 이야기 한마디를 꾸며 내어 조용히 할 것이니 만일 저놈들이 듣기곧 하면 무안이나 뵈리라.'

하고 다시 일어서 계하에 가까이 앉으며 고하여 가로되,

"소인이 천리에 올라와 송사는 지고 가옵거니와 들음 직한 이야기 한마디 있사오니 들으심을 원하나이다."

관원이 이 말을 듣고 가장 우습게 여기나 평소에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 고로 시골 이야기는 재미있는가 하여 듣고자 하나 다른 송사도 결단치 아니하고 저놈의 말을 들으면 남이 보아도 체모에 괴이한지라. 거짓 꾸짖는 분부로 일러 가로되,

"네 본디 하향에 있어 사체 경중(事體輕重)을 모르고 관전에서 이야기한단 말이 되지못한 말이로되 네 원이나 풀어 줄 것이니 무슨 말인고 아뢰어라."

하니 그 부자 그제야 잔기침을 하며 말을 내어 가로되,

옛적에 꾀꼬리와 뻐꾹새와 따오기 세 짐승이 서로 모여 앉아 우는 소리 좋음을 다투되 여러 날이 되도록 결단치 못하였다. / 하루는 꾀꼬리 이르되,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송사하여 보자." / 하니 그중 한 짐승이 이르되,

"내 들으니 황새가 날짐승 중 키 크고 부리 길고 몸집이 어방져 통량이 있으며 범사를 곧게 한다 하기로 이르기를 황 장군이라 하노니, 우리 그 황 장군을 찾아 소리를 결단함이 어떠하뇨."

세 짐승이 옳이 여겨 그리로 완정(完定)하매 그중 따오기란 짐승이 소리는 비록 참혹하나 소견은 밝은지라. 돌아와 생각하되,

'내 비록 큰 말은 하였으나 세 소리 중 내 소리 아주 초라하니 날더러 물어도 나밖에 질 놈이 없는지라. ㉡옛사람이 이르되 모사(謀事)는 재인(在人)이요,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니 아뭏거나 청촉(請囑)*이나 하면 필연 좋으리로다.'

(중략)

황새 놈이 이 말을 듣고 속으로 퍽 든든히 여겨 하는 말이,

[B] "도시 상놈이란 것은 미련이 약차하여 사체 경중을 알지 못하고 제 욕심만 생각하여 아무 일이라도 쉬운 줄로 아는구나. 대저 송사에는 애증(愛憎)을 두면 칭원(稱冤)*도 있고 비례 호송하면 정체에 손상하나니 어찌 그런 도리를 알리오. 그러나 송사는 곡직을 불계(不計)하고 꾸며 대기에 있나니 이른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 어찌 네 일을 범연히 하여 주랴. 전에도 네 내 덕도 많이 입었거니와 이 일도 내 아무쪼록 힘을 써 보려니와 만일 내 네 소리를 이기어 주어 필연 청 받고 그릇 공사한다 하면 아주 입장이 난처하게 되려니 이를 염려하노라."

따오기 고쳐 아뢰되, / "분부가 이렇듯 하시니 상덕(上德)만 믿고 가나이다."

황새 웃고 이르되, / "성사하기 전 세상사를 어찌 알리오. 어디 보자."

– 작자 미상, 「황새결송」

* **좌기**: 관아의 으뜸 벼슬에 있던 이가 출근하여 일을 시작함.
* **녹피에 가로왈 자를 씀**: 사슴 가죽에 쓴 가로왈(曰) 자는 가죽을 잡아당기는 대로 일(日) 자도 되고 왈(曰) 자도 된다는 뜻으로, 사람이 일정한 주견이 없이 남의 말을 좇아 이랬다저랬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소당 형추 정배할 것이로되**: 마땅히 정강이를 때리며 죄를 캐묻고 유배를 보낼 것이로되.
* **안서**: 잠시 보류함.
* **어혈**: 타박상 따위로 살 속에 피가 맺힘. 또는 그 피.
* **칭원**: 원통함을 들어서 말함.
* **조율**: 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
* **청촉**: 청을 들어주기를 부탁함.

[22001-0131]

0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부자는 억울함을 즉각 호소하면 더 큰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했다.
② 관원은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으나 이목을 고려하여 포기했다.
③ 황새는 따오기가 예전에도 자신에게 여러 번 신세를 졌다고 생각했다.
④ 따오기의 청탁을 받은 황새는 송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답을 유보했다.
⑤ 황새에게 판결을 맡기는 데에 합의한 따오기는 송사에서 자신이 불리함을 인지했다.

[22001-0132]

02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와 달리 [B]에서 발화자는 자기의 무지를 반성하고 있다.
② [A]와 달리 [B]에서 발화자는 청자의 과오를 지적하고 있다.
③ [B]와 달리 [A]에서 발화자는 청자가 할 일을 지시하고 있다.
④ [B]와 달리 [A]에서 발화자는 자기에게 벌어질 일을 걱정하고 있다.
⑤ [A]와 [B] 모두 발화자가 자기와 청자의 처지를 비교하고 있다.

[22001-0133]

03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법은 공동체 내에서 부조리를 척결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할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많다. 때에 따라 법 자체가 올바르지 못하거나 미비한 경우도 있고, 또 비록 법은 잘 갖추어져 있더라도 실제 소송에서 그것을 잘못 적용하여 그릇된 판결을 내림으로써 선악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문란해지는 경우도 있다. 「황새결송」은 이러한 법과 사회 정의 간의 관계에 대해 당대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보여 주는 조선 후기의 풍자 소설로, 억울하게 송사에 진 부자에 관한 이야기인 외화(外話)와, 그 부자가 들려준 황새의 우화(寓話)인 내화(內話)가 서로 대응되는 액자 구조를 띠고 있다.

① ㉠은 액자 구조의 내화 속 따오기가 비록 소리는 참혹하지만 소견은 밝다고 한 설정과 대응된다.
② ㉡에는 법이 사회 정의의 구현 수단으로 공정하게 기능하지 못한다고 여겼던 당대인들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③ ㉢에는 그릇된 판결로 선악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문란해지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투영되어 있다.
④ ㉣은 부자가 올바른 법에 근거한 정확한 판결로 부조리가 척결되리라는 순진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우화적으로 반영된 부분이다.
⑤ ㉤에는 인간의 노력과 하늘의 보살핌을 조화시킴으로써 법을 통해 사회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22001-0134]

04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이 〈보기〉와 같다고 할 때, 윗글과 관련지어 〈보기〉에 대해 보인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러하온 짐승들도 물욕에 잠겨 틀린 노릇을 잘하기로 그놈을 개아들 개자식이라 하고 우셨으니, 이제 서울 법관도 여차하오니 소인의 일은 벌써 판이 났으매 부질없는 말 하여 쓸데없으니 이제 물러가나이다 하니, 형조 관원(刑曹官員)들이 대답할 말이 없어 가장 부끄러워하더라.

① 형조 관원들 앞에서 총명함을 입증하려던 부자의 목적이 달성되었군.
② 부자의 꾀로 인해 형조 관원들의 도덕적 정당성이 대외적으로 입증되었군.
③ 부자와 형조 관원들 사이의 경쟁 관계가 종식되고 부자가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군.
④ 형조 관원들이 이미 내려진 판결은 번복될 수 없음을 들어 부자의 주장을 반박하였군.
⑤ 사사로이 판결한 자들이 무안함이나 느끼도록 하겠다는 부자의 의도가 성공을 거두었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아니리]
"히히히히히히해해!" 크게 웃으니, 정욱이 기가 막혀, "아이고, 얘들아. 승상님이 또 웃으셨구나! ㉠적벽에서 한 번 웃어 백만 군사 몰사하고, 오림에서 두 번 웃어 죽을 봉변 당하고, **이 병 속 같은 데서 또 웃어 놓았으니, 이제는 씨도 없이 다 죽는구나!**" 조조 듣고 기가 막혀, "아, 이놈들아. 나곧 웃으면 원망 말고 너희도 생각들을 해 봐라. 만일 주유 공명이가 이곳에다가 병든 군사라도 스무 명만 갖다 묻어 두었더라도, **조조는 말고 비조라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히히히히히해해해해!**" 크게 웃으니,

[B]
[자진모리]
웃음이 끝자나마자 복병이 일어난다. 화용도 산 위에서 대포 소리 '꿍!' 이 너머에서도 '꿍!' 저 너머에서도 '꿍 궁그르르르르르르르!' 산악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바뀐 듯, 뇌고 나팔 우, 쿵 쾡 처르르르르르르 화용도 산골짜기 뒤끓으니, 위나라 장졸들이 정신이 나가 얼굴만 쳐다보고 서 있을 때, 오백 도끼 부대가 양편으로 갈라서서 대장 깃발 들었는데, '대원수 관우 삼군 사명기라!' 뚜렷하게 새겼는데, 늠름하다 붉은 얼굴, 긴 눈썹, 삼각 수염, 봉황 눈을 부릅뜨고, 청룡도 비껴들고, 적토마 달려오며, 우레 같은 소리를 벽력같이 내지르며, **"네 이놈, 조조야! 네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짧은 목 길게 빼어 청룡도 받아라!**" 조조 기가 막혀, "여봐라, 정욱아! 오는 장수 누구냐?" 정욱이도 정신 잃고, ㉡"호통 소리 장비 같고, 날랜 모양 자룡 같소!" "아, 이 녀석아. 좀 자세히 살펴봐라!" 정욱이 정신 차려, ㉢"깃발 색깔 홍색이요, 풍채가 인자하니 관우임이 분명하오." "더욱 관우라면 도망갈 곳 없고 벗어날 도리 없다."

[C]
[아니리]
"형편이 이렇게 되니 어떻든지 한번 싸워 볼 수밖에는 수가 없구나. 너는 아무쪼록 힘을 써서 우리 싸움 한번 해 보자." 정욱이 여쭈오되,

[D]
[중모리]
"㉣장군님의 높은 재주, 호통 소리 한 번 하면 길짐승도 갈 수 없고, 칼 빛 번뜻하면 나는 새도 뚝 떨어지니, 단검 한 자루로 다섯 장수 베던 솜씨, 사람도 말도 기진맥진하였으니 감히 어찌 당하리까? 만일 적에 맞서려 하면 씨도 없이 모두 죽을 테니, 옛날 **장군님이 승상 은혜를 입었으니, 어서 빌어나 보옵소서.**" **"빌 마음도 있다마는, 나의 이름이 삼국에 으뜸이라, 죽을지언정 이제 내가 비는 것은 후세의 웃음이 되리로다."**

[아니리]
"허허허허허, 야야야야야 야야야 야 야들아. 신통한 꾀 하나 생각했다." "거, 무슨 꾀를 생각하셨소?" **"나를 죽었다고 홑이불로 덮어라. 덮어 놓고 군대에 알리고, 너희 모두 앉아 울면 송장이라고 피해 갈 것이니, 홑이불 둘러씌우고 살살 기다가 한번 달음박질로 달아나자.**" 정욱이 여쭈오되, "㉤아, 지금 산 승상 잡

으려고 양국 명장이 다투는데, 죽은 승상 목 베기야, 청룡도 그 잘 드는 칼로 누운 목 얼마나 그리 힘들여 베오리까? 공연한 꾀 냈다가 목만 낭비하고 보면, 다시 싹도 길어날 수 없고, **화용도 귀신** 될 터이니, 얕은꾀 내지 말고 어서 빌어나 보옵소서." 조조가 할 수 없어서 **장군 말 밑에 빌러 들어가**는데,

[중모리]

투구 벗어 땅에 놓고, 갑옷 벗어서 말에 얹고, 장검 빼어서 땅에 꽂고, 대머리 고추상투 가는 목을 움츠리고 볼품없이 들어가서, 큰 키를 줄이면서 간교한 웃음소리로, "흐흐흐 해해해." 몸을 굽혀 절하며 하는 말이, "장군님 뵈온 지 오래인데, 그간 안녕하십니까?" 관우의 어진 마음 말 위에서 몸을 굽혀 좋은 말로 대답하되, "나는 명을 받고 조 승상을 잡으려고 이곳에 와 복병해서 기다린 지 오래겠다!" 조조가 비는 말이, "가난한 선비 조조는 천자의 명을 받아 만군을 거느리고, 천 리 전장 나왔다가 오적의 패배 보고, 초수 오산 험한 길에 허둥지둥 가는 길에, 천만뜻밖, 이곳에서 장군님을 만나오니, 어찌 아니 반가우리까? 마음 고운 장군님은 옛정 생각하여, 살려 돌아 보내 주시길 거듭거듭 바랍니다." 관우가 꾸짖어 왈, "이놈, 조조야, 들어 보아라. 내 비록 옛날에 은혜는 입었으나, 오늘날은 오·한 양 진영에 [E] 어찌 사사로이 공적인 일을 할 것인가? 진즉 죽일 것이로되, 옛날의 얼굴 보아 인사는 서로 하거니와, 결국은 죽이려니. 네 여러 대 한나라 신하로서 윗사람을 모욕하고 아랫사람 깔볼뿐더러, **세상이 셋으로 나뉘어 어지러움도 너 때문에 요란하고, 기린각에 새겨진 충신들도 너로 인해 훼손되니, 난세의 간신이니, 능력 있는 신하라면 너를 뉘 아니 미워하리?** 좋은 길 다 버리고 화용도로 들어올 때는 네 운명이 그뿐이니, 잔소리 말고 칼 받아라!" 조조가 가련히 비는 말이, "장군님, 들으시오. 흉악한 흉노라도, 칠 일 동안 포위당한 한고조를 살려 냈고, 지백 신하 예양*이는 조양자를 죽이려고 비수 품고 궁중 변소 도색하되, 조양자 어진 마음 의인이라 이르시고 내가 피하리라 하였으니, 장군님도 그를 보아 소장을 살려 주고, 삼가 피하소서." 관우가 꾸짖어 왈, "예양은 의인이요, 조양자는 도량 넓은 임금이라 일이 그러하거니와, 너는 한나라 도둑이요, 나는 한나라 의장이라, 너 잡으러 예 왔으니, 어찌 너를 살려 보낼쏘냐? 갈 길이 바쁘니, 잔소리 말고 칼 받아라!"

– 작자 미상, 「적벽가」

* **예양**: 자신이 섬기던 지백이 조양자에게 피살되자 복수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자살한 인물.

[22001-0135]

0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이전 전투에서 패한 상황을 상기시킴으로써 부정적인 현재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② ㉡: 부정확한 정보로 상황을 판단하는 모습에서 매우 당황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③ ㉢: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분석함으로써 위기 극복에 대한 확신을 내비치고 있다.
④ ㉣: 상대방의 능력을 과장되게 묘사함으로써 상대방과 대적하기 쉽지 않음을 전달하고 있다.
⑤ ㉤: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알려 줌으로써 상대방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22001-0136]

02 〈보기〉를 바탕으로 [A]~[E]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판소리에서 아니리는 정해진 음률이나 장단에 의하지 않고 읊조리는 어투로 말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아니리는 대체로 사건 전개, 논평 등 서사의 진행에 관여하는데, 창에서 고조된 긴장이 이완되어 전개되기도 하고, 작중 현실에서 벗어나 작품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선을 드러내기도 한다. 한편 중모리는 보통 속도의 장단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판소리 장단이다. 어떤 사연을 덤덤하게 서술하는 대목, 사연이나 생각 등을 간절히 호소하는 대목, 인물의 호탕하고 여유로운 거동이 구현되는 대목 등과 어울린다. 자진모리는 빠른 장단으로 '잦게 몰아간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어떤 사건이 차례로 벌어지는 대목,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위기에 처하는 대목 등과 어울린다.

① [A]에 나타난 웃음소리는 [B]에 나타난 대포 소리에 비해 정해진 음률이나 장단에 의하지 않고 읊조리는 어투로 표현하겠군.
② [C]에서 덤덤하게 서술된 인물의 말에는 [B]에서 고조되었던 긴장감이 이완되면서 작중 현실에서 벗어난 객관적인 시선이 담겨 있어서 아니리로 연행된 것이겠군.
③ [D]와 [E]에서 사연이나 생각 등을 간절히 호소하는 대화 내용은 중모리장단과 어울리겠군.
④ [B]에서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위기에 빠지는 인물들의 처지가 전개되는 장면은 자진모리장단과 어울리겠군.
⑤ [E]에서 인물이 보여 주는 호탕하고 여유로운 거동이 구현된 장면은 중모리장단과 어울리겠군.

[22001-0137]

0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국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간사하고 꾀가 많은 영웅으로 평가되었던 조조는, 「삼국지연의」를 판소리로 개작한 「적벽가」에서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우스꽝스럽게 형상화되어 있다.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은 인물로 묘사된 조조는 적벽 대전에서 패하여 도망갈 때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경박한 언행을 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조조에 대한 희화화는 조조의 어리석은 모습 제시하기, 대립 관계에 있는 인물의 공격으로 궁지에 몰린 조조의 모습 제시하기, 조조와 대적하는 장수를 높이 평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조조를 비하하기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① '이 병 속 같은 데서 또 웃어 놓았으니, 이제는 씨도 없이 다 죽는구나!'라는 정욱의 원망을 듣고도 '조조는 말고 비조라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히히히히히해해해해해!' 하고 웃는 모습에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박한 언행을 하는 조조의 희화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② '네 이놈, 조조야! 네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짧은 목 길게 빼어 청룡도 받아라!'라고 외치며 달려오는 관우의 말에 조조가 '화용도 귀신'이 되지 않기 위해 '장군 말 밑에 빌러 들어가'는 장면에서, 대립 관계에 있는 인물의 공격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조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③ '장군님이 승상 은혜를 입었으니, 어서 빌어나 보옵소서.'라는 말에 '빌 마음도 있다마는, 나의 이름이 삼국에 으뜸이라, 죽을지언정 이제 내가 비는 것은 후세의 웃음이 되리로다.'라고 답하는 장면에서, 조조와 대적하는 장수가 의인이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조조를 비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④ '나를 죽었다고 홑이불로 덮어라. 덮어 놓고 군대에 알리고, 너희 모두 앞아 울면 송장이라고 피해 갈 것이니, 홑이불 둘러씌우고 살살 기다가 한번 달음박질로 달아나자.'라고 하면서 이를 신통한 꾀라고 좋아하는 장면에서, 조조의 어리석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⑤ '세상이 셋으로 나뉘어 어지러움도 너 때문에 요란하고, 기린각에 새겨진 충신들도 너로 인해 훼손되니, 난세의 간신이니, 능력 있는 신하라면 너를 뉘 아니 미워하리?'라고 꾸짖는 관우의 모습에서, 조조가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은 인물로 형상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의양의 맑은 마음, 무숙의 고집이 저에게 재앙이 될 것을 알고, 탄식 한숨 끝에 편지 한 통을 가만히 만들어 심복인 사환에게 은근히 부탁하여 무숙의 아내에게 부쳤것다. 무숙의 아내 당황하며 ㉠편지를 들고 자세히 살펴보니 사연에 하였으되,

'한 자 글월을 계동 아기씨 전에 올리옵나이다. 문안드립니다. 엎드려 깊이 생각건대 아기씨께서는 봄기운이 창창한데 기운 안녕하시온지 우러러 바라고 걱정하옵나이다. 불초한 의양이는 지방의 천기로서 약방에 잡혀 와 관아에서 일하였는데, 어쩌다 군자의 사랑을 입어서 천첩이 되어 남편으로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방님이 수양은 모르시고 날마다 어그러지고 사납게 굴면서 주색에 빠져 가산을 돌보지 않으니, 불과 일 년 안에 천금 만재(千金萬財)를 모두 탕진하고 마침내 죽을 곳에 빠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위로는 조상 제사를 보전치 못하고, 그다음은 아기씨 목숨과 어린 자식을 맡길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르면, 패가망신한 것은 의양이 때문이라고 온갖 누명을 쓰고 구설에 오를 것이니 이 아니 원통하오. 아무리 생각해도 서방님 허랑한 심사 잡을 길 없사온데, 세상의 온갖 고생, 치사한 일,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고, 배고파 한심하고 몸이 추워 서러우면, 서방님이 비로소 이런 일을 뉘우치고 스스로 한심하게 생각하여, 후회하고 반성을 할 것입니다. 편지에 아뢰올 말씀은 산처럼 많사오나 마음이 혼란스럽고 가슴이 너무 막혀 대강만 아뢰옵나이다. 의양은 머리를 조아려 두 번 절하나이다.'

무숙의 아내가 편지를 보고,

"네가 평양집 사환이냐? 편지를 보니 창기 중 뛰어나고 점잖은 사람이요, 의리도 있고 기특하다."

연적에 먹을 갈 제, 더운 눈물 뚝 떨어져 비낀 바람에 가는 빗줄기가 되고, 붓대를 잡으려니 떨어진 눈물에 글자마다 먹물이 얼룩진다. ㉡편지 써서 하인 주니 의양에게 가만히 전한즉, 의양이 받아 보니 사연에 하였으되,

'한 통의 편지를 뜻밖에 받아 보니 기쁘기 그지없네. 사연을 자세히 보니 의가 있는 사람이요, 점잖기도 하구려. 끝없이 푸른 저 하늘이여! 이는 누구의 탓인가. 부위부강(夫爲婦綱)*은 오륜 가운데 으뜸이라. 근래 서방님이 열 눈의 보는 바와 열 손 가리키는 바가 엄한 것인 줄을 모르고 자포자기를 하여, 사나운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고집대로 일을 결정하니, 처자와 가족들이 돌아갈 곳이 없는지라. 그러나 여자의 몸이 되어 원한을 품고 애통해함은 요즘 부녀자들이나 하는 요망한 일이로다. 장강은 백주와 같은 글로 절개를 지켰으며*, 반첩여는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부채와 같이 쓸모없어졌으나 원한이 없었는지라*. 거기까지는 당치 못하여도 장부의 몹쓸 일을 막아 낼 방도가 없더니, 평양집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일마다 옳게 하고 남의 마음을 이처럼 이해하니, 만사를 능히 잘할 수 있을 것을 내 어찌 모르리오. 종사를 돌아보아 우리 장부를 건져 내어 주면, 죽어서도 은혜에 보답하고 사당에 제사도 지내 줄 것이니, 수십 년 썩은 이내 간장 평양집이 헤아려 매사를 세밀하게 도모함을 바라노라.'

의양이가 답장을 보고 쉼 없이 눈물이 흘러 옷자락이 모두 젖을 지경이었다. '천지간 몹쓸 무숙이 이런 여

중군자 어진 아내를 몰라보네. 나 같은 천첩이야 오일경조(五日京兆)*가 될 것이니 단단히 잡죄리라.'

이날부터 막덕이와 속말로 약속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무숙의 행실을 고치려고,

"막덕이 너는 나하고 계교대로 명심하여 실행하라." / 서로 짜고서 약속을 한다.

[중략 부분 줄거리] 의양은 계교로 무숙을 무일푼으로 만들고, 무숙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몸에 지닌 장신구와 옷가지뿐만 아니라 상투까지 베어서 팔게 된다. 이후 의양은 거짓으로 무숙의 친구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무숙은 자신의 집으로 향한다.

더벅머리 누더기 펄펄, 가래바지 다리 사이에 구멍 자국은 덜렁덜렁. 이리저리 부딪치며 허리 도막 개가 죽은 찬바람에 너울너울. 버선 없이 맨발바닥 발가락을 오그리고 징검징검 백로 모양으로 날이 저물어 가는 황혼에 처자의 집을 찾아간다. 남의 곁방에 있는 처자 썩 들어가 볼 길 없어 굴뚝에다 밑을 대고 동지섣달 불개 떨 듯 사지를 한데 모으고 오동거리고 앉았으니, 천하잡놈이 아닌가. 어린 자식 사오 형제 말마다 속이 탄다.

"어머니, 밥 좀 주오. 아버지는 어디 갔나. 돈 두 푼만 있거드면 팥죽이나 사다 먹고 그렁저렁 밤을 새지. 오늘도 해가 지니 벽 떨어진 냉돌방, 짚풀 위에 드러누워 차마 추워 어찌 잘꼬."

무숙의 아내 이른 말이,

"낸들 무슨 죄 있으며, 너희들이 무슨 죈고. 몹쓸 사람 네 아버지, 우리 모자 이리된 줄 벌써 응당 알았으련만. 그래도 정 각각, 흉 각각이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그리한들 어이하며 저리한들 어이하리. 속으로 느끼어 울며 기가 막혀 우는 소리에 무숙이 또한 기가 막혀 더운 피가 솰솰 쏟아진다. 들어갈까 말까 주저주저하올 적에 무숙의 막내아들놈 또 기막힌 말을 한다.

"애고, 어머니, 아버지 계셨다니 얼굴 모양이 어떠하오?" / "어쩐 말이냐?"

"아까 잠깐 자노라니 아버지라 하는 어른이 키가 크고 얼굴이 곱상한데 망건 앞살이 훤하고 구레나룻이 가무스름한데 머리에 송낙을 쓰고 등에 개를 업고 구름 타고 하늘로 빙빙 오릅디다."

무숙의 아내 깜짝 놀라 우는 말이, "네 이게 웬 말이냐. 네 아버지 죽었구나. 찾아 나갈밖에 수가 없다."

무숙이 속으로 웃고,

"부자 천륜과 부부간의 중한 의를 오늘이야 알리로다. 내가 굴뚝에 앉았으니 부엌에 불을 때면 연기가 나니 연기는 구름인즉 요 녀석 꿈이 비상하다." / 썩 들어가 아내 앞에 넙죽 엎드리며, "내 볼기를 치소."

무숙의 아내 기가 막혀, "애고." / 목을 안고 얼굴을 대고,

"이 모양이 웬일이오. 이리될 줄 몰랐던가. 남자 중에 호협객이 패가망신은 불시에 일어나는 예사로운 일, 빌어먹기 지름길이나 팔자로 알려니와 유한한 부모가 남겨 주신 몸에 더벅머리 된단 말이 웬일이오. 놀기 좋고 쓰기 좋아 만사를 다 잊은들 어려서 만난 근원 중한 자식들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지나는 길에 잠깐 들러 어찌 살아 있나 걱정이나 하였소? 패가망신 이 지경에 삯바느질 빨래품과 용정방아 동자품, 이때까지 품을 팔아 정조, 한식, 단오, 추석, 사당에 차례 봉사, 법을 차려 지나자니 아무리 애통한들 어느 누가 보탤쏜가. 내 가슴에 손을 넣어 보소. 살 한 점이 어디 있나. 해골처럼 말라서 목숨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오늘에야 돌아오니, 나 죽거든 장사하여 조상 묘 아래에 묻어 주고 자식들 데리고

살아 보면 알 것이니, 내 속정을 그제야 생각하오."

복통 간장 우는 소리 목석같은 무숙인들 깨닫지 못할쏜가. 두 얼굴 한데 대고 치뒹굴며 우는 모양 초목이 눈물을 흘리고, 가던 구름이 머무는 듯. 어린아이들도 목이 멘다.

– 작자 미상, 「계우사」

* **부위부강**: 삼강(三綱)의 하나.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임을 이름.
* **장강은 백주와 같은 글로 절개를 지켰으며**: 위(衛)나라의 제후인 공자 공백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내 장강은 굳은 절개를 지키고 부모의 재가 권유를 끝까지 뿌리쳤음. 그러면서 그녀는 '백주'라는 시를 지어 자신의 굳은 절개를 나타냄. 『시경(詩經)』에 전해짐.
* **반첩여는 ~ 없었는지라**: 반첩여는 한(漢)나라 성제의 총애를 받던 여인으로, 한여름에 주목을 받던 부채가 가을이 되니 버려진다는 내용의 '원가행(怨歌行)'이란 노래를 지음. 이 노래는 세월이 흘러 아름다움을 잃게 될 때 황제의 사랑이 식어 갈 것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고 있었는데, 실제로 성제가 조비연이라는 여인에게 빠지자 태후를 모시겠다고 말하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함.
* **오일경조**: 오래 계속되지 못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한나라 장창(張敞)이 경조윤(京兆尹)에 임명되었다가 며칠 후에 면직된 데서 유래함.

[22001-0138]

0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의양은 무숙의 아내가 훌륭한 성품을 지녔기에 무숙이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② 무숙의 아내는 남편에게 원한을 품는 것은 부녀자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했다.
③ 무숙의 아내는 가족을 돌보지 않는 무숙이를 원망하면서도 무숙이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했다.
④ 무숙은 자신의 집을 찾아가지만 가족들을 보는 것이 부끄러워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했다.
⑤ 무숙의 막내아들은 자신이 알던 아버지의 얼굴과 달랐기 때문에 꿈에서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22001-0139]

0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자신과 상대방의 신분 차이를 언급하며, ㉡은 당대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을 언급하며 상대방의 과오를 지적하고 있다.
② ㉠은 자신의 삶의 내력을 상대방과 비교하며, ㉡은 고사 속 인물들의 행적을 자신과 비교하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상대방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③ ㉠은 상대방의 신변에 대한 자신의 염려를 언급하며, ㉡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며 상대방이 선택한 행동을 만류하고 있다.
④ ㉠은 자신보다 뛰어난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하며, ㉡은 상대방의 의기로움과 겸손함을 칭송하며 자신을 배려하는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하고 있다.
⑤ ㉠은 앞으로 자신이 겪게 될 고초를 염려하며, ㉡은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언급하며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2001-0140]

03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탕자 길들이기' 서사 구조란 자신의 기질과 외적 요인에 의해 가산을 탕진한 남편이, 온갖 설움을 받다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개과천선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때 남편의 가산을 탕진하게 하는 이들을 '계략 주체', 남편의 개과천선을 이끄는 이들을 '개과천선 주체'라고 합니다. 「계우사」와 「이춘풍전」에서도 이러한 탕자 길들이기 서사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춘풍전」의 줄거리는 아래와 같은데요, 그럼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계우사」와 ⓑ「이춘풍전」에 나타난 탕자 길들이기 서사 구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 볼까요?

「이춘풍전」의 줄거리

1. 춘풍은 부인이 모아 둔 돈과 호조에서 빌린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위해 평양으로 떠남.
2. 춘풍은 평양 기생 추월에게 빠지게 되고 그녀의 계략에 속아 가지고 온 돈을 잃게 됨.
3. 춘풍은 빚을 갚기 위해 추월의 집에서 심부름하는 하인이 됨.
4. 춘풍의 부인은 비장이 되어 평양으로 떠나 추월을 꾸짖은 후 춘풍의 돈을 찾아 줌.
5. 춘풍은 돈을 받은 후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오고, 집안 음식이 평양의 것만 못하다며 부인을 박대함.
6. 춘풍의 부인은 비장 복장으로 나타나 춘풍의 염치없음을 비판함.
7. 비장의 정체를 알게 된 춘풍은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지난날을 반성하고 개과천선함.

① ⓐ와 ⓑ 모두 남자 주인공이 자신이 좋아하는 기생의 계략에 의해 가산을 탕진하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② ⓐ와 ⓑ 모두 집으로 돌아온 남자 주인공이 아내의 비판으로 인해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반성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③ ⓐ는 ⓑ와 달리 남자 주인공이 자신이 탕진한 가산을 회복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④ ⓐ는 ⓑ와 달리 계략 주체와 개과천선 주체가 서로 역할을 바꾼 후 가산을 탕진한 남자 주인공을 개과천선하게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⑤ ⓐ는 계략 주체의 계략을 남자 주인공이 알지 못한 채, ⓑ는 개과천선 주체가 계략 주체를 꾸짖은 후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구 반주가 멎는다. 장구재비가 장구 반주 없이 사설을 받아 무녀의 흥(興)을 돋운다.)

【말로】

무녀: 이렇게 개문경(開門經)*으로 치니 아홉 방 고방문(庫房門)이 잠겼던 문이 다 열려집니다 열어 놨으니 애기씨요 동냥이나 좀 주시오 옥단춘아 아버님 잡숫던 쌀독에 쌀 한 바릿대 떠다 드려라 아버님 쌀독에 쌀 뜨러 가니 **부처님 도술(道術)**로 **청룡(靑龍)이 굽이치도록** 맨들어 놓고 / 재비: 야

무녀: ㉠어머님 쌀독에는 황룡(黃龍)이 굽이치도록 맨들어 놓고 아홉 형제 오라버니 쌀독에는 청학(靑鶴) 백학(白鶴)이 알을 품도록 맨들어 놓고 / 재비: 야

무녀: 또 당금애기 쌀독에는 납작 거미가 줄을 살~짝 쳐 놨구나 쌀 뜨러 간 사람 눈에 아이고 애기씨요 무섭어서 못 뜨겠십니더 (그냥) 돌아왔다 하니 **스님**이 한다는 말이 애기씨요 그리 말고 애기씨 잡숫던 쌀독에 납작 거미가 줄을 쳤으니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한 바릿대만 떠다 주면 소승(小僧)은 돌아가겠십니더 / 재비: 야

무녀: 옥단춘이 매상금이 참 당금애기 데리고 셋이서 쌀 뜨러 간 새에 참 이 스님의 거동 보소 오늘 해를 어찌 지울꼬? 어른들은 없다 소리 듣고 기나긴 해에 **삼한 세준을 태어나게 하려고 왔**는데 어찌하여 해를 지우겠노? / 재비: 야

무녀: 돌아서서 자루의 밑구멍을 터놓고

(장구재비가 잠깐 장구를 두드리다가 이내 멈춘다. 장구재비가 장구 반주 없이 사설을 받아 무녀의 흥을 돋운다.)

【말로】

무녀: 위로는 받는 척 밑으로는 대문천에 다 흘렸다 / 재비: 야

무녀: 옥단춘이 하는 말이 아이고 스님요 ㉡동냥으로 댕길라거덩 자리나 성한 거로 가지고 댕기지 밑 빠진 자리를 가지고 어찌 동냥으로 댕깁니까?

(장구재비가 잠깐 장구를 두드리다가 이내 멈춘다.)

【말로】

무녀: 앞문에 옥단춘아 비 가지고 오너라 쓸어 넣어 드리자 체 가져오너라 까불어 넣어 드리자 우리 절에 스님이 한다는 말이 아이고 애기씨요 (장구재비가 잠깐 장구를 두드리다가 이내 멈춘다. 장구재비가 장구 반주 없이 사설을 받아 무녀의 흥을 돋운다.)

【말로】

무녀: 우리 **절에 공양(供養)** 올릴 백미(白米) 쌀은 ㉢비 가지고 쓸모 쑤시내가 나서 못 받고 체 가지고 까불모 버들내가 나서 못 받십니다 / 재비: 야

무녀: 그럼 어찌하잔 말이오? 뒷동산 올라가서 깨똥나무로 꺾어다가 임불로 곰불로* 하나씩 집어넣어야 댑니다 한다 그러니까 (장구재비가 잠깐 장구를 두드리다가 이내 멈춘다.)

【말로】

무녀: 세상에 기나긴 해를 어찌 지우겠노? 그러니 쌀을 밑구멍 다 자리 밑구멍으로 터놓고 대문천에 이렇게 흘려 내어 저(箸)로 갖다 집어넣어야 드디어 살~ ㉣해가 질끼 아이가?

(장구재비가 잠깐 장구를 두드리다가 이내 멈춘다.)

【말로】

무녀: 그래 놓으니까 세상에 절[箸]로 집어넣자고 한다. 그러니 또 옥단춘이 또 뒷동산에 깨똥나무를 꺾으러 간다 (장구재비가 장구 반주를 시작한다. 장구재비는 장구 반주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여음을 받기도 하고 탄성을 지르기도 해서 무녀의 흥을 돋운다.)

【창(唱)으로】

무녀: 뒷동산으로 올라가서 깨똥나~무로 꺾어 와서 / **재비**: 아~디야

무녀: 절로 하여서~ 집어넣네 옥단춘이도 집어넣고 매상금도 집어넣고 / **재비**: 아~디야

무녀: 스님도 집어넣고 당금애기 집어넣고 얼마만침 집어넣더라니 동(東)에 동산(東山) 돋은 해가 일락서산(日落西山)을 다 넘어갔네 / **재비**: 아~디야 / **무녀**: 아이고 당금애기 하는 말이 [A]

【말로】

재비: 좋다~

【창(唱)으로】

무녀: 스님요 스님요 어서 가시오 해가 졌으니 어서 가시오 / **재비**: 아~디야

무녀: 스님이 하는 말이 애기씨요 애기씨요 집을 두고서 산으로 가라오 유수(流水)같이 흐르는 밤~에 **하릿밤만 유(留)해** 갑시다 / **재비**: 아~디야

무녀: 그 소리를 치니까 당금애기가 후원(後園) 별당(別堂) 안이라 하는 곳은 남자들도 못 오는 곳인데 어찌 남정네가 와서 자고 가잔 말입니까 아이구~ 애기씨요 이 마을 왔다가 해가 져서 일모(日暮) 됐는데 어디로 가랍니까 하릿밤만 유(留)해 갑시다 아이구 당금애기 하는 말이 앞문에 옥단춘아 아부지 자던 방에 가서 자리보전을 시켜 드려라 / **재비**: 아~디야

무녀: 아버님 자던 방에는

【말로】

무녀: ㉤누린내 나서 못 자겠소

【창(唱)으로】

무녀: 아이구 **어머니 자던 방 안에 자리보전**을 시켜 드려라 어머님 자던 방에는 아홉 형제(兄弟) 오라버니 낳았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서 못 자겠소 그렇다면 오라벗네 자던 방 안에 자리보전을 시켜 드려라

재비: 아~디야 / **무녀**: 오라벗네 자던 방에는 땀내 나서 못 자겠소 딱한 중아 어찌하잔 말이오

재비: 아~ 디야

– 작자 미상, 「제석본풀이」

*개문경: 문이 열리게 하는 경문.

*임불로 곰불로: 앞으로 뒤로.

[22001-0141]

0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스님이 당금애기의 집을 찾은 궁극적 목적은 시주를 받기 위해서이다.
② 스님은 당금애기의 집에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당금애기를 속여서 말한다.
③ 당금애기는 자신에게 생긴 문제를 스님이 도술을 써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
④ 당금애기는 부모님이 돌아올 때까지만 자신의 집에 스님이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
⑤ 옥단춘은 당금애기를 도와주는 체하면서도 당금애기에게 반항하는 태도를 보인다.

[22001-0142]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시주할 쌀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 말이다.
② ㉡: 스님의 행위가 상식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 하게 된 말이다.
③ ㉢: 상대방이 하려는 행동을 제지하려는 의도에서 하게 된 말이다.
④ ㉣: 곧 해가 지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스님의 불안감을 담은 말이다.
⑤ ㉤: 스님이 아버님 방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다.

[22001-0143]

0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본풀이'는 '신의 근본 내력을 말로 풀어낸 것'으로, 신과 인간의 양면성을 지닌 인물에 의해서 신계와 인간계가 함께 펼쳐진다. 「제석본풀이」의 경우 천부지모(天父地母)형 신화로 분류되며 남자 주인공인 남신은 천신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여자 주인공인 당금애기는 지역을 수호하는 여신으로 나중에 제석신을 낳는 생산신의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신화의 본디 내용은 부계신인 천신과 모계신인 지신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곧 후계자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랜 기간 전승하면서 불교의 영향을 받아 변모하게 된 것이다.

① 남자 주인공이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부처님'이나 '절에 공양'을 올린다는 언급은 전승 과정에서 불교의 영향을 받은 흔적임을 짐작할 수 있군.
② 스님이 '청룡이 굽이치도록' 만드는 '도술'과 같은 초월적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과 인간의 양면성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군.
③ 스님이 당금애기로 하여금 '삼한 세준을 태어나게 하려고 왔'다고 언급하는 것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신화의 면모를 엿볼 수 있군.
④ 스님이 여자 주인공인 당금애기에게 '하룻밤만 유해' 가자고 거듭 요청하는 것은 천신과 지신의 결합을 위한 부계신의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군.
⑤ 여자 주인공인 당금애기가 '어머니 자던 방 안에' 스님의 '자리보전'을 하도록 명하는 것에서 후계자를 낳는 숙명을 이루기 위해 적극성을 보이는 모계신의 면모를 엿볼 수 있군.

[22001-0144]

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A]와 〈보기〉의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서사 무가란 무당들이 굿을 하면서 신의 내력담을 악기 반주에 맞추어 노래로 부르는 것을 말한다. 서사 무가는 연극적 속성을 내포하는바 그 속성이 더 강화되면서 민속극을 형성하는 모태로 작용했을 것이라 추정되기도 하는데, 서사 무가와 민속극은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점이 주요 근거를 이룬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연기자가 반주자나 관중들과 대화를 나누는 점, 춤과 노래를 포함한다는 점, 율문체의 사설에 재담이 빈번하게 섞여 나타난다는 점 등에서 두 장르 간 연행적 성격이 상통한다. 다음은 민속극 「봉산탈춤」의 한 부분이다.

말뚝이: 쉬이. (춤과 반주 그친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오음 육률(五音六律)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좀 쳐 주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
[B]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용두 해금(奚琴), 북, 장구, 피리, 젓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드러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건건드러지게 치라네. (굿거리장단으로 춤을 춘다.)
생원: 쉬이. (춤과 장단 그친다.) 말뚝아.

① [A]와 [B] 모두 연행에서 사설과 노래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군.
② [A]와 [B] 모두 인물들 사이에 주고받는 말에 율문체의 재담이 섞여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군.
③ [A]는 연기자 한 명이 여러 인물을 연기하지만, [B]는 여러 명의 연기자들이 각기 다른 인물을 연기한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는군.
④ [A]의 연행에서는 춤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이 해소되지만, [B]에서는 춤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이 고조된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는군.
⑤ [A]의 연행에서는 연기자가 반주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지는 않지만, [B]에서는 반주자가 연기자의 직접적인 대화 상대자가 된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는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북동(城北洞)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엿새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 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 하였다.

무어 **바깥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쏴— 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란 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 주었다.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뜨인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 때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런 눈을 가지고,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손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돋워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열 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꽥 지르는 소리로,

"아, 이 댁이 문안서……."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 제하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넌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저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 한다.

보니 합비*는 안 입었으되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다.

"그렇소, 신문이오?"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저 건너쪽에만 가 찾었습죠. 제기……." /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이뜨리며,

"그런뎁쇼, 왜 이렇게 죄꼬만 집을 사구 와 곕쇼. 아, 내가 알었더면 이 아래 큰 개와집도 많은걸입쇼……."

한다. 하 말이 황당스러워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빡빡 깎은 머리로되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 데다 옆으로 보니 장구 대가리다.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라고 수고했소." / 하니 그는 큰 눈과 큰 입이 일시에 히죽거리며,

"뭘입쇼, 이게 제 업인뎁쇼."

하고 날래 물러서지 않고 목을 길게 빼어 방 안을 살핀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는데,

"저는입쇼,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이라 합니다……."

하고 인사를 붙인다. 나도 깍듯이 내 성명을 대었다. 그는 또 싱글벙글하면서,

"댁엔 개가 없구먼입쇼." / 한다.

"아직 없소." / 하니

"개 그까짓 거 두지 마십쇼." / 한다.

"왜 그렇소?" / 물으니, 그는 얼른 대답하는 말이,

"신문 보는 집엔입쇼,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 한다. 이것 재미있는 말이다 하고 나는

"왜 그렇소?" / 하고 또 물었다.

"아, 이 뒷동네 은행소에 댕기는 집엔입쇼, 망아지만 한 개가 있는뎁쇼, 아,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얍죠." / "왜?"

"막 깨물랴고 덤비는걸입쇼." / 한다.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웃기만 하니 그는 더욱 신을 낸다.

"그눔의 개 그저, 한번, 양떡을 멕여 대야 할 텐데……."

하면서 주먹을 부르대는데 보니,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기어 반비례로 작고 가느다랗다.

(중략)

"그래 삼산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소?" /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스카이* 노릇을 합쇼. 밑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뻐젓이 장사를 할 턴뎁쇼." / 한다.

"무슨 장사?"

"아, 방학 될 때까지 차미* 장사도 하굽쇼, 가을부턴 군밤 장사, 왜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죠.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겝쇼. 저를 선생들보다 낫게 치는뎁쇼." /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뻐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굽쇼." /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밑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실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벙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 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돗값을 물어 주었다. 포돗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깁*을 깐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께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 케…… 와 나…… 미다카 다메이…… 키…… 카……."*

를 부르며 큰길이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휙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퍽퍽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 이태준, 「달밤」

* **합비**: 일본말로 '등이나 깃에 상호가 찍힌 겉옷'을 이르는 말.
* **고스카이**: 소사(小使)의 일본어. 관청, 회사, 학교 등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고용한 사람.
* **차미**: '참외'의 방언.
* **깁**: 명주실로 바탕을 조금 거칠게 짠 비단.
* **사케와 나미다카 다메이키카**: 일본 가요의 가사로, 우리말로는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22001-0145]

0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수건'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소재이다.
② '나'에 대한 '수건'의 고마움이 담긴 소재이다.
③ '나'가 뜻하지 않게 값을 치르게 되는 소재이다.
④ '수건'에 대한 '나'의 호의적 태도가 드러나는 소재이다.
⑤ '나'와 '수건' 사이의 오해가 해소되는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22001-0146]

02 성북동(城北洞)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와 '수건'의 대립이 고조되는 공간이다.
② '나'가 '수건'으로 인해 시골의 느낌을 강하게 느끼는 공간이다.
③ '나'가 이사를 오면서 안면이 있던 '수건'과 재회하게 되는 공간이다.
④ '바깥이 컴컴한'이라는 말을 통해 '나'의 적대적 정서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⑤ 못난이가 행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처와 다를 바 없다며 '나'가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이다.

[22001-0147]

0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태준의 「달밤」에서 '수건'은 한마디로 못난 인물이다. 그는 야무지지 못하고 기본예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가 있다. 또한 우둔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불우한 처지에 놓인다. 하지만 그를 대하는 서술자의 행동에는 존중과 배려가 깃들어 있다. 독자가 비판이나 냉소가 아닌 연민의 시선으로 '수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① '수건'이 처음 '나'의 집을 방문하는 시간과 인사 방식을 통해 '수건'이 기본예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② '수건'의 우둔한 말에도 무시하지 않고 응답하는 모습을 통해 '수건'을 존중하는 '나'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③ 금실이 괜찮았던 아내마저 도망간 사건을 통해 '수건'의 불우한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④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는 '수건'의 모습을 통해 친일 의식이 강한 '수건'의 우둔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밤길에 '수건'을 보고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는 '나'의 모습을 통해 '수건'에 대한 '나'의 배려를 엿볼 수 있다.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 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 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 손의 단장과 또 한 손의 공책과 — 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머엉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른다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 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구보는, **움직인 전차에 뛰어**올랐다.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 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車掌臺) 가까운 한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아란 융을 받쳐 댄 창을 본다. 전차과(電車課)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외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 내지 못하였다.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기어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표, 찍읍쇼—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다섯 닢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의 다섯 닢 동전을 본다. 그것들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대정 12년. 11년. 11년. 8년. 12년. 대정 54년—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설혹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중략)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 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그리고 앉아 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맥없다.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의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港口)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시리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네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 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엾었다.

구보는 한구석에 가 서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뉘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 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펴질 턱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孝養)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포목도 있고, 일용 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얕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삼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일, 이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앉을 게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서 부종(浮腫)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 확장(胃擴張)**을 새삼스러이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40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前頸部)의 광범한 팽륭(澎隆).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세도씨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 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 쓰고 린네르 쓰메에리 양복 입은 사내의,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22001-0148]

0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②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다각도로 전달하고 있다.
③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으로 갈등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④ 객관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과거 사건의 비현실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의 초점을 다양한 인물로 옮겨 가며 사건의 원인을 조명하고 있다.

[22001-0149]

0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과 ㉡ 모두 구보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② ㉠과 ㉡ 모두 구보가 고독을 피하기 위하여 찾아든 공간이다.
③ ㉠과 ㉡ 모두 구보가 목적 없이 방황하는 군중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④ ㉠은 구보가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게 하는, ㉡은 구보가 미래의 의지를 다지는 공간이다.
⑤ ㉠은 구보가 배회를 시작하게 되는, ㉡은 구보가 배회를 끝마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22001-0150]

0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근대화되어 가는 도시 속에서 집단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개인의 불안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보의 거리 산책은 '자기는 어디 가 행복을 찾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데, 구보의 행복 찾기는 외부의 질서와 조화 속으로 편입되려는 노력이자 자기반성을 통한 자아 찾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구보는 도시의 근대적 삶에서 인간적인 온정을 찾을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고, 이로 인한 불안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① '저 혼자 그곳에 남아 있'게 되자 '움직인 전차에 뛰어'오르는 구보의 행동은 집단으로부터 소외되리라는 불안 의식을 해소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군.
②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라는 구보의 생각은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자아를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③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쁜 군중의 모습은 근대화되어 가는 도시에서의 삶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④ '그의 얼굴에서 부종을 발견'한 후 '자신의 만성 위 확장'을 떠올리는 구보의 모습은 외부의 질서와 조화 속으로 편입되는 고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군.
⑤ '병자의 발 앞에까지' 굴러 온 '복숭아'를 집기 단념하는 젊은 아낙네의 모습은 인간적인 온정을 찾을 수 없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나'는 창의문 밖으로 이사한 이후 집안일을 해 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도심에서 먼, 시골에 가까운 '나'의 집에 일을 하러 왔다가도 오래 있으려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힘겹게 연이 닿아 어느 할멈을 일하는 사람으로 맞아들이게 된다.

[A] 아내의 전하는 말을 들으면 그 할멈은 황해도 안악 사람으로 **농토를 빼앗기고 살길이 없어** 아들 부부만 제 시골에 처뜨리고 저는 열세 살 먹이 손자 하나를 데리고 벌이할 곳을 찾아 걸어서 서울을 올라왔다. 공덕리를 중심으로 한 기름 장사의 틈에 끼어 삼 원이란 전 천량을 들여 장사를 시작해 보았으나 처음 일이라 단골도 없고 모든 일에 서툴러서 밑천조차 깝살려 버리고 필경 남의 집에나 살아 보자고 나섰더니 그나마 뜻같이 되지 않아 오늘날까지 동향의 기름 장사꾼의 신세를 입다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다 한다.

하루 이틀은 무사히 지나갔다. 사흘이 못 되어 피차에 얼굴이 조금 익어지자 ㉠그의 호소와 하소연이 육칠월 장마 모양으로 그칠 줄 몰랐다. 그는 아내를 조르다가 못하여 인제는 나만 보면 조르기 시작한다.

"나으리 마냄, 저 새끼(제 손자를 가리킴.)를 어떻게 하면 좋쉬까? 댁으로 데불고 와요? 열세 살이라도 못 할 일이 없쉬다……."

"저 건넨방이 비지 않았쉬이까? 우리 아들 내외께 좀 빌려주시깡요. …… 이 거룩한 댁에서 살게 해 주소?"

"돈을 십 원만 선월급으로 미리 좀 주시까요? 서울에 올라올 때 동리 사람에게 진 빚냥을 갚어야 되겠쉬다. 나으리 마냄, 사람 좀 살리소……."

그는 제 일신의 모든 어려운 사정을 한꺼번에 해결해 보려는 듯하였다. 처음에는 허허실수 지나치는 말로만 여겼더니 웬걸 차차 그의 하소연이 물론 진정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깨달았다. ㉡물에 빠지는 사람이 한 오라기를 부여잡는 모양으로 그는 죽을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매어 달리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우리에겐 물론 그런 여유가 없었다. 다달이 몇 푼 월급으로 겨우 꾸려 가는 ㉢우리에게 그의 손자를 기르고 그의 아들 부부를 살릴 힘은 어디를 쥐어짜도 나올 턱이 없었다. 식구라야 우리 내외와 다섯 먹이 딸 하나, 집이 멀고, 명색 밭이라고 산기슭에 몇 고랑 있는 탓에 문안 심부름과 집 거두기에 열아홉 살 먹은 대욱이란 아이를 들인 터이라 안잠자기 외에 사람 더 둘 필요는 절대로 없었다. 할멈의 사정이 아무리 딱하다 하더라도 부둥부둥 식구를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의 청을 들으려야 들을 수 없었다.

나의 맘은 무거웠다. **그에게 동정을 하면 할수록 나의 고통은 컸다.** 험난한 인생의 길의 산 표본을 눈앞에 보는 듯하여 나의 가슴만 어두워질 뿐이다.

낮보다도 밤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낮에는 나도 집에 붙어 있지 않거니와 자기도 일이 바쁘니 조를 겨를이 없으되 밤엔 저녁을 먹고 앉으면 그의 애원은 쉴 새 없이 나의 귀를 울리고 머리를 들먹인다. 두 방에 불 때기가 어려워서 장지로 막은 안방에 우리는 아랫간에 자고 그는 윗간에 자니 한방이나 진배가 없었다. 그의 한숨과 호소는 장지* 하나 격해 폭포수같이 쏟아진다. 그는 좀처럼 잠도 자지 않았다. 내가 깨어 있는 듯한 눈치만 보이면 자기의 원정과 설움과 슬픔을 늘어놓는다. '이 거룩한 댁에서 자기를 안 살려 주면 누가

살리겠느냐?' 내가 꼭 그를 구해야만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추근추근하게 굳세게 줄기차게 조르고 볶고 호소하고 애원한다. 불면증이 있는 나는 이따금 뜬눈으로 새우기까지 되었다.

[B] 잠꼬대처럼 호소를 중얼거리다가도 그는 흔히 고단한 꿈을 맺는 모양이나 이 꿈이 도무지 길지 않았다. 높던 숨소리는 이내 깊은 한숨으로 변한다. 그렇다! 그것은 정말 깊은 한숨이다. 바닷속 깊이 파도가 이는 모양으로 '우후우' 하는 처량한 울림을 낸다. 그의 천 마디 만 마디 말보다도 이 한숨이야말로 그의 슬픔과 번민과 고통을 가장 웅변으로 설명해 준다. 나는 잠결에도 이 한숨 소리만 들으면 번쩍하고 눈이 떠진다. 열 손, 스무 손이 나를 흔들어 깨운다 한들 이 인생의 최후의 휘파람 같은 무겁고 우렁차고 비통한 이 울림처럼 나의 맘을 뒤흔들고 맘을 움직이지 못하였으리라. 나는 고만 잠을 잊어버린다. 그 산란한 괴로운 숨결! 그 탄력 없는 늙고 무거운 팔다리가 이리로 저리로 뒤적거리는 둔한 음향!

그는 청을 하다하다 듣지 않으니까 대욱이를 미워하기 시작하였다.

'저놈만 없으면 내 손자가 있게 될 텐데.' / 하고 내심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세 끼의 밥도 잘 찾아 주지 않고 더구나 된장찌개 하나 잘 만들어 주지 않았다. 나중에는, 저 애는 다 컸으니 어디를 가도 제구실을 할 터이니 그만 내어 보내고 자기 손자를 갖다 두자고 노골적으로 아내를 졸랐던 모양이다.

㉤눈 여린 아내는 처음엔 그를 위하여 눈물까지 흘린 일이 있었으나 이 요구에는 어이가 없었다.

"아무리 제 자식을 위한다 한들 어쩌면 있는 사람을 내보내라고까지 한단 말요? 다 같은 처지에…… 심청*이 나빠." / 하고 눈의 밖에 나게 되었다.

할멈이 온 지 한 열흘쯤 지냈으리라.

그는 내일쯤 제 손자를 찾아보고나 오겠다고 청했다. 우리는 물론 허락하였다. 오늘 낮쯤 갈 터인데 오늘 아침에 생긴 일이다.

나는 어젯밤에도 잠을 잘 못 자고 심지가 좋지 못한 대로 뒷동산을 한 바퀴 휘돌아 내려오니까 아내가 파랗게 질려서 할멈과 무어라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

그 사단은 이러하다. 할멈이 일어나 나간 뒤로 아내가 나가 보니 마룻바닥에 쌀낱이 흩어져 있었다. 밥쌀을 내다가 떨어뜨린 것인가 하였더니 자세히 살펴보니 마루로부터 뜰로, 뜰로부터 우물 가는 길로 쌀이 줄을 그은 것처럼 흘러 있었다. 하도 이상해서 할멈 뒤를 쫓아가 보니까 그의 걷는 대로 쌀이 줄줄 흘러내린 것을 발견하였다. 필경 할멈의 **품속에 쌀을 감추**어 둔 것이 발견되었다 한다. 그는 헌털뱅이 전대 하나를 주워서 쌀을 불룩하게 집어넣어 가지고 가슴 밑에 찼는데 전대의 구멍이 뚫어져서 그의 걷는 대로 쌀이 흐르게 된 것이었다.

나는 그대로 출근했다가 저녁때 돌아와서 할멈을 물었더니 그는 품속에서 훔친 쌀을 도로 내어놓고 백배사죄하며 제 손자한테로 갔다 한다. 손버릇이 나쁘니 물론 집에 둘 수가 없어서 날짜를 따져 월급을 주어서 아주 보내고 말았다 한다.

(중략)

대욱이는 자못 분개한 중에도 어이없어 웃는다. 이번 사건에 대욱이가 제일 치를 떨었다. 고지식한 그는 **그런 짓을 하니까 없는 사람이 대접을 못 받는다고** 펄펄 뛰면서 할멈을 맞대해 놓고 욕지거리를 하며 징역을 살린다고 울림장을 놓았다 한다.

나는 그 할멈의 한 일을 서투른 도적의 노릇으로 웃어 버리기엔 너무 맘이 저리었다.

대욱의 말마따나 할멈은 과연 파출소를 겁내었을까? 아무도 몰래 안전하게 제 품속에 든 **동전 세 푼**이 귀신 아닌 사람에게 발각되리라고 믿었을까? 사랑하는 손자에게 옥춘당*으로나 변할 그 귀중한 동전 세 푼을 확실치 않은 겁결에 그리 쉽사리 내어놓았을까?

그는 일부러 동전 세 푼을 내어던진 것이다. 네 보라는 듯이 내어던진 것이다!

"섬으로 있는 쌀을 몇 줌 훔친들 어떻단 말이냐? 굶주린 내 손자에게 한 끼 이팝을 해 준들 어떻단 말이냐? 무슨 대사냐? 품속에 넣은 쌀까지 우벼 뺏는 알뜰한 요것들아, 이 동전 서 푼이나마 마저 받아라! 그리고 잘살아라!"

맘속으로 외치며 이 동전을 던진 것이다. **우리의 얼굴을 향해서, 심장을 향해 이 동전 서 푼을 후려갈긴 것이다!**……

– 현진건, 「서투른 도적」

* **장지**: 방과 방 사이, 또는 방과 마루 사이에 칸을 막아 끼우는 문.
* **심청**: 마음보.
* **옥춘당**: 쌀가루로 만든 사탕의 하나.

[22001-0151]

0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외양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② [A]는 다양한 소재의 활용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③ [A]는 특정 시점에 대한 회상을 통해 과거를 성찰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④ [B]는 공간적 배경의 사실적 제시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⑤ [B]는 비유와 영탄적 표현의 활용을 통해 대상에 대한 인물의 판단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2001-0152]

02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할멈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② ㉡: 할멈의 요구가 절박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 할멈의 요구가 할멈 가족의 안위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 할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대욱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알 수 있다.
⑤ ㉤: 할멈의 요구는 아내의 태도가 변할 정도로 무리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2001-0153]

0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서투른 도적」이 발표된 1931년은 일제 강점하의 농촌 수탈이 극심하던 시기로, 농토나 삶의 터전을 뺏긴 농민들은 도시로 이주하여 빈민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작품에 나타난 할멈의 빈곤과 그로 인한 타락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할멈의 도둑질이 부정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궁극적으로 할멈이 처한 상황의 사회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나'는 할멈이 처한 상황에 대해 내적 갈등을 겪으며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벌어진 상황을 통해 도덕적 자각을 하게 된다. '나'의 이러한 자각은 도둑질의 원인을 개인이나 일부 계층의 도덕적 일탈보다는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든다.

① 할멈이 '농토를 빼앗기고 살길이 없어' 벌이를 위해 서울로 올라온 것을 통해 일제의 농촌 수탈로 인한 도시 빈민의 상황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그에게 동정을 하면 할수록 나의 고통은 컸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할멈의 상황에 대해 '나'가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품속에 쌀을 감추'거나 '동전 세 푼'을 훔친 것과 같은 할멈의 도둑질은 빈곤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타락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④ '그런 짓을 하니까 없는 사람이 대접을 못 받는다고' 분개하는 대욱의 태도는 할멈이 행한 도둑질을 매우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나'가 할멈이 '우리의 얼굴을 향해서, 심장을 향해 이 동전 서 푼을 후려갈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통해 사회적 모순에 대한 할멈의 자각을 '나'가 짐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원과 토반*과 아전이 있어**, 토색질*이나 하고 붙잡아다 때리기나 하고 교만이나 피우고 하되 세미(稅米)는 국가의 이름으로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백성은 죽어야 모른 체를 하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 보았다.

천하 오랑캐, 애비와 자식이 맞담배질을 하고, 남매간에 혼인을 하고, 뱀을 먹고 하는 왜인들이, 저희가 주인이랍시고서 교만을 부리고, 순사와 헌병은 칼바람에 조선 사람을 개도야지 대접을 하고, 공출을 내어라 징용을 나가거라 야미*를 하지 마라 하면서 볶아 대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다, 나는 일본 백성이다 이런 도무지 그럴 마음이 우러나지를 않는 억지 춘향이 노릇을 시키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 보았다.

결국 그러고 보니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였건 남의 나라였건 있었댔자 백성에게 고통이나 주자는 것이지, 유익하고 고마울 것은 조금도 없는 물건이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새 나라는 말고 더한 것이라도, **있어서 요긴할 것도 없어서 아쉬울 일도 없을 것이**었다.

신해(辛亥)년…… 경술 합방 바로 이듬해였다. 한 생원은—때의 젊은 한덕문은—빼앗기고 남은 논 일곱 마지기를 불가불 팔아야 할 형편에 이르렀다.

칠팔 명이나 되는 권솔인데. 내 논 일곱 마지기에다 남의 논이나 몇 마지기를 소작하여 가지고는 여간한 규모와 악의악식(惡衣惡食)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현상 유지를 하기가 어려웠다.

한덕문은 그 부친과는 달라 살림 규모가 없었다. 사람이 좀 허황하고 헤픈 편이었다.

부친 한태수가 죽고, 대신 당가산(當家産)을 한 지 불과 오륙 년에 한덕문은 힘에 넘치는 빚을 졌다.

이 빚은 단순히 살림에 보태느라고만 진 빚은 아니었다.

한덕문은 **허황하고 헤픈 값을 하느라고 술과 노름을 쑬쑬히 좋아**하였다.

일 년 농사를 지어야 일 년 가계가 번연히 모자라는데, 거기다 술을 먹고 노름을 하니, 늘어 가느니 빚밖에는 있을 것이 없었다.

(중략)

이 멧갓*을 한 생원은 길천이에게다 논을 팔던 이듬핸지 그 이듬핸지, 돈은 아쉽고 한 판에 또한 어수룩이 비싼 값으로 팔아넘겼었다.

길천은 그 멧갓에다 낙엽송을 심어, 삼십여 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아주 한다한 산림이 되었었다.

늙은이의 총기요, 논을 도로 찾게 되었다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깜빡 멧갓 생각은 미처 아직 못 하였던 모양이었다.

마침 전신줏감의 쪽쪽 곧은 낙엽송이 총총들이 섰다. 베기에 아까워 보이는 나무였다.

한 서넛이나가 한편에서부터 깡그리 베어 눕히고, 일변 우죽을 치고 한다.

"이놈, 이 불한당 놈들, 이 멧갓 벌목한다는 놈이 어떤 놈이냐?"

비틀거리면서 고함을 치고 쫓아오는 한 생원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일하던 손을 멈추고 뻐언히 바라다보고 섰다.

"이놈 너루구나?"

한 생원은 영남이라는 읍내 사람 벌목 주인 앞으로 달려들면서, 한 대 갈길 듯이 지팡이를 둘러멘다.

명색이 읍내 사람이라서, 촌 농투성이에게 무단히 해거를 당하면서 공수하거나 늙은이 대접을 하려고는 않는다.

"아니, 이 늙은이가 환장을 했나?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놈, 네가 왜 이 멧갓을 손을 대느냐?"

"무슨 상관여?" / "어째 이놈아 상관이 없느냐?"

"뉘 멧갓이길래?" / "내 멧갓이다. 한덕문이 멧갓이다, 이놈아."

"허허, 내 별꼴 다 보니. 괜시리 술잔 든질렀거들랑 고히 삭히진 아녀구서, 나이깨 먹은 것이 왜 남 일하는 데 와서 이 행악야 행악이. 늙은인 다리 뼉다구 부러지지 말란 법 있나?"

"오냐 이놈, 날 죽여라. 너구 나구 죽자."

"대체 내력을 말을 해요. 무엇 때문에 이 야룬지 내력을 말을 해요."

"이 멧갓이 그새까진 길천이 것이라두, 조선이 독립됐은깐 인전 내 것이란 말야, 이놈아."

"조선이 독립이 됐는데 어째 길천이 멧갓이 한덕문이 것이 되는구?"

"길천인, 일인들은, 땅을 죄다 내놓구 간깐 그전 임자가 도루 차지하는 게 옳지 무슨 말이냐?"

"오오, 이녁이 이 멧갓을 전에 길천이한테다 팔았다?" / "그래서."

"그랬으니깐, 일인들이 땅을 다 내놓구 가니깐, 이녁은 팔았던 땅을 공짜루 도루 차지하겠다?"

"그래서."

"**그 개 뭣 같은 소리 인전 엔간치 해 두구**, 어서 없어져 버려요. 난 뻐젓이 길천 농장 산림 관리인 강태식이한테 시퍼런 돈 이천 환 주구서 계약서 받구 샀어요. 강태식인 길천이가 해 준 위임장 가지구 팔구. 돈 내구 산 사람이 임자지. 저 옛날 돈 받구 팔아먹은 사람이 임잘까?"

[B] 8·15 직후 낡은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영이 서기 전, 혼란한 틈을 타서 **잇속에 눈이 밝은 무리들이**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의 관리자와 부동이 되어 가지고, 일인의 재산을 부당 처분하여 배를 불린 일이 허다하였다. 이 산판 사건도 그런 것의 하나였다.

그 뒤 훨씬 지나서.

일인의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 이런 소문이 들렸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 생원은 그 논 일곱 마지기를 돈을 내고 사지 않고서는 도로 차지할 수가 없을 판이었다. 물론 한 생원에게는 그런 재력이 없거니와, 도대체 전의 임자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나에게 판다는 것이 한 생원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한 처사였다.

한 생원은 분이 나서 두 주먹을 쥐고 구장에게로 쫓아갔다.

"그래 일인들이 죄다 내놓고 가는 것을 백성들더러 돈을 내구 사라구 마련을 했다면서?"

"아직 자세힌 모르겠어두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우리라구들 하드군요."

해방 후에 새로 난 구장의 대답이었다.

"그런 놈의 법이 어딨단 말인가? 그래, 누가 그렇게 마련을 했는구?"
"나라에서 그랬을 테죠." / "나라?"
"우리 조선 나라요."
"나라가 다 무어 말라비틀어진 거야? 나라 명색이 내게 무얼 해 준 게 있길래, 이번엔 일인이 내놓구 가는 내 땅을 저이가 팔아먹으려구 들어? 그게 나라야?"
"일인의 재산이 우리 조선 나라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당연?"
"그렇죠."
"흥, 가만둬 두면 저절루 백성의 것이 될 걸, 나라 명색은 가만히 앉었다 어디서 툭 튀어나와 가지구 걸 뺏어서 팔아먹어? 그따위 행사가 어딨다든가?"
"한 생원은 그 논이랑 멧갓이랑 길천이한테 돈을 받구 파셨으니깐 임자로 말하면 길천이지 한 생원인가요?"
"암만 팔았어두, 길천이가 내놓구 쫓겨 갔은깐 도루 내 것이 돼야 옳지, 무슨 말야, 걸 무슨 탁에 나라가 뺏을 영으루 들어?"
"한 생원한테 뺏는 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는 거랍니다."

– 채만식, 「논 이야기」

* **토반**: 여러 대를 이어서 그 지방에서 붙박이로 사는 양반.
* **토색질**: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달라고 하는 짓.
* **야미[闇]**: '뒷거래'의 일본어.
* **멧갓**: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가꾸는 산.≒산판

[22001-0154]

0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상황의 부조리함을 암시하고 있고, [B]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사건을 둘러싼 맥락을 보여 주고 있다.
② [A]는 희화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의 부정적 측면을 보여 주고 있고, [B]는 설명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③ [A]는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들을 제시하여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고, [B]는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④ [A]는 작중 인물의 관점에 의한 서술을 통해 인물이 경험한 바를 제시하고 있고, [B]는 인물이 겪은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해석을 드러내고 있다.
⑤ [A]는 내면 심리 묘사를 통해 과거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B]는 사건의 인과 관계를 서술하여 인물의 태도가 변화한 계기를 보여 주고 있다.

[22001-0155]

02 멧갓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한덕문은 자신이 '멧갓'에 심어 놓은 낙엽송을 영남이 베어 가는 것을 목격하고 분노한다.
② 한덕문은 해방이 '멧갓'의 소유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장과의 견해 차이를 드러낸다.
③ 한덕문은 헐값인 줄 알면서도 생계 문제 때문에 '멧갓'을 길천에게 팔았던 일을 후회한다.
④ 한덕문은 강태식이 '멧갓'의 거래를 위임받은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자 구장을 찾아간다.
⑤ 한덕문은 길천을 만나 '멧갓'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멧갓'을 방문한다.

[22001-0156]

0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논 이야기」에서 일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주인공의 성격적 결함이다. 잘못된 행실로 인해 논을 팔고 광복을 이해타산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헛된 기대를 품는 한덕문은 풍자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그가 타인에게 뚜렷한 해악을 끼치지는 못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덕문이 국가에 대해 왜곡된 가치관을 지니게 되는 과정이나 해방 직후 토지 분배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작품에서 궁극적인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인공이 살아온 부조리한 사회 현실임을 알 수 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핍박받고 수탈당해 온 민중에게 국가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① '원과 토반과 아전이 있'던 시기를 서술하고 있는 대목에서, 한덕문이 역사 속에서 수탈당해 온 민중의 일원이었음을 알 수 있군.
② 새로운 나라가 '있어서 요긴할 것도 없어서 아쉬울 일도 없을 것이'라는 한덕문의 생각은, 그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 국가에 대해 가지게 된 왜곡된 가치관을 보여 주는군.
③ '허황하고 헤픈 값을 하느라고 술과 노름을 쑬쑬히 좋아'한다는 서술에서, 한덕문이 논을 팔아야 했던 이유가 그 자신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한 과오 때문이기도 함을 확인할 수 있군.
④ '그 개 뭣 같은 소리 인전 엔간치 해 두'라는 영남의 말은, 이해타산의 관점에서 광복을 바라보는 한덕문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겠군.
⑤ 해방 이후 '잇속에 눈이 밝은 무리들이' 이득을 챙기는 반면 여전히 국가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하는 한덕문의 상황을 통해,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던 당대 현실의 모습이 드러나는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해방이 된 후에 '나'는 친구인 방과 함께 만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다가 그와 헤어지게 되고 화물차를 얻어 타 함경도의 수성까지 오게 된다. '나'는 제방을 따라 내려가다가 한 소년을 만나는데, 그 소년은 뱀장어를 잡아 일본인에게 파는 일을 하고 있었다.

"첨엔 돈 많이 주는 것도 좋기는 했어요. 정말—했는데 그놈의 조합장 해 먹은 일본 놈 잡구 나서 하루는 위원회 김 선생이 우리 집에 와서 이 양복을 주며 하는 말씀이 퍽 이상한 말씀이 아니겠어요. 너 남의 집 초상 난 데 가 본 일 있니, 담박에 그러십니다—가 봤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 죽은 방에서 일가친척이며 온 동네 사람들이 왜 모여서 들끓고 날을 새우는지 알어?—모릅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며 김 선생 하는 말이 다른 할 일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마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수가 있단 말이야 하시고는 **하하하 하고 자꾸 웃**으셨습니다."/ "응."

"글쎄 그래요. 무슨 소린지를 몰라서 **왜** 벌떡 일어나요, 어떻게 벌떡 일어나요, 하고 무서워서 물으니깐—죽은 사람 몸뚱이 위를 고양이가 넘어 지나가면 일어난다고 왜 그러지들 안 해?!—그러시구는 또 깔깔거리고 웃으십니다. **날 놀리듯이** 그렇게 자꾸만 웃으시구 나서, 그러니까 고양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시체가 벌떡 일어날려는지 안 날려는지 잘 지켜야만 된단 말이야. 네가 잡은 그놈의 조합장 놈도 그렇게 얌전하게 자빠졌던 놈인데 벌떡 일어나서 달아날려는 것 보겠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네가 잡은 이 뱀장어가 ㉡꽤 엉뚱한 것을 하는 셈이었단 말이지. 사람이 못 지키는 고양이를 다 지키구."

절반은 소년의 말 대답으로 또 절반은 그의 안색을 살피는 놀라움으로 나는 이랬다.

"그 김 선생이란 이가 누구니?"

"위원회에서 뭔가 하시는데, 꽤 높은 사람이야요. 전에 감옥서 나왔지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 동네에 살다가 지금은 포항동에 **일본 놈 살던 집** 얻어 가지구 게서 지내지요. 김 선생넨 선생 어머니하고 나만 하고 나보다 적고 한, 아버지 없는 조카들하고 지내다가 김 선생이 잡혀 들어가고 난 뒤에 그 할머니가 혼자 살 수가 없어서 그것들을 데리고 포항동 어느 집에 가서 지금껏 남의 집을 살았었지요."

"응, ㉢그런 분이시야?"

"이번엔 그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랬겠지."

나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잠잠하였다. 소년도 입을 다문 채 더는 재잘거리지를 아니하고 무엇인가 중대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소긋하고 걸어갈 뿐이었다.

"그건 그런데 에에또 너, 그 김 선생이란 이가 죽은 사람을 대놓고 하신 말씀 그래 그때 알아들었단 말이냐?"

나는 다시 이렇게 입을 열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알어듣구말구요. 그걸 몰라요?"

소년은 한번 내 얼굴을 치켜 올려다보고,

"아직 못 보셨군요. 건 정말 다들 죽은 거 한가집니다."

그는 다시 처음의 흥분 상태로 돌아가 낯에 엷은 분홍기가 떠오르더니 다음 순간에는 다시 푹 꺼져 들어가면서,

[A] "내 뱀장어깨나 사 먹는 녀석들은 어디다 숨켰던지 간에 숨켜서 돈푼 있는 놈들이 틀림없지만요, 정말 다아들 배가 고파서 쩔쩔맵니다. 다아들 얼굴이 하얗고 가죽이 축 늘어지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걸 가지고 밤낮을 모르고 망깨를 비라리*허러 촌으로 나려오지 않습니까. 배추꼬랑이를 먹는다, 고춧잎을 딴다, 수박 껍데기를 핥는다, 그래 보다가 저엉 할 수가 없으면 ㉣고무산이나 아오지로 가지요. 누가 보내지 않아도 자청해서 갑니다. 우리 여기는 쌀이 없는 덴데 일본 것들이란 거지반 사내 없앤 것들만인 데다가 애새끼들만 오굴오굴허는 걸 데리고 가기는 어딜 가며 어딜 가면 무얼 합니까."

(중략)

"부질없는 말로 이가 어째 안 갈리겠습니까— 하지만 내 새끼를 갖다 가두어 죽인 놈들은 자빠져서 다들 무릎을 꿇었지마는, 무릎 꿇은 놈들의 꼴을 보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이 되었습니다그려. 애비랄 것 없이 남편이랄 것 없이 잃어버릴 건 다 잃어버리고 못 먹고 굶주리어 피골이 상접해서 헌 너즐떼기에 깡통을 들고 앞뒤로 허친거리며, 업고 안고 끌고 주추 끼고 다니는 꼴들—어디 매가 갑니까. 벌거벗겨 놓고 보니 **매 갈 데가 어딥니까.**"

"……."

"만주서 오셨다니깐 혹 못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낯에 보면 ㉤이 조그마한 장터에도 그 헐벗은 굶주린 것들이 뜨문히 바닥에 깔리곤 합니다. 그것들만 실어서 보내는 고무산인가 아오진가 간다는 차가 저기 와 선 채, 저 차도 벌써 나 알기에 닷새도 더 되는가 봅니다만, 참다 참다 못해 자원해 나오는 것들이 한 차 되기를 기다려 떠나는 것인데, 닷새 동안이면 닷새 동안 긴내 굶은 것인들 그 속에 어째 없겠어요."

그러지 아니하여도 나는 할머니의, 아까 그것들이 업고, 안고, 끼고 다닌다는 측은한 표현을 한 것으로부터, 낯에 수성서 들어오는 길로 맞닥뜨린 사람들이 복작거리는 좁은 행상로 위에 일어난 한 장면의 짤막한 씬을 연상하기 시작하는 중이었는데, 노인은 이러고는 말을 끊고 **흐응 깊은 한숨**을 들여쉬었다.

[B] 참으로 그 일본 여자는 업고, 달고, 또 하나는 손을 잡고, 아마 아오지 가기를 기다리는 차에서 기어 내려온 듯 폼 가까운 행상로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허옇게 퉁퉁 부어오른 낯에 기름때에 전 걸레 같은 헝겊 조각으로 머리를 질끈 동이고, 업고, 달리고, 잡힌 채, 길 바추에 비켜 서 있었다. 머리를 동인 것만으로는 휘둘리는 몸을 어찌할 수 없다는 모양으로, 골쌀을 몇 번 찌푸렸다가는 펴서, 하늘을 쳐다보고, 또 찌푸렸다가는 펴서 쳐다보고 하기를 한참이나 하며 애를 쓰는 것을 자기는 유심히 건너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 허준, 「잔등」

* 비라리: 구구한 말을 하여 가며 남에게 무엇을 청하는 일.

[22001-0157]

0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년은 돈 많은 일본인들에게 뱀장어를 팔곤 하였다.
② 소년은 달아나려는 일본인 조합장을 잡은 적이 있다.
③ '나'는 만주에서 지내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었다.
④ 궁핍을 겪고 있는 일본인들은 주로 여성과 어린아이들이다.
⑤ 김 선생은 감옥에서 나온 후 소년이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 왔다.

[22001-0158]

02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패망 후 숨죽이며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빗댄 말이다.
② ㉡: 돈을 숨겨 가지고 있던 일본인을 찾아낸 일을 지칭한다.
③ ㉢: 김 선생 어머니처럼 해방 후 남의 집 살이를 한 사람을 말한다.
④ ㉣: 궁핍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마지못해 선택하는 공간이다.
⑤ ㉤: 고무산이나 아오지로 가는 차가 사람들을 기다리는 장소이다.

[22001-0159]

03 **[A]와 [B]에 공통으로 나타난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거 회상을 통해 관찰 대상이 처한 어려움의 원인을 탐구하고 있다.
② 외양이나 행동을 묘사하여 관찰 대상의 고달픈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③ 심리 묘사를 통해 주어진 사건에 대한 인물의 내적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짧은 문장의 연속을 통해 인물이 경험한 사건의 개요를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다.
⑤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현실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2001-0160]

04 〈보기〉의 밑줄 친 '패망한 일본인들'에 대한 인물들의 태도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해방 공간에서 우리 민족이 패망한 일본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다. 그들이 36년간 보여 줬던 행태에 대한 분노와 그런 그들에 대한 복수의 감정, 그들의 패망에서 느끼는 희열과 그들에 대한 조롱 등 그들과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라는 이질감에서 비롯된 감정들이 시선의 한 축에 존재한다. 그런가 하면 패망으로 인해 자신이 가진 것을 잃고, 굶주리고 핍박받는 존재들이 된 그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 같은, 어쩌면 고단한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갖는 동질감에서 비롯된 감정들이 시선의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허준의 「잔등」은 이와 같은 복합적인 시선들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① 김 선생이 '하하하 하고 자꾸 웃'는 이유는 일본인들의 패망에서 느끼는 희열 때문이겠군.
② '날 놀리듯이' 질문을 던지는 김 선생의 태도에서 일본인들을 조롱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군.
③ 김 선생이 '일본 놈 살던 집'을 얻어 사는 것은 패망한 일본인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이겠군.
④ 노인의 '매 갈 데가 어딥니까.'라는 말에는 일본인들의 행태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나타나 있군.
⑤ 노인이 '흐응 깊은 한숨'을 쉬는 것은 패망한 일본인들에게 느끼는 연민의 감정 때문이겠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퍼뜩 현 중위의 눈이 주 대위의 허리에 매달려 있는 권총으로 갔다. 그러는 그의 눈앞에는 또다시 ⓐ꿈의 장면이 나타났다.

한결같이 누렇게 뜬 하늘에는 황달 든 태양이 타고 있고, 그 밑으로 한없이 넓게 깔려 있는 불모의 황야. 그 한가운데 그는 땀을 철철 흘리며 서 있었다. 바로 앞에 누렇게 뜬 메마른 흙바닥에 개미구멍이 있어, 누런빛을 한 조고만 개미 떼가 연달아 기어 나오고, 그것을 구멍 입구에 같은 빛깔의 왕개미가 대기하고 서서 자꾸만 목을 잘라 내고 있는 것이다. 마치 그것은 왕개미가 기계적으로 주둥이를 놀리고 있는데 거기 꼭 맞는 속도로 작은 개미 떼들이 기어 나와 목을 들이미는 것과도 같았다. 그리고 목 잘린 개미 떼들은 그대로 누렇게 뜬 흙으로 화해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거기 따라 점점 흙이 높아지면서 그의 정강이 털이 거의 묻히게 돼 있었다.

초조할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는 개미구멍 한옆에 따로 뚫려져 있는 샛구멍을 하나 발견했다. 이것만은 꿈속에서는 전혀 없었던, 지금 그 자신이 의식적으로 뚫어 놓은 구멍이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개미 떼들은 그냥 본래의 구멍으로만 나오면서 목을 무수히 잘리우고 있는 것이었다.

현 중위는 주 대위를 업지도 않은 몸이건만 전신에 비지땀을 흘렸다.

해거름 때 세 사람은 구렁이 한 마리를 잡아 구워서 나눠 먹었다.

다 먹고 난 현 중위가 뒤라도 마려운 듯이 자리를 떴다.

그런 지 좀 만에 주 대위가 김 일등병에게 말했다.

–자네두 여길 떠나게.

김 일등병은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이 주 대위를 쳐다봤다.

–현 중윈 갔어, 기다리다 못해.

–기다리다 못해 가다뇨?

–내가 자살하길 기다리다 못해 떠났어.

사실 현 중위는 돌아오지 않았다.

주 대위는 김 일등병의 시선을 마주 바라보기를 피하면서,

–자네두 어서 여길 떠나게.

㉠김 일등병은 잠시 주춤거리다가 서산에 비낀 붉은 놀을 한번 바라보고는 말없이 주 대위에게 등을 돌려 댔다.

혼자 업고 걷는 길이라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지가 않았다. 조금 가서는 쉬고 조금 가서는 쉬고 했다.

(중략)

하루 종일 걸은 것이 십릿길도 못 되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산개구리 몇 마리를 잡아 날로 먹었을 뿐이었다.

김 일등병의 무릎은 굽어지고 허리는 앞으로 숙여져 거의 기는 시늉이었다.

주 대위는 김 일등병의 허리가 앞으로 숙는 각도에 따라 그만큼 자기의 생에 대한 희망도 꺾여 들어 감을 느껴야만 했다.

저녁때쯤 어느 능선을 돌아가느라니까 앞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펄럭 하고 날아올랐다. 깎은 듯한 낭떠러지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었다.

발길을 돌리며 김 일등병은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에 까마귀 두세 마리가 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쪼고 있었다.

사람의 시체였다. 그리고 첫눈에 그것은 현 중위의 시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어제저녁 두 사람을 버리고 떠났을 때와 똑같이 위는 셔츠 바람이요, 아래는 군복 바지에 군화를 신고 있었다.

까마귀란 놈이 시체 얼굴에 붙어서 무엇인가 쪼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이쪽을 보고는 날아갈 기미를 보이다가도 그저 까욱까욱 몇 번 울 뿐, 다시 쪼기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시체 얼굴에는 이미 눈알은 없어져 떼꾼하니 검은 구멍이 나 있었다.

두 사람은 이쪽으로 와 아무 데나 쓰러지듯이 드러누웠다. 현 중위의 시체를 보자 마지막 남았던 기운마저 빠져 버리고 만 것이었다.

잠시 후에 김 일등병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일어나 허청거리며 벼랑 쪽으로 가더니 돌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까마귀가 펄럭 하고 시체를 떠나는 것이었으나. 곧 못마땅한 듯이 까욱까욱 하며 다시 내려앉는 것이었다.

김 일등병은 도로 와 쓰러지듯이 드러누워 버렸다.

옆에 누워 있는 주 대위를 돌아다보았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번듯이 누워 있었다.

[A] 김 일등병은 전에 치열한 싸움터에서는 오히려 잊게 마련이었던 죽음이란 것을 몸 가까이 느꼈다. 내일쯤은 까마귀가 자기네의 눈알도 파먹으리라. 그러자 그는 옆에 누워 있는 주 대위가 먼저 죽어 까마귀에게 눈알을 파먹히우는 걸 보느니보다는 차라리 자기편이 먼저 죽어 모든 것을 모르고 지나기를 바랐다.

그는 문득 울고 싶어졌다. 그러나 그럴 기운조차 지금 그에겐 없었다.

저도 모르게 혼곤히 잠 속에 끌려들어 갔던 김 일등병은 주 대위가 무어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하늘에 별이 총총 나 있었다.

–저 소릴 좀 듣게.

주 대위가 누운 채 쇠진한 목 안의 소리로,

–폿소릴세.

㉣김 일등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상반신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과연 먼 우레소리 같은 포성이 은은히 들려오는 것이다.

–어느 편 폽니까?

–아군의 포야. 백오십오 미리의…….

이 주 대위의 감별이면 틀림없는 것이다. 그래 얼마나 먼 거리냐고 물으려는데 주 대위 편에서,

–그렇지만 너무 멀어. 사십 리는 실히 되겠어.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포라 해도 소용이 없다.

김 일등병은 도로 자리에 누워 버렸다.

[B] 주 대위는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 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상스레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 오던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그것은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들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첫째 현 중위가 밤길을 서두르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 버려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 일등병이라 하더라도 혼잣몸이니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는 김 일등병을 향해,

–폿소리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바로 우리가 누워 있는 발 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된다!

㉤있는 힘을 다해 명령조로 말했다.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다.

– 황순원, 「너와 나만의 시간」

[22001–0161]

0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를 통해 인물들의 행위가 의미하는 바를 밝히고 있다.
② [A]는 인물들이 지향하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③ [B]는 인물의 회상을 통해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을 제시하여 사건의 전말을 그려 내고 있다.
④ [A]와 [B]는 모두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를 통해 인물의 내면 의식을 묘사하고 있다.
⑤ [A]와 [B]는 모두 인물의 행동과 대화에서 느낄 수 있는 서술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2001–0162]

0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 대위는 멀리서 들려오는 아군의 폿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② 김 일등병은 현 중위가 떠났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③ 주 대위와 김 일등병은 현 중위의 시체를 보고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④ 주 대위는 현 중위가 아군에게 도움을 청해 자신을 구해 주리라 기대하였다.
⑤ 김 일등병은 아군이 사십 리 정도 떨어져 있다는 주 대위의 말에 실망하였다.

[22001-0163]

0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황순원의 소설은 불안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관찰하기보다 그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의 실존적 조건이라는 인식을 보여 준다. 불안과 비극을 야기하는 외부의 조건은 인간다움을 가로막는 상황이지만 삶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이때 인간다움이란 자신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연약한 주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살펴 주는 것이다.

① ㉠에서는 한계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연약한 주변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김 일등병의 인간다움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군.
② ㉡에서는 비극적인 상황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관찰하기보다 주 대위와 김 일등병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고 할 수 있군.
③ ㉢에서는 인간다움을 가로막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을 보살피지 않고 떠난 현 중위의 비참한 최후가 제시된다고 할 수 있군.
④ ㉣에서는 불안과 비극을 야기하는 원인을 인간다운 삶과 연결 지어 받아들이려는 김 일등병의 인식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군.
⑤ ㉤에서는 부하를 살리기 위해 상관으로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주 대위의 모습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군.

[22001-0164]

0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불모의 황야라는 공간적 배경을 통해 주 대위와 현 중위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지연시킨다.
② 목이 잘리는 개미 떼의 모습에서 자신도 죽으리라는 불안감을 느낀 현 중위가 앞으로 취할 행동을 암시한다.
③ 개미구멍 한옆에 따로 뚫려 있는 샛구멍을 통해 현 중위가 주 대위를 업고 이동해야 하는 처지임을 강조한다.
④ 기계적으로 주둥이를 놀리는 왕개미의 모습을 주 대위의 과거 행적에 비유하여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드러낸다.
⑤ 머리를 잘리더라도 본래의 구멍으로 나오는 개미 떼의 모습에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현 중위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럼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 봅시다."

그는 성 중위의 왼쪽 귀를 들여다보았다.

"이쪽은 이상이 없고…… 저쪽을 봅시다." / "오른쪽은 더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후송하라고 소리가 납니까?" / "농담할 기분이 아닌데요."

[A] "그러시겠지요. 농담은 그만둡시다. 진찰도 끝났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퇴원하십시오."

"퇴원은," / 성 중위는 군의관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다 나은 사람이 하는 거겠지요." / "나을 것이 없어요, 장교님은."

"그럼 제가 여기까지 놀러 왔단 말씀입니까? 그리고 나을지 안 나을지를 치료도 안 해 보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치료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요."

"그 단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병이 없다는 것 아니겠지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 성 중위는 호주머니에서 청력표를 꺼냈다.

"전문의의 진단 결과가 있습니다."

"군의관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시지요?" / 그는 청력표를 받아서 펴 보며 말했다.

"그러나 아픈 것은 군의관이 아니니까요."

성 중위는 군의관을 주시했다. 군의관은 청력 도표를 대강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 아래에 있는 영문으로 날인된 군의관의 의견란에서 멎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성 중위는 눈을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백양나무의 잎들이 하얗게 펄럭이면서 떨어지고 있었다.

"알았습니다." / 군의관이 고개를 들면서 말했다.

"가 계세요. 그리고 이건 병상 일지에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 중위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군의관은 성 중위를 데리고 온 호실 위생병을 불렀다.

"김 상병, 문 중위더러 이 장교님 후송 상신하라고 그래."

성 중위가 제17 후송 병원으로 후송되어 떠난 것은 그로부터 나흘 뒤 오후였다.

[중략 부분 줄거리] 성 중위는 제17 후송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을 하려 하지만 쉽지 않다. 오디오미터 검사 결과지(청력표)를 보여 주고 겨우 입원한 뒤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게 된다. 성 중위는 더 나은 특별 치료를 위해 수도 육군 병원으로 후송되기를 원한다.

"그리로 후송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이 청력표 의견란에도," 군의관은 병상 일지에 첨부된 청력 도표를 펼쳤다.

"특별 치료를 위해서 수도 육군 병원에 후송 입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견과 여기서의 후송 방향과는 별문젭니다."

"수도 병원으로 입원해서 특별 치료를 꼭 받아 보라고 말씀하시던데."

"여기서 수도로 못 갑니다. 응급 환자 외에는. 위궤양으로 위가 터진 환자 같으면 야전 병원에서도 수도로 헬리콥터 후송을 합니다만."

"그럼 어느 병원이 그담으로 시설이 좋습니까?"

"그 외엔 다 비슷비슷하지요. 대구가 좀 낫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수도로 후송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를 벗어나면 수도로 가기는 더욱 어렵지요. 수도가 이비인후과 시설이 좋다는 이야기지, 일반적으로 보면 명칭은 육군 병원이지만 후송 병원 비슷해요. 거기서도 후방 육군 병원으로 많이 후송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병상 수가 적어서 항상 환자가 넘치니까요. 그런데 후방 육군 병원에서 그리로 후송이 되겠어요?"

"가려면 여기서 가야 되겠군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선 그리로 보내 드릴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 "……."

"그리고 어디로 후송 가느냐 하는 문제보다 후송이 되느냐 하는 것부터 생각해 봐야죠."

㉣"후송이 되느냐, 라뇨? 입원 환자에게 적당한 치료 방책이 없으면 후송시키는 거 아닙니까?"

"입원은 내가 시켰지만 후송은 내가 안 시켜요. **후송 심사 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군사령부 의무 참모부에서도 나오지요. 그리고 개인 후송도 없어요. 다 **집단 후송**입니다."

"그렇지만 담당 군의관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거의 결정적일 텐데요?"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보장은 못 한다 그 말씀예요."

군의관은 성 중위의 병상 일지를 서랍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딴 환자들의 것을 한 묶음 책상 위에 내놓으며 덧붙였다.

"자, 이걸 언제 다 본다!"

성 중위는 병실로 돌아갔다. 병실은 이미 낯설지 않았다. 빈 벌판에 천막을 치고 풀을 깔아 그 위에서 지내는 야영도 며칠 밤을 자고 나면 아늑한 곳이 되지 않았던가. 아무리 허술해도 성곽은 성곽이었다. 대위는 작업복을 입은 채 침대 위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라디오를 틀어 놓고 야구 중계를 듣고 있었다. 그는 성 중위의 노여운 낯빛을 살피면서 초진 결과를 물었다. 성 중위는 대강 이야기해 주었다. 듣고 나서 대위는 충고했다.

"약을 써요, 약을. 나두 50야전에서 일로 넘어올 때 바이스로이* 한 보루 썼지 않았수?"

"그래요? 환자가 되레 의사에게 약을 쓴단 말씀이지요?"

성 중위는 생각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의사라고 다 건강한 건 아닐 테니까…….

"써 봐요. 생각했던 것보다 빠를 테니까, 효과가."

"그럴 기분이 안 나요. 까짓거 내버려 두면 어때요. 지 알아서 하겠지요."

성 중위는 내뱉듯 말하고 침대 위에 길게 누워 버렸다.

대위는— 50에서 성 중위와 같이 온 장 대위는 곧잘 서울에 나갔다. 밤에 나가서 며칠씩 묵고 오곤 했다. 성 중위는 라디오를 자꾸 틀었다. 기대를 가지고, 그러나 실망을 거의 예감하면서 스위치를 켜곤 했다.

[B] 그의 예감은 대개 들어맞았다. 아나운서는 말을 좋아했다. 뒤늦은 유행가 하나를 들려주고는 문학소녀 같은 넋두리를 늘어놓곤 했다. 가슴에 맺힌 것을 풀어헤치면서 육박해 오는 놀라운 관현악이 들려오면, 반드시 그에 값하는 군소리가 뒤따랐다. **대화가 번거로워지고 말마저 귀찮아**져서 생각조차 하기 싫어질 때 돌부처가 되지 않는 방법은 음악에 있었다. **음악은 강요함이 없이** 언어 이상의 것을 말해 주었다. 직관은, 불완전하고 오해의 가능성이 많았으나 그만큼 신경의 소모가 적었고 편리했다. 음악을 들으면서 제멋대로의 상상을 하고 있을 때, 한정된 이미지를 강요하며 참섭해 오는 언어는 질색이었다. 그럴 때면 그는 라디오를 발길로 차 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면서 스위치를 꺼 버리곤 했다. 차라리 침묵을 택하자는 것이었다. 침묵은 금은 아니었으나 언어보다 즐겼다.

– 서정인, 「후송」

* **바이스로이**: 서양 담배의 일종.

[22001-0165]

0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미래 사건에 대한 인물의 예측을 제시하고 있고, [B]는 과거 사건에 대한 인물의 반성을 제시하고 있다.
② [A]는 대화를 활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고, [B]는 내면을 주로 서술하여 인물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③ [A]는 시간의 역전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고, [B]는 공간의 이동 경로를 통해 사건의 결말을 드러내고 있다.
④ [A]는 주로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고, [B]는 독백을 통해 인물의 의식을 연상 과정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⑤ [A]는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사건 발생의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고, [B]는 서술자가 관찰자적 입장에서 사건의 경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2001-0166]

02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성 중위의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② ㉡: 군의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후송 결정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③ ㉢: 의견란에 적힌 것 외의 요인이 후송의 성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④ ㉣: 군의관이 언급하는 내용에 대한 성 중위의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 의사의 역할에 대한 성 중위의 평소 생각대로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22001-0167]

0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후송」의 성 중위는 이명(耳鳴)을 치료하기 위해 병의 자각 증상을 설명하며 후송을 요구한다. 그런데 군의관들의 형식적인 태도와 까다로운 진단 절차 등으로 후송의 과정은 쉽지 않다. 성 중위가 처해 있는 현실은 은밀한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권위에 기댄 일방적인 진단과 조직의 절차적 형식만이 중시될 뿐이다.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성 중위는 언어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는데, 이와 같은 성 중위의 거부감은 합리적인 소통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① '후송 심사 위원회'나 '집단 후송' 등이 언급되는 것을 통해 원활한 후송을 위해 환자인 성 중위 스스로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됨을 짐작할 수 있어.
② '자, 이걸 언제 다 본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군의관이 병실을 나가지 않고 있는 성 중위와의 대화를 그만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겠어.
③ 성 중위에게 '약을 써요, 약을.'이라고 말하는 대위의 모습을 통해 은밀한 뒷거래가 이루어지는 조직의 불합리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④ '대화가 번거로워지고 말마저 귀찮아'하는 것을 통해 후송을 위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 중위가 언어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
⑤ '음악은 강요함이 없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상황으로 인해 성 중위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며 합리적 소통을 열망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새처럼 모든 구속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싶었다. 내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이 땅을 떠나 멀리로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나그네새를 볼 때마다 간절하게 사무쳤다. 윤회설을 믿지 않지만 이승에서 새로 변신할 수 없다면 내세에서라도 새가 되어 태어나고 싶었다. 인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새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새와 나를 바꾸고 싶었다. 선택권을 준다면 새 중에서도 시베리아나 저 툰드라가 고향인 도요새가 되어 높게 멀리 날고 싶었다.

나는 동진강 하구로 내려가다 삼각주 갈대밭을 채 못 가 남쪽으로 뚫린 큰길로 접어들었다. 한쪽으로 바다를 낀 그 길로 오백 미터쯤 내려가면 해안 경비군 파견대가 있었고, 다시 그만한 거리를 더 내려가면 **웅포리**란 옛 포구가 나섰다.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적**만도 축항에 소형 발동선이 닻을 내렸고 모래펄에 그물이 어수선하게 널렸던 웅포리였는데, 내륙 쪽에 공단이 조성되고 난 뒤, 이제 포구가 아니었다. 동남만 연안이 폐수 오염으로 고기가 잡히지 않을 즈음, 때마침 웅포리까지 포장도로가 닦이자 그곳은 유흥가로 변했다. 불과 삼 년 전이었다. 처음, 어민들은 해변가에 포장 주막을 차리고 즉석 매운탕과 생선회를 팔기 시작했다. 물론 물고기는 부근 어촌에서 받아 왔다. 그러자 작업복에 안전모를 쓴 공장 기술자들이 출퇴근용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웅포리로 몰려나왔다. 장사가 쏠쏠히 잘되자 버스 노선까지 생겼다. 돈깨나 만지는 시내 투기꾼들이 웅포리에 여자까지 갖춘 큰 방석집을 벌였다. 웅포리는 단박 소문난 유흥가로 발전했다.

나는 웅포리로 가는 참이었다. 그곳으로 가면 내가 늘 찾는 집이 있었다. 유흥가에서 좀 떨어진 암벽 아래 ㉡아바이집이란 해묵은 소줏집이 있었다. 칠순에 가까운 할머니가 손자 하나를 데리고 소주에 매운탕을 파는 들어앉은 주막이었다. 그 할머니는 함경남도 함흥에서 육이오 전쟁 '흥남 철수' 때 피란 나온 삼팔따라지로, 나는 그 술집을 아버지로부터 소개받았다. 서울서 내가 낙향했을 무렵, 어느 날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아바이집으로 갔다.

"이젠 너도 아비와 같이 자, 잔 나눌 나이가 된 것 같애. 너가 어릴 적부터 나는 사실 오늘같이 이, 이런 날을 기다린 셈이지. 자식과 수, 술잔 함께할 날을 말이야. 내 맺힌 과거지사를 들어 줄 놈은 여, 역시 맏아들밖에 없으려니 하고 말이야."

목로에 소주병 놓고 마주 앉아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다. 그날 나는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가 동해를 볼 때 느끼는 의미며, **도요새를 왜 사랑하**느냐를 처음으로 가슴 깊게 새겨들었다.

"……내가 유엔군 포로가 되자, 나는 곧 전향했어." /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내 뜨, 뜻에 따라 국군으로 자원입대한 셈이지. 육 개월 뒤 금화 전투에서 훈장을 받고 난 육군 소위로 승진되었어. 그때가 이, 일사 후퇴 끝난 뒤였으니 그로부터 다시 고, 고향 땅을 못 밟고 말았잖았는가. 고향 땅이 수복되면 가족 데리고 이남으로 내려오려 꿈을 꿨던 게 모두 수, 수포로 돌아갔어. 내가 변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야. 껍질 깨고 세상으로 나오려던 벼, 병아리가 다시 달걀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으나 이미 워, 원상태 복귀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랄까……."

[A]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수첩을 뒤지더니 낡은 편지 봉투를 집어냈다. 아버지 손이 떨렸다. 나는 아버지가 또 고향 ㉢통천에 두고 온 조부모님과 두 삼촌, 고모 두 분과 함께 찍은 옛 사진을 보여 주는 줄로만 알았다. 나는 이미 그 낡은 사진을 수십 차례도 더 보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꺼낸 사진

은 명함 크기의 그 가족사진이 아니었다. 색 낡아 누렇게 바래진 우표만 한 증명사진이었다.

"너, 넌 이제 이해할 거야. 이 사진 보더라도 나를 미워하지 않을 줄……."

아버지는 그 사진을 내게 건네주었다. 모서리는 이미 닳았고 거북등같이 가로세로 주름마저 진 색 바랜 사진엔 처녀 얼굴이 박혀 있었다. 갈래머리를 저고리 어깨 앞에 내린 곱상한 사진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통천에 계신다던 옛 약혼자시군요."

[중략 부분 줄거리] 병국의 아버지는 철새가 도래할 때면 새를 보며 이북의 기억을 떠올리고 그 시간만을 살아 있다고 느낀다. 병국의 어머니는 그런 남편과 학생 운동을 하다가 대학에서 제적된 병국이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새 떼나 보러 나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하루는 병국이 군에 억류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자신을 데리러 온 아버지에게 병국은 새가 집단으로 죽은 사건을 조사했었고 병식이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B]

"너 그날 ㉣석교천 방죽에서 말이야, 새를 독살하고 오던 길이었지?"

"그래서, 그게 뭘 어쨌다는 거야?"

병식 표정에서 비로소 장난기가 사라졌다. 그는 조금 전 얘기의 종호처럼 아주 당당한 얼굴이었다.

"뻔뻔스런 자식. 언제부터 그 짓 했냐? 그건 그렇고, 왜 새를 죽여. 죽인 새로 뭘 해?"

병국의 목청이 높아졌다. / 주모가 술 주전자와 안주를 날라 왔다.

"나 원, 별 말코 같은 소릴 다 듣는군. 아니, 날아다니는 새도 임자 있나? 형, 이 지구에 사는 새를 누가 몽땅 사들였어? 아님 형이 매입했다는 거야?"

병식이 스테인리스 잔을 형 앞으로 밀었다. 잔에 술을 쳤다.

"형, 우선 한잔 꺾지. 형제 우정을 위해서."

"누가 네게 그 일을 시키고 있어? 그 사람부터 대!" / 병국이 술잔을 밀며 소리쳤다.

"왜 그래? 두루미나 크낙새 같은 보호조가 아닌, 흔해 빠진 잡새 죽였다고 고발할 테야? 날아다니는 **새 잡아 박제해서 호구 잇는** 건* 죄가 되구, 돈 많은 놈 허가 낸 사냥총으로 새를 잡아 영양 보충하는 건 죄가 안 된다 이 말씀이야?"

병식이 코웃음을 치곤 술을 들이켰다.

"이 지구상에 희귀조가 계속 멸종되는 건 너도 알지? 인간이 새로운 새를 창조해 낼 수는 없어."

"그 개떡 같은 이론은 집어치워. 내가 알기론 이 지구상에는 삼십 억이 넘는 새들이 살아. 그중 내가 오십 마리쯤 죽였다 치자. 그게 형은 그렇게 안타까워? 그렇담 숫제 참새구이도 없애 버리지 뭘. 가축인 닭도 진화를 도와 하늘로 해방시키고."

"박제하는 놈을 못 대겠어?"

병국이가 의자에서 일어나 아우 **멱살을 틀어쥐**었다. 주모가 달려와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개시도 안 한 ㉤술집에서 웬 행패냐고 주모가 다그쳤다.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 **호구 잇는 건**: 입에 풀칠하는 것은.

[22001-0168]

0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와 [B]는 모두 역순행적으로 장면을 배치하여 사건의 맥락을 드러내고 있다.
② [A]와 [B]는 모두 공간적 배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를 암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③ [A]는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B]는 설명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A]는 이야기 속 서술자의 회상을 통해, [B]는 이야기 밖 서술자의 관찰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⑤ [A]에는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 [B]에는 대화를 통해 인물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22001-0169]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병국이 자신이 속박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장소이다.
② ㉡: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감추고 살아온 약혼자가 있었음을 병국이 알게 되는 장소이다.
③ ㉢: 아버지가 옛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전란으로 인해 떠나온 장소이다.
④ ㉣: 병국이 병식이가 새를 죽인 직후에 지나친 곳이라고 판단한 장소이다.
⑤ ㉤: 병식이 병국의 생각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항변하는 장소이다.

[22001-0170]

0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970년대 한국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자유의 억압과 분단의 고착화, 물질 중심주의 풍조의 확산과 환경 파괴 등과 같은 문제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도요새에 관한 명상」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상처 입고 방황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작중 인물들이 세계에 대응하는 방식은 '새'에 대한 태도를 통해 드러나는데, 새를 수단적 가치만을 지닌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물과 달리, 새를 통해 실향민으로서 떠나온 고향의 기억을 이어 가거나 억압된 자신의 욕망을 자각하는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새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인물들 사이에서 소통의 매개 혹은 대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① 병국이 '새처럼 모든 구속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싶었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새를 자신의 욕망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로 여기며 새에 대해 애착을 보이는 태도가 드러나는군.
② 병국이 '고등학교에 다닐 적' 이후로 '웅포리'가 변모해 온 모습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룬 사회의 이면에 환경 파괴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③ 아버지가 '도요새를 왜 사랑하'는지를 매개로 병국과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 남북 분단으로 인해 실향민이 지니고 살아가는 아픔이 드러나는군.
④ 병식이 '새 잡아 박제해서 호구 잇는' 것이 죄가 되느냐고 반문하는 데에서, 병식이 물질 중심주의적 사고에 근거하여 새를 수단적 가치만을 지닌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⑤ 병국이 '멱살을 틀어쥐'고 병식과 대립하는 모습에서, 정치적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에 맞서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는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업적으로 날리는 화가는 아니었지만 꽤 개성 있는 특이한 자기 세계를 고집하고 있어 그런대로 알려지고 평가도 받고 있는 중견 화가인 남편은 요즈음 ㉠세 번째 개인전을 앞두고 그 준비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시내에 있는 아틀리에에 묵는 일이 많았다. 남편의 건강이 염려돼 나는 가끔 먹을 것을 해 가지고 나가 보고, 남편은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르고 하는 정도였다. 어제도 나는 시내에 나갔다가 로스 고기를 좀 사 가지고 아틀리에에 들렀다. 출가한 딸이 와 있었다. 남편은 출가한 딸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극도로 단순화, 동화화한 풍경이나 동물을 즐겨 그릴 뿐, 인물이 남편의 그림에 등장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나는 적이 놀랐다. 그리고 그 인물화는 남편의 종래의 화풍과는 전연 다른 끔찍하도록 섬세하고 생생하고 사실적인 그림이었다. 그렇게 똑같이 닮게 그린 그림이 좋은가 나쁜가는 둘째고 나는 울컥 혐오감부터 느꼈다. 혼까지 옮아 붙은 영정(影幀)을 보는 느낌이었다. 더욱 질린 건 모델인 딸과 화가인 남편이 이루고 있는 미묘한 분위기였다. 부드럽고 따습고 만족한 교감은 사랑하는 부녀 사이의 그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었으나, 부녀 이상의 비밀스러운 무엇인가가 있었다. 둘이만 친하고 싶은 눈치가 역력했다. 둘은 나를 예의 바르게 반겼는데도 나는 밀려난 것처럼 느꼈다.

[A] 출가해서 삼 년째, 갓 돌 지난 첫애를 두고 있는 딸은 처녀 때와는 또 다른 윤택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으로 소파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한창때구나 하는 찬탄과 동시에 섬광처럼 눈부시게 어떤 깨달음이 왔다. 그렇지, 꼭 저맘때였겠구나! 남편이 난리통에 첫 번째 아내와 생이별한 게 꼭 첫 번째 아내가 지금 딸만 한 나이 때였겠구나 하는 깨달음은 나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가. 더군다나 딸은 내 친딸이 아니고 남편과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난 딸이었다. 딸은 엄마를 닮는 법이다. ㉡남편은 딸을 통해 이북에 두고 온 당시의 아내의 모습을 되살렸음에 틀림없다. 나는 그 여자보다 훨씬 손아래지만 지금 옆에서 볼품없는 꼴로 늙어 가는데 그 여자는 남편의 가슴속에 지금의 딸의 모습처럼 빛나는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간직돼 있었구나 싶자 질투가 독사 대가리처럼 고개를 드는 걸 느꼈다. 여자의 질투를 위해선 휘어잡을 머리채가 마련돼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누구의 머리채를 휘어잡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점잖게 예사롭게 굴 수밖에 없었고, 그건 여간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다. 발산시키지 못한 질투심은 서서히 여직껏 산 게 온통 헛산 것 같은 허탈감으로 이어졌다.

[중략 부분 줄거리] 남편과 딸에 대한 배신감에 혼자서 겨울 여행을 떠난 '나'는 온양의 호숫가 여인숙에서 쉼 없이 도리질을 하는 노파와 시어머니인 노파를 헌신적으로 봉양하고 있는 아주머니를 만나 '도리질'의 사연을 듣게 된다.

난리가 났다고는 하지만 순박하던 마을 사람들이 무슨 도척의 영신이라도 씐 것처럼 서로 죽이고 죽는 것 외에는 대포 소리 한번 제대로 난 적이 없던 마을에 별안간 비행기가 날아와 기총 소사와 폭탄을 쉴 새 없이 퍼붓고 앞산 뒷산에서 총소리가 며칠 계속해 콩 볶듯이 나더니만 이어서 죽은 듯한 정적이 왔다. 집 속에 쥐 죽은 듯이 처박혔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조심조심 고개를 내밀었다간 재빨리 움츠러들었다. 아직은 서로의 대화를 꺼리고 있었다. ㉢빨갱이가 물러갔다는 증거도 안 물러갔다는 증거도 없었다. 그쪽에 붙어서 세도 부리던 패거리들의 모습은 안 보였지만 인민 위원회가 쓰던 이장 집 마당 깃대 꽂이엔 아직도 그쪽 기가 펄럭대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런 어중간하고 모호한 때에 벌써 성질이 급한 남편은 야밤을 타서 집에 돌아와 있었다. 서울이 이미 수복됐는데 제까짓 것들이 여기서 버텨 봤댔자 며칠을 더 버티겠느냐는 거였다.

㉣텃밭엔 이미 김장 배추를 간 뒤였지만 울타리엔 기름이 잘잘 흐르는 애호박이 한창 잘 열 찬바람내기였다. 아침 이슬을 헤치며 뒤란으로 애호박을 따러 나갔던 시어머니가 별안간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몰라요, 몰라요. 정말 난 모른단 말예요."

[B] 소름이 쪽 끼치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처참한 비명이었다. 그녀도 뛰어나가고 그녀의 남편까지도 엉겁결에 뛰어나갔다. 잠깐 아무도 분별력이 없었다. 저만치 뒷간 모퉁이에 패잔병인 듯싶은 지치고 남루한 인민군이 서너 명 일제히 총부리를 시어머니에게 겨누고 있었다. 그들도 놀란 것 같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누굴 해치려고 나타났다기보다는 그냥 시어머니와 마주쳤거나 마주친 김에 옷이나 먹을 것을 달랄 작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걸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못 박힌 채 고개만 미친 듯이 저으며 "몰라요, 난 몰라요."를 딴사람같이 드높고 새된 소리로 되풀이했다. 패잔병 중 한 사람의 눈에 살기가 번뜩이는가 하는 순간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됐다. 그녀의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동그라지고 그들도 어디론지 도망쳤다. 이런 일은 일순에 일어났다.

그 후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극진히 봉양한 끝에 어느 만큼 회복은 됐지만 그때 뒷간 모퉁이에서 죽길 기를 쓰고 흔들어 대던 도리질만은 그때 같은 박력만 가셨다뿐 멈출 줄 모르는 고질병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도리도리 할머니라는 이 동네 명물 할머니가 됐다.

– 박완서, 「겨울 나들이」

[22001-0171]

0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B]는 주인공의 시점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② [A]는 인물의 행동 묘사를, [B]는 인물의 심리 묘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③ [A]는 이야기 밖에서, [B]는 이야기 안의 위치에서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④ [A]는 인물 사이의 갈등을, [B]는 한 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⑤ [A]는 서술자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B]는 다른 인물에게 벌어진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22001-0172]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나'가 남편과 갈등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
② ㉡: '나'가 질투의 감정을 갖게 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③ ㉢: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적 배경이 나타난다.
④ ㉣: 시어머니가 뒤란으로 나간 행동의 이유를 뒷받침해 준다.
⑤ ㉤: 인민군이 그녀의 남편을 해친 일이 우연적 사건일 수 있음을 알려 준다.

[22001-0173]

0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박완서 소설에서 시종일관 제기되는 문제는 전쟁과 같이 개인을 억압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대한 사회적 폭력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박완서의 소설은 단순히 개인을 피해자, 사회를 가해자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보여 주지 않는다. 사회적 폭력이 무서운 것은 의도를 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선량한 개인이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점이다. 박완서는 소설 속에서 이와 같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을 집요하게 파헤쳐 보여 주고 있으며, 아울러 서로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아물고 회복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① '시어머니'의 도리질은 본의 아니게 아들을 죽게 만든 가해자라는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② '나'와 '시어머니'의 상처는 모두 6·25 전쟁 중에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은 전쟁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군.
③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한 '그녀'의 헌신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아물게 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군.
④ '시어머니'는 '인민군'으로부터 아들을 지켜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폭력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⑤ '나'의 '남편'은 전쟁으로 인해 아내를 잃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이지만 '딸'과의 '미묘한 분위기'로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가해자로 인식될 수도 있겠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욱국과 된장 종지와 고추 세 개가 동그마니 놓인 저녁 밥상이다. 수저를 들려다가 문득 토마토밭 쪽에 뭔가 새뜩한 게 어른거린다. 나는 다시 질퍽한 마당으로 급하게 내려섰다. 방울토마토가 딱 두 개 빨갛게 익어 있다. 빨간 방울토마토 두 개가 올라오니 적막한 저녁 밥상에 꽃등 두 개가 켜진 것 같다. 빨간 방울토마토 두 개를 가운데 놓고 모녀는 드디어 한없이 느리기만 한 숟가락질을 시작했다.

연세 가정 의원은 토요일이면 오후 세 시에 문을 닫는다. 의사는 이미 퇴근하고 나와 수아가 마악 병원 문을 잠그려던 순간이었다. 병원 문을 잠그고 나서 나는 수아와 함께 면 소재지를 휘감아 도는 강변 둑방 길을 좀 걷다가 가게에서 음료수를 사 먹고 집으로 갈 참이었다. 그 둑방 길에서 최근에 수아가 산 엠피쓰리 플레이어로 다운 받아 놓은 최신 발라드 곡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봄이면 둑방 길에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났다. 그 둑방 길을 수아와 내가 걸어가면 젊은 여자가 귀한 이 고장의 젊은 남자들이 눈부시게 우리를 바라볼 것이다. 바람이 불면 수아와 내가 짝 맞춰 입고 나온 하늘색 원피스와 녹색 플레어 치마가 우리들 다리에 부드럽게 휘감길 것이다. 그리고 그뿐이다. 우리는 각자 고요한 귀갓길을 서두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아와 나의 동창이자 선배이자 후배인 이 고장의 젊은 남자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이즈음에 부쩍 눈에 많이 띄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니.

퇴근길에 농공 단지 안 플라스틱 공장 사장 만배가 커피 좀 마시고 가라 해서 들어가 본 만배의 일터에서 나는 처음으로 실제로 노동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보았다. 언제부턴가 야산과 밭과 논 위에 가구 공장, 의료기기 공장, 플라스틱 공장들이 지어지더니 그곳이 공식적인 농공 단지로 지정되었다. 농공 단지 옆에서 만배는 돼지를 한 이백 두쯤 기르다가 불법 하수 처리 건으로 경찰서에 불려 가네 어쩌네 곤욕을 치른 뒤에 돼지막을 플라스틱 사출 공장으로 변신시켰다. 그리고 또 언제부턴가 농공 단지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공장 안은 사출기 돌아가는 소리, 플라스틱 찍어 내는 소리에 라디오 소리가 진동했다. 기계 소리와 라디오 소리는 제각각 악을 쓰며 공장 천장 위로 치솟았다가 공장 바닥으로 곤두박질쳐 대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트로트를 따라 부르며 일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 남자가 나를 흘끗거리자 만배가 침을 뱉듯이 거칠게 쏘아붙였다.

[A]
"얌마, 함부로 입맛 다시지 말고 빨리빨리 일해, 일."

그랬더니 얼굴이 검고 목이 검고 손이 검고 몸피가 가늘고 눈이 가는 외국인 노동자 남자가 씨익 웃으며 대꾸하는 것이었다.

"얌마, 하부로 이마싸지 말고 빨리빨리." / 나는 커피고 뭐고 만정이 떨어졌다.

농공 단지에서 일하는 남자들은 사장이고 사원이고 간에 너무 무식하고 너무 거칠고 너무 교양이 없고 하여간 저질이라고 수아는 질색을 했다. 수아도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한 모양이었다. 나도 수아의 말에 동의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사랑한다고 믿었던 연인에게 실연을 당한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된다.

"깐쭈, 넌 너희 나라 가면 뭐 할 거야?"

"모르겠어. 가면, 엄마 아버지 누나 여동생 사촌들 만나고 산에 올라 달을 볼 거야. 우리나라 네팔 달 볼 거야. 내가 뭘 할 건지, 달한테 물어볼 거야. 싸부딘은?"

"여동생이 한국 사람과 결혼했어. 시골이야. 동생이 남편한테 맞았어. 동생 많이 슬퍼. 형이 한국 여자랑 결혼했어. 형 여자 도망갔어. 조카 있어. 형이랑 조카 많이 슬퍼. 부모님 돌아가셨어. 우리나라, 방글라데시 가도 나는 아무도 없어. 한국에 다 있어. 난 갈 수 없어. 형 다쳤어. 손가락 잘렸어. 조카 살려야 해."

"싸부딘, 난 한국에서 슬플 때 노래했어. 한국 발라드야. 사장이 막 욕해. ㉢나 여기, 심장 막 뛰어. 손가락 막 떨려. 눈물 막 흘러. 그럼 노래했어. 사랑 못 했어. 억울했어. 그러면 또 노래했어. 그러면 잠이 왔어. 그러면 꿈속에서 달을 봤어. 크고 아름다운 네팔 달이야."

ⓐ깐쭈가 다시 노래한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오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 가고 지나는 사람들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 ㉣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또다시 따라 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싸부딘도 노래했다.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더 이상 내게 이러시면 안 돼요……

노랫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쌀겨 냄새 가득한 방앗간 안으로 스며들었다.

"싸부딘, ㉤여기 상추도 있고 고추도 있어. 집에 고추장 있어. 소주는 사야 해. 삼겹살은 없어. 삼겹살도 사야 해. 우리 소주 마시자." / "좋아."

두 사람이 빗속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명랑하게 사라졌다. 싸부딘과 깐쭈가 사라진 길 너머로 내가 지나온 길이 보였다. 그 길 너머 그 남자네 집이 보였다. 겨우 가라앉았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요동쳐 오기 시작했다. ⓒ나는 노래를 불렀다.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 널 기다리나 봐……

나는 방앗간을 나섰다. 나는 빗속에서 악을 썼다.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나는 노래 불렀다. 저기, 네팔의 설산에 떠오른 달이 보인다. 나는 달을 향해 나아갔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뚜벅뚜벅, 명랑하게.

– 공선옥, 「명랑한 밤길」

[22001-0174]

0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젊은 여자가 드문 마을에서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
② 그 남자로 인해 감정이 격해진 '나'는 내리는 비를 맞으며 방앗간을 나섰다.
③ 방앗간에 있던 '나'를 의식한 싸부딘과 깐쭈는 대화를 멈추고 걸음을 재촉하였다.
④ 싸부딘의 형과 여동생은 한국인과 결혼하였으나 한국에서 편치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
⑤ 돼지 농장을 운영하던 만배는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차려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였다.

[22001-0175]

02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와 주변 인물의 갈등이 고조됨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상황 전개에 따른 사건 변화의 추이가 그려지고 있다.
③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의 긍정적 성격이 부각되고 있다.
④ '나'의 시선을 통해 다른 인물에 대한 '나'의 반응이 드러나고 있다.
⑤ '나'의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통해 내면적 성찰이 엿보이고 있다.

[22001-0176]

0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와 ⓑ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기 위한 노력이다.
② ⓐ와 ⓒ는 서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다.
③ ⓑ와 ⓒ는 인물들의 서로 다른 가치관을 상징하는 행동이다.
④ ⓐ, ⓑ, ⓒ 모두 자신의 각오를 특정한 대상에게 전달하기 위한 행위이다.
⑤ ⓐ, ⓑ, ⓒ 모두 특정한 상황에 처한 인물들이 자신의 마음을 달래려는 시도이다.

[22001-0177]

04 〈보기〉의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1990년대 이후 우리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급격히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은 점차 우리 공동체 문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견에 근거한 행동은 지양하고, 인간에 대한 존중과 타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수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명랑한 밤길」에서 등장인물들이 보이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① ㉠에서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나'의 편견 어린 시선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요.
② ㉡에서는 편견을 보이는 인물들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만배의 의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요.
③ ㉢에서는 우리 공동체에 유입된 소수자들이 느끼는 모멸감과 슬픔이 깐쭈를 통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요.
④ ㉣에서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사연을 듣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나'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요.
⑤ ㉤에서는 우리 공동체 문화에 적응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모습이 깐쭈를 통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요.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다시 만난 지 얼마나 되지?" / "글쎄."
"기십 년이 좋이 될 걸세." / "그리 길어? 이따금 상면하지 않았나. 노상에서 스치기도 하고."
"그게 **한동네에서 함께 살게 된 것**과 같은가. 앞으로는 줄곧 이웃으로 지낼 건데." / "그러네."
"해서 말인데, 나 자네가 당산으로 이사 온 걸 안 날부터 솔직히 심사가 편치 않아." / "건 또 왜?"
"몰라서 묻나?" / "무얼 말인가?"
㉠"시침 떼기는."
"시침 떼다니. 이 사람이…… 마른 날에 벼락 맞기도 유분수지 나 때문에 마음이 안 좋다니. 덮어놓고 윽박지르면 단가. 이러자고 불러냈나."
말꼬리를 모나게 비트는 정 선생도 언뜻 짚이는 데가 있는 눈치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는다.
"그게 아닐세. 내 구변이 서툴러 이런가 보네. 다름 아닌 **자네 형님 사건**, 바로 그 건을 꺼낸다는 것이 초장부터 꼬였구먼."
"하항. 그거……."
㉡"내 힘든 기분 이제사 알겠는가?"
"알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나. 언제 적 얘기라고."
그걸 가지고 이 친구는 내내 속앓이를 했는가. 멀리 귀양 보냈다가 나를 보자마자 새삼스럽게 가위눌렸던가.

[A] 전쟁 전야였다. 좌우익으로 갈린 고향 청년들끼리 후딱 하면 몽둥이 쌈질을 벌이던 무렵이다. 김 선생네는 중학교 뒷문께에 살았는데 그날 밤 심한 설사병에 시달리던 중 일짜리 김 소년이 우연히 목격했다. 두세 차례나 밀어내었는데도 여전히 묵지근한 아랫배를 쓸며 뒷간을 들락거리다가 학교 안 공기가 어쩐지 수상하다고 느꼈다. 대충 일을 마치고 대문 밖으로 나섰다. 엉성한 측백나무 울타리를 뚫고 불빛이 새 나오는 숙직실 쪽으로 가만가만 다가가 안을 기웃거렸다. 몇몇 선생님을 포함한 대여섯 청년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폭 넓은 두루마리에 붓글씨를 쓰고 등사판을 미는 등 어수선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마침 아버지와 함께 대작하고 있던 작은아버지에게 자랑 삼아 일러바쳤다. 농지 개혁 이후 지가 증권으로 살림을 꾸려 가던 두 분은 나쁜 놈들! 하면서 즉각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곧 숙직실을 덮쳤다. 그 속에 정 선생의 형이 끼었던 거다.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으나 소용없었다. 공교롭게도 그날 밤 숙직이었는 데다 나흘 후엔 전쟁이 터졌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서 어찌어찌 목숨을 건진 것만도 요행이었다. 하나 오래 가지 못했다. 이미 결딴난 몸으로 피난 터를 옮겨 다니다가 전쟁이 끝나기 전에 병사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했듯이, 설사병만 아니었어도, 측간에만 안 갔어도 따위 부질없는 후회에 앞서 제보자에 대한 소문이 미구에 퍼졌다.
"내 원망 많이 했을 거네." / "사람들의 작은 몸뚱어리에 웬 비밀이 그리 많을꼬."
정 선생은 딴전을 피웠다. 어안이 벙벙하여 대꾸조차 못한 김 선생의 눈이 깜빡깜빡 진의를 묻는다.
"안 그래? 저마다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 얼마나 많은가."
"그야……." / "혼자 끼고 살다가 무덤까지 갖고 가면 다행이지만 말이네."

㉢"그 비밀이란 게 대개는 실수에서 비롯된 부끄러움과 관련돼 있지."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죽이고 싶을 거야."
"?"
김 선생의 눈이 드디어 휘둥그레졌다. 입에 가벼운 경련이 인 듯하다.
"나 지금 농담을 하고 있으니 너무 놀라지 말게."
"표정은 정색인데 입으로만 농담이라고 하면 누가 믿어."
"그래? 내 얼굴이 정색한 얼굴이라고?"
"말장난 그만두게. 내 진담에 대답할 차례야."
"그 전에 내 말 더 듣게."
㉣"계속 힘들게 만드는구먼."
"누구는 힘 안 드는 줄 아나. 나에겐 말일세, 세월과 더불어 차차 지워지기는커녕 갈수록 덩치가 커지는 수치심이랄까 회한이 몇 가지 있네. 아냐 그것들이 새끼를 치는 바람에 생긴 소소한 것들까지 합치면 수도 없다구. 불시에 엄습하여 잠을 설치기 일쑤라네. 그러라고 누가 다그치는 것도 아냐. 사서 지랄하는 거지. 자네도 알잖나. 내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해서 삼류 대학이나마 들어간 것. 뿐인가. 나는 자기 살림도 말이 아닌 친구 하나가 가족 몰래 빌려준 돈까지 떼어먹었다네. 그가 일찍 죽었거든. 당연히 유가족을 찾아 저간의 사정을 고백하고 돈을 갚았으면 좀 좋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주 기회를 놓치고 인생 제대 말년에 **이중 삼중의 뉘우침**을 겹겹이 안고 살아."
"그러기로 들면 누군들 마음이 편할까."
"속이 편하고 불편하고를 떠나 연만한 자는 내남없이 그만한 자충수와 싸우는 것 같애."
"지나치게 소극적인 네거티브 발상이야. 이룬 업적은 어쩌고. 크건 작건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기를 써 가족 먹여 살리고 자식 기르는 일이 어딘데. 얼마나 **벅차고 보람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건 그런 상식이 아니잖아."
"내 말이 바로 그것 아닌가. 사람 폭폭하게 왜 딴청을 부리나.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가까스로 터뜨린 말인걸."
"화해를 청하는 마당인가."
"화해든 적대든…… 끝내고 싶어. 이왕이면 좋은 것이 좋겠지만 아니란들 별수 있나. 이 나이에 변명은 구질구질해. 오직 분명히 해 두고 싶을 따름이야. 자네가 눈에 띄지 않을 때는 나 역시 그렁저렁 잊고 살았네. 한데 사단의 한 당사자가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그 질곡이 다시 나를 묶는 거야. 서울에서 만났다면 또 몰라. 좁은 하늘 아래서 매일같이 호흡한다는 사실이, 말을 바꾸면 거리감의 단축이 빚는……."
"잠깐."
정 선생이 느닷없이 김 선생의 입을 막았다.
"왜 그러나?" / "그만해 두게."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인가?" / "이대로 그냥 지내세."
"무슨 뜻이야?"

"꼭 언질을 받아 내고 악수로 약속을 굳히지 말자고. 나는 형님이 아니니까. 강화 사절 대표로 위임장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는 느낀다네. 모든 걸 털고 해결하고 세상을 뜬다는 생각 자체가 무의미하고 사치스럽다고. 아니 주제넘어. 죽는 날까지 사람인 것이 사람의 노릇인데 완전 종결이 어딨어. 가당찮은 허영이지."

"알 듯 모를 듯한 말이로구먼."

"나도 내 마음을 몰라 헤맬 때가 많아. 긴장이 풀리면 건강에도 해롭다는 생각을 그다음에 한다네."

정 선생은 그걸 노년의 르상티망*과 관련시켜 설명하려다 만다.

"혹 떼러 왔다가 혹 붙이고 가는 격인가."

"**떼었다 붙였다**…… 하다가 가는 거지. 인생은 고해라고 했거늘 너무 깨끗한 얼굴로 가 봐. 염라대왕한테 혼나기 쉽지. 네 이놈! 너는 낙해에서만 놀다 왔구나. 이러면 어떡해."

– 최일남, 「아주 느린 시간」

* 르상티망(ressentiment): 원한, 증오, 질투 따위의 감정이 되풀이되어 마음속에 쌓인 상태.

[22001-0178]

01 **[A]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물 간 대화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 전개에 속도감을 부여하고 있다.
② 인물이 과거에 한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를 서술하여 사건의 맥락을 드러내고 있다.
③ 상징성을 띤 공간을 묘사하여 등장인물들이 지향하는 세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인물의 심리가 변화하는 양상을 묘사하여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보여 주고 있다.
⑤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어 이념적 차이가 두 중심 인물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온 원인임을 드러내고 있다.

[22001-0179]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② ㉡: 상대방의 재촉으로 인해 화제를 털어놓는 데 따르는 부담감을 표현하고 있다.
③ ㉢: 직전에 상대방이 말한 내용과 자신의 개인적 경험 간의 관련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 자신의 말에 대해 기대한 반응을 상대방으로부터 얻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⑤ ㉤: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끊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짐작하여 말하고 있다.

[22001-0180]

0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일반적으로 사람은 노년기에 접어들면, 윤리성을 갖춘 인간이라는 자의식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게 된다. 그럼으로써 그동안 살아온 삶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작중 인물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과오를 고백하여 털어 내고자 하는 행위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고백을 듣는 인물은 시혜적인 자세로 상대의 참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이 지닌 삶의 동질성을 확인시켜 주는 방식을 택한다. 그러면서 노년이 삶의 종착점이라는 인식을 거부하고, 노년 역시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기라는 실존적 인식을 드러낸다.

① '한동네에서 함께 살게 된 것'은 김 선생이 과거에 저지른 과오를 털어 내기 위해 정 선생과 만나기로 마음먹는 계기가 되었겠군.
② '자네 형님 사건'에 대해 느끼는 부끄러움을 정 선생에게 고백하는 김 선생의 행위는 윤리적 인간으로서의 자의식과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③ '이중 삼중의 뉘우침'은 정 선생이 김 선생에게 고백한 과오들로 인해 노년기에 지니고 살아가는 감정을 나타낸 것이겠군.
④ '벅차고 보람 있는 사업'은 김 선생이 자신의 삶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며 정 선생과 대화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겠군.
⑤ 혹을 '떼었다 붙였다' 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정 선생의 말에서, 노년 시기가 책임 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의 일부라는 인식이 드러나는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엄마의 만두 가게가 아버지의 빚보증으로 망하고 난 후, '나'는 언니가 사는 서울 변두리 반지하 셋방으로 어린 시절부터 쳐 온 피아노를 옮겨 와 살게 된다. '나'는 타자 아르바이트를, 언니는 편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고되게 살아간다.

나는 어서 학교에 가고 싶었다. 얼추 한 학기 등록금을 모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피로'나 '긴장'을 느끼고** 싶었다. 긴장되는 옷을 입고, 긴장된 표정을 짓고, 평판을 의식하며, 사랑하고, 아첨하고, 농담하고, 험담하고, 계산적이거나 정치적인 인간도 한번 돼 보고 싶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될 수 없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가전제품뿐이었다. 나는 냉장고에게 잘 보이거나, 전기밥통을 헐뜯고 싶지 않았다. 첫 월급을 탔을 때 누구를 만나,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 몰라 당황했었다. 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일만 하다 죽을 수는 없다고, **매일 어깨에 의자를 이고 등교하는 아이처럼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 순 없다**고 생각했다. 가끔은 손가락이 나뭇가지처럼 기다랗게 자라나는 [꿈]을 꾸기도 했다. 나는 손가락만 진화한 인간 타자수가 되어 '다음 중 맞는 답을 고르시오.'라는 문장을 끊임없이 치고 있었다. 그리고 산더미만 한 문제지를 들고 인쇄소에 찾아가면, 그걸 전부 나더러 풀라는 것이었다. 나는 건포도를 오물거리며 '가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고 안도했다. '8월에는 동대문에 옷을 사러 가야지. 화장은 언니에게 배우고, 아르바이트는 반드시 집 밖에서 하는 걸로 해야겠다.' 도 다음엔 레가 오는 것처럼 여름이 끝난 후 반드시 가을이 올 것 같았지만, 계절은 느릿느릿 지나가고, 우리의 청춘은 너무 환해서 창백해져 있었다.

방 안은 눅눅했다. 자판을 치다 주위를 둘러보면, 습기 때문에 자글자글 운 공기가 미역처럼 나풀대며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벽지 위론 하나둘 곰팡이 꽃이 피었다. 피아노 뒤에 벽은 상태가 더 심했다. 건반 하나라도 누르면 꼭 그 음의 파동만큼 날아올라, 곳곳에 포자를 흩날릴 것 같은 모양이었다. 나는 **피아노가 썩을까 봐 걱정이었다**. 몇 번 마른걸레로 닦아 봤지만 소용없었다. 우선 달력 몇 장을 찢어 피아노 뒷면에 덧대 놓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곧 피아노 건반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시골에서부터 이고 온 것인데, 이대로 망가지면 억울할 것 같았다. 한날 마음을 먹고 피아노 의자 위에 앉았다. 그런 뒤 두 손으로 건반 뚜껑을 들어 올렸다. 손안에 익숙한 무게감이 전해져 왔다. 내가 알고 있는 무게감이었다. 곧 88개의 깨끗한 건반이 눈에 들어왔다. 악기는 악기답게 고요했다. 나는 건반 위에 손가락을 얹어 보았다. 손목에 힘을 푼 채 뭔가 부드럽게 감아쥐는 모양을 하고. 서늘하고 매끄러운 감촉이 전해졌다. 조금만 힘을 주면 원하는 소리가 날 터였다. 밖에선 공사 음이 들려왔다. 며칠 전부터 주인집을 보수하는 소리였다. 문득 피아노를 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사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일단 그런 마음이 들자,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다. **한 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소리는 금방 사라져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나는 용기 내어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 "도—"

㉠도는 방 안에 갇힌 나방처럼 긴 선을 그리며 오래오래 날아다녔다. 나는 그 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가슴속 어떤 것이 엷게 출렁여 사그라지는 기분이었다. 도는 생각보다 오래 도— 하고 울었다. 나는 한

음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느낌을 즐기려 눈을 감았다.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쿵쿵쿵쿵. 주먹으로 네 번이었다. 나는 얼른 피아노 뚜껑을 덮었다. 다시 쿵쿵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을 열어 보니 주인집 식구들이었다. 체육복을 입은 남자와 그의 아내, 두 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다. 사내아이는 아빠와, 계집아이는 엄마와 똑 닮아 있었다. 외식이라도 갔다 오는지 그들 모두 입에 이쑤시개를 물고 있었다. 남자가 입을 열었다.

"학생, 혹시 좀 전에 피아노 쳤어?" / 나는 천진하게 말했다.

"아닌데요." / 주인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친 거 같은데……?"

나는 다시 아니라고 했다. 주인 남자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내가 곰팡이 얘길 꺼내자 "지하는 원래 그렇다."라고 말한 뒤,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피아노 옆에 기대어 앉았다. 그런 뒤 무심코 휴대 전화 폴더를 열었다. 휴대 전화는 번호마다 고유한 음이 있어 단순한 연주가 가능했다. 1번은 도, 2번은 레, 높은 음은 별표나 영을 함께 누르면 되는 식이었다. 더듬더듬 버튼을 눌렀다. 미 솔미 레도 시도 파, 미 솔미 레도시도 레레레 미…… ㉡'원래 그렇다'는 말 같은 거, 왠지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부터 폭우가 내렸다. 언니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늦는다고 했다. 벌써 퇴근했어야 하는 시간인데 정산을 잘못한 모양이었다. ㉢언니는 계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 뒤, 안 맞을 경우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고, 같은 일을 반복하며 밤을 새울 터였다. 나는 만두 라면을 먹으며 연속극을 보고 있었다. 볼륨을 한껏 높였는데도 배우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리모컨을 잡으니 뭔가 축축한 게 만져졌다. 한참 손바닥을 들여다본 후에야 그것이 빗물이란 걸 깨달았다. 나는 화들짝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에서부터 물이 새고 있었다. 이물질이 잔뜩 섞인 새까만 빗물이었다. 그것은 벽지를 더럽히며 창틀 아래로 흘러내렸다. ㉣벽면은 검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누군가의 얼굴 같았다.

(중략)

빗물은 어느새 무릎까지 차 있었다. 나는 피아노가 물에 잠겨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저대로 두다간 못 쓰게 될 게 분명했다. ㉤순간 '쇼바'를 잔뜩 올린 오토바이 한 대가 부르릉— 가슴을 긁고 가는 기분이 들었다. 오토바이가 일으키는 흙먼지 사이로 수천 개의 만두가 공기 방울처럼 떠올랐다 사라졌다. 언니의 영어 교재도, 컴퓨터와 활자 디근도, 아버지의 전화도, 우리의 여름도 모두 하늘 위로 떠올랐다 톡톡 터져 버렸다. 나는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깨끗한 건반이 한눈에 들어왔다. 건반 위에 가만 손가락을 얹어 보았다. 엄지는 도, 검지는 레, 중지와 약지는 미 파. 아무 힘도 주지 않았는데 어떤 음 하나가 긴소리로 우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도—" / 도는 긴소리를 내며 방 안을 날아다녔다. 나는 레를 짚었다.

"레—" / 사내가 자세를 틀어 기역 자로 눕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편안하게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손끝에서 돋아나는 음표들이 눅눅했다.

"솔 미 도레 미파솔라솔……."

물에 잠긴 페달에 뭉텅뭉텅 공기 방울이 새어 나왔다. 음은 천천히 날아올라 어우러졌다 사라졌다.

– 김애란, 「도도한 생활」

[22001-0181]

01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청각적인 대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대상에 대한 공허함을 형상화하고 있다.
② ㉡: 인용의 방식을 활용하여 인물로 하여금 부당함을 느끼도록 만든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③ ㉢: 가정적 진술을 통해 인물이 처해 있을 상황을 추측하여 제시하고 있다.
④ ㉣: 사물을 인격체에 비유하는 방식을 통해 인물이 처한 현실의 비통함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 ㉤: 음성 상징어와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인물이 느끼는 감정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2001-0182]

02 꿈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후회를 암시하고 있다.
② '나'가 벗어나고자 하는 생활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③ '나'와 가족들 간의 불화를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나'가 자신의 일에 대해 가진 자부심을 반영하고 있다.
⑤ '나'가 유년 시절에 받은 상처의 치유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22001-0183]

0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대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도도한 생활」에서 '나'는 쉽게 안주할 수 없는 현실과 사회적 억압을 받는 열악한 환경 속에 놓인 채 자신을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주변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그러나 '나'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쉽게 함몰되거나 환멸에 빠지지는 않으며,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자존을 지키려 노력한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해 온 사물인 피아노에 대한 감정과 피아노를 치는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①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피로나 긴장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을 통해 '나'가 고립된 주변인의 상태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상황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군.
② '매일 어깨에 의자를 이고 등교하는 아이처럼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 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나'가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생활을 평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삶으로 여기지 않음을 알 수 있군.
③ '피아노가 썩을까 봐 걱정이었다'는 것을 통해 오랫동안 함께해 온 사물인 피아노에 대한 '나'의 애착을 짐작할 수 있군.
④ '한 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소리는 금방 사라져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나'가 자신이 겪는 사회적 억압에 대한 분노를 억압의 주체에게 직접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⑤ '나'가 방 안이 물에 잠겨 가는 상황에서 '피아노 뚜껑을 열'고 '손가락에 힘을 주'며 용감하게 피아노를 치는 행위를 통해 암담한 상황에서도 환멸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말뚝이와 양반 일행이 과거를 보러 가던 중 양주* 땅에서 해가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산대 탈놀이를 구경하다가, 객지에서 거처할 곳을 구하지 못하였다.)

말뚝이: 얘, 그러나저러나 내게 좀 곤란한 일이 생겼다.

쇠뚝이: 무슨 곤란한 일이 생겼단 말이냐?

말뚝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우리 댁의 샌님, 서방님, 도령님을 데리고 과거를 보러 가는 도중에 산대놀이 구경을 하다가 하루해가 저물었는데, 하룻밤 묵을 의막을 정하지 못하였다. 나는 여기 아는 친척도 없고, 아는 친구도 없어 곤란하던 차에 너를 만나서 다행이다. 얘, 나를 봐서 우리 댁 양반들이 임시로 거처할 의막을 정해 다오.

쇠뚝이: 옳지, 구경을 하다가 의막을 정하지 못하였구나. 그래라, 의막을 하나 정해 주마. ㉡(놀이판을 여러 번 돌고 나서 말뚝이 앞으로 다가간다.) 얘, 말뚝아, 양반들이 임시로 거처할 의막을 지었다. 얘, 보아 하니 거기 담배도 먹을 듯하여, 방 하나 가지고 쓸 수 없어 안팎 사랑이 있는 집을 지었다. 바깥사랑에는 동그랗게 말뚝을 돼지우리같이 박고, 안은 동그랗게 담을 쌓고, 문은 하늘로 냈다. 이만하면 되겠지.

말뚝이: 그럼. **고래담 같은 기와집이로구나.** 그 방에 들어가자면 물구나무를 서야겠구나.

쇠뚝이: 암, 그렇고말고.

말뚝이: 얘, 너하고 나하고 말하는 게 불찰이지. 미안하지만 우리 양반들을 안으로 모셔야겠다.

쇠뚝이: 야, 이놈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대관절 그 댁의 누구란 말이냐?

말뚝이: 나는 그 댁의 하인이다.

쇠뚝이: 그러면, 그 양반들이 어디에 있느냐?

말뚝이: 저 밖에 있다. 우리 어서 안으로 모시자.

쇠뚝이: (쇠뚝이는 앞에 서고 말뚝이는 뒤에 서서, 양반을 의막 안으로 모는 소리를 한다.) 고이 고이 고이.

말뚝이: (쇠뚝이 뒤에서 **채찍을 들고 돼지를 쫓듯이 소리를 친다.**) 두우 두우 두우.

샌님: (의막 안에 들어가서 앉으며) 얘, 말뚝아.

말뚝이: 네이—.

샌님: 이 의막을 네가 정하였느냐? 누가 정해 주었느냐?

말뚝이: (쇠뚝이를 보고) 얘, 우리 댁 샌님께서, "우리가 거처할 이 의막을 누가 잡았느냐? 네가 얻었느냐, 누가 다른 사람이 얻었느냐?" 하고 말씀하시기에 "이 동네 아는 친구 쇠뚝이가 얻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그럼 개 좀 보자꾸나." 하시는데, 들어가서 네가 샌님을 한번 뵙는 게 좋겠다.

쇠뚝이: 내가 그런 양반들을 왜 뵙느냐?

말뚝이: 너, 그렇지 않다. **나중에 벼슬을 하려면** 꼭 뵈어야 한다.

쇠뚝이: 그러면 네 말대로 보고 오마.

말뚝이: 어서 갔다 오너라.

쇠뚝이: ㉢쳐라. (악사들이 타령 장단을 연주하면, 쇠뚝이가 춤을 추면서 양반 일행 앞뒤를 돈다. 연주를 중지하면,

말뚝이 앞으로 와서) 얘, 내가 가서 양반들을 자세히 보니 그놈들은 양반의 자식들이 아니더라. 샌님을 보니 도포는 입었으나 전대띠를 두르고, '두부 보자기'를 쓰고 꽃 그림이 그려진 부채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양반의 자식이냐? 한량의 자식이지. 또 서방님이란 자를 보니 관은 썼으나 그놈도 꽃 그림이 그려진 부채를 들고 있으니, 그게 무슨 양반의 자식이냐? 잡종이더라. 또 도령님이란 놈은 전복에 전대띠를 매고 '사당 보자기'를 썼으니, 그놈도 양반의 자식이 아니더라.

말뚝이: 아니다, 그 댁이 무척 가난하여 세물전에서 빌려 입고 와서, 구색을 맞추어 의관을 입지 않아서 그렇다.

쇠뚝이: 옳거니, **세물전에서 빌려 입고 와서 구색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샌님: (말뚝이를 부른다.) 말뚝아—.

말뚝이: 네이—.

샌님: 너— 어디 갔었느냐?

말뚝이: 네—. 샌님을 찾으려고요.

샌님: 어디로?

[A] 말뚝이: 네이—. 서산 나귀 솔질하여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안장을 높게 놓아 가지고 안남산 밖남산 벽계동으로 칠패 팔패 돌모루 동작강을 건너 남대문 안을 썩— 들어서니, 일간장 이먹골 삼청동 사직골 오궁터 육조 앞 칠관안 팔각재 구리개 십자각 아이머리 다방골로 어른머리 감투전골로 해서요, 언청다리 쇠경다리를 건너와서 배우개 안 네거리를 썩— 나서서 아래위로 치더듬고 내리 더듬어도 샌님의 새끼라고는 개새끼 한 마리 없기에, 아는 친구를 만나서 물어보았더니 내소문 밖으로 나갔다고 하기에 나와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도 없어서, 다시 산대놀이판에 와서 보니 내 증손자 아들놈을 여기서 만나는구려. (하며 샌님의 탈을 탁 친다.)

(중략)

말뚝이: (쇠뚝이를 붙잡고서) 이놈아, 어서 들어가자. 너를 잡아들이시란다.

쇠뚝이: (가지 않겠다고 버틴다.)

말뚝이: ㉣(버티는 쇠뚝이를 거꾸로 끌고 와서, 쇠뚝이의 엉덩이가 샌님 쪽으로 향하게 잡아들이며) 쇠뚝이 잡아들였소.

샌님: 여—. 그놈의 대가리는 정주 난리를 갔다 왔느냐?

말뚝이: 이놈의 대가리가 하도 험상스러워서 샌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실까 봐 거꾸로 잡아들였소.

샌님: 그놈의 머리를 빼다가 밑구녕에 꽉— 박아라.

말뚝이: 네이—. 꽉— 박았소.

샌님: (앞에 꿇어앉아 있는 쇠뚝이를 향하여) 여봐라— 이놈—.

쇠뚝이: 내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 어떤 놈이 나더러 '이놈'이래?

샌님: 네 이름이 무엇이란 말이냐?

쇠뚝이: **내 이름은 아첨 아 자(字), 번개 번 자요. 샌님이 부르시기에 아주 적당한 이름이오.** 한번 불러 보시오.

샌님: 얘, 이놈의 이름이 왜 이리 평평하냐? 번아—.

쇠뚝이: 샌님은 글을 배우셨으니, 붙여서 불러 보시오.
샌님: (이름을 불러 보지도 못하고 쩔쩔매면서) 아—. 이놈의 이름이 왜 이리 팽팽하냐? 번아—.
쇠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지 말고 어서 불러요. 글을 배우셨으니 바로 붙여서 불러요. 어서, 빨리, 왜 질질 매세요?
샌님: 아 자, 번 자야—.
쇠뚝이: 이것 보게? 아 자, 번 자가 무엇이오? 도대체 샌님이 글을 배웠소? 어서 그러지 말고 붙여 불러요.
샌님: (붙여서 불러 보지 못하고 쩔쩔매며) 아—.
쇠뚝이: 어서 붙여서 불러 봐요.
샌님: 아, 이상한 이름도 다 보았다. 왜 이리 팽팽하냐? 아—. 아버지—.
말뚝이: (샌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자 샌님을 향하여 대답한다.) 왜 그러느냐?

– 작자 미상, 「양주 별산대놀이」

*양주: 지명. 경기도 동북쪽에 있는 시.

[22001-0184]

01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언어유희적 진술을 통해 장면의 해학성을 높이고 있다.
②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대상과의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③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갈등 상황의 해결을 암시하고 있다.
④ 내적 독백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불만과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⑤ 구체적인 고사(故事)를 활용하여 인물의 행동이 지닌 교훈성을 드러내고 있다.

[22001-0185]

02 〈보기〉를 활용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양주 별산대놀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경기 지방에서 연행되어 오는 전통 가면극의 일종이다. 일정한 줄거리를 갖춘 이야기와 탈, 춤, 음악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극으로, 주로 넓은 마당에서 별다른 무대 장치 없이 공연되었다. 또한 내용 전개에 따라 극 중의 공간이 신축성 있게 변형되어 제시되었고 악공과 관객의 극의 진행, 또는 극 중 현실에 대한 개입이 가능하였다.

① ㉠: 공연이 연행되는 실제 장소와 극 중 장소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② ㉡: 인물의 말과 행동만으로 일정한 무대 장치의 설정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③ ㉢: 악공의 역할이 극의 진행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 가면극이 인물의 대사에 춤과 음악이 결합되어 있는 종합 예술적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⑤ ㉤: 인물의 실제 움직임을 통해 갈등이 벌어지는 극 중 공간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001-0186]

0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래담 같은 기와집이로구나.'와 같은 반어적 서술을 통해 양반에 대한 풍자를 드러내고 있군.
② '채찍을 들고 돼지를 쫓듯이 소리를 친다.'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양반을 동물과 같이 취급하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③ '나중에 벼슬을 하려면'과 같은 가정적 진술을 통해 권력을 남용하는 당시 양반의 부패상을 표현하고 있군.
④ '세물전에서 빌려 입고 와서 구색이 맞지 않아서'와 같이 앞말의 반복을 통해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의 처지에 대한 동정을 보여 주고 있군.
⑤ '내 이름은 아첨 아 자(字), 번개 번 자요. 샌님이 부르시기에 아주 적당한 이름이오.'와 같이 발음의 유사성을 통해 양반의 권위에 대한 조롱을 표현하고 있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레는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투에 쓰는 융차(戎車), 작업에 쓰는 역차(役車), 물을 실어 나르는 수차(水車), 대포를 싣는 포차(砲車) 등 그 쓰임새에 따라 수천 수백 가지인데, 지금 여기서 창졸간에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다. **사람이 타는 수레와 짐을 싣는 수레는 민생과 관계되어 먼저 힘써야 할 것**이므로,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전에 **담헌 홍대용, 성재 이광려와 함께 수레 제도에 대해 강론한 바** 있다. 수레 제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궤(軌), 즉 바퀴와 바퀴 사이의 간격이 같도록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른바 바퀴 간격을 같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수레의 축과 양쪽 바퀴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것이다. 두 바퀴의 간격이 정해진 법식을 어기지 않는다면 모든 수레의 바큇자국이 통일될 것이다.

『중용』에서 말하는 이른바 수레바퀴의 간격이 같다는 뜻의 '거동궤(車同軌)'가 바로 이것이다. 두 바퀴의 간격을 제멋대로 넓게 하거나 좁게 한다면 길의 바큇자국이 어떻게 한 가지 틀에 들어갈 수 있으랴!

지금 길을 따라 천 리 길을 오면서 매일같이 수많은 수레를 보건만, 앞의 수레나 뒤의 수레가 동일하게 하나의 바큇자국을 따라간다. 그러므로 미리 짜지 않고도 같게 되는 것을 일러 한 수레바퀴의 자국이라는 뜻의 '일철(一轍)'이라 말하고, 뒤에 오는 사람이 앞에 가는 사람의 행적을 일러 '전철(前轍)'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도성의 문턱에 바퀴가 닿는 곳에는 옴폭하게 홈통이 생기는데, 『맹자』에서 말하는 **'성문의 수레바퀴 자국[城門之軌]'**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수레가 없었고, 아직 바퀴가 완전히 둥글지 않으며 바큇자국이 하나의 궤에 들지 않으니, 이는 수레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고을이 험준해서 수레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국가에서 수레를 사용하지 않으니 길이 닦이지 않았을 뿐이다. 수레가 다니게 된다면 길은 절로 뚫리게 마련이니, 어찌 길거리가 좁다거나 고갯마루가 높음을 걱정하랴? 『중용』에서 말한 '수레와 배가 이르는 곳,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곳'이란 바로, 아무리 멀더라도 수레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중국에도 검각(劍閣)에는 아홉 굽이나 되는 험한 길이 있고 태항산(太行山)에는 양의 창자처럼 위태한 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수레가 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 이 때문에 섬서, 사천, 강소, 광동, 복건, 광서 지방 같은 먼 곳이라도 큰 장사꾼들과 식솔을 이끌고 부임하는 관리들이 수레바퀴를 서로 부딪쳐 가기를 마치 자신의 마당을 밟고 가듯 하는데, 수레가 내는 굉음이 마치 구름도 없는 백주 대낮의 뇌성벽력 소리 같다.

지금 우리가 지나왔던 마천령(磨天嶺)과 청석령(靑石嶺)의 고개, 장항(獐項)과 마전(馬轉)의 비탈길이 어찌 우리나라보다 덜하였던가? 그 바위가 가로막고 험준함은 모두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거늘, 그렇다고 중국 사람들이 수레를 없애고 통행하지 않던가?

중국의 풍부한 재화와 물건이 어느 한곳에 막혀 있지 않고 사방에 흩어져 옮겨 다닐 수 있는 까닭은 모두 수레를 사용하는 이점 때문이다. 지금 당장의 효과를 따져 보더라도, 우리 사신 일행이 모든 폐단을 없애고 우리가 만든 수레에 우리 물건을 싣고 곧바로 북경까지 닿는다면 편리할 터인데,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는단 말인가?

영남 지방 아이들은 새우젓을 모르고, 관동 사람들은 산사나무 열매를 절여서 간장을 대신하고, 서북 사

람들은 감과 귤을 분간 못하고, **바닷가 사람들**은 생선 창자를 밭의 거름으로 쓰고 있다. 어쩌다가 한번 이것이 서울에 오면 한 움큼에 한 닢 값이니, 어찌 그리 귀하게 되는 것인가?

육진(六鎭) 지방의 마포(麻布), 관서 지방의 명주, 삼남 지방의 닥종이, 황해도 해서 지방의 솜과 쇠, 충남 내포의 소금과 생선 등은 모두 민생 일용품에서 뺄 수 없는 물건이다. 충북 청산·보은의 수천 그루의 대추, 황해도 황주·봉산의 수천 그루의 배, 전남 흥양·남해의 수천 그루의 귤·유자, 충남 임천·한산의 수천 그루의 모시, 관동 지방의 수천 통의 벌꿀 등은 모두 사람들이 날마다 필요한 물건들로서 서로 바꾸어 써서 도움을 주는 것이니, **누가 싫다 할 것인가?**

그러나 이 지방에서는 천한 것이 저 지방에서는 귀하고, 이름만 들었을 뿐 물건을 볼 수 없는 까닭은 대체 무엇 때문인가? 이는 곧 **가져올 힘이 없**는 까닭이다. 사방 수천 리밖에 되지 않는 좁은 강토에서 백성의 살림살이가 이토록 가난한 까닭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내에 수레가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자. 수레는 왜 못 다니는가. 한마디로 선비와 벼슬아치들의 죄이다.

사대부들이 평생 읽는다는 글은 『주례』라는 성인의 저술인데, 거기 나오는 거인(車人)이니 윤인(輪人)이니 여인(輿人)이니 주인(輈人)이니 하는 용어를 말하고 있지만 그저 입으로만 외울 뿐이요, 정작 수레를 만드는 법이 어떠한지 수레를 부리는 기술이 어떠한지 하는 연구는 없다. 이는 **소위 건성으로 읽는 풍월**일 뿐이니, 학문에야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중략)

누에고치를 켜는 수레인 소차(繅車)는 더욱 기묘해서 마땅히 본받아야 한다. 큰 톱니바퀴로 만드는 것은 맷돌을 돌리는 법과 동일하다. 소차의 양 끝에도 톱니바퀴를 만들어 들쭉날쭉하게 이가 맞물려 쉴 새 없이 돌아가게 한다.

[A] 소차는 몇 아름 되는 큰 얼레이다. 누에고치를 수십 보 밖에서 삶고, 중간에 수십 층의 시렁을 설치하여 점차로 높고 낮은 형세가 되게 만든다. 시렁마다 그 끝에는 쇳조각을 세우고 바늘귀 같은 아주 작은 구멍을 뚫는다. 그 구멍에 실을 끼워 기계가 움직이고 바퀴를 돌게 한다. 바퀴가 돌면 얼레가 돌아가게 되어 톱니가 서로 맞물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적당한 속도로 천천히 실을 뽑아내는데, 실끼리 서로 부딪치거나 맞닿는 일 없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므로 가는 실과 거친 실이 같이 나올 염려는 없다.

솥에서 삶긴 고치가 나와 얼레에 들어갈 즈음에 두루 쇠 구멍을 지나가게 되므로, 실에 붙었던 털이나 까끄라기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 얼레에 들어가기 전에 실의 바탕은 이미 건조되어 깨끗하고 투명하여 빛이 나서, 다시 수고스럽게 잿물에 빨 필요 없이 바로 베틀에 올려 실로 사용해도 된다.

우리나라에서 고치를 켜는 법은 오직 손으로 당겨서 훌치는 것만 알지, 수레를 사용할 줄은 모른다. **명주실이 사람의 손을** 타므로 이미 실로서 천연적이고 자연스런 품새가 없어지고, 실을 빼는 속도가 일정치 않아 실끼리 부딪치거나 맞닿을 때면 실과 고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제멋대로 날뛰고 함께 나아가 고치 판에 쌓이기도 한다. 실끼리 서로 엉겨 실의 갈피가 없어지고, 엉겨 붙고 말라 덩어리가 져서 실의 광택을 잃으며, 부스러기가 틀어막고 알맹이가 뚤뚤 감겨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여 실을 잣는 사람이 거친 실을 골라내고 가는 것만 챙기다 보니 입과 손가락이 함께 고생을 한다.

– 박지원, 「수레 제도」

[22001-0187]

01 **윗글의 글쓴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하는 종류의 수레를 우선적으로 언급해야겠다고 생각한다.
② 기행 도중 목격한 바퀴자국의 모습이, 『맹자』의 '성문의 수레바퀴 자국'이라는 문구가 나타내는 모양과 같다고 생각한다.
③ 우리나라 '바닷가 사람들'에게 흔하게 취급되는 수산물이 내륙에 오면 귀해지는 상황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④ 백성들이 곤궁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물자를 '가져올 힘이 없'기 때문이므로, 짐을 싣는 수레를 사용하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⑤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는 작업을 할 때, '명주실이 사람의 손을' 많이 탈수록 더 좋은 생산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2001-0188]

02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의 속성에서 인간의 덕목을 유추하여 교훈적 깨달음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② 대상이 작동하는 원리와 과정을 서술하여 그 대상의 효용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③ 대상의 쓰임을 다른 종류의 수레와 비교하여 그 대상이 가지는 장점을 부각하고 있다.
④ 대상이 널리 쓰이는 상황을 나열하여 그 대상에 대한 통념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⑤ 대상이 움직이는 모습을 다른 살아 있는 대상에 빗대어 묘사하여 생동감을 유발하고 있다.

[22001-0189]

03 글쓴이가 ㉠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레의 높은 이동성을 보여 주는 옛 문헌의 문구를 인용하고 있다.
② 중국에서는 아주 험한 곳에서도 수레가 많이 다닌다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③ 우리나라에는 법식에 맞는 수레가 없어 길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④ 수레를 잘 몰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험준한 곳에서도 수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⑤ 국가에서 수레를 사용하면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자연스럽게 닦일 것이라는 예측을 드러내고 있다.

[22001-0190]

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수레 제도」는 조선 후기 연암 박지원의 기행 문집 『열하일기』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청나라의 문물에 대한 관심을 담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밑바탕에는 공허한 학설이나 이론에 치우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도외시하던 양반 사대부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이용후생(利用厚生), 즉 백성들의 일상적 생활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시했던 그의 학문적 지향이 자리하고 있다. 글쓴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자신이 목격한 수레를 기존의 탐구 경험이나 지식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한편, 그 다양한 쓰임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관습적 사고를 극복하고 인식의 지평을 넓혀 동시대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선구자적 면모를 보인다.

① '사람이 타는 수레와 짐을 싣는 수레는 민생과 관계되어 먼저 힘써야 할 것'이라고 하는 데에서, 수레에 대한 관심의 밑바탕에 이용후생에 대한 학문적 지향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② '담헌 홍대용, 성재 이광려와 함께 수레 제도에 대해 강론한 바'를 언급하는 데에서, 기존의 탐구 경험과 관련지어 수레를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드러나는군.
③ '누가 싫다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은 청나라의 문물에 대해 탐구하는 일을 동시대인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이겠군.
④ '소위 건성으로 읽는 풍월'은 수레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에는 무관심한 사대부들의 학문적 태도를 문제 삼는 표현이겠군.
⑤ '우리나라에서 고치를 켜는 법'을 돌아보는 데에서, 지식 확장을 통해 당대 조선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선구자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조카 허친(許親)이 집을 짓고서는 통곡헌(慟哭軒)이란 이름의 편액*을 내다 걸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크게 비웃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즐길 일들이 얼마나 많거늘 무엇 때문에 곡(哭)이란 이름을 내세워 집에 편액을 건단 말이냐? 게다가 곡이란 상(喪)을 당한 자식이나 버림받은 여인이 하는 행위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들의 곡소리를 몹시 듣기 싫어한다. 자네가 남들은 기필코 꺼리는 것을 일부러 가져다가 집에 걸어 두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 그러자 허친이 이렇게 대꾸하였다.

"저는 이 시대가 즐기는 것은 등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이 시대가 환락을 즐기므로 저는 비애를 좋아하며, 이 세상이 우쭐대고 기분 내기를 좋아하므로 저는 울적하게 지내렵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는 부귀나 영예를 저는 더러운 물건인 양 버립니다. 오직 비천함과 가난, 곤궁과 궁핍이 존재하는 곳을 찾아가 살고 싶고, 하는 일마다 반드시 이 세상과 배치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것은 언제나 곡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능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곡이란 이름을 내세워 제 집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 그 사연을 듣고서 나는 조카를 비웃은 많은 사람들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A] "곡하는 것에도 도(道)가 있다. 인간의 일곱 가지 정(情) 가운데 슬픔보다 감동을 일으키기 쉬운 것은 없다. 슬픔에 이르면 반드시 곡을 하기 마련인데, 그 슬픔을 자아내는 사연도 복잡다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사(時事)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이 진행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여 통곡한 가의(賈誼)가 있었고, 하얀 비단실이 본바탕을 잃고 다른 색깔로 변하는 것을 슬퍼하여 통곡한 묵적(墨翟)이 있었으며, 갈림길이 동쪽·서쪽으로 나 있는 것을 싫어하여 통곡한 양주(楊朱)가 있었다. 또 막다른 길에 봉착하게 되어 통곡한 완적(阮籍)이 있었으며, 좋은 시대와 좋은 운명을 만나지 못해 스스로 세상 밖에 버려진 신세가 되어, 통곡하는 행위로써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인 당구(唐衢)가 있었다. 저 여러 군자들은 모두가 깊은 생각이 있어서 통곡했을 뿐, 이별에 마음이 상해서나 남에게 굴욕을 느껴 가슴을 부여안은 채, 아녀자가 하는 통곡을 좀스럽게 흉내 내지 않았다.

저 여러 군자들이 처한 시대와 비교할 때, 오늘날은 훨씬 더 말세에 가깝다. 국가의 일은 날이 갈수록 그릇되어 가고, 선비의 행실은 날이 갈수록 허위에 젖어 들어 가며, 친구들끼리 등을 돌리고 저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배신행위는 길이 갈라져 분리됨보다 훨씬 심하다. 또 현명한 선비들이 곤액을 당하는 상황이 막다른 길에 봉착한 처지보다 심하다. 그러므로 모두들 인간 세상 밖으로 숨어 버리려는 계획을 짜낸다. 만약 저 여러 군자들이 이 시대를 직접 본다면 어떠한 생각을 품을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통곡할 겨를도 없이, 모두들 팽함이나 굴원이 그랬듯 바위를 가슴에 안고 물에 몸을 던지려 하지나 않을까?

허친이, 통곡한다는 이름의 편액을 내건 까닭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통곡이란 편액을 비웃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비웃던 자들이 "잘 알았습니다."라며 물러났다. 오간 대화를 정리하여 글로 써서, 뭇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심정을 풀어 주고자 한다.

– 허균, 「통곡헌기」

* **편액(扁額)**: 종이, 비단, 널빤지 등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서 방 안이나 문 위에 걸어 놓는 액자.

[22001-0191]

0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허친은 곡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고려하며 '통곡헌'이라고 집 이름을 지었다.
② 허친을 비웃은 사람들은 '나'가 허친을 설득해 그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랐다.
③ '나'는 허친을 비웃는 사람들이 통곡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④ '나'는 당대의 현명한 선비들이 곤액을 당하기보다는 숨어 버리려 한다고 생각했다.
⑤ 허친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과 달리 환락이나 부귀와 영예 등을 즐긴다고 판단했다.

[22001-0192]

02 윗글의 구성을 〈보기〉와 같이 나타낼 때,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카인 허친이 자신이 지은 집에 '통곡헌'이란 이름을 붙임. ➡ ㉮ 사람들이 허친에게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를 물음. ➡ ㉯ 허친이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를 말함. ➡ ㉰ 글쓴이가 허친을 비웃는 자들을 꾸짖음. ➡ 글쓴이가 대화를 정리하여 글을 쓴 이유를 밝힘.

① ㉮에서는 고정 관념에 근거한 질문을 통해 허친의 행위가 이치에 어긋남을 지적하고 있다.
② ㉯에서는 허친이 자신과 세상 사람들을 대비하여 세상 사람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③ ㉯에서는 허친이 직접 체험한 사건을 밝혀 세속적 삶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④ ㉰에서는 글쓴이가 파악한 부조리한 현실의 상황을 열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⑤ ㉰에서는 글쓴이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당대 세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22001-0193]

03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통곡이 오랜 세월 동안 슬픔을 잊기 위한 방법으로 쓰였음을 밝히고 있다.
② 인간의 일곱 가지 정 중에 슬픔이 가장 불필요한 감정임을 드러내고 있다.
③ 군자가 세상사로 인한 슬픔을 드러낼 때 통곡의 방법이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
④ 불우한 현실에서 도를 실현하는 데 통곡만 한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⑤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통곡하는 사람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술년(1718년)에 나는 예순여섯이 되었다. 앞니 하나가 까닭 없이 빠져 버렸다. ㉠갑자기 입술이 일그러지고 말이 새며 얼굴도 비뚤어지는 것을 느꼈다. 거울을 들고 살펴보니 다른 사람 같아 깜짝 놀라 거의 눈물이 줄줄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사람이 태어나 늙을 때까지, 그사이에 길든 짧든 진실로 단계가 많게 마련이다. 갓난아이 때 죽으면 이가 아직 나지 않았고, 예닐곱 살에 죽으면 이를 아직 갈지 않은 상태다. 여덟 살부터 예순이나 일흔 사이에 죽으면 영구치를 간 뒤이다. 다시 여든 살부터 백 살을 넘기게 되면 이가 다시 난다. 내가 산 햇수를 따져 보니 거의 사분의 삼을 살아 이의 나이 또한 한 갑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짧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더욱이 올해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줄줄이 황천길로 돌아간 사람을 이루 셀 수가 없지만 능히 이가 빠진 상태로 귀신이 된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가? ㉡이것으로 스스로를 달래니 또 어찌 슬퍼하겠는가?

하지만 슬퍼할 만한 점이 없지는 않다. 사람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 기대는 것 중에 음식만 한 것이 없고, 음식을 먹으려면 이가 꼭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이가 빠지거나 맞물린 이가 부러지면 국물이 새고 밥조차 딱딱하다. 이따금 살코기를 씹으려 해도 문득 고약한 지경을 만나고 만다.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난처한 근심이 있게 마련이니, 장차 쇠약해진 몸뚱이를 붙들어 지켜 낼 수가 없다. 결국 매미 배처럼 홀쭉하고 거북이 창자처럼 굶주리게 될 테니 이는 근심할 만하다.

그런데도 오히려 "입과 배에 관한 일은 미뤄 둘 수가 있다."라고들 말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글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 책 중에는 아직 소리 내어 읽어 보지 못한 것이 적지 않다. ㉢그저 만년의 광경으로 냇가 언덕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소리 내어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마치기를 그려 보며 밤중에 등불로 길을 비추듯 그 근원을 잃고 헤매지 않기만을 바랐다. 이제 한차례 입을 벌리면 그 소리가 깨진 종과 같다. 빠르고 느림에 가락이 없고 맑고 탁함은 조화에 어긋나 칠음(七音)을 구분하지 못하고 팔풍(八風)*을 알지 못한다. 처음엔 낭랑하게 하려 하다가도 나중에는 말을 더듬게 되니 이에 서글퍼져서 읽기를 그만두고 만다. 덕성이 나태해져 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 이것이 슬퍼할 만한 것 중의 큰일이다.

[A] 한편 또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나이는 많지만 몸은 가볍고 건강하다. 걸어서 산을 오르고 먼 길에 종일 말을 타기도 한다. 혹 천 리가 넘는 길에도 다리가 시거나 등이 뻐근한 줄 모른다. 내 연배를 살펴보더라도 나만 한 사람은 보기가 드물다. 이 때문에 자못 혼자 기분이 좋아졌다. 혼자 즐거워하다 보니 쇠약해진 것을 까맣게 잊고 아직도 젊었다고 생각하곤 했다. 어떤 일을 만나면 멋대로 행동하고 흥에 겨우면 먼 데까지 갔다가 반드시 몹시 피곤한 지경이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다. 산만하여 수습을 못 하므로 스스로 맹세하기를 자취를 거두고 한가로이 쉬면서 일 년 내내 문을 나서지 않을 작정을 했다. 하지만 예전 하던 버릇에 얽매여 저녁에 후회하고도 아침이면 되풀이하곤 했다. 대개 쇠하고 성함의 경계가 분명치 않아 그때그때 감당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B] 이제 느닷없이 형체가 일그러져서 추한 꼴이 드러났다. 이 꼴로 사람 앞에 나서면 놀라 슬퍼하지 않을 이가 없다. 그럴진대 내가 비록 잠깐이나마 늙음을 잊고자 한들 그럴 수가 없다. 이제부터 비로소 노인으로 자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선왕의 제도에 나이가 예순이 되면 마을에서 지팡이를 짚고 군복을 입지 않으며 직접 배우지도 않는다고 했다. 내가 일찍이 『예기(禮記)』를 읽었어도 이 뜻을 익히지 않았

으므로 한없이 망령된 행동이 많았다. 이제 그 잘못을 크게 깨달았으니 날이 어두워지면 들어가 쉴 수 가 있을 것이다. 이가 나를 일깨워 준 것이 많은 셈이다.

㉣주자는 눈이 멀어 존양(存養)*에 전념하게 되자 도리어 진작 눈이 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내 이가 빠진 것 또한 너무 늦었다. 형체가 일그러지니 고요함에 나아갈 수가 있고 말이 헛나오니 침묵을 지킬 수가 있다. 살코기를 잘 씹을 수 없으니 담백한 것을 먹을 수가 있고, 경전 외는 것이 매끄럽지 못하고 보니 마음을 살필 수가 있다. ㉤고요함에 나아가면 정신이 편안해지고, 침묵을 지키면 허물이 줄어든다. 담백한 것을 먹으면 복이 온전하고 마음을 살피면 도가 모인다. 그 손익을 따져 보면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겠는가?

대개 늙음을 잊은 자는 망령되고 늙음을 탄식하는 자는 천하다. 망령되지도 천하지도 않아야 늙음을 편안히 여기는 것이다. 편안히 여긴다는 말은 쉬면서 자적하는 것을 말한다. 기쁘게 화평함에 처하고 성대하게 조화를 올라타 형상의 밖에서 노닐며 요절과 장수를 마음으로 따지지 않으니 천리를 즐겨 근심하지 않는 사람에 가깝다 하겠다.

– 김창흡, 「낙치설」

* 팔풍: '팔음'을 뜻함. '팔음'은 악기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 나눈, 아악(雅樂)에서 쓰는 여덟 가지 악기. 또는 그 각각의 소리.
* 존양: 본심을 잃지 않도록 착한 성품을 기름.

[22001-0194]

0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변화에 대한 진술을 통해 글쓴이가 인식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② ㉡: 자문자답의 방식을 사용하여 독자가 궁금해하는 바를 밝히고 있다.
③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글쓴이가 바라던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 권위 있는 사람의 사례를 제시하여 자신의 생각의 근거로 삼고자 하고 있다.
⑤ ㉤: 대구의 표현을 사용하여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22001-0195]

02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에서 제기된 문제는 [B]에 나타난 사실로 인해 확장되었다.
② [A]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 [B]와 같은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다.
③ [A]에 나타난 현실 인식이 [B]의 사건을 계기로 구체화되었다.
④ [A]에서 [B]로의 상황 변화는 글쓴이의 정서적 좌절의 원인이 된다.
⑤ [A]에서 [B]로의 인식 변화는 외모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22001-0196]

03 **〈보기〉는 윗글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① ㉮에서 글쓴이는 이 하나가 빠져 얼굴이 변하는 체험을 통해 근심을 드러내고 있다.
② ㉯에서 글쓴이는 ㉮와 관련된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을 모두 보여 주고 있다.
③ ㉰에서 글쓴이는 ㉮의 상황에서 자연에 순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이치임을 깨닫고 있다.
④ ㉰에서 글쓴이는 늙음을 잊거나 탄식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에서 글쓴이는 요절과 장수의 차이는 늙음을 편안히 여기는지의 여부에 따른 것임을 깨닫고 있다.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시민들은 공룡에 맞서 싸우기 위해 왕을 뽑기로 한다. '시민 마'가 임금으로 선출되자 '시민 바'는 박물관장 직을 요청한다. '박물관장'이 된 '시민 바'는 석회로 만들어진 알을 들고 나와 알에서 임금이 태어날 것이라는 거짓말로 임금을 죽음으로 내몬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 알에서 위대한 임금이 아닌 공룡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군중들: (소리) 위대한 임금님이냐? 두려운 공룡이냐?

시민 라: 무엇이냐구요? 우리의 지혜로써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느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지 그것마저 의아로워집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불안은 공룡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권리가 쓸모없어졌다는 데 주의하십시오. 우린 허수아비처럼 완전히 무력(無力) 상태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장이 우리의 손과 발에 줄을 엮으면 우리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혀로써 말하고 있질 못합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우리들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의자 밑의 검붉은 반점들을 가리키며) 시민들이여, 여기 전왕의 피가 아직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생전에 멋진 모자를 썼었고, 우리는 그 모자의 아름다운 형태를 수호해 왔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의 죽음을 용인했던 것은 저 [알] 속에 위대한 임금님의 실재(實在)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룡알이라고 믿는다면, 전왕의 고귀한 희생은 무엇으로 보상되어져야 하며, 우리 시민들의 도덕적 타락은 어디에서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 다: (감동한다.) 그렇군요. 사기꾼의 헛말에 현혹될 뻔했습니다. (알을 가리키며) 나도 알 속에는 위대한 임금님이 계시다고 믿겠습니다.

시민 가: 나 역시 알 속의 임금님을 믿습니다.

시민 나: 나는 새삼스레 저 알 속의 임금님을 믿겠노라 말하진 않겠어요. 그것은 내가 사람인 것처럼 자명한 사실이니까.

시민 라: (군중들에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태양은 이 알과 우리 모두를 함께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무렵엔 위대하신 임금님이 부화되어 나오십니다. 시민들은 사기 도박꾼에 대항하여 이 알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를 맹세합니다.

군중들: (환호성) ㉡위대한 임금님 만세!

(박물관장이 왕의 복장으로 들어온다.)

박물관장: (답례의 손을 흔들며) 나를 보라! 너희를 무서운 공룡으로부터 구출하실 위대한 임금님이 나오셨다.

군중들: (분노의 소리) 우리들은 알을 택한다. 너는 물러가라!

박물관장: 미친 놈들이군. 사람 잡는 공룡을 왕으로 삼으려 하다니. (시민 대표 나를 손가락으로 쿡 찌르며) 어디, 말 좀 해 보려무나. 저 알 속에 든 건 공룡이 아니라 임금님이라고 믿는 이유를?

시민 나: (확신에 가득 차서) 내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장: 누가 너더러 사람이 아니래? 알 속에 임금님이 들어 있다는 증거를 대 보란 말이야.

시민 나: (머뭇거리다가 다를 가리키며) 이 옆 사람이 그것을 믿기에 나도 믿습니다.

박물관장: 그래? (다에게) 넌 왜 믿지? 증거가 뭐야?

시민 다: (우물쭈물하다가 가를 가리키며) 이 옆 사람이 증거입니다. 나는 그를 따라 믿습니다.

박물관장: (가에게) 너, 대답해 봐.

시민 가: (라를 가리키고) 이 사람이 믿으라고 해섭니다.

시민 라: (박물관장 앞으로 나서며) 인간의 도덕적 품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알 속엔 위대한 임금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박물관장: 허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릴 하는 건지 모르겠군. (공룡의 무서운 동작을 흉내 내며) 알 속에는 공룡이 들어 있단 말이야. 그 괴물이 부화되어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기나 해? 너희들은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대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어야 한다구. (알에 다가가서 위험한 물건에 손을 대듯이 슬쩍 만져 보고) 햇빛을 받아 알이 뜨듯해지기 시작했군. 이크! 벌써 꿈틀거린다!

시민 나: ㉠으악! (비명을 지르며 달아난다.) 살기 위해 나는 간다!

(중략)

시민 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땅에 엎드리어 신왕(新王)에게 기어 와 그의 발에 입 맞추며) 우리들의 왕이시여,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고 그 알 속에 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진실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은 기꺼이 전하를 섬기겠습니다.

박물관장: 임금의 자리란 왕관이나 칭호로써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약점을 잡아 그들의 복종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넌 알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시민 라: 위대한 임금님이었습니다.

박물관장: 그럼 그것을 믿어라.

시민 라: 그러나 진실을 고백하자면 혹시 공룡이 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품고 있습니다.

박물관장: 공룡이 들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시민 라: 네.

박물관장: 그럼 그것을 믿어라.

시민 가: 전하, 부디 둘 중에 하나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박물관장: 알 속엔 무엇이 들었었는지 정말 알고 싶은가?

시민 라: 그렇습니다.

박물관장: (상자 속에서 칼을 꺼내 라의 앞에 던져 주며) 우리 다시 한번 더 노름을 하자. 그 칼은 내가 전왕을 겨누었던 칼이다. 이번에는 네가 나를 찔러 보라. 나는 결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임금이다. 너희들에게 이를 데 없는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칼을 쥐고 나를 찌르라. 자, 어서 찔러. 네가 나를 찌르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찌르게 된다!

시민 라: (칼을 쥐고 박물관장에게 다가간다. ㉢그의 가슴에 칼을 대었다가 힘없이 툭 떨어뜨린다.) 당신을 죽이면 알 속에 무엇이 들었었는지 영원히 모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들의 고뇌를 해결할 수도 없구요. 나는 당신을 죽이지 못하겠습니다.

– 이강백, 「알」

[22001-0197]

0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민 라'는 박물관장을 통해 알에 관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② '시민 나'는 알 속에 공룡이 있다는 '시민 라'의 말에 의심을 품었다.
③ '박물관장'은 알 속에 임금님이 들어 있다고 믿는 시민들을 추궁하였다.
④ '시민 가'와 '시민 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좇아 알 속에 임금님이 있다고 믿었다.
⑤ '박물관장'은 알에서 공룡이 부화하여 시민들을 해칠 것이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22001-0198]

02 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민들의 과거 기억을 환기시키는 소재로, 사건의 전말을 드러낸다.
②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로, 등장인물의 심리 변화를 유발한다.
③ 박물관장의 남다른 식견을 드러내는 소재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④ 박물관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잊게 하는 소재로, 등장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한다.
⑤ 시민들이 박물관장으로부터 받고 있던 의심을 해소하는 소재로, 긍정적 결말을 암시한다.

[22001-0199]

03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장막극인 「알」은 '권력자-군중-개인'의 인물 구도가 선명한 작품이다. 권력자인 '박물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알 속에 임금님이 있다, 공룡이 있다'를 반복하며 군중을 고통에 빠뜨린다. 개인인 '시민 라'는 자신이 속한 세계의 질서가 어그러져 있음을 깨닫고 권력자에게 의심을 품으며 그가 은폐해 놓은 세계의 음험함을 폭로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독점을 통한 권력 형성과, 그로 인한 등장인물 간의 권력관계가 드러난다.

① ㉠: 자신이 속한 세계의 질서가 어그러져 있음을 깨달은 '시민 라'가 군중을 향해 권력의 형성에 따른 문제점을 폭로하고 있다.
② ㉡: '알 속의 임금님'을 기대하며 권력자인 '박물관장'에 대항하여 싸울 것을 다짐하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③ ㉢: '박물관장'의 말에 현혹된 군중의 반응으로, 권력자의 말에 의심을 품지 못하고 있다.
④ ㉣: 정보의 독점을 통해 권력을 형성한 '시민 라'보다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하여 스스로 은폐해 놓았던 세계에 관한 정보를 폭로하고 있다.
⑤ ㉤: 권력자인 '박물관장'과 개인인 '시민 라'의 대립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권력자의 우위가 드러나고 있다.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 노인: 사실이야! 빌어먹을 것! (좌우의 높은 집들을 쏘아보며) 무슨 집들이 저따위가 있어! 게다가 저것들 등쌀에 우린 일 년 열두 달 햇볕 구경이라곤 못 하게 되었지! 당신도 알겠지만 옛날에 우리 집이 어디 이랬소?

경운: (웃으며) 아버지두……. 세상이 밤낮으로 변해 가는 시대인데요…….

최 노인: ㉠변하는 것도 좋구 둔갑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지만 글쎄 염치들이 있어야지 염치가!

경운: 왜요?

최 노인: 제깟 놈들이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 온 장안 사람들에게 내보라는 듯이 저따위로 층층이 쌓아 올릴 줄만 알고 이웃이 어떻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모르니 말이다!

경운: 피해라뇨?

최 노인: (화단 쪽을 가리키며) 저기 심어 놓은 화초며 고추 모가 도모지 자라질 않는단 말이야! 아까도 들여다보니까 고추 모에서 꽃이 핀 지는 벌써 오래전인데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해 봤더니 저 멋없는 것이 좌우로 탁 들어 막아서 햇볕을 가렸으니 어디 자라날 재간이 있어야지! 이러다간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게다! 말세야 말세!

(이때 경재 제복을 차려입고 책을 들고나와서 신을 신다가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는 깔깔대고 웃는다.)

경재: 원 아버지두…….

최 노인: ㉡이눔아 뭐가 우스워?

경재: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밭을 넘어다보며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 노인: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경재: 옛날 일이 오늘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은 오늘이지. (웅변 연사의 흉을 내며) 역사는 강처럼 쉴 새 없이 흐르고 인생은 뜬구름처럼 변화무상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도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에헴!

(중략)

경재: 절 보기 싫으면 중이 나가죠?

최 노인: 그래……. 왜 그건 또 묻는 거냐?

경재: (좌우 고층 건물을 가리키며) 저게 뵈기 싫으니 우리가 떠나야죠!

최 노인: 뭐, 뭐라구?

경재: 시외로 가면 후생 주택이 얼마든지 있대요. 집값도 싸고 무엇보담도 터전이 넓어서 화초며 채소는 얼마든지 심어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공기 좋고 조용하고 집집마다 맑은 우물이 있고 아주 멋지게 살 수 있대요.

어머니: 참 창용이네도 지금 들어 있는 집을 팔고 그 후생 주택으로 옮긴답데다.

최 노인: ㉢그렇게 가고 싶걸랑 따라가 살구려! 난 **이 집에서 났으니 이 집에서 죽을** 테니까!

경재: (일부러 과장된 표정으로) 원자탄 고집 폭발이다! 다녀오겠습니다!

(하며 급히 뛰어나간다. 이때 대문 안에 아침 목욕에서 돌아오는 경애 등장, 그의 손엔 목욕용 세숫대야며 화장품이 들렸고 얼굴엔 콜드크림이 범벅되어 반지르르 기름이 흐른다. 머리는 핀컬을 감은 채로다.)

경재: '미쓰 코리아'가 돌아오시네! / **경애**: 까불어?
경재: 도대체 큰누나는 언제 영화에 출연하는 거요? / **경애**: 가까운 장래! (하며 마루에 앉는다.)
경재: 혜성처럼 나타난 '뉴 페이스' 최경애 양인가? / **경애**: 한국의 '킴 노박'이다!
경재: 하나님 맙수사! '최 호박'이 안 되었으면…….
경애: 아니 이 녀석이! (하며 때리려 하자 소리를 지르며 퇴장)
최 노인: ㉣경재란 놈은 어디 가든 제 밥벌이는 할 거야. (하며 만족한 웃음을 띠운다.)
어머니: 좀 경한 편이죠. (경애에게) 웬 목욕이 그렇게 오래 걸리니?
최 노인: 그래도 밤낮 익모초 씹는 쌍판보다는 낫지! 이 집에 그 누구처럼…….

(어머니와 경운은 뜻 품은 시선을 서로 던진다. 경애는 손톱에 손질을 하고 있다.)

최 노인: 경수 녀석은 어젯밤에도 안 들어왔지? (하며 험악한 시선을 던진다.)
어머니: (변명하듯) 어디 친구네 집에서나 잤겠죠…….
최 노인: (성을 내며) 제집과 남의 집 분간도 못하는 놈이 어디 있어? (하며 담배를 다시 피워 문다.)
어머니: 내버려 두시구려! 어디 그 애에게 그런 재미도 없어서야 되겠수?

[A]
최 노인: 재미? 지금 우리 형편이 재미를 보기 위해서 살아갈 팔자야?
어머니: 그렇지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최 노인: 당신은 좀 잠자코 있어! (하고 소리를 벌컥 지른다. 경운은 빨랫줄에다 빨래를 널며 눈치만 보고 경애는 재빨리 건넌방으로 들어간다.)
최 노인: 사람이란 얌치가 있어야 하는 법이야! 제 놈이 군대에 갔다 왔으면 왔지 놀고먹으라는 법은 없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내일모레 삼십 고개를 바라보는 녀석이 취직이 안 된다 핑계 치고 비슬비슬 놀고만 있으면 돼? 첫째로 경운이 미안해서도 그럴 수는 없지!
경운: 아이 아버지두……. 오빠인들 속조차 없겠어요? **아무리 일자리를 구할려고 해도 안 써 주**는걸……. 사회가 나쁘지 오빠야 무슨 잘못이에요? / **어머니**: 사실이에요…….
최 노인: 뭐가 사실이야? 나이 어린 누이가 그 굴속 같은 인쇄 공장에서 온종일 쭈구리고 앉아서 활자 줍는 노동으로 벌어들인 쥐꼬리만 한 월급에만 의지하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야? 나도 가게가 전과 같이 세가 난다면 이런 소리도 않지. 허지만 **골목 안 똥개까지 신식만을 찾는 세상**이라 사모관대나 원삼 쪽도리 따위는 이제 소꼽장난으로 아니 장사가 돼야지! 지난 봄철만 하드라도 꼭 네 번 밖에 안 나갔지 뭐야! 이럴 때 그 신식 나이롱 면사포나 두어 벌 장만한다면 또 모르지만…….

경애: (화장하던 얼굴을 내밀며)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최신식 미제 면사포**를 사 올 테니까요.
최 노인: ㉤네 말은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안 믿겠다! 네가 활동사진 배우가 되기를 기다리다간 엉뎅이에 없는 꼬리가 나게 됐어!
경애: 두고 보세요. 오늘은 꼭 무슨 기별이 있을 테니까.

– 차범석, 「불모지」

[22001-0200]

01 ㉠~㉤에서 드러나는 '최 노인'의 심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집 주변에 건물을 짓는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
② ㉡: 자신의 말을 듣고 웃는 경재의 모습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③ ㉢: 아내에게 후생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려 하고 있다.
④ ㉣: 경재가 집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공감해 준 점을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⑤ ㉤: 허황된 기대를 품고 있는 경애의 다짐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22001-0201]

02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징성을 띠는 무대 소품을 매개로 인물과 관객이 소통하고 있다.
② 무대 배경의 교체로 인해 인물이 처한 부정적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③ 대화를 주도하던 인물의 퇴장으로 인해 인물 간 대화의 화제가 전환되고 있다.
④ 무대에 등장하지 않은 인물에 대한 태도의 차이로 인해 인물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⑤ 지시문에 의한 인물의 행동으로 인해 그 행동을 수행하는 인물의 성격이 희화화되고 있다.

[22001-0202]

0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6·25 전쟁 이후 혼란기에 서울 중심부에서 살아가는 한 가정을 통해 당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 준다. 근대화와 도시화로 인해 기존의 질서가 해체되는 가운데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이 등장하며, 제각기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신세대들이 이와 대립각을 세운다. 그러나 신세대들 역시 방황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불모지'라는 제목이 보여 주듯 당대의 현실이 그만큼 암담했기 때문이다.

① 경재가 내세운 '이 역사적인 사실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은, 기존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겠군.
② 최 노인이 '이 집에서 났으니 이 집에서 죽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에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려는 구세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③ 경수가 '아무리 일자리를 구할려고 해도 안 써 주'는 처지에 놓인 상황은, 전후의 암담한 현실에 놓인 신세대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④ 최 노인이 '골목 안 똥개까지 신식만을 찾는 세상'에 대해 한탄하는 대목에서, 근대화로 인해 기존의 전통이 해체되어 가는 시대 상황이 드러나는군.
⑤ 경애가 사 오겠다고 하는 '최신식 미제 면사포'는 그 필요성 여부를 놓고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과 신세대가 대립하는 원인이 되는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88. 나무 아래

맥고모자 호주머니를 뒤져서 은박지에 싼 초콜릿을 꺼내며,

형사: 삼촌한테 꼭 전할 말이 있어서 그래. 삼촌이 어디 있는지 얘기해 주면 내 이걸 주지.

㉠눈이 커지는 동만의 얼굴.

형사: 너 이런 거 먹어 본 적 있어?

은박지를 까서 윤기 흐르는 ⓐ흑갈색의 초콜릿을 코앞에 보인다. / 향긋한 냄새.

형사: 초콜릿이야. 네가 대답만 허면 이걸 다 줄 테다. 뭐 조금도 부끄러워할 것 없다. ㉡착한 아이는 상을 받는 것이니까.

동만: ……

꿀꺽 침이 넘어가는 동만. / 뚫어지게 초콜릿만 노려본다.

형사: 싫어? 그렇다면 이거 버려야겠구나. 아저씨는 이거 먹기 싫구…….

㉢한 조각 뚝 떼서 땅에 버리고 구둣발로 문지른다. / 더욱 눈이 뚱그레지는 동만.

형사: 난 네가 굉장히 똑똑한 앤 줄 알았는데 안됐구나.

또 한 조각 떼어서 짓뭉개 버린다. / 불불 떨리는 동만. / 왠지 눈물이 나는 동만.

형사: 녀석, 우는구나? 인제라도 늦지 않어. 잘 생각해 봐. 삼촌이 집에 왔었지? 그게 언제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동만. / 와락 초콜릿을 잡으며,

동만: 아저씨, 진짜지유? 진짜 우리 삼촌 친구지라?
형사: (웃으며) 그럼 긴히 상의할 일이 있어서 그런다니까.
동만: ㉣삼촌 왔다 갔으라우. 그저께 밤에 왔다 갔으라우.

벌써 초콜릿은 주머니 속에 들어간다.

형사: 그래서? 자세히 얘기해 봐.

날카로운 눈길 뜨며 귀담아듣는 맥고모자. / 무어라 얘기하는 동만의 모습.

S#89. 동만의 집 앞

옥이랑 나란히 어딘가 다녀오는 동만.

손에는 푸득거리는 까치 새끼 세 마리를 들고 있다.
동네 사람들이 ⓑ동만네 집 앞에 여러 겹으로 싸여 있다.
이상해서 까치 새끼를 옥이에게 건네주고 다가오는 동만.
사람들이 물결처럼 흩어지며 안에서 결박 지운 아버지를 끌고 나오는 ⓒ맥고모자의 사내.

동만: 어.

눈이 화등잔만 하게 찢어지며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는 동만. / 고개를 숙이고 끌려가는 아버지.
뒤에서 맥고모자의 사내가 동만을 흘낏 보고 지나간다.
너무도 큰 충격에 발이 떨어지지 않는 동만.
동리 사람들이 흩어져 가면서 동만을 의미심장한 눈초리로 보면서 무어라 저희들끼리 수군대고 간다.
그래도 얼이 빠진 듯 그 자리에 서 있는 동만. / 이어서 집 안에서 찢는 듯한 ⓓ여인들의 통곡 소리.

옥이: 너 엄니 울어. 어서 들어가 봐.

쭈뼛쭈뼛 안으로 들어가는 동만.

S#90. 동만네 집 안

친할머니, 어머니, 고모가 한데 엉켜 울어 대고 있다가 들어서는 동만을 보고,

친할머니: 이놈이 천하에 벼락 맞을 놈.

벼락같이 소릴 지르며 내달려 온다. / 겁결에 뒤로 피하는 동만.

친할머니: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과자 한 조각에 삼촌까지 팔아먹는 무지막지한 사람 백정놈, 이놈 썩 나가라 이 주리를 틀 놈.

ⓔ부지깽이를 들고 와 사정없이 동만의 등줄기를 후려친다. / 금세 죽어 가듯 비명을 질러 대는 동만.
죽일 듯이 두들겨 패는 친할머니. / 그때 외할머니 나와서 안타깝게 바라보며,

외할머니: 고만 혀 두시오……. 어린것이 뭐 안다고.
친할머니: 오냐. ⓕ이젠 너그들끼리 한통속이 되야서 이 집안에 씨를 말릴 작정이구나……. 하나는 악담을 허고 하나는 밀고를 허고…….
외할머니: 아이가 알고서야 그랬겠소?

동만을 싸안고 사랑채로 간다.

친할머니: 어이구! 어이구! 이 일을 어쩐디야 집안이 망혀두 곱게 망혀야제. 이 이 일을 어쩐디야.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한다.

– 윤흥길 원작, 윤삼육 각색, 「장마」

[22001-0203]

0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형사가 꺼내 든 초콜릿을 보고 먹고 싶은 마음이 일고 있다.
② ㉡: 삼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주며 회유하고 있다.
③ ㉢: 사실을 말하지 않으려는 동만의 행동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④ ㉣: 초콜릿을 먹고 싶다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형사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
⑤ ㉤: 외할머니의 발언을 자신의 아들이 고난을 겪게 하려는 의도로 간주하며 격분하고 있다.

[22001-0204]

02 〈보기〉의 ㉮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시나리오는 영화의 촬영을 전제로 하는 대본입니다. 시나리오와 같은 극 갈래에서는 어떤 인물이 겪는 사건이나 갈등이 대사와 행동뿐만 아니라 배경, 의상, 소품, 음악과 음향 효과 등을 통해서도 형상화됩니다. ㉮여러분이 연출가라면 ⓐ~ⓔ를 어떻게 연출하면 좋을지 말해 봅시다.

① ⓐ: 삼촌에 관한 이야기를 두고 동만이 심리적 갈등을 일으킬 만큼 크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초콜릿이 소품으로 적절하겠어요.
② ⓑ: 동만의 가족에게 심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도록 동만의 집 쪽을 에워싼 동네 사람들과 함께 동만의 집을 배경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겠어요.
③ ⓒ: 끌려가는 아버지를 곧 풀어 줄 것임을 암시하는 밝은 색깔의 모자가 의상으로 적절하겠어요.
④ ⓓ: 끌려간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슬픔이 드러나는 음향 효과로, 동만의 집 안에서 들려오는 것이 적절하겠어요.
⑤ ⓔ: 친할머니가 동만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며 즉흥적으로 집어 들고 휘두를 수 있는 막대기가 소품으로 적절하겠어요.

[22001-0205]

03 **윗글이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고 할 때, 윗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그러던 두 분 사이에 얼추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저 사건—내가 낯모르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 과자를 얻어먹은 일로 할머니의 분노를 사면서부터였다.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 나는 짐승만도 못한, 과자 한 조각에 제 삼촌을 팔아먹은, 천하에 무지막지한 사람 백정이었다. 외할머니가 유일한 내 편이 되어 궁지에 몰린 외손자를 감싸고 역성드는 바람에 할머니는 그때 단단히 비위가 상했던 것이다.

– 윤흥길, 「장마」

① 〈보기〉에서 '나'의 시선으로 서술된 사건을 S#89나 S#90에서는 각각의 등장인물이 자신의 대사나 행동으로 연기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보기〉에서 '낯모르는 사람'으로 표현된 등장인물을 S#88에서는 '형사'라는 구체적인 직업의 배역으로 설정하여 등장인물의 정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③ 〈보기〉에서 '할머니'가 '그때 단단히 비위가 상했던' 원인을 S#89에서는 '쭈뼛쭈뼛 안으로 들어'오는 '동만'의 행동으로 제시하여 '동만'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있다.

④ 〈보기〉에서 서술자인 '나'가 전하는 '할머니의 말'을 S#90에서는 '친할머니'의 감정적인 대사와 함께 죽일 듯이 두들겨 패는 행동으로 지시하여 '친할머니'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⑤ 〈보기〉에서 '궁지에 몰린 외손자를 감싸'는 '외할머니'의 '역성'을 S#90에서는 '외할머니'가 '친할머니'를 향해 대사를 하며 동만을 싸안고 사랑채로 가는 행동으로 연기하도록 하여 '친할머니'의 행동과 대조를 이루게 하고 있다.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13. 광화문 앞 (낮)

혜강 맨 앞에 앉아 있고, 유생들 뒤에 앉아 "전하!" 하며 시위하고 있는데……

순간, 광화문이 활짝 열리면서, 내시와 궁녀들이 의자와 괘도 등을 들고 와 시위하는 유생들의 앞에 놓는다. 이게 뭔가 싶은데…… 이때 이도가 걸어 나와 혜강의 앞에 앉는다. 경비를 서고 있던 채윤도 그런 이도를 의아하게 본다.

혜강: (그런 이도를 보며) 전하! 어찌 성리학을 버리시고 스스로 이적이 되려 하시옵니까?

이도: 좋소! 허면…… 글자를 만드는 일이 어찌 성리학을 버리는지부터 논하도록 합시다. (하고는 유생들 모두에게) 누구든 나와 자유로이 얘기하라!

cut. 이도의 괘도에 크게 쓰여 있는 '武(무)' 자. 앞엔 혜강이 있다.

혜강: 중국의 한자는 그냥 글자가 아니옵고…… 그 자체로 유학의 도이며, 개념이옵니다. (화면은 '무' 자 보이며) 보시옵소서……. 싸울 무 자에는 '창'과 '그치다'라는 두 개의 글자가 들어 있사옵니다.

이도: (보고)

혜강: 즉 싸울 무 자 자체에 싸움을 그치게 하라는 의미와,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한 싸움이라는 '유학의 도'가 들어 있는 것이옵니다. 헌데…… 다른 이적의 글자에 이런 도가 있을 수 있사옵니까?

이도: …….

혜강: 전하의 글자는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사옵니까?

채윤: (보는데)

이도: 아니오, 없소.

혜강: (그럼 그렇지) 헌데 어찌 유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시옵니까?

이도: 허면…… 말이오……. (하며 괘도로 간다.)

cut. 괘도엔 '作開言路 達四聰'이라 써 있고, 앞엔 이도가 서 있다.

이도: 작개언로 달사총……, 즉 언로를 틔워 사방 만민의 소리를 들으라. 이것은 유학에서 임금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오.

혜강: 예……, 전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면 되옵니다.

이도: (무시하고) 삼봉 정도전의 『경제문감』에 이르기를.

혜강: (멈칫) / **모두:** (멈칫)

이도: 요순 3대에는 간관이라는 관리가 없었음에도 언로는 넓었으나 진나라 때 모든 비방을 금지한 뒤, 한 나라에 이르러 언로를 터 주기 위해 간관을 만들었으나 간관이라는 관리가 생기면서 언로는 더욱 막히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채윤: (보는데) / **혜강:** …….

이도: 이는 말이오……. 한자를 아는 자가 관료가 된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오. (점점 힘을 주어 목소리를

크게 하며) 한자가 어렵기에…… 백성이 그들의 말을 임금께 올리려면 관료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채윤: (보는데)

이도: 그 관료들은 백성의 소리를 왜곡, 편집하여 올린 것이오! 하여 언로가 막혔다 쓴 것이오! 삼봉은!

혜강: …….

이도: 난 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덕목, 언로를 틔워 주고 싶고, 하여…… 백성의 글자가 필요하다 판단하였소. 내가 어찌 유학을 버린 것이오?

채윤: (보는 데서 cut.)

S#14. 경복궁 일각 (낮, ㉠S#14~16 몽타주)

한곳에 관리들 모여 있고 이도가 그 앞에 서서

장은성: 하오나…… 더 쉽다는 이유로 한자를 버리는 선비들이 늘면 어찌하옵니까? (cut.)

이도: 선비란 배우는 것이 직업이다. 더 쉬운 것이 있다 하여 한자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비의 탓이지, 백성의 글자를 만든 내 탓도, 백성의 탓도 아니다. (cut.)

S#15. 성삼문 술 마신 곳 (낮)

돌아가려는 관리들을 붙잡고는

이순지: 『삼강행실도』를 그림으로 그려 배포하여도 패륜의 죄를 저지르는 자는 있는 것이옵니다. 사람의 선악은 그 사람의 자질에 달려 있는 것이지……. (cut.)

이도: (버럭) 네놈이 선비냐? 네놈이 유학자야? 유학의 근본은 끊임없는 수양으로 인간 본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자질이 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유학에서 어찌 교화를 임금의 책무로 말한단 말이냐? (cut.)

S#16. 경복궁 어느 곳 (낮)

상소를 쓰고 있는 관리들을 붙잡고는

심종수: 『농사직설』을 백성들에게 그리도 전파하고 싶으시다면 관리의 수를 늘려 백성에게 전파하면 되는 것이옵니다. (cut.)

이도: 그 많은 관리들의 녹봉은 어디서 나오는가? 관리를 부양하는 것이 바로 백성이지 않은가? 관리를 늘리는 것은 백성을 더욱더 피폐하게 한다. (cut.)

등등 계속 이어지는 이도의 강변 몽타주.

– 김영현 · 박상연, 「뿌리 깊은 나무」

[22001-0206]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화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② 시간의 역전적인 흐름을 통해 갈등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③ 동일한 공간적 배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을 열거하고 있다.
④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을 병치하여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⑤ 특정 인물이 경험하는 외적 갈등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22001-0207]

02 S#13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혜강은 구체적 예시를 통해 이도의 글자가 지닌 단점을 부각하고 있다.
② 혜강은 이도가 글자를 만드는 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③ 이도는 자신이 글자를 만드는 뜻을 밝히며 혜강의 견해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④ 이도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여 글자를 만드는 일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
⑤ 이도는 지난날 혜강이 저질렀던 독단과 횡포를 언급하며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22001-0208]

03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몽타주(montage)는 프랑스어로 조합, 편집이란 뜻으로, 영화나 드라마의 특정한 편집 기법을 일컫는 용어이다. 초기의 몽타주는 짧은 컷을 병치해 충돌과 갈등을 유발하고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현대 영화에서 몽타주는 하나의 주제를 강조하거나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기 위해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압축해 보여 주는 데 활용되었다. 따라서 몽타주는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기도 하고, 관객의 흥미를 유도하는 시각적 효과로 사용되기도 한다.

① 여러 개의 컷을 통해 한자와 구별되는 한글의 다양한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부각하고 있군.
② 여러 개의 짧은 컷이 연속되며 이도가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 압축적으로 제시됨으로써 관객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군.
③ 여러 개의 컷이 연속되며 한글 창제를 둘러싼 논란을 제시하여 한글 창제의 방법에 대한 관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군.
④ 여러 개의 짧은 컷을 통해 이도와 신하들 간의 다양한 논쟁을 제시하여 한글 창제의 과정이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군.
⑤ 여러 개의 짧은 컷을 통해 한글 창제에 반대하는 신하의 말에 대응하는 이도의 말이 집중적으로 제시됨으로써 주제 의식이 부각되고 있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건너편 **팔봉산**에는 노루와 멧돼지가 있답니다. 그리고 기우제 지내던 개골창까지 내려와서 가재를 잡아먹는 '곰'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동물원에서밖에 볼 수 없는 짐승, 산에 있는 짐승들을 사로잡아다가 동물원에 갖다 가둔 것이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을 이런 산에다 내어놓아 준 것만 같은 착각을 자꾸만 느낍니다. 밤이 되면, 달도 없는 그믐 칠야(漆夜)에 팔봉산도 사람이 침소로 들어가듯이 어둠 속으로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A] 그러나 공기는 수정처럼 맑아서 **별빛**만으로라도 넉넉히 좋아하는 누가복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 별이 도회에서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나옵니다. 하도 조용한 것이 처음으로 별들의 운행하는 기척이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B] 객줏집 방에는 석유 등잔을 켜 놓습니다. 그 도회지의 석간(夕刊)과 같은 그윽한 냄새가 소년 시대의 꿈을 부릅니다. **정 형! 그런 석유 등잔 밑에서 밤이 이슥하도록 '호까'—연초 갑지—붙이던 생각이 납니다.** 베짱이가 한 마리 등잔에 올라앉아서 그 연둣빛 색채로 혼곤한 내 꿈에 마치 영어 '티(T)' 자를 쓰고 건너긋듯이 유다른 기억에다는 군데군데 언더라인을 하여 놓습니다. 슬퍼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회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같은** 그 성악(聲樂)을 가만히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이발소 가위 소리와도 같아집니다. 나는 눈까지 감고 가만히 또 자세히 들어 봅니다.

그리고 비망록을 꺼내어 머룻빛 잉크로 산촌의 시정(詩情)을 기초(起草)*합니다.

그저께 신문을 찢어 버린 / 때 묻은 **흰 나비**
봉선화는 아름다운 애인의 귀처럼 생기고
귀에 보이는 지난날의 기사

얼마 있으면 목이 마릅니다. 자릿물—심해처럼 가라앉은 냉수를 마십니다. 석영질 광석 내음새가 나면서 폐부에 한란계(寒暖計) 같은 길을 느낍니다. 나는 백지 위에 싸늘한 곡선을 그리라면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석(靑石) 얹은 지붕에 별빛이 내리쪼이면 한겨울에 장독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벌레 소리가 요란합니다. 가을이 이런 시간에 엽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 오는 까닭입니다. 이런 때 참 무슨 재주로 광음*을 헤아리겠습니까? 맥박 소리가 이 방 안을 방째 시계를 만들어 버리고 장침과 단침의 나사못이 돌아가느라고 양쪽 눈이 번갈아 간질간질합니다. 코로 기계기름 냄새가 드나듭니다. 석유 등잔 밑에서 졸음이 오는 기분입니다.

[C]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처럼 생긴 도회 소녀가 나오는 꿈을 조금 꿉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도회에 남겨 두고 온 가난한 식구들을 꿈에 봅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사진처럼 나란히 늘어섭니다. 그리고 내게 걱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만 잠이 깨어 버립니다.

죽어 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여 봅니다. 벽 못에 걸린 다 해어진 내 저고리를 쳐다봅니다. **서도(西道) 천 리**

를 나를 따라 여기 와 있습니다그려!

등잔 심지를 돋우고 불을 켠 다음 비망록에 철필*로 **군청 빛 '모'**를 심어 갑니다. 불행한 인구(人口)가 그 위에 하나하나 탄생합니다. 조밀한 인구가.

[D] 내일은 진종일 화초만 보고 놀리라, 탈지면에다 알코올을 묻혀서 온갖 근심을 문지르리라, 이런 생각을 먹습니다. 너무도 꿈자리가 뒤숭숭하여서 그러는 것입니다. 화초가 피어 만발하는 꿈, 그라비어 원색판 꿈, 그림책을 보듯이 즐겁게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설명을 위하여 상쾌한 시를 지어서 7포인트 활자로 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회에 **화려한 고향**이 있습니다. 활엽수만으로 된 산이 고향의 시각을 가려 버린 이 산하에 팔봉산 허리를 넘는 철골 전신주가 소식의 제목만을 부호로 전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볕에 시달려서 마당이 부스럭거리면 그 소리에 잠을 깨입니다. **하루라는 '짐'이 마당에 가득한 가운데** 새빨간 잠자리가 병균처럼 활동합니다. 끄지 않고 잔 석유 등잔에 불이 그저 켜진 채 소실된 밤의 흔적이 낡은 조끼 '단추'처럼 남아 있습니다. 작야(昨夜)를 방문할 수 있는 요비링*입니다. 지난밤의 체온을 방안에 내어 던진 채 마당에 나서면 마당 한 모퉁이에는 화단이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듯한 맨드라미꽃 그리고 봉선화.

[E] 지하에서 빨아올리는 이 화초들의 정열에 호흡이 더워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처녀 손톱 끝에 물들 봉선화 중에는 흰 것도 섞였습니다. 흰 봉선화도 붉게 물들까— 조금도 이상스러울 것 없이 흰 봉선화는 꼭두서니 빛으로 곱게 물듭니다.

수수깡 울타리에 **오렌지 빛** 여주가 열렸습니다. 당콩 넝쿨과 어우러져서 **세피아 빛**을 배경으로 하는 일 폭의 병풍입니다. 이 끝으로는 호박 넝쿨 그 소박하면서도 대담한 호박꽃에 스파르타식 꿀벌이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농황색에 반영되어 **'세실. 비(B). 데밀'의 영화**처럼 화려하며 황금색으로 사치(奢侈)합니다. 귀를 기울이면 르네상스 응접실에서 들리는 선풍기 소리가 납니다.

– 이상, 「산촌 여정」

* **기초**: 글의 초안을 잡음.
* **철필(鐵筆)**: 펜촉에 펜대를 끼워 글씨를 쓰는 기구.
* **광음(光陰)**: 햇빛과 그늘, 즉 낮과 밤이라는 뜻으로, 시간이나 세월을 이르는 말.
* **요비링**: 초인종의 일본어 표현.

[22001-0209]

01 **[A]~[E]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A]: 별이 빛나는 고요한 산촌의 밤에 대한 느낌
② [B]: 석유 등잔과 관련된 추억과 베짱이 울음소리에 대한 감상
③ [C]: 꿈속에서 본 가족의 모습과 가족에 대한 걱정
④ [D]: 뒤숭숭한 마음을 달래며 즐겁게 꿈을 꾸고 싶은 마음
⑤ [E]: 화단의 식물들을 보며 떠올린 자신의 과거와 그에 대한 그리움

[22001-0210]

0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 형! 그런 석유 등잔 밑에서 밤이 이슥하도록 '호까'—연초 갑지—붙이던 생각이 납니다.'를 통해 특정 인물을 지칭하며 과거의 일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도회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군청 빛 '모'' 등을 통해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일부로써 전체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 '세실. 비(B). 데밀의 영화' 등을 통해 이국적 느낌을 주는 이미지를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하루라는 '짐'이 마당에 가득한 가운데'를 통해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오렌지 빛', '세피아 빛' 등을 통해 외래어와 우리말의 자연스러운 혼용을 만들어 냈음을 알 수 있다.

[22001-0211]

0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산촌 여정」은 이상이 폐결핵 치료를 위해 고향인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성천으로 요양을 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수필이다. 요양을 떠날 당시 이상은 질병, 경제적 궁핍 등으로 삶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현실 도피를 갈망하였다. 그런 그에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성천은 병마로 지친 육신의 휴식뿐만 아니라 정신적 치유도 가능하게 한 곳이라 할 수 있다.

① '팔봉산'은 낯선 곳으로, 글쓴이에게 또 다른 불안을 야기하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
② '별빛'은 글쓴이가 성천에서 느낄 수 있는 평안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③ '흰 나비'를 글쓴이로 볼 때, 때가 묻었다는 것은 성천의 자연과는 달리 순수하지 못한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
④ '서도(西道) 천 리'는 글쓴이가 느끼는 도회와 성천 사이의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⑤ '화려한 고향'은 글쓴이가 살았던 도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강원도 명주군 사천리에 있는 **애일당(愛日堂) 옛터**를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당대 최고의 논객으로서 그리고 소설 「홍길동」의 작가로서 널리 알려진 교산(蛟山) 허균이 태어난 곳입니다. 지금은 작은 시비 하나가 그 사람과 그 장소를 증거하고 있을 뿐이지만 시비에 새겨진 **「누실명(陋室銘)」의 한 구절**처럼 정작 허균 자신은 그곳을 더없이 흡족한 처소로 여기고 있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 환로(宦路)에서 기방(妓房)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두량 넓은 학문의 세계로부터 모반의 동굴에 이르기까지 그가 넘나들지 않은 경계는 없었습니다. 당대 사회의 모순을 꿰뚫고 지나간 한 줄기 미련 없는 바람이었습니다. 비극적인 그의 최후에도 불구하고 양지바른 언덕과 시원하게 트인 바다, **그 어디에도 회한의 흔적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애일당 옛터에서 마음에 고이는 것은 도리어 그의 누님인 허난설헌(許蘭雪軒)의 정한(情恨)이었습니다. 조선에서 태어난 것을 한하고 여자로 태어난 것을 한하던 그녀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허난설헌의 무덤을 찾을 결심을 한 것은 오죽헌을 돌아 나오면서였습니다. 오죽헌은 당신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율곡(栗谷)과 그 어머니인 사임당(思任堂) 신 씨를 모신 곳입니다. 사임당은 마침 은은한 국화 향기 속에 앉아 **돌층계 위 드높은 문성사(文成祠)**에 그 아들인 율곡을 거두어 두고 있었습니다. 율곡 선생은 조선조 최대의 정치가이자 학자로서 겨레의 사표임에 틀림이 없고 그를 길러 낸 사임당 역시 **현모의 귀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봉건적 미덕의 정점을 확인케 하는 성역이었습니다. 극화(極化)된 엘리트주의가 곧 반인간주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곳은 분명 어떤 정점이었습니다.

나는 교산을 찾아보고 오리라던 강릉행을 서둘러 거두어 서울로 돌아온 다음 오늘 새벽 일찍이 난설헌 허초희(許楚姬)의 무덤을 찾아 나섰습니다.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자욱한 새벽안개 속을 물어물어 찾아왔습니다. 오죽헌과는 달리 허난설헌의 무덤은 우리의 상투적이고 즉각적인 판단이나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판단에서 한발 물러나 그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당신이 힘들게 얻어 낸 결론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의 철폐는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일과 직접 맞물려 있다'는 것이라면, 그리고 한 시대의 정점에 오르는 성취가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에 얼마만큼 다가서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의 생애를 읽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 당신은 이곳 지월리에도 와야 합니다. 사랑했던 오라버니의 유배와 죽음 그리고 존경했던 스승 이달(李達)의 좌절, 동시대의 불행한 여성에 대하여 키워 온 그녀의 연민과 애정, 남편의 방탕과 학대 그리고 연이은 어린 남매의 죽음. 스물일곱의 짧은 삶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육중한 것이었습니다.

사임당의 고아한 **화조도(花鳥圖)**에서는 단 한 점도 발견할 수 없었던 봉건적 질곡의 흔적이 **난설헌의 차가운 시비(詩碑)** 곳곳에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의 진실이 그대로 역사의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연마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대리 현실을 창조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만날 수 있기는 갈수록 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가 해체되고, 자신은 물론 자식과 남편마저 '상품'이라는 교환 가치 형태로 갖도록 강요되는 것이 오늘의 실상이고 보면 아픔과 비극의 화신인 난설헌이 설 자리를 마련하기는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시대를 고뇌했던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시대가 청산되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항상 역사서의 둘째 권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죽헌을 들러 지월리에 이르는 동안 적어도 내게는 우리가 역사의 다음 장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문득 의심스러워집니다.

시대의 모순을 비켜 간 사람들이 화려하게 각광받고 있는 우리의 현재에 대한 당신의 실망을 기억합니다. 사임당과 율곡에 열중하는 오늘의 모정에 대한 당신의 절망을 기억합니다. 단단한 모든 것이 휘발되어 사라지고 디즈니랜드에 살고 있는 디오니소스처럼 '즐거움을 주는 것'만이 신격의 숭배를 받는 **완강한 장벽** 앞에서 작은 비극 하나에도 힘겨워하는 당신의 좌절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지월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어린 남매의 무덤 앞에 냉수 떠 놓고 소지 올려 넋을 부르며 "밤마다 사이좋게 손잡고 놀아라."라고 당부하던 허초희의 음성이 시비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감수성과 시대가 선포되고 과거와 함께 현재의 모순까지 묻혀져 가는 오늘의 현실에 맞서서 진정한 인간적 고뇌를 형상화하는 작업보다 **우리를 힘 있게 지탱해 주는 가치**는 없다고 믿습니다.

중부 고속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의 소음이 쉴 새 없이 귓전을 할퀴고 지나가는 가파른 언덕에 지금은 그녀가 그토록 가슴 아파했던 두 아이의 무덤을 옆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정승 아들을 옆에 거두지도 못**하고, 남편과 함께 묻히지도 못한 채 자욱한 아침 안개 속에 앉아 있습니다. 열락(悅樂)은 그 기쁨을 타 버린 재로 남기고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 준다던 당신의 약속을 당신은 이곳 지월리에서 지켜야 합니다.

– 신영복,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 줍니다」

[22001-0212]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정 장소에 대한 세간의 잘못된 통념을 소개하고 여정의 체험을 근거로 이를 바로잡고 있다.
② 견문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일화들을 나열하고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본 바를 설명하고 있다.
③ 여행 장소들에서 일어난 각각의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고 그 사건들 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④ 여정의 순서에 따라 장소들에 대한 감상을 제시하면서 각 장소가 주는 인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여행 장소에 처음 방문했던 경험을 회상하면서 당시의 감상과 다시 그곳을 방문한 감상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

[22001-0213]

0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글쓴이는 '애일당 옛터'에서 허난설헌을 떠올리면서 그녀의 무덤을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있다.
② 글쓴이는 허균 시비에 새겨진 '「누실명」의 한 구절'을 통해 허균이 죽음을 맞이한 장소에 대한 상념을 떠올리고 있다.
③ 글쓴이는 '화조도'에 신사임당이 여성으로서 감내해야 했던 고통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난설헌의 차가운 시비'에 자녀의 죽음으로 인한 허난설헌의 고뇌가 나타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⑤ 글쓴이는 청자로 설정되어 있는 '당신'이 '시대의 모순을 비켜 간 사람들'의 삶에 주목하는 태도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22001-0214]

0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에는 역사적 인물들의 삶을 현재화하고 거기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글쓴이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드러나 있다. 글쓴이는 자유분방한 삶을 살면서 시대의 한계에 도전했던 허균과, 당대의 지배적 가치를 실현하여 질서의 정점에 오른 신사임당, 이이 모자를 떠올린 뒤, 이들과 허난설헌을 대비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허난설헌의 비극적 삶을 부각하면서 경쟁에 의한 성취와 쾌락만을 좇는 현대 사회의 비인간성을 문제 삼고, 인간이 겪는 아픔과 고뇌를 직시함으로써 그것을 야기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다가서야 함을 독자들에게 역설하고 있다.

① '그 어디에도 회한의 흔적을 느낄 수 없었'다는 서술에서 자유분방한 삶을 살다가 죽은 허균의 생애에 대한 글쓴이의 주관적 평가가 드러나는군.
② '돌층계 위 드높은 문성사'는 당대의 지배적 가치를 실현하여 질서의 정점에 오른 이이의 미덕을 현재화하여 절대적 가치로 인식하려는 글쓴이의 가치관이 투영된 표현이겠군.
③ '현모의 귀감임에는 틀림없'는 신사임당의 삶은, 글쓴이가 '정승 아들을 옆에 거두지도 못'한 허난설헌의 인간적 고뇌를 부각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군.
④ '완강한 장벽'은 현대 사회에서 경쟁을 통한 성취와 쾌락을 중시하는 풍조가 공고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여기는 글쓴이의 관점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표현이겠군.
⑤ '우리를 힘 있게 지탱해 주는 가치'는 인간이 겪는 아픔에 주목하려는 태도가 독자들의 삶에도 필요하다고 여기는 글쓴이의 생각을 보여 주는 표현이겠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잔치에서 물러나 오니 황상이 군기대신 아계·화신·복강안·복장안에게 명령하여 몽·회의 제왕·패륵*과 안남왕, 조선·남장·면전의 정사와 부사, 안남의 종신(從臣) 두 명에게 복해(福海)를 유람시키라고 하였다. 이에 천향재(天香齋) 앞에서 여러 대신이 한 배에 오르고, 각국의 왕과 패륵과 사신, 종신이 한 배에 올랐다. ㉠우리는 금오옥동교(金鰲玉蝀橋)로 가지 않고 바로 동남하(東南河)를 거슬러 올라 복해에 떠서 봉도요대(蓬島瑤臺)를 거쳐 위주(葦洲)를 뚫고 가서 영훈정(迎薰亭) 앞 물에서 배에서 내렸다. 호수 둘레는 오 리 남짓이며 모두 돌로 둑을 만들었다. **태호석(太湖石)을 쌓아** 섬 셋을 만들었으며, 높이는 오 장 남짓이다. **섬 꼭대기에는 다 백옥 층대를 만**들고, 층대 꼭대기에는 역시 다 작은 정자를 지었다. 붉은 기둥과 채색한 서까래에 지붕은 누런 유리로 덮었다. 이것이 봉도요대로서 원명원(圓明園) 사십 경(景)의 하나이다. 또 얕은 물과 모래 더미에 갈대를 심어 푸른 줄기가 한 길이 넘게 자라서 뱃길을 백여 보나 끼고 있으니 이것이 위주이다. 호안(湖岸)을 둘러서 흙을 쌓아 구릉과 봉우리를 만들었다. 느릅나무·버드나무·소나무·삼나무가 울창하고 경루(瓊樓)와 화표(華表)*가 겹겹이 숨었다가 드러난다. **영훈정**은 붉은 기둥이 육 면에 섰고, 아래는 벽돌을 깔았으며, 위에는 누런 유리 기와를 덮었다.

영훈정 뒤로 옥계 오십 단을 올라가면 바로 **의춘전(宜春殿)**이다. 전은 이 층이며, 복도의 조각한 창에는 금빛과 벽색(碧色)이 서로 비쳐 빛나고, 위에는 누런 유리 기와를 덮었으며, 편액에는 '방호승경(方壺勝境)'이라고 써 놓았다. 안에는 금불 세 구(軀)를 안치하고, 고동정이(古銅鼎彝)와 금옥주패 등 **기완(奇琓)*** 등을 배열하였다. 금축아첨(錦軸牙籤)이 서가와 책상에 가득하니 이는 다 **법서(法書)**와 **명화(名畫)**이다. 전정(殿庭) 좌우에는 각각 고동화로(古銅火爐)를 안치하였으며, 높이는 두 장, 지름은 다섯 척 남짓 된다. 의춘전 뒤에는 홰란전(噦鸞殿)이 있으며, 제도는 의춘전과 같고, 역시 안에는 금불을 안치하고 금옥 기완을 벌여 놓았다.

홰란전에서 동북쪽으로 구불구불 몇 리를 가면 그 사이에는 **서양 천주당**의 규모를 본떠 혹은 모나고 둥글며 혹은 육 면, 팔 면으로 석회와 기와 가루를 반죽하여 층루를 지어 놓았다. 꼭대기는 장막을 덮은 것 같고, 벽에는 신선과 조수(鳥獸)를 조각하였다. 창에는 유리 혹은 양각(羊角)을 끼웠고, 누각 앞에는 옥난간과 돌계단이며, 계단 아래에는 모두 둥근 못이 있다. 오동(烏銅)으로 십이 층 쌍탑을 섬 가운데에 만들어 놓기도 하였고, 오동으로 원숭이, 학, 코끼리, 사슴 등을 못가에 만들어 놓기도 하였다. 태호석으로 못 가운데에 섬을 쌓고, 섬 위에는 오동으로 원숭이가 일산을 펴고 웅크리고 앉은 형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였다. 누각 위에서 기계를 조작하면 탑 모퉁이와 일산 꼭대기, 짐승의 입과 새의 부리에서 **물이 비 오듯 뿜어 나**온다. 오동으로 **십이시(十二時) 신상(神象)**을 만들어 못가에 둘러서 기계를 조종하면 그 시에 해당하는 신상만이 물을 뿜고, 다른 신상은 뿜지 않는다. 각 누각 안에는 단향(檀香) 어탑(御榻)*을 설치하고, 금과 옥으로 만든 기완과 고동정, 유리 병풍 등이 여기저기 벌여 있다. ㉡종이를 뭉쳐서 한 자 남짓한 동자(童子)를 만들어서 어탑 좌우 궤안 위에 마주 보게 놓았다. 왼쪽 동자는 천금(天琴)을 끼고 있고, 오른쪽 동자는 옥적(玉笛)을 불고 있다. 기관을 궤안 바닥에 숨겨 두어서 구경하는 사람이 궤안 앞에 이르면 기관을 밟아서 두 동자를 움직인다. 서로 돌아보며 웃으며 천금을 낀 동자는 악보를 따라 현을 두드리니 성률이 맑고 시원하다. 서양 사람의 수리(數理)가 아니면 누가 이것을 만들 수 있겠는가?

– 서호수, 「열하기유」

*패륵: 부족의 수장이나 황제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왕 혹은 제후 등을 의미함.
*화표: 묘 앞에 세우는 문. 망주석 따위가 있음.
*기완: 기이한 노리개.
*어탑: 임금이 앉는 상탑. 상탑은 깔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는 여러 가지 도구로, 평상(平牀)이나 침상(寢牀) 따위가 있음.

㉯ 서산(西山)*이 좋다 함은 들은 지 오래더니
신유년(辛酉年) 서양국 놈 작변(作變)하여
아까운 **해전대궐 몇 천 간 좋은 집**을
모두 다 불을 놓아 일망무제(一望無際) 터뿐이라
보기에 수창하여 광색(光色)이 쓸쓸하다
평지에 조산(造山)하고 괴석 가산(假山) 쌓아
기암괴석 층층하고 고봉준령(高峰峻嶺) 중중(重重)하다
아름다운 푸른 봉은 산기(山氣)가 요조(窈窕)하고
그윽한 흰 바위는 동운이 영롱하다
십여 리 뻗친 산세 서산이 저기로다
산곡 틈틈이와 언덕 위에 곳곳으로
여기저기 집이 있어 배포도 장한지고
화반석(花斑石) **삼층 월대** 저기는 무슨 누각 터며
백옥으로 새긴 섬돌 저기는 무슨 정자 터인가
채색 기와 부스러져 와륵* 더미 태산 같고
㉢보패 집물(寶貝什物) 불에 타서 잿더미는 몇 곳이냐
백 간 들보 침향 도리 진주 주렴(珠簾) 산호 탑이 매운 재가 되었구나
(중략)
곳곳이 섬이 있어 주루채정(朱樓彩亭) 몇 곳인지
십칠교 긴 다리는 섬으로 건너가니
넓이는 삼 간이요 길이는 칠십여 간
좌우의 옥난간에 돌사자는 간간 있고
다리 아래 굽어보니 열일곱 홍예(虹霓) 구멍
㉣한 홍예가 얼마만 한지 우리나라 남대문만
아무리 큰 배라도 그 구멍으로 다닌다네
연못가에 구리 소는 어찌하여 누웠으며
섬 속의 층층월대 동정유승(洞庭猶勝) 정자 터라
남편 섬에 들어가는 굽은 다리 놓았으니
옥으로 높이 쌓아 길로 치면 수십여 장
층층계야 십여 층 한 마루에 올라서서

갈래 복합 01

또 층층계 사십여 층 넘어서 내려가니
그 안은 섬이라 다리 구멍 볼작시면
둥그런 홍예문이 높기도 굉장하다
㉤아무리 긴 돛대도 세운 채로 드나들며
좌우의 옥난간도 다리와 같이 굽어
백룡이 오르는 듯 멀리 보매 더욱 좋다
서산 구경 다한 후에 가만히 생각하니
처음 볼 때 당황하여 안광(眼光)이 희미하더니
자세히 보매 사치함이 심계가 자연 방탕
상천옥경(上天玉京)* 집 좋아도 이러할 수 전혀 없고
왕모요지(王母瑤池)* 좋다 해도 저렇든 못하리라
아무리 구변이 좋다 해도 형용을 다 못하니
신유년 회록(回祿)* 이후 오히려 저렇거든
그전의 전성시야 오죽이 장할쏘냐
천하 재물 허비하고 백성 인력 궁진(窮盡)하여
쓸데없는 궁사극치(窮奢極侈) 이것이 무슨 짓인고
진시황의 아방궁은 초인(楚人)이 불 지르고
송나라 옥정궁은 천화(天禍)로 재앙 나니
전감(前鑑)*이 소소(昭昭)하여 하늘의 이치가 마땅하도다

– 홍순학, 「연행가」

* **서산**: 청나라 황궁 정원인 '원명원'이 있던 곳을 가리킴.
* **와륵**: 깨진 기와 조각.
* **상천옥경**: 하늘 위 옥황상제가 사는 곳.
* **왕모요지**: 전설상의 선녀인 서왕모(西王母)가 거처하는 곤륜산 꼭대기의 아름다운 연못.
* **회록**: 불이 나는 재앙. 또는 불로 인한 재난.
* **전감**: 거울로 삼을 만한 지난날의 경험이나 사실.

[22001–0215]

0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구체적 장소를 언급한 후 그곳에 있는 대상들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③ 부정적 현실을 언급하며 삶의 허무함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④ 대상이 변해 온 과정을 소개하며 대상과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버리고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2001-0216]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대상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쓴이의 이동 과정을 전달하고 있다.
② ㉡: 두 대상의 외형을 묘사하며 시간에 따라 대상의 작동 원리가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③ ㉢: 물음의 형식과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현재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 친숙한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대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 멀리서 바라본 풍경을 비유적으로 제시하며 대상이 지닌 웅장함을 전달하고 있다.

[22001-0217]

03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조사한 자료의 일부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원명원(圓明園): 청나라 황궁의 정원. 천하의 이름난 정원과 역대 황제의 정원들을 모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양식 건축과 장식도 갖추었음. '복해' 또는 '동호'라 불리는 호수에 세 개의 인공섬을 만든 후, 각 섬마다 누각을 지었음. 누각과 누각, 섬과 섬 사이에는 다리를 놓아 건널 수 있었음. 청나라 황제는 이곳에서 정사를 수행하며, 사신들로부터 받은 귀금속, 그림, 서책 등과 같은 선물이나 진귀한 보물 등을 진열하였음. 그러나 신유년(辛酉年)인 1861년, 영국과 청나라 간의 제2차 아편 전쟁으로 크게 파괴되었으며, 특히 목조로 된 전통 건축물은 모두 소실되어 터만 남게 됨.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일부 건물과 조경을 복원하였음.

① (가)의 글쓴이가 복해 호수 안에 '태호석을 쌓아' 만든 섬과 '섬 꼭대기에는 다 백옥 층대를 만'든 곳에 내렸다는 점을 통해, 글쓴이는 원명원이 파괴되기 전에 그곳을 둘러보았음을 알 수 있군.
② (가)에서 글쓴이가 '의춘전' 안에 안치된 '기완'과 '법서', '명화' 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청나라 황제가 사신들로부터 받은 선물이나 진귀한 보물 등을 원명원에 진열했기 때문에 가능했겠군.
③ (가)의 '서양 천주당'의 규모를 본떠 만든 층루나, 누각 위에서 기계를 조작하면 '물이 비 오듯 뿜어 나'오는 형상들은 각각 원명원 내에 위치한 서양식 건축물과 장식물에 해당하겠군.
④ (나)에서 '해전대궐 몇 천 간 좋은 집'에 불을 놓은 '신유년 서양국 놈 작변'은 원명원이 파괴되는 원인이 되는 영국과 청나라 간 전쟁을 의미하겠군.
⑤ (나)에서 '십칠교 긴 다리'를 통해 섬으로 건너간 후 바라보는 '백옥으로 새긴 섬돌'과 '섬 속의 층층월대'에 올라 서산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원명원의 일부 건물이 복원되었기 때문에 가능했겠군.

[22001-0218]

0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병자호란 이후로 조선은 청나라에 매년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사행(使行)을 갔는데, 이러한 사행에서 사대부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대 지배 계층에 속했던 사대부들은 관념적·감정적으로는 청나라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그들에 대한 우월 의식을 바탕으로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사대부들은 선진 문물을 배운다는 입장에서는 새롭게 접한 청나라 문물을 객관적으로 소개하거나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놀라워하였다. 한편 사행에 참가한 이들은 자신의 사행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였는데, 이들이 남긴 사행에 관한 기록을 통해 사행자들의 여정이나, 청나라와 외래 문물을 바라보는 사행자의 개성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① (가)의 글쓴이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영훈정'이나 '의춘전'과 관련된 풍경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글쓴이가 객관적 태도를 지니고 자신이 바라보는 문물을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글쓴이는 '십이시 신상'에 대해 서양 사람의 수리가 아니면 누가 만들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글쓴이가 사행 과정에서 접한 서양의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화자는 '삼층 월대'와 '십칠교 긴 다리'와 같은 풍경을 소개한 후 그 풍경에 대한 소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사행 과정에서 목격한 풍물과 그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에 해당한다.

④ (나)에서 화자는 '진시황의 아방궁'과 '송나라 옥정궁'과 같은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청나라 사람들의 사치와 허영심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청나라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의식을 드러낸 것에 해당한다.

⑤ (나)에서 화자는 '상천옥경'과 '왕모요지'에 비유하며 서산 풍경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선진 문물을 배운다는 입장에서 새롭게 접한 청나라의 문물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무도 바이 돌도 없는** 산에 **매**에 쫓긴 ㉠까투리의 안과

대천(大川) 바다 한가운데 일천 석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닻**도 잃고 용총*도 끊고 **돛대**도 꺾이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았는데 사면이 검어 어둑 저물어 천지 적막 사나운 파도 치는데 **수적(水賊)** 만난 ㉡도사공(都沙工)의 안과

엊그제 임 여읜 ㉢내 안이야 어디다 견주어 보리오

– 작자 미상

*용총: 돛 줄.

(나) 시비가 사 씨를 계단 아래 이끌고 와 사당 앞에서 사배토록 했다. 사 씨가 하직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서니 모인 친지들이 문밖에서 작별했다. 모두 눈물을 흘리며,

"부인께서는 귀체 보중하세요. 다른 날 서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뿐이었다.

사 씨가 감사해하며 말했다.

"죄인을 위해 멀리까지 나와 송별해 주시니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어찌 다시 만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인아를 잘 보살펴 주시기만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유모가 인아를 안고 통곡하니, 사 씨가 인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행여라도 내 생각은 말고 새어머니를 잘 섬겨라. 모르겠구나, 언제 너와 다시 만날까?"

또 탄식하며 말했다.

"둥지가 기울었는데 알이 온전할 수는 없는 법이니 어찌 네가 여기 머물기를 바랄까? 나의 죄악이 매우 무거워 너에게까지 화가 미쳤구나. 그저 바라노니, 다음 생에 다시 모자가 되어 이번 생에 못다 한 인연을 잇자구나."

흐르는 눈물이 인아의 머리에 방울져 떨어졌다. 사 씨가 갑자기 눈물을 거두고 말했다.

"소사*께서 돌아가실 때 내가 죽지 못했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따르지 못했는데 어찌 강보에 싸인 어린아이에 연연하겠는가!"

인아를 건네주고는 가마를 타고 떠났다. 인아가 크게 울부짖었다.

"어머님을 따라갈 테야."

사 씨가 가마에서 다시 인아를 안아 젖을 먹이며 말했다.

"내 마땅히 내일이면 올 것이니 잘 있거라, 잘 있어."

다시 유모에게 건네고 마침내 이별하고 떠났다.

사 씨는 흰 베로 얼굴을 가렸다. 오직 두 명의 여종만 뒤따랐으니, 친정에서 데려온 유모와 차환이었다. 사 씨가 문을 나선 뒤 시비들이 교 씨를 **옹위**해 **사당에 오르게** 했다. 구슬과 비취로 장식한 관을 쓰고 고운 무늬를 그린 치마를 이끄니 패옥 소리가 낭랑하게 울렸다. **위의가 매우 엄숙하고 광채가 밝게 빛나** 마치 신

선을 바라보는 듯했다. 예를 마치고 여러 노비로부터 인사를 받았다. 노비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백세를 외쳤다. 교 씨가 명을 내렸다.

"**이제 내가 안살림을 맡**았으니 전과는 크게 다를 것이다. 너희는 모름지기 마음을 다해 따르고 화목하게 지내 삼가 죄를 짓지 말도록 하여라."

"삼가 명을 받들겠습니다."

몇 명의 늙은 하인이 아뢰었다.

"사 씨는 여러 해 동안 이 집 안주인이었습니다. 지금 비록 죄를 지어 쫓겨나나 저희가 인정상 마땅히 배송해야겠기에 감히 청하옵니다."

교 씨가 말했다.

"이는 두터운 정이니 어찌 만류할 수 있겠느냐?"

여러 시비들이 일제히 큰길로 따라나서니 통곡 소리에 땅이 진동했다. 사 씨가 가마를 멈추고 차환에게 말을 전했다.

"죄인을 멀리까지 배웅해 주니 고맙고 고맙네. ⓐ새 부인을 힘써 섬기되, 옛 사람도 잊지는 말아 주게."

원근의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중략)

가마꾼이 신성으로 향하려는데 사 씨가 차환에게 말했다.

"바로 소사의 묘로 가도록 해라."

마침내 가던 길을 바꾸었다. 조양문을 지나 곧바로 묘에 이르러 몇 칸 되지 않는 초가집을 얻어 머물렀다. 사방은 황량한 산이고 마을은 쓸쓸하여 아침저녁으로 오직 원숭이의 휘파람 소리와 새들의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사 씨 집안 소공자가 이 기별을 듣고 급히 말을 달려와 통곡했다.

[A] "여인이 시집에서 받아 주지 않으면 으레 친정으로 돌아오기에, 형제가 서로 의지할 수 있게 되어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겼거늘, 누님이 이 **빈산**에 온 것은 대체 무슨 뜻입니까?"

"내 어찌 형제를 생각하지 않겠으며, 또 **어머님**의 혼백을 모시고 싶지 않겠니? 다만 생각건대 일단 친정으로 돌아가면 유씨 집안과는 영원한 이별이 될 것이야. 또 나는 본디 **털끝만큼의 죄악도 없고, 한림** 또한 현명한 군자니 비록 **한때의 모함에 미혹**될지라도 뒷날 뉘우치는 마음이 어찌 없겠니? 설혹 한림이 나를 영원히 버린다 할지라도, 일찍이 돌아가신 **소사**께 후대*를 받았으니 소사의 묘 아래 늙어 죽는 것이 나의 바람이야. 아우는 이상하게 생각지 마라."

사 공자는 다시 부탁해 봐야 소용없을 줄 알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 사내종 한 명과 시비 한 명을 보냈다. 사 씨가 말했다.

"우리 집에 본디 하인이 별로 없는데, 여기에 하인 둘을 둬 봐야 어디에 쓰겠는가?"

늙은 사내종만 머물러 문을 지키게 하고, 시비는 즉시 돌려보냈다. 이 땅은 유씨 종족이 모이는 곳으로 하인들이 거주했다. 사 씨가 온 것을 보고 문안하며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가진 것이 있고 없고 간에 서로 도우니 족히 의지가 되었다. 사 씨는 ⓒ길쌈에 뛰어나 품을 팔아 옷도 만들고 옷감도 짜며 생활했다.

게다가 몸에 지니고 온 ⓓ약간의 장신구가 있어서 진주와 패물 등을 내다 팔아 부족한 데 보태니 ⓔ고초가 심하기는 해도 세월을 보낼 수 있었다.

이 무렵, 교 씨는 사 씨가 신성의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유씨 집안의 묘**로 갔다는 말을 듣고, '이는 분명 **쫓겨난 부인임을 자처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생각하여, 한림에게 말했다.

"사 씨는 더러운 행실로 조상들께 죄를 짓고서 어찌 감히 유씨 집안의 묘 아래 머무나요?"

"이미 쫓겨난 뒤니 행인과 같아서 동서남북 어디든 마음대로 머물 수 있소. 게다가 그 땅은 비단 유씨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거처하는 곳이니 어찌 금할 수 있겠소?"

교 씨가 기뻐하지 않았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소사(少師)**: 태자를 도와서 바르게 이끄는 벼슬을 뜻하며, 유 한림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임.
* **후대(厚待)**: 아주 잘 대접함.

[22001-0219]

0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 ㉡의 정서와 ㉢이 느끼는 정서를 비교하여 표현하고 있다.
② ㉠과 ㉡은 모두 극한의 상황에서 비롯되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③ ㉡은 감당하기 힘든 일을 잇따라 맞고 있다는 점에서 ㉠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④ ㉢은 자신에게 필요한 대상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과 유사한 상황에 빠져 있다.
⑤ ㉢은 ㉡과 같은 존재보다는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위안을 얻고 있다.

[22001-0220]

02 (나)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 씨는 아들인 인아를 데려가려고 하지만 교 씨의 반대로 단념하게 된다.
② 사 씨는 인아와 이별하며 다시 시집으로 돌아와서 인아와 만날 것을 확신한다.
③ 교 씨는 사 씨가 시집에서 떠날 때 하인들이 배웅의 예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④ 사 공자는 사 씨를 위로하며 유씨 집안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지속적으로 설득한다.
⑤ 한림은 사 씨가 유씨 집안의 묘가 있는 곳으로 갔다는 사실을 교 씨에게 듣고 분노한다.

[22001-0221]

03 (가)와 [A]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나무도 바이 돌도 없는'은 대상의 결백함을 강조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A]의 사 씨가 말한 '털끝만큼의 죄악도 없고'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군.
② (가)의 '매'나 '수적'은 특정 대상에게 두려움과 적대감을 유발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A]의 사 씨에게 있어 '한때의 모함에 미혹'된 '한림'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군.
③ (가)의 '대천 바다 한가운데'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가야만 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A]의 사 씨에게 있어 '빈산'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군.
④ (가)의 '노', '닻', '돛대'는 도사공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현재 부재한다는 점에서 [A]의 사 씨가 생각하는 '소사'와 유사한 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군.
⑤ (가)에서 '엊그제 임 여읜' 상황은 화자에게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A]의 사 씨에게 있어 '어머님'이 돌아가신 일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군.

[22001-0222]

04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대부들은 소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사씨남정기」에 대해서는 '백성의 도리를 돈독히 하고 세교(世敎)에 도움이 되게 할 만한 작품'으로 평가하고 읽기를 권하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소설 속 사 씨의 덕행은 당시 여성들에게 본보기로서 귀감이 될 만하였고, 이에 「사씨남정기」가 여성들의 윤리 교훈서로 다양한 가르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① ⓐ: 억울함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남편의 결정을 수용하고 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겠군.
② ⓑ: 어떤 경제적 형편에도 이웃과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윤리를 제시해 주었겠군.
③ ⓒ: 여성으로서 가정생활에 필요한 재주를 갖추어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었겠군.
④ ⓓ: 사치를 부리는 삶에서 돌이켜 소유물을 팔아 경제적 부를 추구하는 삶의 본보기가 되었겠군.
⑤ ⓔ: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그것을 참고 견뎌 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여성들에게 귀감이 되었겠군.

[22001-0223]

05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그 여자의 미모는 하간 지방에서 유명합니다. 그리고 비단 부녀자들의 소임에 능할 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능히 책을 읽어 예전 어진 사람의 행실도 본받았습니다. 고을 가운데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사람을 구하려 하신다면 아마도 그보다 나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라는 작품 중 사 씨의 교 씨에 대한 인물평에서 보듯이 '그 여자' 교 씨는 유연수의 첩으로 들어오기 전, 명성이 자자하던 참한 여자였다. 그런 교 씨가 그토록 사악한 여인으로 변하게 된 까닭은 자신이 유연수 가문에 첩으로 들어온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 씨는 아들을 낳아 가문을 잇게 하는 소임을 다하려고 첩으로 들어왔으나 정실의 자리에 오르려는 욕망을 위해서 사 씨와 갈등을 일으켜 사 씨를 몰아내는 악행을 서슴지 않게 된다. 가부장적 가족 제도의 비극은 사 씨라는 한 현숙한 여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 내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으며, 그런 가족 제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교 씨도 물불 안 가리는 사악한 인간이 되어 갔던 것이다. 중세 사회의 부녀자들이 몸담고 있던 가부장적 가족 제도의 현실은 이토록 엄혹한 것이었다.

① 교 씨의 '위의가 매우 엄숙하고 광채가 밝게 빛나'는 것은 기존의 미모와 명성에 더해진 안주인으로서의 권위를 외형적으로 나타내고 있군.
② 교 씨가 시비들의 '옹위'를 받아 '사당에 오르게' 된 것은 유씨 가문에 들어와 가문을 잇게 하는 첩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한 행위로 볼 수 있군.
③ 교 씨가 하인들에게 '이제 내가 안살림을 맡'았다고 선언하는 것은 정실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게 된 모습이라 할 수 있군.
④ 사 씨가 남편에게 쫓겨난 뒤에도 '유씨 집안의 묘' 가까이에서 초라하게 생활하는 모습에서 중세 사회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 속에서 살아간 여인의 비극적인 삶의 단면을 엿볼 수 있군.
⑤ 사 씨가 친정으로 향하지 않은 일을 두고 교 씨가 '쫓겨난 부인임을 자처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에서 사 씨에 대한 교 씨의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허자가 질문했다.

"공자가 『춘추』*를 지으면서 중국을 안으로 삼고, 중국 사방의 오랑캐 족인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을 밖으로 하였습니다. 무릇 중국과 오랑캐의 구별이 이와 같이 엄격한데, 지금 선생은 오랑캐의 운수가 성한 것을 사람이 부른 것이고 하늘의 때가 가져온 필연이라고 하니 옳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실옹이 대답했다.

"하늘은 낳고 땅은 길러 주니, 무릇 혈기가 있는 것은 다 같은 사람이다. 여럿 중에 뛰어나 한 나라를 맡아 다스리는 자는 모두 임금이며, 문을 여러 겹 만들고 성 바깥에 못을 깊이 파서 강토를 조심하여 지키는 것은 다 같은 국가이다. 은나라의 머리에 쓰는 관인 장보(章甫)나, 주나라의 갓인 위모(委貌)나, 오랑캐가 몸에 그림을 그리는 문신(文身)이나, 남만에서 이마에 그림을 그리는 조제(雕題)는 모두 다 같은 자기들의 풍속인 것이다. ㉠하늘에서 본다면 어찌 안과 밖의 구별이 있겠느냐? 그러니 각각 자기 나라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자기 임금을 높이며,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풍속을 좋게 여기는 것은 중국이나 오랑캐나 마찬가지이다.

대저 하늘과 땅이 변함에 따라 사람과 만물이 많아지고, 사람과 만물이 많아짐에 따라 주체와 객체가 나타나고, 주체와 객체가 나타남에 따라 안과 밖이 구분된다. 오장육부와 팔다리는 한 몸의 안과 바깥이고, 자신과 처자는 한 집안의 안과 바깥이다. 형제와 친척은 한 문중의 안과 바깥이고, 이웃 마을과 변두리는 한 나라의 안과 바깥이며, 법도가 같은 제후국과 임금의 덕이 미치지 못하는 먼 나라는 천지의 안과 바깥인 것이다.

무릇 자기 것이 아닌데 갖는 것을 도둑이라 하고, 죄가 없는데 죽이는 것을 원수라 하며, 네 오랑캐가 중국을 침노하는 것을 떼도둑이라 하고, 중국이 네 오랑캐를 번거롭게 치는 것을 도적이라 한다. 그러나 서로 떼도둑이라 하고 서로 도적이라 하니, 그 뜻은 한가지이다.

공자는 주나라 사람이다.* 왕실이 날로 기울고 제후들까지 쇠약해지자, 오나라와 초나라가 중국을 어지럽혀 도둑질을 하고 해치는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춘추』는 주나라 책이므로 안과 밖에 대해서 엄격히 한 것이 또한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그러나 만약 공자가 바다에 떠다니다 오랑캐 족이 사는 곳에 들어와 살았다면, 중국의 법을 써서 오랑캐의 풍속을 변화시키고, 주나라 도를 역외(域外)에 일으켰을 것이다. 따라서 안과 밖을 나누는 분별, 따르고 물리치는 의리에 따라 마땅히 '역외 춘추'를 남겼을 것이다. 이것이 공자가 성인 된 까닭이다."

– 홍대용, 「의산문답」

* 『춘추(春秋)』: 오경(五經)의 하나. 공자가 노나라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책이다.
* 공자는 주나라 사람이다.: 노나라는 주나라 무왕이 동생에게 내린 봉토를 그의 장남인 백금이 다스렸던 데서 시작된 나라였기에 주 왕실을 섬겼다. 공자가 『춘추』라는 역사서를 저술할 때에도 이런 의식을 기반으로 하였기에, 이 글에서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노나라 사람인 공자를 주나라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나 어느 날 밤에 대산이 "깨끗한 그림이나 한 폭 걸었으면." 하기에 내 말이 "여보게, 그림보다 좋은 추사

글씨를 한 폭 구해 걸게." 했더니 대산은 눈에 불을 벗적 켜더니 "추사 글씨는 싫여, ㉢어느 사랑에 안 걸린 데 있나." 한다.

과연 위대한 건 추사의 글씨다. 쌀이며 나무, 옷감 같은 생활필수품 값이 올라가면 소위 서화니 골동이니 하는 사치품 값은 여지없이 떨어지는 법인데 요새같이 책사(冊肆)에까지 고객이 딱 끊어졌다는 세월에도 추사 글씨의 값만은 한없이 올라간다.

추사 글씨는 확실히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필 추사의 글씨가 제가의 법을 모아 따로이 한 경지를 갖추어서 우는 듯 웃는 듯 춤추는 듯 성낸 듯 세찬 듯 부드러운 듯 천변만화(千變萬化)의 조화가 숨어 있다는 걸 알아서 맛이 아니라 시인의 방에 걸면 그의 시경(詩境)이 높아 보이고 화가의 방에 걸면 그가 고고한 화가 같고 문학자, 철학가, 과학자 누구 할 것 없이 갖다 거는 대로 제법 그 방 주인이 그럴듯해 보인다. 그래서 그런지 상점에 걸면 그 상인이 청고한 선비 같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상품들까지도 돈 안 받고 그저 줄 것들만 같아 보인다. 근년래에 일약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과 높은 자리를 차지한 분들 중에도 얼굴이 탁 틔고 점잖은 것을 보면 필시 그들의 사랑에는 추사의 진적이 구석구석에 호화로운 장배(裝背)로 붙어 있을 것이리라.

추사 글씨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재미난 사건 하나가 생각난다.

진 군은 추사 글씨에 대한 감식안이 높을 뿐 아니라 일반 서화(書畫) 고동(古銅)에는 대가로 자처하는 친구다. / 그의 사랑에는 갖은 서화를 수없이 진열하고 ㉣"차라리 밥을 한 끼 굶었지 명서화(名書畫)를 안 보고 어찌 사느냐." 하는 친구다.

양 군도 진 군에 못지않게 서화 애호의 벽(癖)이 대단한 데다가 금상첨화로 손수 그림까지 그리는 화가인지라 내심으로는 항상 진 군의 감식안을 은근히 비웃고 있는 터였다.

벌써 오륙 년 전엔가 진 군이 거금을 던져 추사의 대련(對聯)을 한 벌 구해 놓고 장안 안에는 나만 한 완당서(阮堂書)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늘 뽐내고 있었다.

그런데 양 군 말에 의하면 진 군이 가진 완서는 위조라는 것이다. 이 위조란 말도 진 군을 면대할 때는 결코 하는 것이 아니니

"진 형의 완서는 일품(逸品)이지." 하고 격찬을 할지언정 위조란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진이 그 소식을 못 들을 리 없다. ㉤기실 진은 속으로는 무척 걱정을 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위조라? 하긴 그럴지도 몰라. 어쩐지 먹빛이 좋지 않고 옳을 가(可) 자(字)의 건너 그은 획이 이상하더라니…….

감식안이 높은 진 군은 의심이 짙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후 이 글씨가 누구의 사랑에서 호사를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최근에 들으니까 어떤 경로를 밟아 어떻게 간 것인지는 모르나 진 군이 가졌던 추사 글씨는 위조라고 비웃던 양 군의 사랑에 버젓하게 걸려 있고 진 군은 그 글씨를 도로 팔라고 매일같이 조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추사 글씨는 아무튼 대단한 것인가 보다.

– 김용준, 「추사 글씨」

[22001-0224]

01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신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지지하고 있다.
② 자신과 상대방의 공통점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③ 상대방의 발언을 인용하여 상대방의 생각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따지고 있다.
④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을 열거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있다.
⑤ 옛 성현의 권위에 기대어 상대방의 주장에 동조하며 자신의 생각을 덧보태고 있다.

[22001-0225]

02 **(나)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진 군은 큰돈을 주고 추사의 글씨를 구한 후 뿌듯해하였다.
② 양 군은 진 군이 가지고 있던 추사 글씨가 위조임을 알고 있었다.
③ 양 군과 진 군 모두 서화에 조예가 깊어 추사의 글씨를 흠모하였다.
④ 대산이 깨끗한 그림을 걸기 원할 때 '나'는 추사의 글씨를 추천하였다.
⑤ 추사 글씨는 전시된 공간의 품격을 한층 높여 주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22001-0226]

0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수필은 우리 일상 속의 수많은 인물과 경험 중에서 독자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인물과 경험을 다룬다. (가)와 (나)는 삶의 태도나 관점에 차이를 보이는 인물들에 주목하여 교훈을 주고 있는 작품이다. (가)에서의 실옹과 허자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이고, (나)의 양 군과 진 군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자들은 이 두 작품을 통해 삶의 태도나 관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올바른 삶의 자세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① (가): 공자는 주나라 사람이라는 실옹의 언급은 공자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허자의 태도를 경계하려는 것이겠군.
② (가): 오랑캐의 운수가 성한 것을 필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묻는 허자의 인식은 공자의 『춘추』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겠군.
③ (가): 자기 풍속을 좋게 여기는 것은 중국이나 오랑캐나 마찬가지라는 실옹의 언급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겠군.
④ (나): 진 군의 감식안에 대한 양 군의 비웃음은 올바른 삶의 자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진 군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겠군.
⑤ (나): 진 군이 그 글씨를 도로 팔라고 조른다는 소문은 진 군이 스스로의 감식 능력을 믿지 못해 경솔하게 행동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22001-0227]

04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자신의 문화 양식대로 살아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과 오랑캐를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② ㉡: 공자는 주나라 사람이므로 『춘추』를 통해 주나라 문화 중심의 세계관을 설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 추사의 글씨는 어느 사랑이든 흔하게 걸려 있어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부적합하다.
④ ㉣: 서화를 감상하며 정신적 만족감을 충족하는 것이 육체적 허기를 달래는 것보다 중요하다.
⑤ ㉤: 자신이 구입한 추사 글씨에 대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듣고 싶어 조바심이 났다.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나'는 바슐라르가 사용했던 '존재의 테이블'의 의의를 소개한다. 바슐라르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작은 테이블 앞에서 즐거운 독서와 몽상의 시간을 가진다. '나'는 그 시간이 바슐라르에게 자기 존재와 세계에 대해 충일한 행복을 안겨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감히 존재의 테이블을 갖겠다고 생각한 것은 바슐라르를 흉내 내려는 치기에서가 아니다. 아마도 그가 이룬 업적이나 성공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 내는 방식에 대해 더 깊이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내게도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자그마하고 나지막한 테이블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것을 샀다. 다리는 접었다 폈다 조립이 가능하고, 둥근 판 위에는 ⓐ작은 꽃문양을 새겨 넣은 테이블이었다.

그 테이블을 사는 순간 어찌나 행복했던지 그것만으로도 인도에 온 보람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행복감은 차차 후회로 변해 갔다. 여행 초기에 커다란 짐 하나가 생긴 셈이니 여행 내내 나는 그것을 끌고 다니느라 여간 고생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 ㉠존재의 자리를 낙타의 혹처럼 자기 등 뒤에 짊어지고 다니는 내 모습이라니! 그처럼 우매한 충동과 집착이 또 어디 있을까 싶었다.

그 테이블을 사지 않고도, 이미 집에 있는 테이블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존재의 자리를 나는 왜 그 테이블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생각했던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오랫동안 자기 존재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생활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큰 집을 가졌다 해도 그 속에 정작 존재의 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보다는 덜 우매해지려는 욕심에서였을 것이다.

㉢이런 씁쓸한 자부심이 그 테이블에는 깃들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존재의 테이블'을 인도에서 한국 땅까지 끌고 와서 집 안에 들여놓은 후에도 그 앞에 앉을 시간을 그리 많이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주 오래도록 거기에 앉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바로 곁에 있는 그 테이블이 아주 멀리, 그것이 만들어진 인도보다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새겨진 꽃문양 사이사이로 먼지가 끼어 가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그 모습 같거니 생각할 때도 많았다. 그토록 애착을 느꼈으면서도 어느 순간 잡동사니 속에 함부로 굴러다니며 삐걱거리게 된 그 테이블을 볼 때마다 나는 새삼 씁쓸해지고는 한다.

매일 학교에 갔다가 부랴부랴 돌아와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챙겨서 재우고 나면 자정이 넘어 버리는 일상 속에서 그 앞에 앉기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행복하면 그 짧은 행복을 즐기느라, 고통스러우면 그 지루한 고통에 진절머리를 치느라 그 앞에 가 앉지 못했다. ㉣'존재의 테이블'을 장만한 뒤에도 존재의 자리는 쉬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다가도 그 삐걱거리는 테이블을 잘 만져서 바로잡고 아주 공들여서 먼지를 닦는 날이 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닦고 있는 것이 테이블이 아니라 실은 하나의 거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앉아 있는가를 가장 잘 비추어 주는 거울. 그리고 힘든 일이 닥칠수록 그 테이블만큼 더 낮아지고 고요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넌지시 일러 주는 거울.

그렇게 잘 닦고 나면 다시 그 앞에 앉을 엄두도 나는 것이다. ㉤볕이 잘 드는 창문 쪽으로 그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두 손을 씻고……. 이렇게 누추한 생활에서 간신히 스스로를 건져 올려 그 앞에 데려다 놓는다.

그 드문 순간들에야 비로소 나는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게 된다.

– 나희덕, 「존재의 테이블」

나

[A]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B]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C]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 이준관, 「구부러진 길」

[22001-0228]

01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양한 활동으로 분주한 삶 속에서도 자신만을 위한 자리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② 일상생활의 체험으로는 인도 여행에서의 체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③ 존재의 테이블을 통해 알게 될 진실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④ 고통의 순간과 행복의 순간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선한 행동을 통한 행복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다.
⑤ 낯선 곳에서 만난 인물들과의 대화를 제시하여 새로운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가치를 확인하고 있다.

[22001-0229]

02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 내기 위한 '나'의 선택이 오히려 여행 중 스스로를 힘들게 만든 상황을 나타낸다.
② ㉡은 외적으로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③ ㉢은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성공에 대한 자부심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나' 자신에 대한 반성을 보여 준다.
④ ㉣은 테이블을 산 것만으로는 바슐라르가 추구한 삶의 자세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⑤ ㉤은 '존재의 자리'로 옮겨 가려 할 때의 신중하고 정성스러운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나'의 행위를 통해 보여 준다.

[22001-0230]

03 **(나)에서 [A]~[C]의 관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에 나타난 사람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B]에서 화자가 겪은 좌절로 인해 [C]에서 부정되고 있다.
② [A]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은 [B]의 자연물들과 상반되나 [C]에서 결국 자연물들과 화해를 이루고 있다.
③ [A]에서 화자가 떠올리는 모습은 [B]에서 그 가치를 드러내며 [C]에서 그 가치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④ [A]에 나타난 경작 행위는 이후 [B]에서의 고된 노동을 거쳐 [C]에서 열매를 거두어 먹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⑤ [A]에서 화자를 불렀던 목소리는 [B]의 상황에서 증폭된 후 [C]에서 노쇠한 상태로 나타나 화자에게 근심을 안긴다.

[22001-0231]

04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글쓴이의 상황을 (나)와 연결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가)의 '존재의 테이블'과 (나)의 '구부러진 길'은 둘 다 삶의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가)의 글쓴이가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의미를 찾으려는 데에 집중하는 반면, (나)의 화자는 '구부러진 길'을 통해 타인들을 만나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그 의미를 찾으려는 데에 집중한다. 그러나 '구부러진 길'이 가지는 의미를 개인의 삶으로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나)의 '구부러진 길'이 품는 다양한 대상들을 (가)의 글쓴이가 '존재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되기까지 겪은 개인의 다양한 경험과 감정으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① (가)의 글쓴이가 '존재의 테이블' 앞에서 '누추한 생활'을 비판하는 것은, (나)에서 '구부러진' 것들이 가지는 단점을 지적한 것이다.
② (가)의 글쓴이가 '존재의 테이블'을 일부러 구입한 것은, (나)에서 '모여'나 '품고'를 통해 나타나는 이웃과의 어우러짐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의 글쓴이가 '존재의 테이블'을 통해 얻은 순간이 '드문 순간'이었던 것은, 그가 (나)의 '반듯한 길'과는 대비되는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가)의 글쓴이가 '존재의 테이블'을 '거울'로 생각하는 것은, (나)의 화자가 '구부러진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이웃에게 보낸 비판적 시선을 자신에게까지 적용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⑤ (가)의 글쓴이가 '존재의 테이블'을 통해 마련한 시간은, (나)에서 '날이 저물면' '밥 먹으러'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일상의 행위를 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22001-0232]

05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글쓴이가 자신의 의지를 투영한 것으로, 이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타인과의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② ⓑ는 화자가 자연물에 투영한 가치관을 보여 주는 것으로, 화자가 인간의 세상을 떠나 자연에 귀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③ ⓐ는 여행지의 문화를 존중하는 글쓴이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고, ⓑ는 화자가 지향하였으나 도달하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반영한 것이다.
④ ⓐ는 귀국 이후 글쓴이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표현과 연결되고, ⓑ는 '밥그릇'이 되어 준다는 점에서 서로를 돌보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는 앞으로 글쓴이가 시련을 겪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는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이 가진 풍요로움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네, 돈벌이 좀 안 할려나? 이 밭에 금이 묻혔네, 금이." / "뭐?" 하니까

바로 이 산 너머 큰골에 광산이 있다. 광부를 삼백여 명이나 부리는 노다지판인데 매일 소출되는 금이 칠십 냥을 넘는다, 돈으로 치면 칠천 원, 그 줄맥이 큰 산 허리를 뚫고 이 콩밭으로 뻗어 나왔다는 것이다. 둘이서 파면 불과 열흘 안에 줄을 잡을 게고, 적어도 하루 서 돈씩은 따리라. 우선 삼십 원만 해도 얼마냐. 소를 산대도 반 필이 아니냐고.

그러나 영식이는 귀담아듣지 않았다. 금점이란 칼 물고 뜀뛰기다. 잘되면이거니와 못되면 신세만 조판다. 이렇게 전일부터 들은 소리가 있어서였다. / 그담 날도 와서 꾀송거리다 갔다.

셋째 번에는 집으로 찾아왔는데 막걸리 한 병을 손에 들고 영을 핀다. 몸이 달아서 또 온 것이었다. 봉당에 걸터앉아서 저녁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당수는 몸을 훑인다는 둥 일꾼은 든든히 먹어야 한다는 둥 남들은 논을 사느니 밭을 사느니 떠드는데 요렇게 지내다 그만둘 테냐는 둥 일쩝게 지절거린다.

"아주머니, 이것 좀 먹게 해 주시게유."

그리고 비로소 영식이 아내에게 술병을 내놓는다. 그들은 밥상을 끼고 앉아서 즐거웁게 술을 마셨다. 몇 잔이 들어가고 보니 영식이의 생각도 저으기 돌아섰다. 딴은 일 년 고생하고 끽 콩 몇 섬 얻어먹느니보다는 **금을 캐는 것이 슬기로운 짓**이다. 하루에 잘만 캔다면 한 해 줄곧 공들인 그 수확보다 훨씬 이익이다. 올봄 보낼 제 **비룻값, 품삯, 빚에 빚진 칠 원 까닭에 나날이 졸리는 이 판**이다. 이렇게 지지하게 살고 말 바에는 차라리 가로지나 세로지나 사내자식이 한번 해 볼 것이다.

"낼부터 우리 파 보세. 돈만 있으면이야, 그까진 콩은……."

수재가 안달스리 재우쳐 보챌 제 선뜻 응낙하였다.

"그래 보세, 빌어먹을 거 안 됨 고만이지."

[중략 부분 줄거리] 영식은 수재와 함께 콩밭을 뒤엎고 구덩이를 파기 시작한다. 그러나 금이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마름과 동네 노인들은 영식의 행동을 보며 화를 낸다. 조급해진 영식은 쌀을 꿔다가 떡을 해서 정성스레 산제(山祭)까지 지내지만 그 후에도 금줄은 잡히지 않는다. 급기야 절망한 영식은 태도가 돌변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다.

이 꼴들을 보니 수재는 조바심이 일었다. 저러다가 그 분풀이가 다시 제게로 슬그머니 옮아 올 것을 지레 채었다. 인제 걸리면 죽는다. 그는 비슬비슬하다 어느 틈엔가 구덩이 속으로 시나브로 없어져 버린다.

볕은 다사로운 가을 향취를 풍긴다. 주인을 잃고 콩은 무거운 열매를 둥글둥글 흙에 굴린다. 맞은쪽 산 밑에서 벼들을 베며 기뻐하는 농군의 노래. / "터졌네, 터져!"

수재는 눈이 휘둥그렇게 굿문을 튀어나오며 소리를 친다. 손에는 흙 한 줌이 잔뜩 쥐였다.

"뭐?" 하다가

"금줄 잡았어, 금줄." "응." 하고 외마디를 뒤남기자 영식이는 수재 앞으로 살같이 달려들었다. 허겁지겁 그 흙을 받아들고 샅샅이 헤쳐 보니 딴은 재래에 보지 못하던 불그죽죽한 황토이었다. 그는 눈에 눈물이 핑 돌며 / "이게 원줄*인가?"

"그럼, 이것이 곱색줄*이라네. 한 포에 댓 돈씩은 넉넉 잡히데."

영식이는 기쁨보다 먼저 기가 탁 막혔다. 웃어야 옳을지 울어야 옳을지. 다만 입을 반쯤 벌린 채 수재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본다. / "이리 와 봐. 이게 금이래."

이윽고 남편은 아내를 부른다. 그리고 내 뭐랬어, 그러게 해 보라고 그랬지 하고 설면설면* 덤벼 오는 아내가 한결 어여뻤다. 그는 엄지가락으로 아내의 눈물을 지워 주고 그러고 나서 껑충거리며 구덩이로 들어간다.

"그 흙 속에 금이 있지요?"

영식이 처가 너무 기뻐서 **코다리에 고래등 같은 집**까지 연상할 제, 수재는 시원스러이

"네, 한 포대에 오십 원씩 나와유." 하고 대답하고 오늘 밤에는 꼭 정녕코 꼭 달아나리라 생각하였다. 거짓말이란 오래 못 간다. 뽕이 나서* 뼈다귀도 못 추리기 전에 훨훨 벗어나는 게 상책이겠다.

– 김유정, 「금 따는 콩밭」

*원줄: 근본이 되는 줄기. 본줄기.
*곱색줄: 광맥의 하나. 산화한 황화 광물로 이루어진 붉은빛의 광맥이 길게 뻗치어 박인 줄.
*설면설면: 사이가 정답지 아니하고 어색하게.
*뽕이 나서: 거짓말이 탄로 나서.

(나) 삼조: 명수 어머니!

명서 처: 아이구, 삼조야, 너 참 훌륭하구나. **양복**에다 사포를 쓰구서! 그렇게 차리구 오니까, 개두 몰라보구 짖는 게지? 지금 떠나니?

삼조: (미소를 지으며) 예. 명수헌테 전할 게 있다구요?

명서 처: 아이구, 구장헌테나 맽겼으문 벌써 다 됐을 걸. 되지도 않는 글씨를 부비다가 그만 좋은 인편을 놓쳐 버리겠네.

삼조: 여데 안 쓰셨구먼유? / 명서: 거진 다 되어 가는데……

명서 처: 그눔의 거진이 또 며칠을 끄을 거진이란 말유?

금녀: 그럼 말로나 전허지유, 어머니.

명서 처: 그러는 수밖에 없겠다. 삼조야, 좀 올라앉으렴. / 삼조: 바뻐유.

명서 처: 바뻐두 좀 걸터앉기래두 해라. 우리 집 형편을 네가 잘 보구 가서 자세히 전해 주어야겠다. ……에그, 사람이란 별게 아니로구나. 너두 그렇게 꾸며 놓고 보니까 바로 면주사 나으리 같구나!

삼조: 그야 뭘 일본 가서 '곤니찌와' '곰방와'쯤 배우구 구쓰 신을 줄이나 알문 그까짓 면서기쯤이야 부러울 것 없겠쥬. (일면 웃는다.) 아니, 정말이우.

명서 처: 얘, 부디 그렇게 되드래두 우린 잊지 말아 다구.

삼조: 그야 그때가 돼 봐야 알쥬. 하하하……

명서: 너희들은 재주두 좋다. 가뭄에 빗방울보다 귀헌 돈을 어디서 구해서 그만저만의 노자를 다 장만했니?

삼조: 집을 잽혔쥬. 뭐. / 명서: 집을? 허어 그거 될 말이라구?

삼조: 거기 가기만 허문 그까짓 돈쯤이야……

명서: 집꺼정 팔아 가지구 가두오두 못 허는 사람이 부산 뱃머리에는 장군 같다더라. 너무 헤픈 생각 말구

너도 미리 조심해라. 그리구 일본 가걸랑 우리 집 명수 만나 보구 그놈이 요즘 뭘 허는지 좀 기별해 다구. 재작년 섣달부터선 도무지 소식이 없구나.

삼조: 그야 제가 건너가기만 허문 제절로 만나게 될 테니까 염려 없어유.

명서 처: 에그, 길이 가까워 가 보기나 하겠니, 왕래가 잦은 데라 냉큼 인편이 있겠니?

명서: 그눔 간 지가 어엄범 일곱 해로구나. 남의 밥 그만 벌어먹구 인젠 그만 나오래라.

삼조: 명수가 나오문 뭘 시킬려구 그러슈? 이 고장에서 살아 나갈 방도가 있겠우?

명서 처: 남의 집을 살아두 내 고장에서 살구, 흙을 파먹어두 같이 파먹지.

삼조: 아따, 남의 집 살 덴 있구, 흙 파먹을 덴 있답디까?

명서 처: 나와서 장가두 들어야지. 그 애 나이가 벌써 반 쉰이 넘었단다.

삼조: 장가가 다 뭐유? **죽자꾸나 농살 지어두 입엔 거미줄을 면치 못하는 세상**인데……

명서 처: 아이참! 여보, 너더럭 장단에 소중헌 돈 말을 빼놓을 뻔했구려. / **명서:** 정말!

명서 처: 얘야, 명수가 냉큼 나올 수 없다거든, 돈이라두 보내라구 그래라. 돈만 있으문야, 이러니저러니 걱정할 것두 없다.

명서: ……삼조야. 이 집을 한번 둘러봐라. 여긴 사람 겉은 사람은 하나 없다. 이 할미는 늙어 이렇지. 저 금녀는 금녀 저대로 몸이 착실치 못하지. 게다가 나꺼정 병으로 이 몇 핼 두구 그들의 신세만 지구 있으니 대체 이걸 집이라겠니, 무덤이라겠니?

삼조: 이런 지옥에라두 이대로 죽으란 법은 없을 거예유. 명수 아버지, 너무 상심 맙슈. (일어선다.)

명서: 에그, 너희들 젊은 눔은 메뚜기 새끼같이 제 좋을 데로 모두 뛰어들 가 버리구 나문 여긴 누가 남는단 말여? 나 같은 늙은 것허구 병신뿐이니, 허릴없는 쓰레기통이로구나.

명서 처: 왜 이렇게 궁상만 떨우? 먼길 가는 젊은일 보구……

명서: 바쁜데 어여 가거라. 아무리 말해두 너희들의 기상을 돋아 줄 만한 소린 한마디두 없다.

삼조: 안녕히들 계세유. / **명서 처:** 부디 잊지 말구, 가든 맡으로 명수 소식 좀 전해 다구.

삼조: 염려 마슈.

[중략 부분 줄거리] 명서네 가족은 신문을 통해 명수가 해방 운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구장은 명수가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명서네는, 농사를 짓다가 얻게 된 빚을 갚지 못해 살림이 압류된 경선네를 거두어 어렵게 함께 살지만, 극심한 가난을 견디지 못한 경선네는 추운 겨울밤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난다. 명서의 처는 신문 속 최명수란 인물이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점차 정신을 온전히 가누지 못한다.

그때에 사립문을 박차는 듯이 한 남자 안으로 들어선다. 그는 우편배달부다. 소포를 들었다.

우편배달부: (들어서며) 왜 밖에 문패도 없소? / **모녀:** (무언)

우편배달부: 빨리 도장을 내요. / **명서:** 도장?

명서 처: (금녀에게 의아한 듯이) 너의 오빠가 아니지? / **금녀:** 배달부예유.

명서: (실망한 듯이) 칫!

우편배달부: 얼른 소포 받아 가요! 원, 무식해도 분수가 있지. 빨리 도장을 내요.

명서: (반항적 어조로) 내겐 도장 같은 건 없소. / 우편배달부: 그럼 지장이라도……

명서: (떨리는 손으로 지장을 찍는다. 우편배달부 퇴장)

명서 처: 음, 그 애에게서 물건이 온 게로구먼.

명서: 뭘까?

명서 처: 세상에 귀신은 못 속이는 게지! 오늘 아침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더니, 이것이 올려구 그랬던가 봐. 당신은 우환이니 뭐니 해도……

명서: (소포의 발송인의 이름을 보고) 하아 하! 이건 네 오래비가 아니라 삼조가……

명서 처: 아니, 삼조가 뭣을 보냈을까? 입때 한마디 소식두 없던 애가…… (소포를 끌러서 궤짝을 떼어 보고)

금녀: (깜짝 놀라) 어마나!

명서 처: (자기의 눈을 의심하는 듯이) 대체 이게…… 이게? 에그머니, 맙소사! 이게 웬일이냐?

명서: (되레 멍청해지며 궤짝에 씌어진 글자를 읽으며) 최명수의 백골.

금녀: 오빠의?

명서 처: 그럼, 신문에 난 게 역시! 아아, 이 일이 웬일이냐? 명수야! 네가 왜 이 모양으로 돌아왔느냐? (백골 상자를 꽉 안는다.)

금녀: 오빠!

명서: 나는 여태 개돼지같이 살아오면서, 한마디 불평두 입 밖에 내지 않구 꾸벅꾸벅 일만 해 준 사람이여.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자식을 이 지경을 맨들어 보내느냐? 응, 이 육실헐 놈들! (일어서려고 애쓴다.)

금녀: (눈물을 씻으며) 아버지! (하고 붙든다.)

명서: 놓아라! 명수는 어디루 갔니? 다 기울어진 이 집을 뉘게 맽겨 두구 이눔은 어딜?

금녀: 아버지! 아버지!

명서: (궤짝을 들고 비틀거리며) 이놈들아, 왜 뻑다구만 내게 갖다 맽기느냐? 내 자식을 죽인 눔이 이걸 마저 처치해라! (쇠진하여 쓰러진다. 궤짝에서 백골이 쏟아진다. 밭은기침! 한동안)

명서 처: (흩어진 백골을 주우며) 명수야, 내 자식아! 이 토막에서 자란 너는 백골이나마 우리를 찾아왔다. 인제는 나는 너를 기다려서 애태울 것두 없구 동지섣달 기나긴 밤을 울어 새우지 않아두 좋다! 명수야, 이제 너는 내 품 안에 돌아왔다.

명서: ……아아, 보기 싫다! 도루 가져가래라!

금녀: 아버지, 서러 마세유, 서러워 마시구 이대루 꾹 참구 살아가세유. 네, 아버지! 결코 오빠는 우릴 저버리진 않을 거예유. 죽은 혼이라두 살아 있어, 우릴 꼭 돌봐 줄 거예유. 그때까지 우린 꾹 참구 살아가세유. 예, 아버지!

명서: ……아아, 보기 싫다! 도루 가지고 가래라!

금녀의 어머니는 백골을 안치하여 놓고 열심히 무어라고 중얼거리며 합장한다.

바람 소리 적막을 찢는다.

– 유치진, 「토막」

[22001-0233]

01 **(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정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고 그가 관찰한 것을 전하고 있다.
② 주인공을 서술자로 설정하여 그의 내면을 고백조로 전하고 있다.
③ 장면마다 서술자를 교체하면서 사건의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
④ 왜곡된 가치관을 지닌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여 주제를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말과 행동을 주로 묘사하되 그들의 속마음도 전하고 있다.

[22001-0234]

02 **술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영식이 수재의 정체를 깨닫게 되는 장치이다.
② 영식이 수재에 대해 거리를 두게 하는 장치이다.
③ 영식이 수재를 설득하기 위해 활용하는 장치이다.
④ 영식이 수재의 제안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장치이다.
⑤ 수재가 영식이 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장치이다.

[22001-0235]

03 **(나)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명서의 처는 아들인 명수에게 보낼 돈을 삼조에게 맡긴다.
② 삼조는 일본에서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③ 명수는 칠 년 전 일본으로 떠났으며 재작년부터 소식이 끊겼다.
④ 명서는 명수의 죽음을 확인하고 누군가를 향해 분노를 터트린다.
⑤ 금녀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지를 다지며 아버지를 위로한다.

[22001-0236]

04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소망의 플롯은 무엇인가를 바라거나 기다리는 과정이 사건의 중핵을 이루는 구성이다. 이러한 플롯에서 주인공은 바라는 일을 성취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 하지만 인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바라는 일의 성취나 기다리는 인물과의 만남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연된다. 이런 점에서 결말의 관건은 소망의 달성 여부에 있다. 주인공의 소망은 달성될 수도 있고 좌절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작가의 주제 의식이 드러난다.

① (가)에서는 영식 부부가, (나)에서는 명서의 가족이 소망의 주체이다.
② (가)에서는 금을 발견하는 것이, (나)에서는 명수가 돌아오는 것이 소망의 대상이다.
③ (가)에서 밭을 파헤치는 것과 (나)에서 인편으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소망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④ (가)에서는 수재의 속마음을 통해, (나)에서는 소포를 통해 소망의 달성 여부가 드러난다.
⑤ (가)에서는 소망이 달성되는 반면, (나)에서는 소망이 좌절된다.

[22001-0237]

0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930년대 우리 문학의 주요 관심사는 농촌 경제의 황폐화와 그에 따른 농민의 생활난이다. 이 시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촌에 살면서 농사에 종사하였다. 하지만 일제에 의한 지주제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농민의 열 명 중 여덟 명 정도는 자신의 토지가 없거나 토지가 있어도 경제적 문제로 다른 사람의 토지까지 빌려 농사를 지어야 하는 소작농이 되었다. 소작농은 토지를 빌리는 대가로 수확의 70~80%를 소작료로 내야 했고 각종 세금도 납부해야 했다. 이러한 가혹한 조건으로 인해 성실한 농민도 농사를 통한 안정된 삶이라는 희망을 잃은 채 빈농으로 전락하였고 이는 빈부 격차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이에 많은 농민은 본업인 농사보다 일확천금을 노리며 실패의 위험이 상당한 투기적 황금 열풍에 뛰어들기도 하였다.

① (가)의 '금을 캐는 것이 슬기로운 짓'이라는 인식에서 농사에서 희망을 잃은 농민의 좌절이 엿보이는군.
② (가)의 '비룻값, 품삯, 빚에 빚진 칠 원 까닭에 나날이 졸리는 이 판'에서 일제 강점기의 불합리한 토지 정책에 따른 농민의 가난이 엿보이는군.
③ (가)의 '코다리에 고래등 같은 집'을 연상하는 영식이 처의 모습에서 투기적 황금 열풍의 욕망이 엿보이는군.
④ (나)의 '죽자꾸나 농살 지어두 입엔 거미줄을 면치 못하는 세상'이라는 말에서 일제 강점기 농촌 현실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드러나는군.
⑤ (나)의 양복을 입고 일본으로 떠나는 삼조의 모습과 토막에 있는 명서 가족의 대비에서 빈부 격차가 극심해지는 일제 강점기 농촌의 현실이 드러나는군.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날짜는 어느덧 4월 보름이 되어 있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물은 비단결처럼 빛났으며, 바람이 불지 않아 물결 또한 잔잔하였다. 이날 밤이 장차 깊어 가면서 밝은 달이 강에 비치고 옅은 안개가 물 위에 어리었으며, 뱃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고 물새만이 간간이 울고 있었다. 이때 문득 일본인 배 안에서 염불(念佛)하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펐다.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어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즉시 행장(行裝)에서 피리를 꺼내 몇 곡을 불어서 가슴속에 맺힌 회한을 풀었다. 때마침 바다와 하늘은 고요하고 구름과 안개가 걷히니, 애절한 가락과 그윽한 흐느낌이 피리 소리에 뒤섞이어 맑게 퍼져 나갔다. 이에 수많은 뱃사람이 놀라 잠에서 깨어났으며, 그들은 처연하게 앉아 피리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격분해서 머리가 곧추선 사람도 피리 소리에 분을 가라앉힐 정도였다.

잠시 후에 일본인 배 안에서 조선말로 칠언 절구(七言絕句)를 읊었다.

왕자진의 피리 소리에 달마저 떨어지려 하는데,
바다처럼 푸른 하늘엔 이슬만 서늘하구나.

시를 읊는 소리는 처절하여 마치 원망하는 듯, 호소하는 듯하였다. 시를 다 읊더니, 그 사람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최척은 ㉠그 시를 듣고 크게 놀라서 피리를 땅에 떨어뜨린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실성(失性)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이를 보고 학천(鶴川)이 말했다. / "어디 안 좋은 곳이라도 있는가?"

최척은 대답을 하고 싶었으나 목이 메고 눈물이 떨어져 말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최척은 기운을 차려 말했다.

"조금 전에 저 배 안에서 들려왔던 시구(詩句)는 바로 내 아내가 손수 지은 것이라네. 다른 사람은 평생 저 시를 들어도 절대 알아내지 못할 것일세. 게다가 시를 읊는 소리마저 내 아내의 목소리와 너무 비슷해 절로 마음이 슬퍼진 것이라네. 어떻게 내 아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배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어서 온 가족이 포로로 잡혀간 일을 말하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비탄에 젖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 가운데는 두홍(杜洪)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맹한 장정이었다. 그는 최척의 말을 듣더니, 얼굴에 의기(義氣)를 띠고 주먹으로 노를 치면서 분연히 일어나며 말했다.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오겠소." / 학천이 저지하며 말했다.

"깊은 밤에 시끄럽게 굴면 많은 사람이 동요할까 두렵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물어보아도 늦지 않을 것일세." / 주위 사람들이 모두 말했다. / "그럽시다."

최척은 앉은 채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 동방이 밝아 오자, 즉시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다.

"어젯밤에 시를 읊었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닙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 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옥영도 어젯밤에 들려왔던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曲調)인 데다, 평소에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하였다. 그래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저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옥영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하게 뛰어나와 최척을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바라보고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가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저잣거리처럼 모여들어 구경하였는데, 처음에는 다만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다.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마다 서로 돌아보며 소리쳐 말했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로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 보지 못하였다." / 최척은 옥영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으며 말했다.

"산속에서 붙들리어 강가로 끌려갔다는데, 그때 아버님과 장모님은 어떻게 되었소?"

옥영이 말했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 배에 오른 데다 정신이 없어 서로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제가 두 분의 안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눈물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학천은 돈우를 만나 백금(白金) 세 덩이를 주고 옥영을 사서 데려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돈우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 이제 사 년 되었는데, 그의 단정하고 고운 마음씨를 사랑하여 친자식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침식을 함께하는 등 잠시도 떨어진 적이 없었으나, 지금까지 그가 아낙네인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런 일을 직접 겪고 보니, 이는 천지신명(天地神明)도 오히려 감동할 일입니다. 내가 비록 어리석고 무디기는 하지만 진실로 목석(木石)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마 어떻게 그를 팔아서 먹고살 수 있겠습니까?"

돈우는 즉시 주머니 속에서 은자(銀子) 열 냥을 꺼내어 전별금(餞別金)으로 주면서 말했다.

"사 년을 함께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되니, 슬픈 마음에 가슴이 저리기만 하오. 온갖 고생 끝에 살아남아 다시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것은 실로 기이한 일이며, 이 세상에는 없었던 일일 것이오. 내가 그대를 막는다면 하늘이 반드시 나를 미워할 것이오. 사우(沙于)여! 사우여! 잘 가시게! 잘 가시게!"

옥영이 손을 들어 감사를 드리며 말했다.

"일찍이 주인 영감님께서 보호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오다가 뜻밖에 낭군을 만나게 되었으니, 제가 받은 은혜가 이미 끝없이 많기만 합니다. 게다가 이렇듯이 기뻐하며 전별금까지 주시니 진실로 그 은혜를 잊지 않겠으며, 백 번 절하여 감사드립니다."

최척이 옥영과 함께 본 배로 돌아오자 이웃 배에서 이들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연일 끊이지 않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금은(金銀)과 비단을 주기까지 했다. 학천은 집으로 돌아와 별도로 방 하나를 깨끗이 청소하고 최척과 옥영을 그곳에 살게 하였다.

최척은 이미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그러나 머나먼 이국땅에 의탁해 살고 있는 터라, 사방을 둘러보아도 친척 하나 없었다. 그래서 항상 늙은 아버지와 어린 아들 생각에 눈물이 마른 적이

없었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심에 싸여 있었다. 최척은 머나먼 이국땅에서 더 이상 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게 해 달라고 묵묵히 기도하였다.

– 조위한, 「최척전」

나 **[앞부분 줄거리]** '나'는 성남의 고급 주택가에 어렵게 집을 마련하고 방 하나를 세놓는다. 이 방에 권 씨 가족이 들어와 사는데, '나'는 그의 초라한 행색과 특이한 버릇 등으로 인해 처음에는 그를 경계한다. 하지만 그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점차 그를 이해한다. 한편, 이사를 올 때부터 임신 중이었던 권 씨의 아내가 출산을 위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에 권 씨는 '나'를 찾아와 수술 비용을 빌려 달라고 부탁한다.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 할 뻔했다.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 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이 얻어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 일 가지고 어느 해 가에 빚을 갚을 것인가.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말을 못 하도록 야멸치게 굴 필요가 있었다.

"병원 이름이 뭐죠?" / "원산부인괍니다."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서마고 약속할 테니까 권 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야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 보세요."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하디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아 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어요."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짓가랑이 뒤에다 두어 번 문질렀다. 발을 바꾸어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썰면'처럼 두툼한 입술이 선잠에서 깬 어린애같이 움씰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 듯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하다든가 잘 먹고 잘살라든가 하는 말이 날아와 내 이마에 탁 늘어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봤을 때 그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 ⓔ"오 선생, 이래 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오."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넣던 어느 학부형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막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는 비쳤다. 산 고팽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혀진 삼륜차로 달려들어 아귀아귀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 씨처럼, 이건 완전히 나체

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의 빚을 지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다. 전셋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다. 왜 더 좀 일찍이 그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른다.

원산부인과에서는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후려 낸 가불에다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닥치는 대로 떨어 간신히 마련한 일금 10만 원을 건네자 금테의 마비츠 안경을 쓴 원장이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시했다. 원장은 내가 권 씨하고 아무 척분도 없으며 다만 그의 셋방 주인일 따름인 걸 알고는 혀를 찼다.

[중략 부분 줄거리] 권 씨의 아들이 태어난 날의 저녁에 '나'의 집에 복면을 쓴 강도가 든다. '나'는 그 강도가 권 씨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달랜다. 하지만 권 씨는 '나'의 말과 행동에 오히려 낭패감을 느끼면서 대문 밖으로 나간다.

[B] 이튿날 아침까지 권 씨는 귀가해 있지 않았다.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러 보았다. 수술 보증금을 구하러 병원 문밖을 나선 이후로 권 씨가 거기에 재차 발걸음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다음 날, 그 다음다음 날도 권 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그리고 본의는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도 이제 확연히 밝혀진 셈이었다. 복면 위로 드러난 ㉡<u>두 눈</u>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 씨임을 대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 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 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구두의 손질의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져 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발이 올려져 있었을 것이며,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좋았던 것이다. 그때 그가 만약 마지막이란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길을 가로막는 그것이 그에게는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 것인가.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딸려 보낸 다음 나는 문간방을 샅샅이 뒤졌다. 방을 내준 후로 밝은 낮에 내부를 둘러보긴 처음인 셈이었다. 이사 올 때 본 그대로 세간이라곤 깔고 덮는 데 쓰이는 것과 쌀을 익혀서 담는 몇 점 도구들이 전부였다.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구태여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자면 그것은 구두일 것이었다. 가장 값나가는 세간의 자격으로 장롱 따위가 자리 잡고 있을 때 꼭 그런 자리에 아홉 켤레나 되는 구두들이 사열받는 병정들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갈하게 닦인 것이 여섯 켤레, 그리고 먼지를 덮어쓴 게 세 켤레였다. 모두 해서 열 켤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일곱 켤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을 해서 매일매일 갈아 신을 한 주일의 소용에 당해 온 모양이었다. 잘 닦여진 일곱 중에서 비어 있는 하나를 생각하던 중 나는 한 켤레의 그 구두가 그렇게 쉽사리 돌아오지 않으리란 걸 알딸딸하게 깨달았다.

– 윤흥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22001-0238]

0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와 [B]는 모두 인물의 일생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② [A]와 [B]는 모두 인물에게 거리를 두면서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③ [A]와 [B]는 모두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
④ [A]는 풍경을 묘사하면서 인물의 심리를 부각하며, [B]는 인물의 상황을 요약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다.
⑤ [A]는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앞날을 예고하며, [B]는 서술자의 교체를 통해 사건의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

[22001-0239]

02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물 간 갈등을 심화하게 한다.
② 인물의 처지가 상세하게 드러나게 한다.
③ 인물이 다른 인물의 정체를 짐작하게 한다.
④ 인물이 다른 인물의 의도를 오해하게 한다.
⑤ 인물이 다른 인물의 마음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공감하게 한다.

[22001-0240]

03 **(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두홍은 최척의 사연에 감동하여 옥영을 만나 최척의 소식을 전한다.
② 돈우는 옥영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면서도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축하한다.
③ 옥영은 돈우와 헤어지기 전 자신을 보호한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④ 학천은 최척과 옥영을 돕기 위해 백금 세 덩이를 돈우에게 지불하고자 한다.
⑤ 뱃사람들은 최척과 옥영의 일에 관심을 표하면서 일부는 재물을 건넨다.

[22001-0241]

04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권 씨는 말과 표정을 통해 '나'에게 신뢰감을 주고자 한다.
② ⓑ: '나'는 권 씨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다.
③ ⓒ: 권 씨는 '나'의 제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④ ⓓ: '나'는 자신의 제안에 대해 권 씨가 실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⑤ ⓔ: 권 씨는 자신의 학력을 밝히면서 '나'를 다시 한번 설득하고 있다.

[22001-0242]

05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에서 주요 사건은 가족의 이산이다. 전쟁의 폭력을 피해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피난을 가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 헤어져 낯선 곳에 홀로 남겨지기도 한다. 가족과 헤어진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가족과 다시 만나는 것인데, 소설은 이러한 상황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전쟁의 상처를 보듬고 그 슬픔을 위로한다. 예를 들어, 「최척전」은 정유재란으로 인해 고향인 남원에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인물들의 삶을 그린다. 이 소설의 인물들은 일본으로 끌려가거나 중국으로 떠나지만, 안남에서 기적적으로 재회하고 종국에는 남원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가족의 재회와 귀향은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거듭된 전란으로 인해 실향의 고통과 이별의 슬픔을 겪었을 당대인의 소망을 반영한 것이다.

① 최척과 옥영이 서로 헤어지고 조선을 떠나게 된 것은 정유재란이라는 전쟁 때문이군.
② 최척과 옥영이 서로를 알아보는 것은 가족의 재회로 볼 수 있군.
③ 조선은 가족이 이산했던 공간이고, 안남은 가족이 재회하는 공간이군.
④ 최척과 옥영이 가족과 헤어진 사연을 나누고 통곡하는 모습에서 전쟁의 상처와 슬픔을 엿볼 수 있군.
⑤ 최척과 옥영이 학천과 함께 남원으로 귀향하는 장면은 당대인의 소망을 대변하는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傳)' 또는 '전기(傳記)'란 개인의 일생을 사적(事跡) 중심으로 기술한 산문을 말한다. 이때 '전기'는 전(傳)과 기(記)의 합성어인데, '전'이 서술자의 의도가 투영된 인물 중심의 역사 기술을 뜻한다면, '기'는 서술자의 개입이 절제된 사건 중심의 역사 기술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물의 행적을 취사선택하여 기록하고 그에 대해 평가를 내리다 보면 전과 기는 불가분의 관계가 된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전(傳)'이라는 한문 전통 양식을 지칭하는 용어를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이 '전기'임을 알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전기의 구성을 도입부, 전개부, 종결부로 나누기도 한다. 도입부는 서술자와 대상 인물의 관계를 밝히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을 암시하는 부분, 전개부는 인물의 가계와 성격 등을 기술하고 인물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부분, 종결부는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대상 인물의 행적에 대해 논평하거나 예찬하며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하지만 전체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구분은 달라지며, 위와 같은 도입부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인물의 행적을 기술할 때에는 대체로 사실에 충실할 것이 강조되지만, 인물을 평가할 때에는 골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물에 대한 삽화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나 왜곡된 인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전기의 형식이나 구성을 빌려 특정 인물이나 사물을 주인공으로 삼은 야담이나 가전을 창작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대상과 관련된 사건이나 대상이 지닌 특징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면서 허구적 성격이 강화되기도 한다.

나 ㉠입동 날 어둑한 새벽에 식영암이 암자 안에서 벽에 의지하여 조는데, 밖에서 누가 뜰에 절하며 "새로운 정시자(丁侍者)가 뵙나이다." 하며, 문안 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이상히 여겨 나가 보니 사람이 섰는데, 형체가 가늘고 길며, 빛이 검고 빛나며 붉은 뿔은 우뚝 뾰죽하여 싸우는 소뿔 같고, 검은 눈망울이 툭 부러져 부릅뜬 눈 같은 것이 기우뚱기우뚱 들어와 오뚝히 섰다. 나는 처음 놀라고 이윽고 불러 말하기를, "여보게, 앞으로 오게. 우선 물을 것이 있네. 자네가 왜 이름이 정씨요,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왔는가, 또 내가 평소에 자네 얼굴을 알지 못하는데, 자네가 시자라 일컬음은 무엇 때문인가. 무슨 할 말이 있는가." 하니,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은 깡충깡충 뛰어나와 차분차분 삼가 대답하였다.

"옛날의 성인으로 소 머리를 가진 이가 포희씨온데 그분이 저의 아비요, 뱀의 몸을 가진 이가 여와이온데 그분이 저의 어미로소이다. 저를 수풀 속에 낳아 버리고 기르지 않아 서리와 우박이 칠 때에는 말라져 죽은 듯하였사오나, 바람과 비가 은혜를 내리면 다시 살아 번영한 듯하여, 추위와 더위를 천백 번 겪은 뒤에 자라나 인재(人材)를 이루었습니다. 여러 대를 지나 ㉡진나라 속세에 이르러 범씨의 가신이 되어서 비로소 몸에 옻칠하는 기술*을 배웠사오며, 내려와 당나라 승대에는 조로*의 문인이 되었사옵고, 또 철취의 호를 더하였나이다. 그 뒤에 정도 땅에 놀았는데 정삼랑을 길에서 만나니, 그가 저를 익히 보고 하는 말이, '자네의 형(形)이 위는 건너지르고 아래는 내리그리었으니, 마땅히 내 성을 자네 성으로 줌세.' 하였으나, 저는 그 말을 좇아 고치지 않으려 하옵나이다. 대개 저의 직책이 사람을 붙들어 모심에 있사온데, 사람 사람마다 저를 부려 제가 천하고 또 고달프오나, 그 사람이 아니면 감히 저를 부르지 못하므로 제가 붙들어 모시는 이가 워낙 적었나이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돌아가 의지할 바를 잃어 해내를 떠돌

다가 토우에게 웃음을 당함이* 이제 오래였사온데, ㉣어제 하늘이 저의 기구한 운명을 불쌍히 여겨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를 화산에 시자로 삼으니, 가서 직을 받들고 스승을 오직 삼가 섬길지어다.' 하시기로, 저는 명을 듣잡고 기뻐 뛰며 외다리로 왔사오니, 바라옵건대 장로께서 용납하여 받으시옵소서." 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후덕스럽구나. 정 상좌, 옛 성인이 남긴 몸이여. 뿔이 무너지지 않았음은 장함이요, 눈이 도망하지 않음은 용(勇)이요, 몸에 옻칠하여 은혜와 원수를 생각함은 신(信)과 의요, 쇠주둥이로 민첩히 묻고 대답함은 지(智)와 변(變)이요, 붙들어 모심을 직책으로 함은 인과 예요, 돌아가 의지할 것을 택함은 정(正)과 명(明)이다. 이 여러 미덕을 모아 길이 살아 늙거나 죽지 아니하니, 성인이 아니면 곧 신이라, 어찌 내가 너를 부릴 것이냐. 나는 이 중의 하나도 가진 것이 없으니, 그대의 친구라도 마땅하지 않거늘, 하물며 스승이 될 수 있으랴. 화도에 또 화란 이름을 가진 산이 있는데, 각암이라는 늙은 화상이 그 산에 머무른 지 이미 이 년이다. 산은 비록 이름이 같으나 사람은 덕이 같지 않으니, 하늘이 그대를 가라고 명한 것은 이곳이 아니요, 대개 그곳이리라. 그대는 그리로 갈지어다." 하고, 이어 노래를 불러 보내기를, "정아, 성큼성큼 각암의 뜰로 가거라. 나는 여기서 박과 오이처럼 매여 사는 몸, 너 정(丁)만 못하구나." 하였다.

– 석식영암, 「정시자전」

* **범씨의 ~ 옻칠하는 기술**: 진나라의 예양이 주인의 원수를 갚으려고 몸에 옻칠을 하였던 고사를 이름.
* **조로**: 말을 잘하여 '쇠주둥이'라고 불렸던, 당나라 때 유명한 승려 조주를 칭함.
* **토우에게 웃음을 당함이**: 전국 시대 웅변가 소대가 한 말. 토우가 목우에게 '나는 본래 흙으로 된 것이라 풀어져서 고향인 흙으로 가지만, 비가 와서 물이 많이 나면 너는 물에 떠서 어디로 갈지를 모를 것이다.'라고 말하는 내용임.

다 그는 조선이 개국한 지 384년째 되던 **해**, 압록강 동편으로 1천여 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다. **조상은 신라에서 나왔고, 밀양이 그 관향**이다. 『대학』에 나오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에서 취해 제가라 이름 짓고, 『이소』에 들어 있는 노래 「초사」에 의탁하여 호를 초정이라 하였다.

그의 사람됨은 이러하다. 물소 이마에 칼 같은 눈썹, 초록빛 눈동자에 흰 귀를 지녔다. ㉤고고한 사람만을 가려 더욱 가까이 지내고, 권세 있는 자를 보면 일부러 더 멀리하였다. 그런 까닭에 **세상과 맞는 경우가 드물어 언제나 가난했다.**

어려서는 문장가의 글을 배우더니, 장성해서는 **국가를 경영하고 백성을 제도할 학문**을 좋아하였다. 몇 달씩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고명한 일에만 마음을 두고 세상일에는 무심하였으며, 사물의 명리를 종합하고 깊고 아득한 세계에 침잠하였다. ㉥백세 이전의 사람들과 흉금을 트고, 그 뜻은 만 리를 넘어 날아다녔다.

구름과 안개의 기이한 자태를 관찰하고, 온갖 새의 신기한 소리에 귀 기울였다. 아득히 먼 산과 시내, 해와 달과 별자리, 지극히 작은 풀과 나무, 벌레와 물고기, 서리와 이슬, 날마다 변화하지만 정작 왜 그런지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자옥하게 마음속에서 깨달으니, 말로는 그 정상(情狀)을 다 표현할 수가 없고, 입으로는 그 맛을 충분히 담아낼 수가 없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 혼자만 알 뿐 **다른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고 여겼다.**

아아! 형체만 남기고 가 버리는 것은 정신이요, **뼈는 썩어도 남는 것은 마음이다.** 이 말의 뜻을 아는 자는 생사와 성명의 밖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리라. 찬(贊)한다.

– 박제가, 「소전」

[22001-0243]

01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와 (다) 모두 '서술자와 대상 인물의 관계'를 밝히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을 암시하는 도입부는 생략되어 있다.
② (나)는 낳아 주신 부모의 이름을 밝혀 인물의 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다)는 부모를 밝히지 않고 인물의 가계를 언급하고 있다.
③ (나)는 '정시자', 즉 지팡이를 의인화하여 허구적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면, (다)는 '그'의 이름이 '제가'임을 밝혀 작가 자신에 대한 글임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두 인물 간의 대화 형식을 활용하고 있고, (다)는 서술자가 선택한 행적 위주로 인물의 생애를 기술하고 있다.
⑤ (나)의 종결부에는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가 확인되지 않지만, (다)의 종결부에는 대상을 예찬하여 드러내려는 태도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22001-0244]

02 (나)의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상치 못한 '정시자'의 방문에 놀라 자신을 찾아온 연유를 묻고 있다.
② '정시자'가 지닌 긍정적 속성을 열거한 후 자신과 비교하여 부각하고 있다.
③ 어울리는 사람을 찾아 달라는 '정시자'의 요청을 듣고 적당한 이를 소개하고 있다.
④ '화산'에 머무르고 있는 '각암'이라는 화상을 언급하며 그의 덕망을 칭송하고 있다.
⑤ 자신의 삶을 '박과 오이'에 빗대며 '정시자'와 함께하지 못하는 까닭을 드러내고 있다.

[22001-0245]

03 (가)와 관련지어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에서 '식영암'이 '정시자'를 만난 시간과 공간을 알 수 있으며, 이렇게 시·공간적 배경을 설정한 것은 가상 인물의 행위가 실제 일어난 것처럼 서술하기 위한 것이겠군.
② ㉡에서 '정시자'의 외양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역사적 사건과 관련지어 서술한 것은 대상의 특징을 과장하여 드러내는 방식의 하나일 수 있겠군.
③ ㉢에서 '정시자'가 식영암을 찾아온 것이 '하늘'의 '명'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굳이 이러한 상황을 설정한 것은 인물의 행동을 그럴듯하게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겠군.
④ ㉣에서 서술 대상인 '그'가 '권세 있는 자'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대상에 대해 서술자의 왜곡된 인식이 생긴 까닭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⑤ ㉤에서 서술 대상인 '그'가 지녔던 학문적 태도나 포부를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인물의 행적을 과장하여 제시하면서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겠군.

[22001-0246]

04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박제가는 영조 26년(1750) 밀양 박씨 사대부가의 서자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11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한 생활을 하다가 이덕무의 소개로 박지원의 문하에 들어가 실학을 공부하였다. 사행단으로 청나라의 문물을 관찰하고 돌아와 이용후생에 필요한 기술과 도구를 도입할 것과 국내의 상업과 국외 무역을 장려할 것을 주장하는 『북학의』 등을 남겼다. 이후 정조의 총애를 받아 정3품 벼슬에 오르기도 하였지만, 그의 주장은 당시 조선의 학자들에게 너무 혁신적이고 과격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훗날 개혁에 반대하는 무리들의 박해를 받아 유배를 당하기도 하였다.

① '조상은 신라에서 나왔고, 밀양이 그 관향'이라고 언급한 것은 서울에서 태어난 박제가의 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군.

② '세상과 맞는 경우가 드물어 언제나 가난했다.'라는 말은 아버지를 여의며 시작된 가난을 겪으며 벼슬자리에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의미하는군.

③ '국가를 경영하고 백성을 제도할 학문'을 언급할 때에는 박제가가 박지원의 문하에서 배웠던 실학과 청나라에서 경험한 새로운 문물을 떠올렸겠군.

④ '다른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고 여겼다.'라는 말에는 박제가 자신이 쓴 저서가 당시의 학자들에게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겠군.

⑤ '뼈는 썩어도 남는 것은 마음이다.'라는 표현에는 박제가의 개혁에 반대하며 자신을 박해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해도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투영되어 있겠군.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濁醪)* 계변(溪邊)에 금린어(錦鱗魚)가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閑暇)해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춘사〉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없다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해옴도 역군은이샷다 〈하사〉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흘리 띄워 던져 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해옴도 역군은이샷다 〈추사〉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한 자 넘다
삿갓 빗기 쓰고 누역(縷繹)*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해옴도 역군은이샷다 〈동사〉

– 맹사성, 「강호사시가」

* **탁료**: 막걸리.
* **역군은이샷다**: 또한 임금의 은혜로다.
* **초당**: 별채로 지은 초가집.
* **누역**: 비나 눈을 막기 위해 볏짚 등으로 만들어 입는 도롱이.

나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A] ┌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푸르도다
칼로 말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에 다를쏘냐
시비(柴扉)에 걸어 보고 정자(亭子)에 앉아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하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한데
한중진미(閑中眞味)를 알 이 없이 혼자로다
이봐 이웃들아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

[B] 답청(踏靑)일랑 오늘 하고 욕기(浴沂)일랑 내일 하세
[B] 아침에 채산(採山)하고 저녁에 조수(釣水)하세
[C] 갓 괴어 익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걸러 놓고
[C] 꽃나무 가지 꺾어 수(數) 놓고 먹으리라
[D] 화풍(和風)이 건듯 불어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D] 청향(淸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에 진다
준중(樽中)이 비었거든 날다려 아뢰어라
소동(小童) 아해더러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해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야 시냇가에 혼자 앉아
[E] 명사(明沙) 맑은 물에 잔 씻어 부어 들고
[E] 청류(淸流)를 굽어보니 떠오나니 도화(桃花)로다
무릉(武陵)이 가깝도다 저 산이 거기인고

– 정극인, 「상춘곡」

* **조화신공(造化神功)**: 각기의 사물에 불어넣은 조물주의 신령스러운 공덕.
* **헌사롭다**: 야단스럽다.

다 이웃에 장생(張生)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다. 장차 집을 지으려고 산에 들어가 재목을 구하였는데 빽빽이 들어찬 나무들 모두가 구불구불하게 비틀어져 용도에 맞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산속에 있는 무덤가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앞에서 보아도 곧바르고 왼쪽에서 보아도 쭉 뻗었으며 오른쪽에서 보아도 곧기만 하였다. 그래서 좋은 재목이라 생각하고는 도끼를 들고 그쪽으로 가서 뒤에서 살펴보니 슬쩍 구부러져 쓸 수 없는 나무였다.

이에 도끼를 내던지고 탄식하기를,

"아, 재목이 될 나무는 얼른 보아도 쉽게 알 수가 있어 고르기가 용이한 법인데, 이 나무의 경우는 내가 세 번이나 다른 쪽에서 살폈어도 쓸모없는 나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 용모를 그럴듯하게 꾸미면서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 말을 들어 보면 조리가 정연하고 그 용모를 살펴보면 선량하게만 여겨지며 사소한 행동을 관찰해 보아도 삼가며 몸을 단속하고 있으니 영락없이 군자의 모습이라고 할 것인데, 급기야 큰 변고를 당해 절개를 지켜야 할 때에 가서는 본래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마니, 국가가 결딴나고 마는 것은 늘 이런 자들 때문이다.

대저 나무의 생장 과정을 보건대, 소나 염소가 짓밟지도 않고 도끼나 자귀에 의해 해침을 받지도 않는 채 비와 이슬을 맞고 무성해지면서 밤낮으로 커 나가니 쭉쭉 뻗어 곧게 올라가야 마땅할 것인데도 그만 이토록 구부러져 쓸모없이 되는 경우가 또한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의 경우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물욕(物欲)이 참된 성품을 혼탁하게 하고 이해(利害)관계가 분별력을 흐리게 한 나머지 천성(天性)이 왜곡되어 본래의 모습에서 일탈된 경우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

으니, 별나게 행동하며 속임수를 쓰는 자는 많고 바르고 곧게 행동하는 자가 적은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하고는 마침내 이 일을 장자(張子)*에게 이야기하였다. 장자가 대답하였는데, 그 말이 이러하였다.

"관찰력이 대단하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나 역시 해 줄 말이 있다. 「홍범(洪範)」에서 오행(五行)을 논할 때 목(木)에 대해서는 그 속성이 구부러지고[曲] 바르다[直] 하였다. 그러고 보면 나무가 굽었을 경우 재목으로는 쓸 수 없을지 몰라도 속성으로 볼 때는 원래가 그러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의 속성이 바르기만 하니 바르게 행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요행히 환란을 면한 것이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사람으로 태어나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는데도 죽음을 면하는 것 역시 요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보건대, 나무가 구부러졌을 경우는 비록 보잘것없는 목수라 하더라도 가져다 쓰는 법이 없지만, 사람이 곧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리 정치를 잘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내버리고 쓰지 않은 적이 없다. 자네도 **큰 건물**을 한번 보게나. 마룻대나 기둥이나 서까래는 말할 것도 없고 구름 모양으로 꾸미거나 물결처럼 장식할 경우에도 **구부러진 재목**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였다. 이번에는 조정을 한번 보게나. 공경(公卿)과 사대부(士大夫)로서 화려한 관복(官服)을 입고는 조정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자들치고 바른 도(道)를 소유한 자는 보지를 못하였다. 이처럼 구부러진 나무는 늘 불행하지만 비뚤어진 사람은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 '활줄처럼 곧으면 길가에서 죽고 갈고리처럼 굽으면 공후(公侯)에 봉해진다.'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 말을 통해서도 곡사(曲士)가 곡목(曲木)보다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징험할 수 있을 것이다."

– 장유, 「곡목설」

* **장자**: 글쓴이인 장유 자신을 가리킴.

[22001-0247]

01 **(가)와 (나)의 화자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타인의 삶을 이상화하여 그를 찬양하고 있다.
② 현재 누리고 있는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③ 미래에 다가올 이상적 삶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과거에 누리던 삶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현실적 한계를 넘어 숭고한 이념을 추구하려는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

[22001-0248]

0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춘사〉~〈동사〉가 동일한 구조의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수의 형식적 통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춘사〉의 '계변'은 '미친 흥'이 나는 곳이라는 점에서 〈추사〉의 '소정'에 비해 더 가치 있는 공간으로 여기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춘사〉의 '한가해옴'과 〈추사〉의 '소일해옴'은 의미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화자가 영위하고 있는 생활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하사〉의 '서늘해옴'과 〈동사〉의 '춥지 아니해옴'은 표면적 의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심층적으로는 안락함이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동사〉에서는 화자가 강호의 어떤 공간에 위치해 있는지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춘사〉~〈추사〉와는 다르게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001-0249]

03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유사하거나 대등한 위상을 갖는 단어나 구절을 유사한 문장 구조로 엮어서 나란히 배열하는 병렬은 가사 작품에서 풍경이나 행위, 정서 등을 표현하면서 시상을 전개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병렬은 시간이나 공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행동이나 사물 등을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계기적(繼起的) 병렬과 특정한 기준에 따른 순서와 무관하게 배열하는 계열적(系列的) 병렬로 나눌 수 있다.

① [A]에서는 '도화행화'에 이어 '녹양방초'를 계기적으로 병렬하여, 화자의 흥취를 자아내는 봄날의 풍경을 시각화하고 있다.
② [B]에서는 '오늘'에 이어 '내일'을, '아침'에 이어 '저녁'을 각각 계기적으로 병렬하여, 분주하게 봄날을 즐기는 일상을 나열하고 있다.
③ [C]에서는 '갈건으로 걸러 놓고'와 '수 놓고'를 계열적으로 병렬하여, 한가롭게 취흥을 즐기는 장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D]에서는 '화풍'과 '녹수'를, '청향'과 '낙홍'을 각각 계기적으로 병렬하여, 봄바람에 의해 촉발된 풍경을 촉각적 이미지로 그려 내고 있다.
⑤ [E]에서는 '맑은 물'과 '청류'를 계열적으로 병렬하여, 물에 떨어진 꽃잎을 안타까워하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22001-0250]

04 **(다)에 나타난 장생과 장자의 관점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장생과 장자 모두 나무는 속성상 구부러질 수 없다고 본다.
② 장생과 장자 모두 사람은 본성상 위선적일 수 있다고 본다.
③ 구부러진 나무에 대해 장생은 비정상이라고 보고 장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④ 바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장생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장자는 비정상이라고 본다.
⑤ 사람에 대해 장생은 본성상 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장자는 본성상 바르다고 본다.

[22001-0251]

05 **〈보기〉의 '장자'의 입장에서 (다)의 글쓴이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혜자(惠子)가 장자(莊子)에게 말했다. "당신이 하는 말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뿐이다." **장자**가 말했다. "쓸모가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야 무엇이 참으로 쓸모가 있는 것인가를 말할 수 있다. 땅이 넓지만 사람이 서 있는 데는 발을 둘 곳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발을 둘 곳만을 남기고 그 주위를 깊숙이 파 버린다면 사람이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서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쓸모없는 것 또한 쓸모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지 않는가."

—『장자』

① 곧은 나무라고 해서 항상 긍정적인 가치를 가진 용도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② 인간의 입장에서는 곧은 나무가 더 유용하지만 짐승의 입장에서는 굽은 나무가 더 유용하다.
③ 굽은 나무가 존재함으로써 곧은 나무도 건물의 재목으로 선택되어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④ 굽은 나무도 곧은 나무를 구할 수 없을 때는 그 대신으로 선택되어 요긴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
⑤ 나무의 굽고 곧음은 모두 자연의 섭리이므로 그 가치의 우열은 상황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밖에 없다.

[22001-0252]

06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대부'는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을 각각의 본업으로 삼는 '사(士)'와 '대부(大夫)'가 합쳐진 말로서, 둘은 서로 이어지기도 하고 별개로 존재하기도 한다. 이들에 의해 향유된 조선 시대 문학에서는 자연의 의미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의 경우 작가가 벼슬살이 도중 정치적인 이유로 잠시 '사'의 위치에 머물렀던 시기에 썼는지, '대부'로 복귀하였다가 완전히 퇴임한 후 말년에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연은 연군(戀君)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연은 (나)에서와 같이 미적 대상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다)에서 보듯이 자연은 삶의 이치와 세상의 근원적 질서를 의미하는 도(道)를 내포하고 있는 상징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들 작품에서는 자연 그 자체의 조화 혹은 자아와 자연 간의 조화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자연관의 기저에는 세상의 만물이 초월적 섭리에 따라 질서를 이룬 채 조화롭게 운행되어야 한다는 유교적 이상주의가 깔려 있다.

① (가)가 만일 작가가 잠시 '사'의 위치에 머물렀던 시기에 지은 것이라면, 자연은 사대부가 치인의 본업으로 복귀하기 위한 예비적 공간이라 할 수 있겠군.

② (가)가 만일 작가가 완전히 퇴임한 후 말년에 지은 것이라면, '역군은이샷다'라는 표현은 수기의 공간에서도 '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할 수 있겠군.

③ (나)에서 봄날의 풍경을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로 응집시킨 것은, 초월적 섭리에 따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자연에 대해 사대부로서 보내는 찬사라 할 수 있겠군.

④ (나)에서 '한중진미를 알 이 없이 혼자'라고 한 것은, 유교적 이상주의의 관점에서 자아와 자연 간의 조화가 깨어진 데 대한 아쉬움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군.

⑤ (다)에서 '구부러진 재목'이 없는 '큰 건물'에 빗대어 조정을 비판한 것은, 수기가 부족한 사람이 치인의 영역에서 활약하는 것이 유교적 이상주의에 어긋난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 할 수 있겠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은 적적 월황혼(月黃昏)에 두견 울어도 임 생각이요 밤은 침침 야삼경(夜三更)에 접동이 울어도 임 생각이라

침상편시춘몽중*하여 베개 위에 빌은 잠은 계명축시(鷄鳴丑時)*에 놀라 깨니 임의 흔적은 간곳없고 ㉠다만 등불만이로다. 그러매로 식불감미(食不甘味)*하여 밥 못 먹고 침불안석(寢不安席)*하여 잠 못 자며 장장지야(長長之夜)를 허송하게 보내며 독대(獨對) 등촉(燈燭)으로 벗을 삼으니 뉘 탓을 삼으랴. 설분(雪憤)을 하잔 말가

주야장천(晝夜長天)에 ㉡믿을 곳 없어서 못 살겠구나

– 작자 미상

* 침상편시춘몽중(枕上片時春夢中): 침상에서 잠시 봄꿈을 꾸는 중.
* 계명축시: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새벽 시간.
* 식불감미: 근심과 걱정으로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음.
* 침불안석: 걱정이 많아서 잠을 편히 자지 못함.

나 그렁저렁 얻은 보리 들고 가기 어려우리
어느 노비 수운(輸運)하리 아모려나 져 보리라
갓은 숙여 지려니와 홑 중치막* 어찌할꼬
주변머리 으뜸이라 변통을 아니하랴
넓은 소매 구겨 질러 품속으로 넣고 보니
긴등거리 제법이라 하 괴이치 아니하다
[A] ㄱ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ㄴ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미옵는 듯
아무리 굽히려도 자빠지니 어찌하리
머지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 겨우 오니
존전(尊前)의 출입인가 한출첨배(汗出沾背)하는고야
저 주인 거동 보소 코웃음 비웃으며
양반도 하릴없네 동냥도 하시었고
귀빈도 속절없네 등짐도 지시었고
밥 싼 노릇 하오시니 저녁밥 많이 먹소
(중략)
예 못 보던 네모반에 수저 갖추어 장 김치에
나락밥이 돈독하고 생선 토막 풍성하다
그래도 설이로다 배부르니 설이로다

고향을 떠나온 지 어제로 알았더니
내 이별 내 고생이 격년사(隔年事) 되었구나
어와 섭섭하다 정초(正初) 문안 섭섭하다
북당 쌍친(雙親)이 백발이 더하시고
공규(空閨) 화조(花朝)는 얼마나 늦었는고
오 세에 떠난 자식 육 세 아이 되었구나
내 아녀 임이라도 내 설움은 서럽다 하리
천리일별(千里一別)에 해 벌써 바뀌도록
일자(一字) 가신(家信)을 꿈에나 들었을까
운산(雲山)이 막혔는 듯 하해가 가렸는 듯
의창전(依窓前)* 한매(寒梅) 소식 물어볼 길 전혀 없네
바닷길 일천 리가 멀기도 하려니와
약수(弱水) 삼천 리에 청조(靑鳥)가 전신(傳信)하고
은하수 구만 리에 오작(烏鵲)이 다리 놓고
북해상 기러기는 상림원(上林苑)에 날아나니
내 가신 어이하여 이다지 막혔는고
[B] ┌ 꿈에나 혼이 가서 고향을 보련마는
└ 원수의 잠이 올 제 꿈인들 아니 꾸랴
흐르나니 눈물이요 짓나니 한숨이라
㉣눈물인들 한(限)이 있고 한숨인들 끝이 있지
내 눈물이 모였으면 추자섬이 생겼으며
이 한숨이 쌓였으면 한라산을 덮었으니
해안에 낙조하고 어촌에 연기 날 제
㉤사공은 어데 가고 빈 배만 매였는고

– 안도환, 「만언사」

* **중치막**: 남자들이 입는, 소매가 넓고 긴 웃옷.
* **의창전**: 창 앞에 기대어 있음.

다 옛날에 유생 세 사람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한 사람은 거울이 땅에 떨어지는 꿈을, 한 사람은 애부(艾夫)*가 문 위에 걸린 꿈을, 또 한 사람은 바람에 꽃이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 세 사람이 해몽하는 사람 집으로 갔는데, 해몽하는 사람은 집에 없고 그의 아들만 있었다. 세 사람이 아들에게 꿈을 물으니 해몽하기를, "세 가지 모두 불길한 것들이니, 소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조금 이따가 해몽하는 사람이 와서 그 아들을 꾸짖고 시를 지어 주었다.

갈래 복합 09

애부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바요　　艾夫人所望
거울이 떨어지면 어찌 소리가 없겠는가　　鏡落豈無聲
꽃이 떨어지니 응당 열매가 있을 것이니　　花落應有實
세 분이 함께 명성을 얻으리로다　　三人共成名

세 사람이 과연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다.

– 성현 엮음, 「세 선비의 꿈」

*애부: 짚이나 헝겊 등으로 만든 인간 형상의 물체.

[22001-0253]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에서는 시간을 표시하는 시어들을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공간적 배경의 변화에 상응하면서 서로 대비되는 화자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③ (가)와 (나)에서는 모두 자연물의 감각적 심상을 제시하여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④ (나)에서는 (가)에서와 달리 공간적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단절감을 나타내고 있다.
⑤ (나)에서는 (가)에서와 달리 특정한 세시풍속을 배경으로 하여 화자의 정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22001-0254]

02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화자가 자신도 모르게 잠깐 잠들었다가 깼음을 말해 준다.
② ㉡: 현재의 화자가 지닌 정서가 임에 대한 신뢰의 동요와 연관됨을 말해 준다.
③ ㉢: 화자가 등짐을 지고 나르는 일에 익숙하지 않음을 말해 준다.
④ ㉣: 화자가 현재의 처지에서 조만간 벗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⑤ ㉤: 자신의 거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화자의 상황을 말해 준다.

[22001-0255]

03 **〈보기〉는 (다)를 대상으로 한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문학 작품을 이해할 때는 그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여부보다는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실이 더 중요해요. 이 이야기는 해몽하는 사람의 신통력을 보여 주는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 있다고 봐야 해요. 가령 거울이 떨어지는 경우, 그것은 소리를 내며 깨진다는 점에서 불길한 징조로 보이지만, 시끄러운 소리가 잔치의 흥겨운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해몽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질책한 건 아들이 이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이 이야기가 말하는 진실이 무엇이라고 보나요?

학생: 그것은 [ ]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① 인간에 대한 존중은 편견 없는 시선에서 출발한다
② 통념에 갇혀 있으면 대상의 전체적인 면모를 왜곡하기 쉽다
③ 타인을 괴롭히는 말은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말로 되돌아온다
④ 사람에 대한 과소평가가 오히려 더 나은 성장을 자극할 수도 있다
⑤ 타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폄하하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도 타락한다

[22001-0256]

04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인간은 본성상 결핍을 느낄 때는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마련이다. 그 '무엇'은 종종 꿈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꿈은 원래 잠자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 현상을 가리키는 말인데, 실현하고 싶은 소망이나 이상을 뜻하기도 하며, 반대로 헛된 기대나 허망하게 끝난 일을 뜻하기도 한다. 이에 더하여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데 단서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하는 말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① (가)에서 꿈은 임을 잠시 만나는 통로라는 점에서 잠자는 동안의 정신 현상이기도 하고, 임과의 재회가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허망하게 끝난 일이기도 하군.
② (나)의 [A]에서 화자는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일을 꿈이라고 표현하여 자신의 처지를 믿을 수 없는 현실로 여기며 부정하고 있군.
③ (나)의 [B]가 가족 생각이 간절해서 잠을 들 수 없는 화자의 상황에 대한 묘사라면, 여기에서 꿈이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정신 현상으로서 가지는 기능을 엿볼 수 있군.
④ (다)에서 꿈의 서사적 기능은 세 유생이 추구하는 소망의 좌절을 예언하는 것에서 소망의 실현을 암시하는 것으로 전환되었군.
⑤ (가)와 (다)의 꿈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각각 화자와 인물들에게 현재의 소망을 대체할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는 전기가 되고 있군.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쟁이나 억압적 정치 현실의 폐해 같은 역사적인 경험은 문학 작품들이 주목하는 소재가 되곤 한다. 신문 기사나 역사적 사료들이 주로 사실들에 주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면, 문학 작품은 그 사실들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 때로는 그 사실들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던 또 다른 진실들에 주목하려는 경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문학 작품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향을 그려 내기만 하기보다 현실의 진실을 마주함으로써 더욱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950년대 소설 한 편과 1960년대의 시 한 편을 예로 들어 확인할 수 있다.

1950년대의 문학 작품들은 전쟁 자체에 주목하여 그것이 가져온 물질적 · 정신적 피해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사실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정신적 갈등이나 사회 · 문화적 갈등을 더욱 넓은 맥락에서 파악한 작품도 있었다. 정한숙의 소설 「고가(古家)」는 주인공이 전쟁을 통해 겪게 되는 피해를 보여 주기도 하지만, 작품의 내용은 대부분 전쟁 전의 모습을 담고 있다. 6 · 25 전쟁으로 인해 개인의 실존적 측면이나 사회적 · 문화적 가치 측면 등에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잠재적인 요인들은 전쟁 전부터도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전쟁이 가져온 폐해 못지않게 그 이전부터 작용해 오던 사회의 질서 또한 전쟁 이후에도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폐해였다는 비판적 시각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의 문학 작품들은 4 · 19의 경험이 덧붙여지면서 현실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강하게 보이기도 한다. 산을 포함하여 자연에 대한 작품을 많이 남긴 시인 신석정의 시 「산은 알고 있다」는 현실 도피를 위한 이상향으로서의 자연을 그리지 않는다. 이 작품에서는 오랜 역사를 겪어 온 산을 인간에 비해 영속성을 가진 존재로 그렸으나,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을 지향함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산은 인간이 가리려고 하는 진실을 함께 기억하고 비판적으로 반추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또한 과거의 아픔을 간직하며 ⓐ언젠가는 현실 속에서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이상향을 만들어 가고자 기울이는 ⓑ현재의 노력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시제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앞부분 줄거리]** 김씨 종가의 종손인 필재는 일제 강점기이던 어린 시절 종가의 전통을 이으려는 할아버지와 새로운 문물을 따르려는 숙부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해방 후 필재는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가고 필재의 할아버지와 첩 사이에서 낳은 자식인 태식은 자신을 종의 자식으로 여기며 고향에 남아 좌익 운동을 하는 한편 종가의 뜰 안 나무들을 베어 팔아 버린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필재가 고향으로 내려온 후 6 · 25 전쟁이 발발하였고, 필재가 흠모하던 길녀도 좌익 운동에 가담한다. 이후 인민군이 후퇴하게 되는 상황에서 태식은 길녀와 함께 산으로 간다는 말을 남긴 채 필재의 할머니가 거처하던 방에 불을 지르고 떠난다.

마을이 수복되자 김씨 마을 사람들은 다시 고개질하고 이씨 마을 사람들은 기를 펴지 못해야만 했다.
필재에겐 그것이 싫었다. 서로 핥고 깎으려 드는 그런 싸움에 완전히 흥미를 잃고 말았다.
필재는 무슨 영문인지 골로 붙잡혀 갔다.
㉠태식으로 인해 어떤 혐의를 받고 불려 갔을 뿐이었다.
그래도 필재는 거기서 근 일주일이나 묵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청천벽력 같은 일이 또 벌어져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것이었다. / 그의 눈에선 인전 눈물이 고갈된 듯싶었다.

㉡어머니의 한평생도 결국은 이 낡아 빠진 집을 위하여 희생물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자 필재는 가슴이 또다시 무너지는 것같이 뭉클거렸고 새로운 눈물이 쏟아져 흘렀다.

필재는 더 이 마을에 머물러 있기가 싫었다. 아무리 바빠도 며칠은 더 근신하다 가야 한다는 종친(宗親)들의 권하는 소리도 물리치고 마을을 떠나 버리고 말았다.

필재가 이번에 고향으로 내려온 것은 다름이 아니었다.

타다 남은 백여 칸의 집과 거기에 소속된 대지 등을 말짱스레 정리해 버릴 결심으로 내려온 것이다.

㉢마을로 내려온 이상 필재는 가까운 종친들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옛날이나 다름없이 극진히 종손 대접을 해 주며 야단법석들이다.

그러나 필재로서는 이 늙은이들이 무슨 까닭에 자기를 향하여 굽실거리며 또 자기는 무슨 까닭에 오기를 띠어야만 하는지 모두가 다 우스운 일이다.

필재가 내려온 지 이삼일 후, 이번엔 필재가 집을 정리하러 내려왔다는 말이 전해지자 가까운 종친들은 물 끓듯 수군거렸다.

드디어는 필재의 집 사랑방에서 저녁부터 갓을 단정히 쓴 노인들과 필재는 회의를 열어야만 했다.

㉣오륙십 명 모여든 그들은 자기들이 돈 백만 환이나 마련하여 놓을 테니까 어서 집을 수리하고 시골로 내려와 자리를 잡으라는 의견들이었다.

영락한 종가와 종손을 도우려는 그들의 성의인진 몰라도 필재에겐 모두가 달갑질 않았다.

그래도 필재는 자기 뜻을 굽히려 하질 않았다.

그 늙은이들은 종가 없는 마을에 무슨 체면으로 살아가겠느냐고까지 호소하는 것이었다.

임진, 동학 양란에 이 집이 온통 불구덩이가 되었던 것을 선조들이 다시 개축했다는 것도 오늘 보면 이런 식으로 집을 늘리고 담을 늘렸으리라고 필재는 짐작할 수 있었다.

㉤선조들이 그렇게 해서 개축한 까닭에 원통한 무리죽음이 많이 생겼거늘 필재는 또다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싶진 않았다.

그들이 떠들어 대는 틈바구니에 앉아서도 필재는 종가와 종손이 그들에게 무슨 이익을 주기에 저렇게 목을 매다시피 애원하는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여보게, 두말 말고 자네가 내려오게……. 그래서 내후년엔 여기서 출마를 하게. 장동 김씨도 한번 불호령하고 살아 봐야 하지 않겠나……. 자네가 내려와 출마를 하면 돈 쓰지 않고도 염려 없어……. 그동안 우리 표를 그들에게 모아 주었으니까 우리가 말한다면 들어주지 않겠나?"

성미가 괄괄한 그 친구는 필재에게 이런 소리를 몇 번이나 되풀이하며 두말 말고 내려와 입후보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필재에겐 모두가 귓등으로만 들리는 소리였다.

밤새껏 앉아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 봤댔자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필재에겐 무섭고 두려운 소리뿐이었다.

언제부터 정치엔 눈이 밝아졌는지 그들은 서울 사람 뺨 쳐 먹을 정도인 것만 같았다.

종파(宗派)를 나누고 문중(門中)을 따지고, 모든 이 나라의 비극은 종가를 중심해서 벌어진 것 같았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 필재 자기요, 그 희생자가 태식이와 길녀인 것만 같았다.

필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을 다시는 반복시킬 순 없었다.
필재는 끝끝내 견디다 이렇게 한마디 던지곤 밖으로 나와 버렸다.
"종가를 팔아 치운다는 것은 도의상 안됐지만, 그것은 내 개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겠소……."
여러 잡음이 듣기 싫었던 까닭에 필재는 기어코 쏘아붙였던 것이었다.
오십여 명이 둘러앉은 자리가 별안간 소란스러워지는 것 같았다.
밖은 그대로 어둡기만 했다. 이 어둠이 가시면 새 아침이 오듯이 종가도 종손도 허물어짐으로 하여 진정 길녀나 태식이나 자기 같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만 같다.
수목이란 수목이 모조리 잘려 나간 넓은 뜰엔 아직도 뻗대고 고집만을 부리던 조부의 얼굴 같은 고가(古家)의 그림자가 별빛 아래 어렴풋이 보인다.

– 정한숙, 「고가」

다 산은 어찌 보면 운무(雲霧)*와 더불어 항상 저 **아득한 하늘**을 연모하는 것 같지만 오래오래 겪어 온 피 묻은 역사의 그 생생한 기록을 잘 알고 있다.

산은 알고 있다.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리고 그 기나긴 세월에 묻어 간 모든 **서럽고 빛나는 이야기**를 너그러운 가슴에서 철철이 피고 지는 꽃들의 가냘픈 이야기보다도 더 역력히 알고 있다.

산은 가슴 언저리에 그 어깨 언저리에 스며들던 더운 피와 그 피가 남기고 간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마련하는 역사와 그 역사가 이룩할 줄기찬 **합창소리**도 알고 있다. 산은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이다.

이슬 젖은 하얀 촉루(髑髏)*가 딩구는 저 능선과 골짜구니에는 그리도 숱한 풀과 나무와 산새와 산새들의 노랫소리와 그리고 그칠 줄 모르고 흘러가는 시냇물과 시냇물이 모여서 부르는 **노랫소리**와 철쭉꽃 나리꽃과 나리꽃에 내려앉은 **나비의 날개에 사운대는 바람**과 바람결에 묻혀 가는 꿈과 생시를 산은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산은 우리들이 내일을 믿고 살아가듯 언제나 머언 하늘을 바라보고 가슴을 벌린 채 피 묻은 역사의 기록을 외우면서 손을 들어 우리들을 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산이여!
나도 알고 있다.
네가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을
나도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이다.

– 신석정, 「산은 알고 있다」

* **운무**: 구름과 안개.
* **촉루**: 살이 전부 썩은, 죽은 사람의 머리뼈.

[22001-0257]

01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는 필재가 6·25 전쟁 기간에 겪은 사회적·문화적 가치의 충돌이 전쟁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의 종가 노인들은 자연으로의 회귀를 통해 전쟁으로 피폐해진 종가를 재건하고 정신적 갈등을 치유하려 하고 있다.
③ (나)는 '종파'와 '문중'의 폐해는 6·25 전쟁의 폐해 못지않게 필재와 주변 인물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④ (다)에서 화자가 강조하는 '안다'는 행위는 초월적 환상의 세계가 아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대상으로 삼는다.
⑤ (다)에서는 '산'이 기억하고 있는 진실의 시간적 범위가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리'는 때를 포함함으로써 화자가 산의 영속성을 바탕으로 역사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2001-0258]

02 (나)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마을이 수복되었음에도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필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준다.
② ㉡은 필재가 현실의 희생자로 생각하는 인물의 범위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③ ㉢은 필재의 삶이 전쟁 이전부터 작용해 온 사회적 질서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 준다.
④ ㉣은 필재가 고향으로 내려온 목적을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을 보여 준다.
⑤ ㉤은 가문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해진 행위들이 많은 희생을 초래했음을 보여 준다.

[22001-0259]

03 (다)의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연에서는 산을 바라보는 다른 태도를 제시하여 이후 전개할 시상의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② 2연에서는 산이 알고 있는 내용이 과거에 집중된 반면, 3연에서는 산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알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③ 4연에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생명을 상징하는 이미지들과 중첩되어 나타남으로써 과거의 아픔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5연에서는 산이 멀리 있는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여 산이 화자와는 다른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6연에서는 화자가 산과 동일한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화자 또한 5연에서 제시한 '우리들'의 일부로 역사의 흐름에 동참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22001-0260]

04 (나)의 '필재'가 가진 인식이 (다)와 관련하여 드러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우리 가문은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다)의 산이 연모하는 '아득한 하늘'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어.
② 태식이와 길녀도 종가의 피해자이기에 (다)에서 산이 기억하는 '서럽고 빛나는 이야기' 속 인물에 포함될 수 있겠어.
③ 종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다)의 '노랫소리'에 동참하지 못한 것이므로 반성해야겠어.
④ 넓은 뜰이 있는 종가를 팔기로 결심했으니 앞으로는 (다)의 '나비의 날개에 사운대는 바람'을 느끼기는 어렵겠어.
⑤ 입후보하여 종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하는 친구는 '알고 있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다)의 화자와 같다고 할 수 있겠어.

[22001-0261]

05 (다)의 시구 중 (가)의 ⓐ와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
①	오래오래 겪어 온 피 묻은 역사	철철이 피고 지는 꽃들
②	철철이 피고 지는 꽃들	스며들던 더운 피
③	스며들던 더운 피	역사가 이룩할 줄기찬 합창 소리
④	역사가 이룩할 줄기찬 합창 소리	그칠 줄 모르고 흘러가는 시냇물
⑤	그칠 줄 모르고 흘러가는 시냇물	나리꽃에 내려앉은 나비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낯설게 하기'는 일반적으로 예술 분야에서 일상적인 맥락을 배경으로 하여 특정 대상을 두드러지게 만들어 주의를 환기하는 기법을 뜻한다. 시에서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일상적인 언어의 형태나 규범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곤 한다. 띄어쓰기를 적용하지 않거나, 문장이나 구절의 흐름이 어색해지도록 행을 구분하는 경우, 일정한 흐름으로 끊어 읽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새로운 방식으로 끊어 읽기가 진행되는 경우, 연의 구성이나 행의 길이가 크게 바뀌는 경우, 구두점의 사용 양상에 변화를 주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예술 분야에서 '낯설게 하기'는 일종의 표현 기법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예술 작품들은 우리가 일상의 흐름 속에서 쉽게 발견하지 못해 놓치고 있는 것들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예술이 표현 기법을 펼쳐 내기 이전에 대상을 바라보는 낯선 시선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문학 작품은 기본적으로 '낯설게 하기'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많은 문학 작품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평소에는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던 것에 주목하는 것도 이와 같은 낯선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를 읽을 때 새로운 표현을 만나게 된다면 표현 방식만을 확인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을 통해 일상 속에서 어떤 진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나 후, 후, 후, 후! 하, 하, 하, 하! / 후, 후, 후, 후! 하, 하, 하, 하!
후, 하! 후, 하! 후하! 후하! 후하! 후하!

땅바닥이 뛴다, 나무가 뛴다. / 햇빛이 뛴다, 버스가 뛴다, 바람이 뛴다.
창문이 뛴다. 비둘기가 뛴다. / 머리가 뛴다.

잎 진 나뭇가지 사이 / 하늘의 환한
맨몸이 뛴다. / 허파가 뛴다.

하, 후! 하, 후! 하후! 하후! 하후! 하후! / 뒤꿈치가 들린 것들아!
밤새 새로 반죽된 / 공기가 뛴다. / 내 생(生)의 드문 / 아침이 뛴다.

독수리 한 마리를 삼킨 것 같다.

– 황인숙, 「조깅」

다 [A] 아랫마을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 종소리들

[B] 그중 하나 대열에서 빠져나와 / 몰래 골목, 골목을 돌아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 찾아 나선다

[C] 맨발로 가파른 빙판길 오르다, / 오르다가 미끄러지고
오르다가 미끄러져 / 무릎 까져 피 흘리는 하나님

[D] ┌ 아랫마을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 종소리, 종소리들
[E] 저 보이지 않는 견고한 평화의 울타리

– 이재무, 「종소리」

[22001-0262]

01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의 2연에서 등장하는 대상들이 뛴다고 표현한 것은 조깅을 통해 대상을 새롭게 보게 된 화자의 경험을 나타낸 것으로, 일종의 낯설게 하기라고 볼 수 있다.
② (나)의 1연에서 여러 차례 사용된 쉼표가 3연에서 나타나지 않다가 4연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은, 서로 다른 호흡이 조깅의 과정 속에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5연은 다른 연과 달리 한 행으로만 이루어짐으로써 이전까지 이어지던 화자의 움직임이 멈춘 현실의 상황을 낯설게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다)는 절대자조차 '몰래' 골목을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성당'의 '종소리'들과 관련하여 평소에 주목하지 않았던 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다)의 화자가 '견고한 평화의 울타리'의 '보이지 않는' 속성을 언급한 것은 화자가 파악한 진실이 일반적으로는 잘 감추어져 있어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2001-0263]

02 **(나)와 (다)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의 화자는 위험으로부터 피해야 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다)의 화자는 위대한 존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위안에 주목하고 있다.
② (나)의 화자는 대상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다)의 화자는 공동체의 모습에 대한 경이를 나타내고 있다.
③ (나)의 화자는 자신의 내면에 감춰진 역동성에 주목하고, (다)의 화자는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예감에 주목하고 있다.
④ (나)의 화자는 스스로의 움직임에 한계를 느끼고 이를 극복하려 하지만, (다)의 화자는 사회가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며 그 원인을 탐색하고 있다.
⑤ (나)의 화자는 움직임에 따른 소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만, (다)의 화자는 자신이 주목한 것을 보여 주기만 할 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

[22001-0264]

03 (나)의 각 연에 나타나는 표현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연에서는 '후'와 '하'가 반복되는 양상에 변화를 주면서 점점 가빠지는 호흡을 나타내고 있다.
② 2연에서는 동일한 서술어를 반복하여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들과 화자의 일체감을 나타내고 있다.
③ 3연에서는 지상을 달리는 화자의 수평적 움직임이 하늘을 향한 수직적 시선과 결합되고 있다.
④ 4연에서는 현재의 시간적 배경이 화자에게는 이전과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⑤ 5연에서는 비유법을 통해 화자가 실제로 머무는 공간적 배경이 변화한 것을 드러내고 있다.

[22001-0265]

04 〈보기〉를 참고하여 (다)의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다)는 소재인 종소리와 관련한 일반적 상황을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에 반하는 상황을 제시한 후 종소리가 가진 이미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순서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성당의 종소리들은 일반적으로 경건함, 평화 등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작품의 시상이 아랫마을 성당의 종소리들의 대열에서 이탈하여 '피 흘리는 하나님'까지로 이어진 것은 이 아랫마을 성당의 종소리가 절대자의 뜻과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 이 종소리는 '보이지 않는 견고한' 울타리이다. 퍼져 나가야 할 종소리가 오히려 울타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기에서의 종소리들은 아랫마을의 평화만을 보호하는 울타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① [A]에서는 성당에서 '종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일반적인 모습을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B]에서는 [A]와 다른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종소리들'이 도달해야 할 또 다른 공간이 있음을 환기하고 있다.
③ [C]에서는 절대자가 고난을 겪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B]에서 제시한 '마을'이 '종소리들'로부터 소외된 곳임을 강조하고 있다.
④ [D]에서는 [A]를 반복하여 제시함으로써 '아랫마을'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⑤ [E]에서는 '종소리들'을 '견고한' '울타리'로 비유하여 '종소리들'에 대한 화자의 새로운 관점을 형상화하고 있다.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는 고향이다. 고향은 인간이 나고 자란 곳이다. 인간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성장하고 이웃과 어울려 생활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한다. 고향은 친밀하고 편안한, 안식의 장소이자 다른 장소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점에서 고향을 떠나는 이향(離鄕)은 삶의 중대한 사건이다. 특히 고향의 집을 잃거나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실향(失鄕)은 인간의 내면에 그리움과 상처를 남긴다. 현대 소설은 빈곤, 경제적 파산 등 개인적 사건뿐만 아니라 수탈, 전쟁, 산업화 등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낯선 타지에 정착해야 했던 사람들의 삶을 그리며 고향의 의미를 탐색해 왔다.

이호철의 「탈향」은 6·25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했던 피난민의 삶을 그린 1950년대의 대표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이북이 고향인 네 청년은 전쟁의 와중에 고향을 떠나 타향인 부산에 도착한다. 생존의 문제 앞에서 변하기 시작하는 이들의 생각과 관계에서 전쟁의 고통과 실향의 슬픔을 느낄 수 있다.

한편, 이청준의 「눈길」은 가난으로 인해 고향과 멀어진 현대인의 삶을 그린 1970년대의 대표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나'는 오래전 형의 방탕한 생활로 인해 집을 잃고 가족과 헤어진 아픔을 겪었다. 그 시절의 상처를 대하는 '나'와 '노인'의 모습을 통해 가난의 아픔과 모정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다.

나 두찬이와 광석이는 스물네 살이었다. 그러나 두찬이 편이 네댓 살은 더 들어 보였다. 훤칠하게 큰 키에 알맞게 뚱뚱한 것이며, 검은 얼굴에 뒤룩뒤룩한 눈, 두꺼운 입술, 술 사발이나 들어가면 둔하게 왁자지껄하지만 여느 때는 통히 말이 없었다. 광석이는 키는 큰 편이나 조금 여위었고 까무잡잡한 바탕에 오똑 선 콧대, 작은 눈, 엷은 입술에 쉴 새 없이 날름거리는 혓바닥하며, 홀가분한 걸음걸이, 진득한 데라고는 두 눈을 씻고 보자 해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원이는 나보다 한 살 밑이어서 열여덟 살이었다. 어디서나 입을 헤에 벌리고 있곤 했다.

중공군이 밀려 내려온다는 바람에 무턱대고 배 위에 올라타긴 했으나, 도시 막막하던 판이라, 바다 위에서 우리 넷이 만났을 땐 사실 미칠 것처럼 반가웠다. / 야하 너두 탔구나, 너두, 너두.

㉠뱃간에서 하루인가 이틀 밤을 지나, 어느 날 이른 아침에는 부산 거리에 부리어졌다.* 넷이 다 타향 땅은 처음이라, 서로 마주 건너다보며 어리둥절했다. 마을 안에 있을 땐 이십 촌 안팎으로나마 서로 아접·조카 집안끼리였다는 것이 이 부산 하늘 밑에선 새삼스러웠던 것이다.

㉡"야하, 이제 우리 넷이 떨어지는 날은 죽는 날이다, 죽는 날이야."

광석이는 몇 번이고 거푸거푸 중얼거리곤 했다.

이럭저럭 한 달쯤 무사히 지났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갈 날은 갈수록 아득했다. 이 한 달 사이에 두찬이는 두찬이대로, 광석이도 광석이대로 남모르게 제각기 다른 배포가 서게 된 것은(배포랄 것까지는 없지만) 그들을 탓할 수만 없는 일이었다. 쉽사리 고향으로 못 돌아갈 바에는, 늘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다, 달리 변통을 취해야겠다, 두찬이와 광석이는 나머지 셋 때문에 괜히 얽매여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게 된 것이었다. ㉢자연 우리 사이는 차츰 데면데면해지고, 흘끔흘끔 서로의 눈치를 살피게끔 됐다.

광석이는 애당초가 조금 주책이 없다 할까, 주변이 있다 할까 엄벙덤벙 토박이 반원들과 얼려 막걸리 사발이나 얻어 마시곤 했고, 구변 좋게 보탬을 해서 북쪽 얘기를 해 쌓고, 이렇게 며칠이 지났을 땐 어느덧 반원들은, 나나 두찬이나 하원이와는 달리, 광석이만은 오래전부터 사귀어 온 친구나처럼 손을 맞잡고는,

"나왔나!" / "오냐, 느 형님 여전하시다." / "버르장머리 몬쓰겠다. 누구보꼬 형님이라 카노."

"자네 언제부터, 말버르장머리하곤, 허 요새 세상이 이래 노니."

농담조로 수인사가 오락가락했으니, 나나 두찬이나 하원이는 광석이의 이런 꼴을 멀끔히 남 바라보듯 건너다봐야 했다. 광석이는 차츰 반원들과 얼려 왁자지껄하는 데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았고, 날이 갈수록 자신만만해졌다.

그 꼴사나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더더구나 주변머리 없고 무뚝뚝하고 외양보다 실속만 자란 두찬이는 저대로 뒤틀리는 심사를 지닌 채 다른 궁리를 차리는 모양이었다. 사실 이즈음부터 두찬이는 부두 안에서 얌생이*를 해도 다만 밥 두 끼 값이라도 골고루 나누어 주는 법이 없이, 일판만 나오면 혼자 부두 앞 틈 사이 샛길을 허청허청 돌아다녔다. 이런 두찬이는 으레 술이 듬뿍 취해 화찻간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하원이는 자주 울먹거렸다. / "야하, 부산은 눈두 안 온다, 잉." / 하고 애스럽게 지껄이곤 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어느 날 광석이 출발하는 화차에서 뛰어내리다 왼팔이 잘리는 부상을 당하고, 두찬은 내버려 두고 가자며 가 버린다. '나'와 하원은 광석을 데려왔으나 광석은 이튿날 죽고 만다. 도망간 두찬이 돌아왔으나 관계는 더욱 서먹해진다.

"요렇게 정신이 말똥말똥하다, 말똥말똥해. 왜 넌 암말두 안 헌. 뛰디래 잡든지 칼침을 주든지 하잖구. 어허허허, 내, 이제 무신 낯짝으로 동네 가간, 어허허허…… 광석아아…… 광석아하아."

두찬이는 벌렁 자빠져서 화차 안이 쩌렁쩌렁하도록 그냥 어이어이 울어 댔다.

이튿날 아침 두찬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두 일판에 나가도 없었다.

사흘쯤 지난 뒤, 어두운 화찻간 속에서 하원이는 지껄였다.

"야하, 우리 이젠 꼽대가리* 자꾸 해서 돈 좀 쥐자. 그러구 저기 영주동 산꼭대기에다 집 하나 짓자. 거기 집 제두 일없닝기더라야. 잉야 조카야, 흐흐흐 우습다. 진짜 우스워. 난 너두 두찬이 형처럼 그렇게 될까 봐 얼마나 떨언 줄 안. 광석이 아제비두 맘은 좋은 폭은 못됐시야, 잉. 우린 동네 갈 젠 꼭 같이 가자. 돈 벌어서, 돈 벌문 말야, 시계부터 사자, 어부러서. 그까즌 거, 꼽대가리 대구 하지 머. 광석이 아저씨까 두찬이 형은 못 봤다구 글자 마, 알 거이 머야, 너까 나만 암말두 안 헌 담에야. 그저 대구 못 봤다구만 글자 마. 낼부터 나 진짜 꼽대가리 할란다. 잉, 조카야 우습다. 잉? 이케(이렇게) 잠이 안 온다야. 우리 오늘 밤, 그냥 밤새자. 술 마시까, 술?"

나는 그저 중얼거리고 있었다. / "바람도 없이 내리는 눈송이여, 아, 눈송이여."

무엇인가 못 견디게 그리운 것처럼 애탔다. 그러나 누가 알랴! 지금 내 마음 밑 속에서 일어나는 돌개바람 같은 것을…… 아, 어머니! 이미 **내 마음은 하원이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순간 나는 입술을 악물었다. 와락 하원이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두 볼에 흘러내렸다. 하원이는 흐흐흐 웃었다. 지껄였다.

"이 새끼 술도 안 먹구 취핸. 참 부산은 눈두 안 온다 잉, 눈두. 이북 말이다. 눈 오문 말이다. 눈 오문 말이다. 광석이 아제비네 움물 말이다. 야하, 굉장헌데. 새벽엔 까치가 울구, 그 상나무 있잖니. 장자골집

형수 원래 잘 웃잖니. 하하하 하구. 그 형수 꽤나 부지런했다. 가마이 보문, 언제나 새벽에 젤 먼저 물 푸러 오군 하는 게 그 형수더라, 잉. 야하, 눈 보구 싶다, 눈이."

– 이호철, 「탈향」

*부리다: 사람의 등에 지거나 자동차나 배 따위에 실었던 것을 내려놓다.
*암생이: 남의 물건을 조금씩 슬쩍슬쩍 훔쳐 내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
*꼽대가리: 밤낮을 거푸 일하는 것.

(다) 한데 그때였다. 쓸데없는 일에 공연히 감동을 잘하는 아내가 아무래도 견딜 수가 없어진 모양이었다.

"전에 사시던 집은 터도 넓고 칸 수도 많았다면서요?"

아내가 느닷없이 화제를 바꾸고 나섰다. 별달리 노인을 달랠 말이 없으니, 지나간 일이나마 그렇게 넓게 살던 옛집의 기억을 상기시켜서라도 노인을 위로하고 싶어진 것이리라. 그것은 노인도 한때 번듯한 집 살림을 해 온 기억을 되돌이키게 하여 기분을 바꿔 드리고 싶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 외에도 그건 또 언제나 가난한 살림만을 보고 가게 하는 부끄러운 며느리 앞에 당신의 자존심을 얼마간이나마 되살려 내게 할 가외의 효과도 있을 수 있었다. 어쨌거나 나는 당분간 다시 자리를 피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었다.

"㉣옛날 살던 집이야, 크고 넓었제. 다섯 칸 겹집에다 앞뒤 터가 운동장이었더니라……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남의 집 된 지가 20년이 다 된 것을……."

"그래도 어머님은 한때 그런 좋은 집도 살아 보셨으니 추억은 즐거운 편이 아니시겠어요? 이 집이 답답하고 짜증 나실 땐 그런 기억이라도 되살려 보세요."

"기억이나 되살려서 어디다 쓰게야. 새록새록 옛날 생각이 되살아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심사가 어지러운 것을."

"하긴 그것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넓은 집에 사셨던 생각을 하시면 지금 사시는 형편이 더 짜증스러워지기도 하시겠죠. 뭐니뭐니 해도 지금 형편이 이렇게 비좁은 단칸방 신세가 되고 마셨으니 말씀예요……."

노인과 아내는 잠시 그렇게 위론지 넋두린지 분간이 가지 않는 소리들을 주고받고 있었다. 한동안 그렇게 오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는 그 아내의 동기가 다시 의심스러웠다. 아내의 말투는 그저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노인을 위로해 드리긴커녕 심기만 점점 더 불편스럽게 하고 있었다. 노인에게 옛집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당신의 불편스런 심기를 주저앉히기보다 오늘을 더욱더 비참스럽게 느끼게 만들고 있었다. 집을 고쳐 짓고 싶은 그 은밀스런 소망을 자꾸만 밖으로 후벼대고 있었다. 아내의 목적은 차라리 그쪽에 있었던 것 같았다.

아내에 대한 나의 판단은 과연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방이 이렇게 비좁은데 그럼 어머니, 이 옷장이라도 어디 다른 데로 좀 내놓을 수 없으세요? 이 옷장을 들여놓으니까 좁은 방이 더 비좁지 않아요."

아내는 마침내 내가 가장 거북스럽게 시선을 피해 오던 곳으로 화제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바로 그 옷궤 이야기였다. 17, 18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술버릇이 점점 사나워져 가던 형이 전

답을 팔고 선산을 팔고, 마침내는 그 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집까지 마지막으로 팔아넘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K 시에서 겨울 방학을 보내고 있던 나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나 알아보고 싶어 옛 살던 마을엘 찾아가 보았다. 집을 팔아 버렸으니 식구들을 만나게 될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달리 소식을 알아볼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어스름을 기다려 살던 집 골목을 들어서니 사정은 역시 K 시에서 듣고 온 대로였다. 집은 텅텅 빈 채였고 식구들은 어디론지 간 곳이 없었다. 나는 다시 골목 앞에 살고 있던 먼 친척 간 누님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 누님의 말을 들으니, 노인이 뜻밖에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가 어디냐. 네가 누군데 내 집 앞 골목을 이렇게 서성대고 있어야 하더란 말이냐."

한참 뒤에 어디선가 누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인이 문간 앞에서 어정어정 망설이고 있는 나를 보고 다짜고짜 나무랐다. 행여나 싶은 마음으로 노인을 따라 문간을 들어섰으나 집이 팔린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날 밤 노인은 옛날과 똑같이 저녁을 지어 내왔고, 그날 밤을 거기서 하룻밤을 함께 지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일찍 K 시로 나를 다시 되돌려 보냈다. 나중에야 안 일이지만 노인은 그렇게 나에게 저녁밥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마지막 밤을 지내게 해 주고 싶어, 새 주인의 양해를 얻어 그렇게 혼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했다. 언젠가 내가 다녀갈 때까지는 내게 하룻밤만이라도 옛집의 모습과 옛날 같은 분위기 속에 맘 편히 눈을 붙이고 가게 해 주고 싶어서였을 터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문간을 들어설 때부터 썰렁한 집 안 분위기가 이사를 나간 빈집이 분명했건만.

한데도 노인은 그때까지 매일같이 그 빈집을 드나들며 먼지를 털고 걸레질을 해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노인은 아직 집을 지켜 온 흔적으로 안방 한쪽에 이불 한 채와 옷궤 하나를 예대로 그냥 남겨 두고 있었다. 이튿날 새벽 K 시로 다시 길을 나설 때서야 비로소 집이 팔린 사실을 분명히 해 온 노인의 심정으로는 그날 밤 그 옷궤 한 가지로나마 옛집의 분위기를 되살려 내 괴로운 잠자리를 위로하고 싶었음에 분명한 물건이었다.

그런 내력이 숨겨져 온 옷궤였다. 떠돌이 살림에 다른 가재도구가 없어서도 그랬겠지만, 이 20년 가까이를 노인이 한사코 함께 간직해 온 옷궤였다. 그만큼 또 나를 언제나 불편스럽게 만들어 온 물건이었다. 노인에게 빚이 없음을 몇 번씩 스스로 다짐하고 지내다가도 그 옷궤만 보면 무슨 액면가 없는 빚 문서를 만난 듯 기분이 꺼림칙스러워지곤 하던 물건이었다.

이번에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노인의 방을 들어선 순간에 벌써 기분을 불편스럽게 해 오던 옷궤였다. 그리고 끝내는 이틀 밤을 못 넘기고 길을 다시 되돌아갈 작정을 내리게 한 것도 알고 보면 바로 그 옷궤의 허물이 컸을지 모른다.

아내도 물론 그 옷궤에 관한 내력을 내게서 들을 만큼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여자라면 그 옷궤에 대한 내 기분도 짐작을 못할 그녀가 아니었다. 아내는 일부러 그 옷궤 이야기를 꺼냈음이 분명했다. 더욱이 내가 바깥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걸 알고서 그랬을 수도 있었다.

나는 어느새 그 콧속을 후벼 대는 못된 버릇이 되살아날 만큼 긴장하고 있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갑자기 묵은 빚 문서가 튀어나올 것 같은 조마조마한 기분이었다. 노인이 치사하게 그 묵은 빚 문서로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덤빌 수도 있었다.

– 이청준, 「눈길」

[22001-0266]

01 **[A]를 바탕으로, (나)의 눈과 (다)의 옷궤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에서 '하원'은 '눈'을 고향의 풍경을 대변하는 소재로 인식한다.
② (나)에서 '하원'은 '눈'을 기준으로 타향의 삶과 고향의 삶을 견준다.
③ (다)에서 '노인'은 '옷궤'를 통해 돌아온 '나'가 팔린 집에서 친숙함을 느끼도록 노력한다.
④ (다)에서 '나'가 고향에서 받은 내면의 상처와 관련된 경험으로 인해 '옷궤'에서 거북함을 느낀다.
⑤ (다)에서 '아내'는 '옷궤'에서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낀다.

[22001-0267]

02 **(가)를 바탕으로,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부리어졌다'라는 표현을 통해 전쟁을 피해 타향에 도착한 피난민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② ㉡: 고향이 같다는 동질감으로 인해 전쟁의 피난지에서 서로 의지하려는 마음이 드러난다.
③ ㉢: 낯선 타향에서 겪는 생존의 문제 앞에 네 청년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④ ㉣: 가난의 아픔을 크고 넓은 집의 소유로 달래려는 노인의 허영심이 드러난다.
⑤ ㉤: 형의 잘못으로 인해 고향의 집을 잃게 되는 과정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22001-0268]

03 **(나)와 (다)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에서는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여러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② (다)에서는 이야기 속 인물인 서술자가 관찰자의 태도를 견지하며 인물과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③ (나)와 (다) 모두 이야기 속 인물인 서술자가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들려주고 있다.
④ (나)와 (다) 모두 이야기 속 인물들이 번갈아 서술자로 설정되면서 갈등하는 두 견해를 균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나)와 (다) 모두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특정한 인물의 시각에 초점을 맞춰 인물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22001-0269]

04 〈보기〉는 (나)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대화이다.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학생: 선생님, 소설을 다 읽었지만 제목이 이해가 안 돼요. 왜 탈향인가요?
선생님: 좋은 질문입니다. 이 제목은 '나'가 처한 상황보다는 상황에 대응하는 '나'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학생: 상황에 대응하는 의지요?
선생님: '나'도 처음에는 조만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타향에서 살아남는 것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소설의 끝에서 '나'는 이러한 상황을 뼈아프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학생: 그렇군요. 그럼 '내 마음은 하원이를 버리고 있는 것'이라는 구절은 _____ⓐ_____ 를 의미한 것이군요.

① 타향의 암울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가려는 의지
②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냉정한 현실을 인정하고 마음속으로 고향을 떠나려는 의지
③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향을 떠나려는 의지
④ 전쟁의 폭력으로 피폐해진 고향과 타향을 모두 거부하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려는 의지
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냉정한 현실에서 서먹해진 친구와의 우정을 회복하려는 의지

[22001-0270]

05 (다)의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노인'은 아들에 대한 애정으로 그가 옛집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② '노인'은 오래전에 작성한 빚 문서를 제시하여 '나'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③ '아내'는 과거의 집을 화제로 삼아 현재의 집과 비교하면서 '노인'의 형편을 부각한다.
④ '나'는 어머니를 거듭 '노인'이라고 칭하면서 그녀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드러낸다.
⑤ '나'는 집이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하면서 어머니를 만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다.

www.ebsi.co.kr

3부 실전 학습

www.ebsi.co.kr

실전 학습 1회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집에 옷 밥을 두고 들먹은* 저 고공(雇工)아 /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 오는 날 일 없을 제 새끼 꼬며 이르리라 / 처음에 할아버지 살림살이하려 할 제
인심(仁心)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 / 풀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 내고
써레 보습 쟁기 소로 전답(田畓)을 경작하니 / **올벼 논 텃밭이 여드레 갈이로다**
자손(子孫)에 전계(傳繼)하야 대대로 나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雇工)도 근검(勤儉)터라
저희마다 농사지어 가멸게 살던 것을 / 요사이 고공(雇工)들은 생각 어이 아주 없어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옷이 좋고 굿으나 /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 생각에 흘깃할깃 하는 건가 /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時節)조차 사나워서
가뜩에 내 세간이 풀어지게 되었는데 / 엊그제 화강도(火强盜)에 가산(家産)을 탕진(蕩盡)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세사(世祀)를 어찌하여 치르려뇨
김가(金哥) 이가(李哥) 고공(雇工)들아 새 마음 먹으스라 / 너희네 젊었느냐 생각 설마 아니하냐
한솥에 밥 먹으며 매양의 시기하랴 / 한마음 한뜻으로 농사를 지으스라
한집이 가멸면 옷밥을 걱정하랴 / 누구는 쟁기 잡고 누구는 소를 모니
밭 갈고 논 삶아 벼 세워 던져 두고 / 날 좋은 호미로 김을 매어스라
산전(山田)도 거칠었고 무논도 우거졌다
㉣싸리 피가 말뚝처럼 벼 곁에 세울세라
칠석(七夕)에 호미 씻고 김을 다 맨 후에 / 새끼 꼬기 뉘 잘하며 섬*일랑 뉘 엮으랴
㉤너희 재주 헤아려 서로서로 맡으스라 / 가을 거둔 후면 성조(成造)를 아니하랴
집일랑 내 지을게 움일랑 네 묻어라 / 너희 재주를 내 짐작(斟酌)하였노라
너희도 먹을 일을 분별(分別)을 하려무나 / **멍석에 벼를 넌들 좋은 해 구름 끼어 볕뉘를 언제 보랴**
방아를 못 찧거든 거칠고도 거친 올벼 / 옥 같은 백미(白米) 될 줄 뉘 알아보겠느냐
너희네 데리고 새 살림 살자 하니 / **엊그제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되**
너희네 귀 눈 없어 저런 줄 모르관대 / **화살을 제쳐 놓고 옷밥만 다투**느냐
너희네 데리고 추운가 주리는가 / 죽조반(粥早飯) 아침저녁 더 해서 먹였는데
은혜일랑 생각 않고 제 일만 하려 하니 / 생각 깊은 새 머슴 어느 때 얻어 있어
집일을 맡기고 시름을 잊으려뇨 / **너희 일 애달파하면서** 새끼 한 사리 다 꼬겠구나

– 허전, 「고공가」

* **들먹은**: 못나고도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 **호수**: 공물과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일을 책임진 사람.
* **섬**: 곡식 따위를 담기 위하여 짚으로 엮어 만든 그릇.

나 의관문물(衣冠文物)을 어제 본 듯하건마는 / 예악과 현송(絃誦)*은 찾을 데 전혀 없다
보후와 신백은 산악(山岳)도 아끼더니* / 섬나라 오랑캐는 그 누가 낳았는가
호랑이와 큰 고래 산해(山海)를 흔들거늘 / 동서남북(東西南北)에 뭇 싸움 일어나니
밀치며 제치며 말도 많고 일도 많네 / **이 좋은 수령(守令)들 물어뜯나니 백성(百姓)**이요
톱 좋은 변방 장수 후벼 파나니 군사(軍士)로다
재화(財貨)로 성(城)을 쌓으니 만장(萬丈)을 뉘 넘으며
고혈(膏血)로 해자 파니 천 척(千尺)을 뉘 건너랴 / **호화로운 잔치에 추월춘풍 쉬이 간다**
해도 길건마는 밤놀이는 그 어떨꼬 / 주인(主人) 잠든 집에 문(門)은 어이 열었느뇨
도적(盜賊)이 엿보거든 개는 어이 안 짖는고 / **대양(大洋)을 바라보니 바다가 여위었다***
술이 깨더냐 병기(兵器)를 뉘 가지리오 / 감사(監司) 병사(兵使) 목부사 만호첨사(萬戶僉使)
산림(山林)이 비었던가 수이곰 들어갈사 / 어리석을사 김수(金睟)*야 빈 성을 뉘 지키랴
우스울사 신립(申砬)아 배수진(背水陣)은 무슨 일고
양령(兩嶺)을 높다 하랴 한강(漢江)을 깊다 하랴
대책이 어설프니 하늘인들 어찌하리 / 하고한 백관(百官)도 숫자 채울 뿐이렷다
일석(一夕)에 달아나니 이 시름 뉘 맡을까 / **삼경(三京)이 복몰(覆沒)하고 열군(列郡)이 와해하니**
고을 도처에 누릴샤 비릴샤* / 관서(關西)를 돌아보니 압록강(鴨綠江)이 어드메요
ⓐ일월(日月)이 무광(無光)하니 갈 길을 모를노다 / 삼백이십 주(三百二十州)에 대장부 하나 없돗던가
스스로 무릎 꿇어 개돼지의 신하 되니 / 황금 띠 둘러매던 옛 재상(宰相) 아니런다

(중략)

온 들판 쑥밭 되니 어드메가 내 고향(故鄕)인고 / 백골이 산 이루니 어느 것이 내 골육(骨肉)인고
옛날의 번화(繁華)를 꿈같이 생각하니 / 산천(山川)은 옛 낯이요 인물(人物)은 아니로다
주인(周人) 서리가(黍離歌)*로 청사(靑史)에 눈물 나고
두릉(杜陵) 애강두(哀江頭)*를 오늘 다시 불러 보니
풍운(風雲)이 애처롭고 초목(草木)이 슬퍼한다 / 남아(男兒) 삼긴 뜻이 이렇기야 하랴마는
좀스런 무반(武班) 썩은 선비 한 냥도 채 못 된다
청총마(靑驄馬) 적토마(赤兎馬) 울면서 구르거늘
막야검(莫耶劍) 용천검(龍泉劍) 흰 무지개 절로 선다 / **언제야 은하수 헤쳐 이 병진(兵塵)을 씻으려뇨**

– 최현, 「용사음」

* **현송**: 거문고를 타고 시를 읊음. 부지런히 학문을 닦고 교양을 쌓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보후와 ~ 아끼더니**: 중국의 명신인 보후나 신백과 같은 훌륭한 인물의 출생에는 하늘이 인색함.
* **바다가 여위었다**: 바다에 왜적의 배가 가득하다는 의미.
* **김수**: 임진왜란 때 경상우감사로 있다가 왜적의 침략 소식을 듣고 도피한 문신.
* **누릴샤 비릴샤**: 전란으로 인해 죽은 시신들이 가득함을 표현한 말.
* **주인 서리가**: 중국 주나라 평왕 때 한 관리가 옛 도읍지를 지나면서 세상의 무상함을 읊은 노래.
* **두릉 애강두**: 중국 당나라 현종 때 두보가 옛날의 영화를 그리워하면서 곡강에서 지은 노래.

[22001-0271]

0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청자를 호명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② ㉡: 현재와 달랐던 과거의 상황을 언급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덕목을 제시하고 있다.
③ ㉢: 의문형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부각하고 있다.
④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문제가 악화될 것에 대한 염려를 드러내고 있다.
⑤ ㉤: 청유형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22001-0272]

02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후와 신백'과 '섬나라 오랑캐'를 나란히 제시함으로써 오랑캐가 판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② '도적'과 '개'의 행동을 나란히 제시함으로써 도적의 위협을 미리 감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김수'와 '신립'의 선택을 나란히 제시함으로써 김수의 행동이 신립의 행동보다 어리석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④ '개돼지의 신하'와 '황금 띠 둘러매던 옛 재상'을 나란히 제시함으로써 신의를 저버린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산천'과 '인물'의 모습을 나란히 제시함으로써 변함없는 산천과 달리 변해 버린 인간사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22001-0273]

0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수단으로, 희망적인 태도를 끌어내고 있다.
② 헤어진 임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로, 이별의 괴로움과 슬픔을 상기하고 있다.
③ 이상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상향 실현에 대한 만족감을 고조하고 있다.
④ 생명력을 주는 원천으로, 생기를 잃어 가는 자연물이 생산력을 회복하도록 돕고 있다.
⑤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존재로, 결핍으로 인한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22001-0274]

04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와 (나)는 임진왜란 이후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당시 신하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이다. (가)는 나랏일을 농사짓는 일에 비유하여 나라의 위기와 신하들의 무능함과 부패를 고발하고 있고, (나)는 임진왜란 당시의 현실을 묘사하면서 이러한 현실에 대한 작가의 울분과 탄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는 영화로웠던 과거와 대비되는 부정적인 현재 상황과, 외부의 위협에 부적절하게 대처하는 신하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으며, 당시의 부정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제시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① (가)의 '올벼 논 텃밭이 여드레 갈이로다', '저희마다 농사지어 가멸게 살던 것'과, (나)의 '호화로운 잔치에 추월춘풍 쉬이 간다', '해도 길건마는 밤놀이는 그 어떨꼬'는 영화로웠던 과거를 예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군.

② (가)의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옷이 좋고 굿으나' 마음 쓰는 '요사이 고공들'과, (나)의 '백성'을 '물어뜯는 '이 좋은 수령들', '군사'들을 '후벼 파'는 '톱 좋은 변방 장수'는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신하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군.

③ (가)의 '멍석에 벼를 넌들 좋은 해 구름 끼어 볕뉘를 언제 보랴'에서 구름이 끼어 벼를 말리지 못하는 것을 나라의 위기 상황에 비유하고 있음을, (나)의 '삼경이 복몰하고 열군이 와해하니', '고을 도처에 누릴샤 비릴샤'에서 임진왜란 당시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④ (가)의 '엊그제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되' '화살을 제쳐 놓고 옷밥만 다투'는 상황과, (나)의 '대양을 바라보니 바다가 여위었'는데 관리들이 '산림이 비었던가 수이곰 들어'가는 상황은 외부의 위협에 부적절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군.

⑤ (가)의 '너희 일 애달파하면서'에서 부정적인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유발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엿볼 수 있고, (나)의 '언제야 은하수 헤쳐 이 병진을 씻으려뇨'에서 부정적인 상황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유발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엿볼 수 있군.

[05~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유는 시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 방법이다. 일상적인 언어생활 속에서도 비유 표현을 사용할 때가 많은데,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의 속성을 더 선명하게 표현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곤 한다. 시에서도 대상의 속성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비유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롭게 발견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비유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때 해당 비유 표현은 단순히 수식을 위한 표현이거나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표현이라기보다 그 비유 표현이 아니면 드러낼 수 없는 진실 혹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비유 표현을 읽을 때에는 보조 관념과 관련하여 떠올릴 수 있는 다양한 의미, 속성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것이 작품 전체적인 의미를 읽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시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비유 표현은 작품 전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작품 전체의 유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작품의 한 부분에서 사용된 비유 표현은 작품의 다른 부분을 전개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하나의 비유 표현과 관련하여 사용된 원관념을 A, 보조 관념을 B라고 한다면 B는 이후 나타나는 다른 원관념 C를 B와는 전혀 다른 D나 E가 아닌, B와 관련을 맺고 있는 B′이나 B″이라는 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 편의 작품은 B–B′–B″의 축을 통해 긴밀한 유기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은 한 편의 시에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들이 서로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살핌으로써 더욱 풍부한 감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 〈나〉는 / 흔들리는 저울대. / 시(詩)는 / 그것을 고누려는* 추(錘).
겨우 균형이 잡히는 위치에 / 한 가락의 미소.
한 줌의 위안. / 한 줄기의 운율.
이내 무너진다. / 하늘 끝과 끝을 일렁대는 해와 달
아득한 진폭(振幅)*. / 생활이라는 그것.

– 박목월, 「시」

* 고누다: '겨누다' 혹은 '째리다'의 방언으로 쓰임. 이 작품에서는 저울에 균형을 맞추려는 추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음.
* 진폭: 물체가 진동할 때 흔들리며 움직이는 거리.

다 **오늘도**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 일일이 별들을 둘러보고 오느라구요

하늘 맨 꼭대기에 올라가 / 아래를 내려다볼 때면
㉠압정처럼 박아 놓은 별의 뾰죽한 뒤통수만 보인다고 / **내가 전에 말했던가요**

오늘도 **새벽에게 나를 업어다 달라고** 하여
첫 별의 불꽃에서부터 끝 별의 생각까지 그어 놓은

큰 별의 가슴팍으로부터 작은 별의 멍까지 이어 놓은
헐렁해진 실들을 하나하나 매 주었습니다

오늘은 별을 두 개 묻었고 / 별을 두 개 캐냈다고 적어 두려 합니다

참 돌아오던 길에는 / 많이 자란 달의 손톱을 조금 바짝 깎아 주었습니다

– 이병률, 「살림」

[22001-0275]

05 **(나)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두 어절을 선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나)는 한 연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화자가 자신 스스로와 '시'가 가지는 성격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인지를 밝힘으로써 이후 시상이 전개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화자와 '시'가 맺게 되는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분은 균형이 잡힌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함으로써 화자가 현실의 한계를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나)에서 둘째 부분의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찾아 전체가 어떻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지 파악해 봅시다.

① 시는, 미소 ② 겨우, 운율 ③ 한 줌의, 운율
④ 이내, 진폭 ⑤ 하늘, 진폭

[22001-0276]

06 **(가)를 참고하여 (나)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자가 자신을 '저울대'에 비유한 것은 '시'를 '추'에 비유하게 하여 자신이 시를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게 한다.
② 화자가 자신을 '저울대'에 비유한 것은 '시'를 '추'에 비유한 것과 연결되어 '일렁이는 해와 달'의 무게를 가늠하고자 하는 화자의 사명을 나타낼 수 있게 한다.
③ 화자가 자신을 '저울대'에 비유한 것은 이후 '생활'을 '진폭'에 비유한 것과 연결되며 화자 스스로가 흔들리는 상황으로부터 좀처럼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게 한다.
④ 화자가 시를 '추'에 비유한 것은 이후 '생활'을 '진폭'에 비유한 것과 연결되어 '진폭'이라는 문제가 더 이상 화자에게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할 수 있게 한다.
⑤ 화자가 시를 '추'에 비유한 것은 '진폭'에 비유된 '생활'이 보여 주는 곡선의 이미지와 이어져 '생활' 속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안식과 책임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한다.

[22001-0277]

0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다)의 제목은 '살림'이다. 그러나 화자는 '살림'이라는 표현을 본문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화자는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 '살림'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생각하는 살림은 일상적인 반복이기도 하면서 누군가와 나누는 이야기의 소재이기도 하고 다른 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인 동시에 하루하루를 채워 나가는 삶의 기록이자 때로는 평소와 다른 경험이 추가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오늘도'는 화자가 살림을 일상적인 반복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내가 전에 말했던가요'는 화자가 자신의 살림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어 왔음을 보여 준다.
③ '새벽에게 나를 업어다 달라고'는 화자가 살림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④ '헐렁해진 실들'은 화자가 그날의 삶을 기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였음을 보여 준다.
⑤ '오늘은'은 화자의 살림에 평소와 다른 경험이 추가되었음을 보여 준다.

[22001-0278]

08 (가)를 참고하여 〈보기〉와 같이 '압정'의 속성을 떠올렸을 때, ㉠을 중심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압정의 뾰족한 촉에 찔리면 상처를 입을 수 있다.
ⓑ 벽에 박힌 압정은 다른 곳으로 쉽게 이동하지 않는다.
ⓒ 압정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연결할 수는 있지만 정작 압정끼리는 서로 연결되기 어렵다.
ⓓ 압정을 사용하여 종이를 벽에 붙이고 나면 둥근 머리 부분만 보이고 뾰족한 촉 부분은 가려진다.
ⓔ 압정의 머리 부분은 아무것도 맬 수 없는 모양이지만 압정의 촉 부분은 무언가를 맬 수 있는 모양이다.

① ⓐ를 떠올리면 다른 이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화자가 별을 묻는 행위를 ㉠과 연결할 수 있다.
② ⓑ를 떠올리면 화자가 일일이 별들을 둘러보러 다녀야 하는 이유를 ㉠에서 찾을 수 있다.
③ ⓒ를 떠올리면 별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화자의 행위가 ㉠으로부터 파악한 별들의 고립감 때문에 나타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를 떠올리면 ㉠을 본 경험이 화자로 하여금 별의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 살피도록 만들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를 떠올리면 화자가 별들 사이에 실을 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과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다.

[0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성이 점점 자라 열 살이 되자, **당나라의 이백과 두보에 필적할 만큼 문필에 능하고, 시서백가에 능통하여**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상서는 대성이 또래보다 조숙한 것을 기쁘게만 생각지 않았다. 흥진비래, 곧 좋은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찾아오는 것이 인간사인지라, 이런 뛰어난 아들을 두었으니 어찌 오래 살기를 바라겠는가. 상서는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 **온갖 약을 써도 효험이 없**자, 자신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는 부인을 불러 손을 잡고 말했다.

[A]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소.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대성을 잘 길러 장차 우리 가문을 빛내 주오. 그러면 후일 구천에서라도 부인의 노고를 치사하리다."
또 대성을 불러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인명재천, 곧 사람의 목숨은 하늘의 뜻에 달려 있으니,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랴. 다만 이 아비는 네가 장성한 후 봉황의 짝을 찾아 주지 못하고 죽는 것이 가슴에 맺혀 한스럽구나."

끝내 상서가 세상을 등지니, 온 가족이 한없이 슬퍼하여 우는 소리가 온 집 안에 진동했다. 이 와중에 부인이 기운을 차리지 못하여 온몸의 힘이 빠진 듯 힘없는 목소리로 대성에게 일렀다.

"세상에서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목숨이로구나."

이렇게 말하고는 **부인도 죽고** 말았다. 소생은 양친이 한꺼번에 모두 돌아가시자 그 슬픔과 설움에 여러 번 혼절하니, 비복들이 그를 어렵사리 보살피고 돌보았다. 소생이 정신을 차리고 부모의 장례를 극진히 지내었으니, 비록 열 살의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부모의 마지막 순간까지 효를 다했다.

삼년상을 치르고 나자, 가산이 거의 탕진되어 살아갈 방법이 막막해졌다. 소생은 조금 남은 전답을 팔아 노복에게 맡기고, 백금 오십 냥을 가지고 서쪽으로 향했다. 서주 지경에서 날이 저물자, 소생은 한 주막으로 들어가 잠자려 했다. 그때 들려오는 슬픈 울음소리 때문에 절로 슬퍼지고 쓸쓸해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날이 밝자, 소생이 간밤에 울었던 사람을 찾아보니, 그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소생이 그 연유를 물었다.

"노인께서는 무슨 연유로 밤새도록 통곡하셨나이까?"

"나는 올해 육십이옵는데, 금년 봄에 구십 노모가 돌아가셔서 임시로 장사를 지내 놓고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는데도 좋은 묏자리를 구할 길이 없어 노모의 해골을 거두지 못하여 통곡했나이다."

소생 역시 부모 여읜 마음을 아는지라 노인의 이야기에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저도 양친을 잃은 사람이더이다. 노옹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감동한지라, 이것이 비록 약소한 재물이나 부디 장사 지내는 데에 보태시기 바라나이다."

노인은 소생이 주는 백금을 받고서 몇 번이고 절하며 고마워했다.

"공자가 적지 않은 재물을 주시니 노모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지낼 수 있을 터, 비로소 죄인을 면할 수 있겠으니 **이 은혜 죽어 백골이 된다 해도 잊을 수 없**나이다. 후일 이 은혜를 보답코자 하오니 **거처를 알려** 주사이다."

"노옹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하늘이 지시한 것이니, 갚지 않으셔도 되나이다. 어서 장사나 평안히 치르소서."

소생과 노인이 이별하는데, 서로 못 잊어 뒤를 돌아보는 정이 비할 데가 없었다.

각설, 소생은 **노인에게 여비를 다 주어 낭탁이 비**었으나 **조금도 그것을 아깝다 생각지 않**으니, 그의 도량이 창해를 견줄 바였다. 그러나 길을 갈수록 소생의 굶주림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래서 남의 외양간을 쳐 주기도 하고 담을 쌓아 주기도 하며 겨우 굶주림을 면했으나, 해사한 기남자였던 소생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져 굶주린 거지꼴이 되었다. 하늘이 어찌 이리도 무심하단 말인가.

[중략 부분 줄거리] 기이한 꿈을 꾼 이 승상은 소대성을 발견하여 집으로 데려온다. 이 승상은 대성이 비범한 인물임을 알아보고 딸 채봉과 혼인시키고자 한다.

그날 이후에 승상이 길일을 잡아 인륜대사를 치르고자 했다. 그러나 불과 대여섯 달 뒤에 승상이 갑자기 병이 났는데, 갖은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다. 승상은 끝내 일어나지 못할 것을 예감하고는 부인을 불러 손을 잡고 말했다.

"내 병은 치유되기가 어려울 것 같소. 이제 내 나이 일흔이라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다만 딸아이의 혼사 치르는 것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함이 한이라오. 내가 죽으면 집안의 대소사는 부인이 주장해야 할 것이니, 딸아이의 인륜대사를 내 뜻대로 꼭 치러 주오. 황천길을 떠나는 이 사람의 한이 없게 해 주오."

이어 승상은 채봉을 불러서 말했다.

"내 너의 혼사를 보지 못하고 저승으로 가니, 그 한이 가슴에 맺히는구나. 그러나 삼 년 후에도 중헌에서 지은 글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 너의 성정을 아나니 달리 부탁할 말은 없구나."

[B]

이는 왕 부인이 소생에게 뜻이 적음을 보고 채봉에게 간곡히 당부한 것이라. 마지막으로 승상은 소생을 불렀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의 뜻에 달렸는지라 이를 거역할 순 없으니, 내 자네를 만나 회포를 다 풀지도 못하고 황천길을 떠나네. 딸아이의 일생은 자네에게 달렸으니 혹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이 늙은이를 생각해서 내치지 말며, 세 아들이 혹 옹졸한 일을 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오랫동안 평안히 지내게."

말을 마친 승상은 세상을 떠났다. 이에 이 승상의 가족들이 모두 슬퍼하여 집 안에는 곡소리가 진동했다. 소생은 승상이 운명하자 입관하고 성복하기까지의 의례를 극진하게 지냈다. 소생의 이런 모습을 본 사람마다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때 이 승상의 아들들이 승상의 부고를 듣고서 밤낮으로 달려와 승상의 영전에 통곡했다. 소생이 통곡하는 이들에게 조의를 표하니, 이들은 소생을 알지 못하는지라 누구냐고 왕 부인에게 물었다. 부인이 소생에 대해 이야기하니, 이들은 단지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을 따름이라.

며칠이 지난 후 서당에서 나와 위문할 때, 소생이 이생 등을 보니 누구도 그 부친의 명감이 없는지라 생각에 잠겼다.

'이제 승상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누가 나를 알아줄 것인가.'

소생은 그 이후로 모든 서책을 물리고 의관을 폐한 채, 하루 종일 잠자기만 일삼았다. 그러다 승상의 장례 치를 날이 되자 마지못해 의관을 격식에 맞게 차려입고 이 승상의 가족들과 함께 장사를 극진히 모셨다. 그러고는 또 서당에 누워 일어나지를 않았다. 이에 왕 부인이 아들들과 소생에 대해 자주 의논했다.

"소생의 거동이 아주 태만하구나. 학업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잠자기만 일삼으니 어찌 공명하기를 바랄 수 있으리오. 채봉과의 혼사를 물리고자 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제 아버님은 아니 계신지라 어머님께서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맡아야 하시니, 소자들에게 하문하실 일이 아니옵니다. 저희들이야 소생을 잠깐 보았지만 **단정한 선비는 아니었**습니다. 필시 채봉에게 흠이 될 것이옵니다."

"본디 빌어먹는 걸인을 승상께서 취중에 망령되이 이 집에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서 **소생을 내칠 방도를 찾**아보아라."

– 작자 미상, 「소대성전」

[22001-0279]

0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비복들은 대성의 부모가 죽자 대성을 핍박하고 전답을 팔아 모두 가로챘다.
② 승상이 죽자 대성은 글공부를 마다하고 온종일 누워 잠만 자며 시간을 보냈다.
③ 승상의 아들들은 승상의 장례식에서 처음 본 대성이 누구인지 채봉에게 물었다.
④ 노인은 대성에게 노모의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재물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
⑤ 상서는 대성이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것에 대해 마냥 기뻐하며 흡족해하였다.

[22001-0280]

1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A]의 상서와 [B]의 승상은 모두 자신의 자식이 좋은 배필과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다.
② [A]의 상서와 [B]의 승상은 모두 자신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③ [A]의 상서와 달리 [B]의 승상은 자신의 자식이 상대에게 폐를 끼칠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④ [B]의 승상과 달리 [A]의 상서는 자신의 자식이 가문을 빛낼 인물이 되길 바라고 있다.
⑤ [B]의 승상과 달리 [A]의 상서는 자신의 부인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22001-0281]

1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소대성전」에는 영웅 소설의 고난 구조가 잘 드러나 있다. 탁월한 능력을 타고난 주인공은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는데, 이는 영웅 소설의 구조에서 훗날 주인공의 영웅으로서의 활약상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고난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이어지는 유리걸식의 고난은 주인공의 자의가 어느 정도 반영된 고난이라는 점에서, 주인공이 지닌 영웅으로서의 인품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조력자의 도움으로 유리걸식의 고난은 극복하게 되지만, 영웅의 면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범인(凡人)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주인공은 또 다른 고난을 겪게 된다.

① 열 살밖에 안 된 대성이 '당나라의 이백과 두보에 필적할 만큼 문필에 능하고, 시서백가에 능통하'다는 것은 주인공이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물임을 나타내는 것이군.
② '온갖 약을 써도 효험이 없'는 병에 걸려 상서가 죽고 곧바로 '부인도 죽고' 만 상황은 대성이 영웅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고난에 맞닥뜨렸음을 보여 주는 것이군.
③ '이 은혜 죽어 백골이 된다 해도 잊을 수 없'다고 하며 은혜를 갚기 위해 '거처를 알려' 달라고 하는 노인의 도움을 받게 되어 대성은 유리걸식의 고난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군.
④ 대성이 '노인에게 여비를 다 주어 낭탁이 비'어도 '조금도 그것을 아깝다 생각지 않'아 하는 모습은 영웅으로서의 훌륭한 인품을 지녔음을 드러내는 것이군.
⑤ 대성을 '단정한 선비는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소생을 내칠 방도를 찾'는 것은 영웅의 면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범인들에 의해 대성이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군.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부가 중하냐? 집안일이 중하냐? 그것도 네가 없어도 상관없는 일이면 모르겠지만 나만 눈감으면 이 집 속이 어떻게 될지 너도 아무리 어린애다만 생각해 봐라. 졸업이고 무엇이고 다 단념하고 그 열쇠를 맡아야 한다. 그 열쇠 하나에 네 평생의 운명이 달렸고 이 집안 가운이 달렸다. 너는 열쇠를 붙들고 사당을 지켜야 한다. 네게 맡기고 가는 것은 사당과 그 열쇠 — 두 가지뿐이다. 그 외에는 유언이고 뭐고 다 쓸데없다. 이때까지 공부를 시킨 것도 그 두 가지를 잘 모시고 지키게 하자는 것이니까 그 두 가지를 버리고도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송장 내놓고 장사 지내는 것이다. 또 공부도 그만큼 했으면 지금 세상에 행세도 넉넉히 할 게 아니냐."

조부는 이만큼 이야기하기에도 기운이 폭 빠졌다. 이마에는 기름땀이 쭉 솟고 숨이 차서 가슴을 헤치려고 한다.

"살림은 아직 아범더러 맡으라고 하시지요." / 덕기는 그래도 간하여 보았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싫거든 이리 다오. 너 아니면 맡길 사람이 없겠니. 그 대신 내일부터 문전걸식을 하든 어쩌든 나는 모른다."

조부는 이렇게 화는 내면서도 그 열쇠를 다시 넣어 버리려고는 하지 않았다.

덕기는 병인을 거슬러서는 안 되겠기에 추후로 다시 어떻게 하든지 아직은 순종하리라고 가만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으려니까 밖에서 부석부석 옷 스치는 소리가 나더니 수원집이 얼굴이 발개서 들어온다. ㉠이때까지 영창 밑에 바짝 붙어 앉아서 방 안의 수작을 한 마디도 놓치지 않고 엿듣고 앉았던 것이다.

덕기는 수원집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앞에 놓인 열쇠를 얼른 집어 들고 일어서 버렸다.

"애아범, 잠깐 거기 앉게." / 수원집의 얼굴에는 살기가 돌면서 나가려는 덕기를 붙든다.

수원집은 열쇠가 놓였으면 우선 그것부터 집어 놓고서 따지려는 것이라서 덕기가 성큼 넣어 버리는 것을 보니 인제는 절망이다. 영감이 좀 더 혼돈천지로 앓거나 덕기가 이 집에서 초혼 부르는 소리가 난 뒤에 오거나 하였더라면 머리맡 철궤 안의 열쇠를 한 번은 만져 볼 수가 있었을 것이다. 금고 열쇠를 한 번만 만져 볼 틈을 타면 일은 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틈을 탈 새가 없이 이 집에 사자가 다녀 나가기 전에 덕기가 먼저 온 것이다. 덕기의 옴이 빨랐던지 '사자'의 옴이 늦었던지? ㉡저희들의 일 꾸밈이 어설프고 굼뜬 탓이었던지? 어쨌든 인제는 만사휴의(萬事休矣)다!

"이 댁 살림을 누가 맡든지 그거야 내 아랑곳 있나요. 하지만 지금 말씀 눈치로 보면 살림을 아주 내맡기시는 모양이니 이왕이면 나더러는 어떻게 하라실지 이 자리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죠."

㉢수원집은 암상이 발끈 난 것을 참느라고 발갛던 얼굴이 파랗게 죽는다.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는 말인가?"

영감은 가슴이 벌렁벌렁하며 입을 딱 벌리고 누웠다가 간신히 대꾸를 한다.

"지금이라도 이 댁에서 나가라면 그야 하는 수 없이 나가지요. 그렇지만 영감께선 안 할 말씀으로 내일이 어떨지 모르는데 영감만 먼저 가시는 날이면 저는 이 집에 한시를 머물 수 없을 게 아닙니까. 저 년만 없으면야 영감이 가시면 나도 뒤쫓아 가기로 원통할 게 무에 있겠습니까마는 요 알뜰한 세상에 무얼 바라고 누구를 바라고 더 살려 하겠습니까마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제 사정도 생각해

봐 주셔야 아니합니까!"

수원집의 목소리는 벌써 울음에 젖었다.

"그 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슈?" / 덕기가 탄하였다.

"내 말이 그른가? 자네도 생각을 해 보게. 할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 집안에서 나를 누가 끔찍이 알아 줄 사람이 있겠나?"

수원집은 코멘소리를 하며 눈물을 씻는다. 덕기도 아닌 게 아니라 그렇기도 하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어쩌면 눈물이 마침 대령하고 있었던 것처럼 저렇게도 나올까 싶었다.

"하지만 지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거요. 또 내가 살림을 떼맡는 자국인가요. 이 자리에서 그런 소리는 도무지 할 게 아니에요."

그래도 덕기는 타이르듯이 달래었다.

(중략)

"조부가 부친에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따로이 써 주었다는 말을 혹시 들은 일이 있었던가?"

여기 와서 덕기는 깜짝 놀랐다. 부친이 그동안 법석을 한 것은 큰 금고 속에 있는 조부의 도장을 집어다가 그런 유서를 위조해 가지려고 그랬던 것인가 보다 하는 짐작이 들었다.

"아마 그런 듯도 해요."

㉣덕기가 부친을 싸고도는 눈치를 보고 부장은 덕기를 입으로는 으르딱딱거리면서도 속으로 제 아비보다 낫다고 생각하였다.

"되지 않게 종교가! 되지 않게 민족 운동자!"

상훈이가 평소부터 예수교인이요 사회에서 꺼떡대려는 위인이니만치 밉게 보던 차에 이번 일을 보니 아주 개차반이로구나 — 하는 멸시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김에 단단히 골려 주려는 것이다.

대접하여 주자면 교분이 있는 고등 과장이 사건을 맡아 가지고 아무쪼록 유리하게 무사타첩을 못 해 줄 것은 아니겠지만 고등 과장은 발을 빼고 사법계로 넘겨서 절도, 인장 도용, 문서 위조, 사기 횡령 등…… 대 자가웃이나 되는 기다란 죄명을 붙여서 용수를 씌울 예정이다. 형편 보아서는 사건을 또 한번 뒤집어서 그가 그런 범죄를 한 동기는 독립 자금을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체면 좋게 뒤집어씌워 주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시 고등계로 넘기게 될 것이요, 치안 유지법이나 보안법으로 두둑한 철갑옷을 입혀 주게 될 것이다. 사건이 '고등'이 되고 상등 죄명을 붙여 주면서도 명예일 것이니 도리어 고마워하리라고 부장은 혼자 웃었다.

어쨌든 사건이 두셋씩 겹쳐서 두서를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한 상훈이 사건부터 집어 치우려는 것이다. / 부장은 가방 속에서 종이 한 장을 빼내어 펴 놓으며,

"이것이 뉘 필적인가?"

하고 묻는다. ㉮조부의 유서다. 뉘 손으로 꺼냈든지 이것을 보면 부친은 잡힌 모양이다.

다음에 또 한 장 내놓았다.

"그럼 이것은?"

덕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처음 것과 같은 날짜로 정미소를 상훈이에게 준다는 역시 ㉯조부의 유서이

다. 물론 필적도 같다.

"조부의 필적입니다."

분명히 대답하였다.

"잘못하면 위증죄가 될 것이니 잘 생각해 말을 해. 조부의 도장은 어디 있었나?"

"금고 속에 넣어 두었는데 아버지가 달라셔서 드렸습니다."

"언제? 왜 달라던가?"

"정미소 명의를 고치시느라고 그랬던 것이겠지요."

"언제 주었어?"

부친이 언제라 하였는지 외착*이 날까 보아서 좀 뻥뻥하다. 그러나 수원집에게 태평통 집문서를 내어 줄 때 썼으니까 그 다음으로 대어야 하겠다 생각하고,

"지난 달이던가요?" / 하고 부장의 눈치를 보았다.

부장은 더 추궁하지 않고 옆에 앉았는 부하에게 눈짓을 한다. 부하는 슬쩍 일어나 나갔다.

'부친을 불러다가 무릎맞춤을 안 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만나면 어쩌나 하는 겁이 났다.

오 분도 못 지나서 문이 펄쩍 열린다. 휙 돌아다보던 덕기는 목덜미에 칼이 들어오는 것같이 고개를 덜컥 떨어뜨리며 뛰어 일어났다.

그 꼴! 사람의 자식이 되어서는 차마 못 볼 노릇이다. ㉤수갑을 질러서 포승을 허리를 질끈 동이고 흙이 뒤발을 한 모자를 채플린식으로 씌웠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앞으로 옆으로 흐트러진 것도 채플린식이다. 그러나 결코 연극이 아니다. 추악하고도 잔인한 현실이다. 자식의 이런 꼴을 부모가 보고 느끼는 것은 그것은 불쌍하고 애처로운 애정이지만 자식이 부모의 이런 꼴을 보고 먼저 앞서는 것은 뼈저린 애정보다도 장상의 위신이 모독되는 점에 대하여 일종의 허무감과 동정이 일어나고 그다음에는 창피한 생각이 나는 것이다. 그 창피는 자기 개인과 맞상대자까지를 포함한 일문일족의 씨족적 불명예를 느끼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 염상섭, 「삼대」

*외착: 착오가 생기어 서로 어그러짐.

[22001-0282]

1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부는 덕기가 공부를 그만두고 집안일을 돌보기를 바라고 있다.
② 수원집은 덕기가 조금 더 일찍 집에 돌아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③ 덕기는 조부 사후에 가족들이 수원집을 돌보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④ 부장은 상훈이 평소 해 왔던 행동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⑤ 덕기는 곤경에 처한 상훈을 위해 부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22001-0283]

13 ㉠~㉤을 바탕으로 윗글의 서술자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을 보니, 다른 인물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특정 인물의 행동을 서술하고 있군.
② ㉡을 보니, 특정 인물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어 서술하고 있군.
③ ㉢을 보니,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다른 인물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군.
④ ㉣을 보니, 특정 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판단을 서술하고 있군.
⑤ ㉤을 보니, 특정 인물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서술하고 있군.

[22001-0284]

14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와 달리 ㉯는 조부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
② ㉯와 달리 ㉮에 쓰인 필적은 조부의 것과 같다.
③ ㉮는 ㉯를 쓴 시점보다 늦게 상훈이 작성한 것이다.
④ ㉯는 정미소에 대한 상훈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⑤ ㉮는 덕기가, ㉯는 상훈이 가지고 있던 것을 압수한 것이다.

[22001-0285]

1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920~1930년대는 유교적 윤리를 중심으로 하는 구시대적 가치와 자본주의적 가치가 공존하며 가치관의 혼란이 나타난 시기였다. 한편으로는 가족과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윤리와 전통적 가치에 대한 지향이 사람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화와 근대화의 분위기로 인해 자본주의적 세계관이 번져 가면서 물질 만능주의의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염상섭의 「삼대」는 이와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당대인들의 가치관 혼란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위선적 모습 등 혼탁해진 사회상을 보여 주고 있다.

① 조부가 덕기에게 맡기고자 하는 사당과 열쇠는 각각 구시대적 가치와 자본주의적 가치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② 자기 몫의 재산을 챙기기 위해 영감의 죽음을 거론하는 수원집의 모습에서 물질 만능주의의 태도가 느껴지는군.
③ 부장이 상훈을 골려 주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훈이 겉으로는 종교, 사회 운동에 앞장서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위선적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군.
④ 덕기가 상훈에게 조부의 도장을 순순히 준 이유는 자본주의적 가치보다 가족 윤리를 우선시하는 가치관 때문일 수 있겠군.
⑤ 덕기가 상훈의 모습을 보고 '차마 못 볼 노릇'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전통적인 가치와 윤리에 기반한 정서 때문이라 할 수 있겠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료 /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렇다 어떠하료
하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므슴하료 〈제1수〉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삼아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늙어 가네
이 중에 바라는 것은 허물이나 없고자 〈제2수〉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하니 자연(自然)이 듣기 묘해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하니 자연(自然)이 보기 묘해
이 중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욱 잊지 못하얘 〈제4수〉

산전(山前)에 유대(有臺)하고 대하(臺下)에 유수(有水)로다
떼 많은 갈매기는 오며 가며 하거든
어떻다 교교백구(皎皎白駒)는 멀리 마음 두는고 〈제5수〉

천운대(天雲臺) 돌아들어 ㉡완락재(玩樂齋)* 소쇄(瀟灑)한데
만권생애(萬卷生涯)로 낙사(樂事) 무궁(無窮)하얘라
이 중에 ㉢왕래풍류(往來風流)를 닐어 므슴할고 〈제7수〉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古人) 못 뵈
고인(古人)을 못 봐도 ㉣녀던 길 앞에 있네
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녀고 어쩔고 〈제9수〉

당시(當時)에 녀던 길을 몇 해를 버려 두고
어디 가 다니다가 이제사 돌아온고
이제나 돌아오나니 딴 데 마음 마로리 〈제10수〉

청산(靑山)은 어찌하여 만고(萬古)에 푸르르며
유수(流水)는 어찌하여 주야(晝夜)에 그치지 아니난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 호리라 〈제11수〉

㉤우부(愚夫)도 알며 하거니 그 아니 쉬운가
성인(聖人)도 못다 하시니 그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몰라라 〈제12수〉

– 이황, 「도산십이곡」

*천석고황: 자연에 살고 싶은 마음의 고질병.

*완락재: 도산 서원에 있는 서재 이름.

[22001-0286]

0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여 드러낸 것이다.
② ㉡: 화자가 머물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공간이다.
③ ㉢: 화자가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④ ㉣: 화자가 따라가고자 하는 지향이 내포된 것이다.
⑤ ㉤: 화자가 겸허한 태도로 자신의 학문이 부족함을 표현한 것이다.

[22001-0287]

02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도산십이곡」 〈제5수〉의 종장에 언급된 '교교백구'는 『시경』의 「백구」 편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구절로, 현자 혹은 은자의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교교백구'와 '멀리'가 지칭하는 대상에 따라 그 의미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교백구'는 ⓐ자연에 은거하고 있는 화자 자신, ⓑ은거를 선택한 타인 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 '멀리'는 속세나 현실 정치의 장 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면, 〈제5수〉의 종장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① 학생 1: '교교백구'가 ⓐ라면, 〈제5수〉의 종장은 화자 자신을 포함하여 자연에 은거해 있는 인재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데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학생 2: '교교백구'가 ⓐ라면, 〈제5수〉의 종장은 자연에 은거하고 있으면서도 현실 정치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이 화자 자신에게 남아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③ 학생 3: '교교백구'가 ⓑ라면, 〈제5수〉의 종장은 그들이 현실 정치의 장에 참여하기를 권장하는 화자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④ 학생 4: '교교백구'가 ⓑ라면, 〈제5수〉의 종장은 그들이 속세에 나아가 백성들에게 현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기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⑤ 학생 5: '교교백구'가 ⓑ라면, 〈제5수〉의 종장은 그들이 현실 정치의 장을 떠나 자연에 은거하고 있는 삶을 택한 것에 대한 화자의 회한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001-0288]

0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언지(言志)' 6수와 '언학(言學)' 6수로 구성되어 있는 「도산십이곡」에는, 잠시 벼슬살이에 나섰다가 귀향한 작가가 추구하는 자연 친화적 삶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언지'에 해당되는 1~6수에서 화자는 자연을 수양의 공간이자 완상의 대상으로 삼아 감흥을 느끼거나 연군의 정을 표하고 있고, '언학'에 해당되는 7~12수에서는 그러한 자연 공간에서 취해야 할 학문 수양의 자세를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역설하고 있다.

① 〈제1수〉의 '천석고황'은 자연에 살고 싶어 하는 화자의 뜻이 담긴 표현으로서, '고쳐 므슴하료'와 호응하여 그 뜻을 지켜 나가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부각한다고 볼 수 있겠군.

② 〈제2수〉의 '연하'와 '풍월'로 표상된 자연은 친화의 대상으로서, '허물이나 없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한 곳으로도 볼 수 있겠군.

③ 〈제4수〉의 '유란이 재곡하니'와 '백운이 재산하니'는 감흥을 주는 자연을 묘사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자연은 화자가 '피미일인'을 떠올리면서 연군의 정을 표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겠군.

④ 〈제10수〉의 '당시에 녀던 길'은 벼슬살이에 나서기 전의 학문 수양을 뜻하는 것으로서, '딴 데 마음 마로리'로 이어지면서 다시 학문 수양에 매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부각한다고 볼 수 있겠군.

⑤ 〈제11수〉의 '만고에 푸르'른 '청산'과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 '유수'는 유한한 인간의 삶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학문 수양의 한계에 대한 자각을 촉구하기 위해 동원된 자연물로 볼 수 있겠군.

[04~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순원(淳園)의 꽃 중에 이름이 없는 것이 많다. 대개 사물은 스스로 이름을 붙일 수 없고, 사람이 그 이름을 붙인다. ㉠꽃이 이미 이름이 없다면 내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찌 꼭 이름을 붙여야만 하겠는가?

사람이 사물을 대함에 그 이름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좋아하는 것은 이름 너머에 있다. 사람이 음식을 좋아하지만 어찌 음식 이름 때문에 좋아하겠는가? 사람이 옷을 좋아하지만 어찌 옷의 이름 때문에 좋아하겠는가? 여기에 맛난 회와 구이가 있으니 그저 먹어 보기만 하면 된다. 먹어 배가 부르면 그뿐 무슨 생선의 살인지 모른다 하여 문제가 있겠는가? 여기 가벼운 가죽옷이 있으니 입어 보기만 하면 된다. 입어 보고 따뜻하면 그뿐 무슨 짐승의 가죽인지 모른다 하여 문제가 있겠는가? 내게 꽃이 있는데 좋아할 만한 것을 구하였다면 꽃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하여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정말 좋아할 만한 것이 없다면 굳이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고, 좋아할 만한 것이 있어 정말 그것을 구하였다면 또 꼭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다. 이름은 가리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가리고자 한다면 이름이 없을 수 없다. ㉡형체를 가지고 본다면 긴 것, 짧은 것, 큰 것, 작은 것이 이름이 아닌 것은 아니다. 색깔을 가지고 본다면 푸른 것, 누른 것, 붉은 것, 흰 것이라는 말도 이름이 아닌 것은 아니다. 땅을 가지고서 본다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라는 말도 이름이 아닌 것은 아니다. 가까이 있으면 '여기'라 하는데 이 역시 이름이라 할 수 있다. 멀리 있으면 '저기'라고 하는데 그 또한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이름이 없어서 '무명(無名)'이라 한다면 '무명' 역시 이름인 것이다. 어찌 다시 이름을 지어다 붙여서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하겠는가?

[A] 예전 초나라에 어부가 있었는데 초나라 사람이 그를 사랑하여 사당을 짓고 대부 굴원(屈原)과 함께 배향하였다. 어부의 이름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대부 굴원은 『초사(楚辭)』를 지어 스스로 제 이름을 찬양하여 정칙(正則)이니 영균(靈均)이니 하였으니, 이로써 대부 굴원의 이름이 정말 아름답게 되었다. 그러나 어부는 이름이 없고 단지 고기 잡는 사람이라 어부라고만 하였으니 이는 천한 명칭이다. 그런데도 대부 굴원의 이름과 나란하게 백 대(代)의 먼 후세까지 전해지게 되었으니, 어찌 그 이름 때문이겠는가? 이름은 정말 아름답게 붙이는 것이 좋겠지만 천하게 붙여도 무방하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아름답게 해 주어도 되고 천하게 해 주어도 된다. 아름다워도 되고 천해도 된다면 꼭 아름다움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면 없는 것이 정말 좋을 것이다.

㉢어떤 이가 말하였다. "꽃은 애초에 이름이 없었던 적이 없는데 당신이 유독 모른다고 하여 이름이 없다고 하면 되겠는가?" 내가 말하였다. "없어서 없는 것도 없는 것이요, 몰라서 없는 것 역시 없는 것이다. 어부가 또한 평소 이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요, 어부가 초나라 사람이니 초나라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초나라 사람들이 어부에 대해 그 좋아함이 이름에 있지 않았기에 그 좋아할 만한 것만 전하고 그 이름은 전하지 않은 것이다. 이름을 정말 알고 있는데도 오히려 마음에 두지 않는데, 하물며 모르는 것에 꼭 이름을 붙이려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 신경준, 「이름 없는 꽃」

나 헛웅가가 허허 웃으며 하는 말이,

"너도 이 집 웅가라 하고 나도 이 집 웅가라 하여 흑백을 분별하기 어려우니, 우리 성주가 명관이니 송

사(訟事)하여 보자." 하니, 참옹가가 대답하되, / "그리 하자." 하고 억울한 심정을 글로 지어 손에 쥐고 관문에 들어가서 참옹가가 소지(所志)를 올리니, 형방이 이를 받아 고할 때,

[B] "삼가 뜻하는 바를 펴고자 하는 것은, 본 백성이 **본래 맹랑촌에 거처하여 다른 사람과 시비를 아니**하였는데, 천만의외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며칠 전에 안마당에 갑자기 들어왔거늘, 그 용모를 보고 그 목소리를 들으니 제 얼굴과 같고 제 모양과 같기에 그 성명을 물으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옹고집이라 하고 저의 세간을 탈취하오니, 이런 흉악한 놈이 있사오리까? 원통하게 누명을 쓰게 된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원님께 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엎드려 빌건대 원님께서는 두터운 덕으로 잘 처리하여, 흉악한 죄를 엄하게 다스려 불쌍한 백성으로 하여금 목숨과 세간을 보존할 수 있게 하옵기를 우러러 바라고 바라옵나이다."

형방이 보고하니 원님이 분부하되, / "너도 옹가요 저도 옹가라 하니, **저놈 보고 이놈 보니 아무리 본들 알 길이 없다.**" / 하실 때, 헛옹가가 또 소지를 올리니 하였으되,

[C] "삼가 뜻을 펼쳐 보이게 된 것은, 고금천지 간에 성명 생년과 생월생시가 같사와 비록 분간하기 어려우나, 저는 맹랑촌에서 여러 대에 걸쳐 살았고, 저 옹가는 근본이 없는 사람이니 어찌 헛되이 화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위로는 밝은 하늘이 있고 아래로는 명관(名官)이 있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참상이 신후 원통한 사정을 분간하옵고, 저놈을 더 한층 엄한 형벌로 다스리시어 저의 분한 일을 풀어 주옵소서."

하였거늘, 형방이 다 고한 후에 헛옹가가 여쭙되,

"제 소지에도 하였거니와 이 일이 답답하옵고 애달프오니 밝게 처분하여 사실을 밝혀 주옵소서."

원님이 분부하되, / "자세히 조사할 길이 없다. 너희는 각각 집에 돌아가라." 하고,

"다시 이러한 일이 있으면 각별히 엄하게 다스리리라." 참옹가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주는 백성의 부모요 백성의 하늘이니, 분명하게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원님이 분부하되, / "너희 원정을 보고 너희 모양을 보니 옥석을 분간하기 어렵도다. 너희 **집 세간을 각각 외워 바치라.**" / 헛옹가의 거동 보소. 동원 마당에 설설 기어 들어와 아뢰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등 논을 헤아리면 일백여든닷 섬지기요, 구실은 마련하오면 백여든세 먹이요 땅 지(地) 자 일등 밭이 삼백서른두 말이요, …… 황소 세 필, 암소 세 필과, 적토마, 자류마, 사족발이 합 열 마리요, 황구, 백구가 열 마리요, 황계와 백계가 백여 수 되나이다."

원님이 분부하되, / "너는 세간살이를 자세히 아는구나. 그것은 그러하거니와 저 옹가 아뢰어라."

㉣헛옹가 곁에 섰다가 급히 재촉하니, 참옹가가 기가 막혀 연기 마신 고양이같이 집 세간을 대강도 알 길 없어 묵묵히 섰을 적에, 좌우 나졸이

"바삐 아뢰어라." 하니, 경황이 없는 중에 가산을 외우되 밑도 끝도 없이,

"문전옥답이 굉장히 많고 오려논 닷 마지기, 개똥밭 열 마지기요, 집안 세간은 여편네가 아옵지 저는 알지 못하나이다." 원님이 분부하되, / "**네 사조(四祖)를 말하라.**" 하니, 참옹가가 엉겁결에 아뢰되,

"증조, 고조를 모르고 할아버지 모르고, 부모는 더욱 모르옵니다." 원님이 분부하되,

"네 이놈, 사조를 알지 못하니 진실로 상놈이로다." 헛옹가가 아뢰는 말이,

"저 미친 놈이 어찌 저의 사조를 알겠습니까? 제가 아뢰오리다. 저의 고조는 용송이요, 증조는 망송이요, 할아버지는 승송이요, 외할아버지는 송송이요, 장인은 상송이로소이다." 원님이 분부하되,

"용송, 망송, 승송, 송송, 상송 하니 너는 참옹가요, 저놈은 헛옹가로다. 헛옹가 올려 매라."

[중략 부분 줄거리] 참옹가는 원님에게 매타작을 당한 후 억울함을 호소하러 친구네 집을 찾아가지만 그곳에서도 가짜 취급을 받으며 쫓겨난다. 참옹가는 월출암 도승을 찾아가라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을 듣고 그곳을 찾아간다.

월출산에 들어가니 과연 도승이 있는데, 옹가가 문밖에 엎드려 대죄하니 도승이 말하기를,

"네 죄를 아느냐?" 옹가가 말하기를, / "과연 모르오니 덕분에 살려 주십시오."

도승이 말하기를, / "내가 인간 세계에 나갔을 때 네가 한 죄를 모르느냐?"

옹가가 말하기를, / "죄가 많아 죽어도 애석하지 않으니 살려 주십시오."

하되, 도승이 상좌를 불러 쑥 한 짐 져다가 주먹만큼 비빈 후, 옹가의 옷을 벗기고 볼기를 삼천 대 때리고 뜸을 뜨니, 옹가가 반만 죽었거늘, 도사가 보고 충분히 경계(警戒)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로되 우리 불도가 어찌 무식한 속인을 해하겠는가? 이것이 다 경계하는 술법이라. 어찌 사람을 천 장이나 뜸을 떠서 죽지 아니하겠는가?"

옹가가 그제야 정신을 차려 볼기를 만져 보니 겨우 뜨뜻할 뿐이었다. 도승이 부적 한 장을 써 주며 말하기를,

"이 부적을 가지고 네 집에 돌아가 방 안에 붙이고 왼발을 구르면서 주문을 외우면 네 집에 있는 옹가가 방 안에서 거꾸러져 짚이 될 것이니, 네가 집안 세간을 다 찾아 살되 불측한 뜻을 다시 먹지 말라."

하니, 옹가가 백배사례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방 안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부적을 던지면서 왼발을 구르고 주문을 외우니, 이때 등촉을 밝히고 손님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허수아비 자빠지니, 모든 손님이 크게 놀라 얼뜬 사람은 기절하고 겁내는 사람은 똥 싸더라. 그제서야 참옹가가 전과 다름없이 앉아 있으니, 보는 사람이 무안하여 열없어하고, 처자 노복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보고, 다 얼굴을 가리며 코를 쥐며 서로 탄식함을 마지아니하였다. 이러구러 세월이 흘러 의식이 매우 구차하고 가난하게 되고 곳간집이 전혀 없더라. 백발이 원수이다. 흐르는 물같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은 잠깐이라. ㉤풀잎의 이슬처럼 덧없는 인생 죽게 되었으니, 슬프고 가련하다. 세상 사람이 제 본심을 가져 남에게 몹쓸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환을 면하느리라.

– 작자 미상, 「옹고집전」

[22001-0289]

04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물음의 형식을 통해 이름 없는 꽃에는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② ㉡: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며 사물을 구별하는 말과 이름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③ ㉢: 인물의 발화를 직접 인용하며 이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통념을 소개하고 있다.

④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난처한 상황에 놓여 당혹스러워하는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⑤ ㉤: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서술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을 위한 경계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2001-0290]

05 글쓴이가 [A]를 삽입한 의도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름 있는 사물과 이름 없는 사물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② 사물의 이름보다는 그 사물이 지니고 있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③ 사물의 이름이 아름다울 필요는 없더라도 이름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④ 사물의 이름이 천하더라도 그 이름을 천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⑤ 사물의 이름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가치를 지녀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22001-0291]

06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철학적 물음을 '개인 동일성 문제'라고 한다. 이 중 신체 이론은 외모를 비롯한 신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심리 이론은 생각이나 기억, 버릇, 성격 따위의 심리 상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동일한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한편 복제로 인해 본디의 사람과 복제된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은 동일성을 고려할 때 배제해야 한다는 원리를 '**복제 불가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원리로 인해 신체와 심리 상태가 '나'와 동일한 '나'의 복제가 이루어진 경우는 '개인 동일성 문제'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본디의 '나'에 대한 복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본디의 '나'나 복제된 '나' 중 한 명이 죽을 때만 남아 있는 '나'는 과거의 '나'와 동일한 존재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복제 불가 조건'에 근거하여 개인 동일성을 판단하게 되면, '나'로 추정되는 그 어떤 경쟁자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와의 동일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① 참옹가의 소지에 대해 '저놈 보고 이놈 보니 아무리 본들 알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원님의 모습은, 신체 이론에 근거한 동일성 문제 판단과 연관이 있겠군.
② 참옹가가 '본래 맹랑촌에 거처하여 다른 사람과 시비를 아니'했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 자신의 기억에 관하여 말한 것이라면, 심리 이론과 관련 있는 동일성 주장에 해당하겠군.
③ '집 세간을 각각 외워 바치라.' 하고 '네 사조를 말하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원님의 모습은, 심리 이론에 근거한 동일성 문제 판단과 연관이 있겠군.
④ 헛옹가가 참옹가의 신체와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복제한 사람이라고 할 때, '복제 불가 조건'에 따르면 참옹가와 헛옹가의 개인 동일성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겠군.
⑤ 참옹가가 던진 부적으로 인해 헛옹가가 허수아비로 변했다는 점에서, '복제 불가 조건'에 의해 참옹가는 과거의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겠군.

[22001-0292]

07 [B]와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B]는 [C]와 달리 원님이 송사를 해결할 때 얻는 이득을 언급하며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② [B]는 [C]와 달리 원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언급하며 자신인 척 행세하는 인물에 대한 응징을 요구하고 있다.
③ [C]는 [B]와 달리 자신을 사칭하는 인물과 자신의 공통점을 언급하며 자신이 화를 당하게 된 사연을 밝히고 있다.
④ [B]에서는 자신이 소지를 올리게 된 자초지종을 밝히며, [C]에서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자신의 내력을 밝히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⑤ [B]는 자신을 사칭하는 인물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언급하며, [C]는 자신을 사칭하는 인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입을 피해를 언급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2001-0293]

08 〈보기〉를 중심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봉건적 사회 질서에서는 사물의 '실질'보다는 관념적인 '명분(名分)'을 내세워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처지에 맞는 도리를 지키며 살아갈 것을 강요하였다. '명분'에서 '명(名)'은 이름을, '분(分)'은 처지를 나타내는데, 결국 '명분'이란 자신의 처지에 맞게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한다. 고전 문학 작품 중에서는 이러한 '명분'을 주제로 다룬 작품이 여럿 있는데, '명분'과 '실질'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가)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는 '옹고집'이라는 인물이 겪는 고초를 그리고 있는 (나)가 그 예들이다.

① (가)에서 사람이 사물의 이름만이 아닌, 이름 너머의 것을 좋아하는 것은, 관념적인 명분보다 사물의 실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군.
② (가)에서 맛난 회와 구이는 먹어서 배부르면 그뿐이고, 가벼운 가죽옷은 입어서 따뜻하다면 그뿐이라는 것은, 사물마다 자신의 처지에 맞게 지켜야 할 도리가 있음을 의미하는군.
③ (가)에서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해 무명에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은, 명분을 지키는 삶보다는 실질을 지키는 삶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군.
④ (나)에서 원님이 사조를 알지 못하는 참옹가를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조상과 부모에 대해 모르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는 것임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겠군.
⑤ (나)에서 도승이 참옹가에게 부적을 주며 불측한 뜻을 먹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군.

[0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마존 수족관 집의 열대어들이 / ㉠유리 벽에 끼어 헤엄치는 여름밤
세검정 길 /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 아스팔트에서 ㉡고무 탄내가 난다
열난 기계들이 길을 끓이면서 / 질주하는 여름밤
상품들은 덩굴져 자라나며 색색이 **종이꽃**을 피우고 있고 / 철근은 밀림, 간판은 열대지만
아마존강은 여기서 아득히 멀어 /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
변기 같은 귓바퀴에 **소음** 부엉거리는 / 여름밤 / **열대어들에게 시(詩)를 선물하**니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고 / 아마존 강변에 후리지아 꽃들이 만발했다

– 최승호, 「아마존 수족관」

나 **텔레비전**을 끄자 / 풀벌레 소리 /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쳤다가 /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쳤다가 /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22001-0294]

09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어 시적 분위기가 전환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②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인간이 추구해야 할 윤리적 덕목을 제시하고 있다.
③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④ 시적 공간의 비유적 묘사를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⑤ 대립적인 색채어로 형상화한 이미지들을 통해 화자의 기대가 실현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22001-0295]

1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수족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소재를 나타낸 것으로, 시적 대상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 준다.
② ㉡: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로 인한 감각적 자극을 나타낸 것으로, 도시의 삭막한 이미지를 환기한다.
③ ㉢: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시각화한 표현으로, 화자가 그 소리에 집중하는 상황을 보여 준다.
④ ㉣: 풀벌레들의 귀를 표현한 것으로, 화자가 가진 귀의 상태를 묘사한 것과 대비를 이룬다.
⑤ ㉤: 벌레 울음소리를 하루살이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울음소리를 내던 벌레의 죽음을 암시한다.

[22001-0296]

11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가)와 (나)는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다. (가)의 화자는 물질적 욕망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질서와 그 속에서 정신적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들의 상상력을 일깨워 그들이 황폐한 삶 속에서 생명력을 되찾고 위안을 얻기를 소망한다. 한편 (나)의 화자는 문명의 이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과 공허한 내면을 성찰한다. 그리고 무뎌져 있던 감각과 사고를 회복함으로써 자연과 교감하고, 작고 하찮게 여겨지던 것들이 지니고 있는 생명의 힘을 떠올리며 위로를 얻고자 한다.

① (가)의 '종이꽃'은 현대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질서를, (나)의 '텔레비전'은 현대인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문명의 이기를 함축하는군.
② (가)에서 '수족관 속에서 목'말라 하는 열대어의 모습은 현대인들이 느끼는 정신적 갈증을, (나)에서 귀뚜라미나 여치들의 '큰 울음'은 현대인들의 공허한 내면을 드러낸 것이겠군.
③ (가)에서 '소음'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황폐함을, (나)에서 '여린 마음들'은 작고 하찮게 여겨지던 것들이 지닌 생명의 힘을 보여 주는군.
④ (가)에서 화자가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하'는 것은 현대인들의 상상력을 일깨워 위로를 얻게끔 하려는 행위로, (나)에서 화자가 '크게 밤공기 들이쉬'는 것은 무뎌진 감각과 사고를 회복하고 자연과 교감하려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겠군.
⑤ (가)에서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는 모습과, (나)에서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지는 모습은 생명력 회복을 지향하는 내면 상태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황거칠 씨는 내처 풀이 죽어 있었다. **정상작량(情狀酌量)*도 법을 쥔 사람의 자유**다. 게다가 집달리란 사람들에게는 애당초 눈물도 인정도 없게 마련이다. ㉠마삿등 사람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다섯 개의 수도용 우물이 **집달리가 데리고 온 인부들**의 괭이에 무참히 헐리고, 대나무로 된 파이프들이 물을 문 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리저리 내던져졌다. / 황거칠 씨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거의 발작적으로 일어섰다.

"이 개 같은 놈들아, 어쩌면 남이 먹는 식수까지 끊으려 하노?"

그는 미친 듯이 우르르 달려가서 한 인부의 괭이를 억지로 잡아서 저만큼 내동댕이쳤다.

그것을 계기로 부락민들도 와 몰려갔다. ㉡집달리 일행과의 사이에 벌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이 말려도 듣지 않았다. / 결국 동팔이와 인부 한 사람이 이쪽 청년들의 펀치에 코피가 터졌다.

경찰은 발포를—다행히 공포였지만—해서 겨우 군중을 해산시키고, 황거칠 씨와 청년 다섯 명을 연행해 갔다. 물론 **강제 집행**도 일시 중단되었다. / 경찰에 끌려간 사람들은 밤에도 풀려나오지 못했다. 공무 집행 방해에다, 산주(山主)의 권리 행사 방해, 그리고 폭행죄까지 뒤집어쓰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이튿날도 풀려나오질 못했다. 쌍말로 썩어 갔다.

황거칠 씨는 모든 죄를 자기가 안아 맡아서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면회를 오는 가족들의 걱정스런 얼굴을 보자, 황거칠 씨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만부득이 담당 경찰의 타협안에 도장을 찍기로 했다. 석방의 조건으로써, 다시는 강제 집행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각서였다.

이리하여 황거칠 씨는 애써 만든 **산 수도**를 포기하게 되고, 마삿등은 한때 도로 물 없는 지대가 되고 말았다. / ㉣일행이 구릇간에서 풀려나왔을 때는 산에 있는 황거칠 씨의 수도 시설은 완전히 철거되고, 파괴됐던 다섯 개의 우물은 호동팔 측에 의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드디어 소원 성취를 한 동팔이가 **마삿등 일대의 수도를 독차지**하겠다는 것이었다. / '죽일 놈!'

하고 황거칠 씨가 이를 악물고 있는 판에 뜻밖에 동팔이 측에서 사람을 하나 보내왔다. 용건이 또 걸작이었다. 마삿등 일대의 배수 시설을 자기에게 팔든가(물론 헐값으로), 정 놓기 싫으면 자기와 공동 경영을 하자는 것이었다. 아니꼽게도 이쪽의 약점을 노린 수작이었다.

"가거라, 이 개 같은 놈아! 밥을 처먹는 놈이 그따위 심부름을 하고 다녀?"

황거칠 씨는 벼락 같은 소릴 쳤다. 차라리 거저 내버렸음 내버렸지! 동팔에게 시설을 판다든가, 더구나 공동 경영 따위 쓸개 빠진 것은 입에 담기조차 창피한 일이었다. 교섭을 왔던 사람이 코를 싸고 돌아간 뒤에도 그는 내처 주먹을 떨어 댔다.

'누굴 자기 같은 놈인 줄 알았던가? 뻔뻔스런 놈 같으니!' / 아무리 생각해도 분했다.

배수 시설의 양도를 거절당한 동팔이는 어디 보자는 듯이 마삿등 일대에 **자기대로의 시설**을 하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매일같이 많은 물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콩나물 장수, 두부집, 그리고 두꺼비가 그려진 ○○소주의 깃발을 늘어놓고 소주랑 막걸리, 청주까지 만들어서 파는 '두꺼비집' 같은 데서는 만부득이 호동팔의 물이라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밖에도 동팔이와 특별한 관계 — 가령 그의 목수 허드렛일을 맡아 있다든가, 인척 관계인 몇몇 사람들도 그 물을 쓰기 시작했다.

한편 **복수라기보다 자기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여러 날 여러 밤을 골똘히 궁리**해 오던 황거칠 씨는 드

디어 호동수의 산이 아닌 다른 산에서 물을 끌어오기로 결심했다.

— 어디 제 놈들의 산이 아니면 물이 없을까!

㉤이튿날부터 황거칠 씨는 예의 쇠작대기를 찾아 들고 집을 나섰다. 수정암 훨씬 뒤 굴밤나뭇골이란 데 가서 새 수원을 찾기로 했다. 그곳은 안심할 수 있는 국유 임야였다.

그러나 그는 굴밤나뭇골을 그냥 스쳐서, 낙동강 하류가 멀리 내려다보이는 산정으로 곧장 올라갔다. 그 산정의 양지바른 곳에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무덤이 있었다.

— 고향이 여기가 아닌데 선인들의 무덤이 어떻게 그곳에 있었느냐? 그러나 그것은 나중 이야기하기로 하자. / 아무튼 그는 길도 또렷하지 않은 산길을 더위잡았다.

산등성이에 올라서자, 거기서부터는 수목도 거의 없고, 대신 풀이 무릎 위까지 자라 있었다. 억새는 벌써 자줏빛 꽃순을 내밀었고, 마타리랑 뚜깔도 키 겨룸을 하듯 노랑 꼭지, 흰 꼭지들을 바람에 흐늘거려 댔다. 그러한 키다리들 틈에 끼어, 참취, 개쑥부쟁이, 도라지, 등골나무, 산들깨, 산박하…… 이루 셀 수 없는 조국의 어여쁜 꽃들이 산을 온통 수놓듯 했는가 하면, 찌르르 하는 풀벌레 소리들이 한결 가을을 느끼게 했다. 물컥 꽃향기가 코를 찌른다.

황거칠 씨는 문득 조국의 향기를 맡는 듯했다. 숫제 어떤 행복감에 젖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왜 이러한 **아름다운 산들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독차지 돼야 하는가?**' 하는 노여움에 다시 사로잡혔다.

지지리도 못난 백성들이란 생각을 더욱 절실히 가지면서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무덤 앞에 나아가 공손히 절을 올렸다. 그러고는 고향 산천이 있을 먼 북녘 하늘을 바라보았다.

(중략)

'**저 쬐깐 집들에도 나 같은 소년, 아니 어머니 같은 불쌍한 여인들이 필연코** 있으리라…….'

초라한 집들이 자기의 고향을 연상케 하는 데다, 듣던 대로 이렇다 할 농지도 없고 그저 산이나 뒤져 가며 연명들을 해 가는 것 같아서, 황거칠 씨는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는 뭉클한 채 일어섰다. 굴밤나뭇골로 되돌아온 그는 바삐 산으로 싸댔다. 냉큼 물풀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그의 경험에 의하면 물이 솟을 만한 자리에는 반드시 특수한 종류의 멧풀들(가령 개구리갓이니 쇠스랑개비 등속의 습지 생풀들을 그는 통틀어 물풀이라고 불렀다.)이 나 있었다.

그럴 말한 곳을 한참 쏘다닌 끝에 다행히 그는 그럴싸한 자리를 몇 군데 찾았다. 물풀이 나 있었다. 그는 반색을 하며 쇠작대기로 땅을 쿡쿡 찔러 보았다. 한 곳은 토질도 물러 보였다. 그는 용기를 얻었다.

용기를 얻은 황거칠 씨는 물풀이 한결 짙어 보이는 곳에 퍼져 앉아서 담배를 연거푸 두 개비나 태웠다. 물풀이 있는 곳을 쉬 찾은 것은 좋았으나 이윽고 일껏 만들었던 수원을 빼앗긴 일, 그러고서 다시 새 우물을 파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새삼 입맛이 쓰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그에게는 **허덕이는 조국과 더불어 겪어야 될 시련의 하나**려니 생각하면서 발끝에 있는 물풀을 한 움큼 푸짐하게 뜯어 쥔 채, 뚜벅뚜벅 산을 내려왔다.

– 김정한, 「산거족」

*정상작량: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22001-0297]

12 이야기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이 일어난 원인이다.
② ㉡은 ㉢이 발생하게 된 빌미이다.
③ ㉢은 ㉣을 원활하게 하는 단계이다.
④ ㉣은 ㉤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과정이다.
⑤ ㉤은 ㉠으로 인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모색이다.

[22001-0298]

13 물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물이 삶의 터전을 떠날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상이다.
② 인물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는 대상이다.
③ 인물로 하여금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유도하는 소재이다.
④ 인물이 현재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심정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⑤ 인물이 앞날에 대한 부담감을 결국 떨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소재이다.

[22001-0299]

1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산거족」은 광복 이후 국유지 매각 과정의 부당함을 다루고 있다. 김정한의 소설에는 토지 소유 과정의 불합리와 폭력, 몰인정을 고발한 작품이 많은데, 이러한 토지 사유화의 과정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행사이기는 하나 개인의 이기심에 의해 다수를 희생시키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이들을 그 땅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여기에는 지속적인 갈등과 강자의 무자비함에 대항하는 약자의 결속 등이 나타난다. 작가는 현실 자체로서의 토지에 초점을 두고, 삶의 공간이 부정하게 자본화되면서 나타나는 민중의 고통과 투쟁 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① '우물'과 '산 수도'는 마삿등이라는 공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군.
② 호동팔이 '강제 집행'을 통해 우물과 산 수도를 철거하려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절차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군.
③ 마삿등 사람들이 '집달리가 데리고 온 인부들'과 충돌을 일으킨 것은 강자의 무자비함에 대항하는 약자의 결속이 집단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군.
④ '마삿등 일대의 수도를 독차지'하여 물을 사유화하려는 호동팔의 계획은 다수의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것이군.
⑤ 호동팔이 설치한 '자기대로의 시설'의 물을 마삿등 사람들이 쓰게 된 상황은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현실 자체로서의 토지를 지키려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군.

정답과 해설 112쪽

[22001-0300]

15 **〈보기〉를 활용하여 윗글의 '황거칠 씨'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김정한의 소설들에는 서사를 이끌어 가는 중심 인물로서, '황거칠 씨'와 같은 노인의 형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은 순응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을 지닌 기성세대와는 거리가 멀다. 이들은 사라져 가는 세대나 비극적 운명의 희생자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역사 현실의 경험자로서 현실 모순의 원인과 그로 인한 문제 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존재이다.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이들의 열망은 경험과 공동체적 시각,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성을 지니게 된다.

① '정상작량(情狀酌量)도 법을 쥔 사람의 자유'임을 떠올리며 법을 근거로 자신들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려 한다는 점에서 순응적인 기성세대와는 거리가 먼 인물임을 알 수 있어.
② '복수라기보다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여러 날 여러 밤을 골똘히 궁리'하는 것을 통해 본인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어.
③ 조국의 '아름다운 산들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독차지돼야 하는가?'라며 노여움을 느낀다는 점에서 현실의 모순과 같은 문제 상황을 인식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어.
④ '저 쬐깐 집들에도 나 같은 소년, 아니 어머니 같은 불쌍한 여인들이 필연코'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통해 따뜻한 인간애를 지니고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어.
⑤ 새로운 우물을 파야 하는 수고로움을 '허덕이는 조국과 더불어 겪어야 될 시련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공동체적 시각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어.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속이 꽉 찬 **배추**가 본디 **속부터**
단단하게 옹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는데
겉잎 속잎이랄 것 없이
저 벌어지고 싶은 마음대로 벌어져 자라다가
그중 **땅에 가까운 잎 몇 장**이 스스로 겉잎 되어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고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주는 사이
결구(結球)*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알불*을 달듯 속이 차 오는 거라
마음이 이미 길 떠나 있어
몸도 곧 길 위에 있게 될 늦은 계절에
채마밭 조금 빌려 무심코 배추 모종 심어 본 후에
알게 된 것이다
빌려줄 몸 없이는 저녁이 없다는 걸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는 걸
처음 자리에 ㉠길은 없는 거였다

– 김선우, 「빌려줄 몸 한 채」

* **결구**: 호배추나 배추 따위의 채소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둥글게 속이 드는 일.
* **알불**: 무엇에 싸이거나 담기지 않은 불등걸.
* **공양간**: 절의 부엌을 이르는 말.

나 **어물전 개조개** 한 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펄과 물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조개는
최초의 궁리인 듯 가장 오래 하는 궁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 갔다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A]
아 — 하고 집이 울 때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움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아 — 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 문태준, 「맨발」

* **탁발**: 도를 닦는 승려가 경문(經文)을 외면서 집집마다 다니며 동냥하는 일.

[22001-0301]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모두 비유적 표현을 통해 관찰한 대상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② (가)와 (나)는 모두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이 처한 상황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③ (가)는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를 보여 주고 있다.
⑤ (가)는 반어적 어조를 통해, (나)는 추측의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2001-0302]

02 **㉠과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은 모두 삶에 대한 강인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② ㉠과 ㉡은 모두 현재 처지에 대해 조바심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다.
③ ㉠과 ㉡은 모두 자연의 순환 원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상이다.
④ ㉠은 삶의 방향성과, ㉡은 삶의 속도와 관련된 대상이다.
⑤ ㉠은 관념의 전환으로, ㉡은 사회에 순응하여 얻게 된 대상이다.

[22001-0303]

03 〈보기〉에서 (나)의 [A]에 쓰인 '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보기

ㄱ. 가난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개조개의 심정이 담겨 있다.
ㄴ. 개조개와 울던 것들 사이에 발생한 외적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ㄷ. 개조개가 길거리로 나서게 되는 이유와 관련이 있다.
ㄹ. 탁발에 대한 기대가 좌절된 개조개의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
ㅁ. 울던 것들에 대한 개조개의 책임감을 유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22001-0304]

0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와 (나)는 자연물을 통해 인간의 삶의 이치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배추의 성장 과정을 통해 나눔과 희생을 실천하여 내적인 성숙을 이루며 타인과 공생할 때,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의 화자는 어물전의 개조개의 모습에 연민을 느낀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삶을 개조개의 삶과 동일시하여 인생에는 시련이 있지만 그로 인한 괴로움을 견뎌 내며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한다.

① (가)에서 '배추'가 '속부터 / 단단하게 옹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다고 한 것에는, 인간은 먼저 내적인 성숙을 이룬 다음에야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화자의 깨달음이 담겨 있군.
② (가)에서 '배추'가 '땅에 가까운 잎 몇 장'을 '나비'와 '벌레'에게 준다고 한 것에는, 타인과 나누며 공생하려는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담겨 있군.
③ (가)에서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주는 사이'에 '결구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한 것에는, 참된 삶을 위해서는 자기희생이 필요하다는 화자의 깨달음이 담겨 있군.
④ (나)에서 '펄과 물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을 '조문하듯' 건드린다고 한 것에는, 시련을 겪은 인간의 삶에 대한 화자의 연민 의식이 담겨 있군.
⑤ (나)에서 '어물전 개조개'가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라고 한 것에는, 괴로움을 견뎌 내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본질에 대한 화자의 성찰이 담겨 있군.

[05~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래 너 이 병원은 어떻게 알았니?"

"접때 아버지하구 돈 꾸러 왔댔어요." / "돈 꾸러? 여길?"

"네, 아버지가 엄마하구 무슨 얘기하다가 울었어요. 그리구 나 데리구 여기까지 왔댔어요."

"그래서 돈은 꾸어 갔니?"

"아니요. 나보구 길거리에 서서 기다리라구 해서 한참이나 이 앞에서 기다리구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냥 돌아가라구 했어요. 그러면서 저녁에 돈을 마련해 갖구 돌아갈 테니 집에 가서 엄마보구 조금만 더 참구 기다리라구 했어요."

만기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마음이 복잡하거나 괴로울 때 하는 버릇이었다. 옷이라고는 언제나 탈색한 서지 군복 바지에 퇴색한 해군 작업복 상의만을 걸치고 다니는 초라한 익준의 몰골이 감은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면서도 익준은 병원에 와서 돈을 꾸어 달라고 한 번도 손을 내밀어 본 일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단 한마디도 딱한 집안 사정을 입 밖에 비쳐 본 일조차 없었다. 만기도 그의 가정 형편이 그렇게까지 말이 아닌 줄은 모르고 있었다.

"너 몇 학년이니?" / "학교 그만뒀어요." / "그럼 놀고 있어?" / "신문 장사해요."

만기는 그런 말까지 캐물은 것을 도리어 후회했다. 그는 ㉮소년을 위로해서 돌려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남의 시설을 빌려서나마 개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만기 **자신 생활에는 극도로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그마치 열 식구에 버는 사람이라곤 만기뿐이니 당할 도리가 없었다. 대가족이 먹고 입는 일만도 숨이 가쁠 지경인데 동생들의 학비까지 당해 내야만 했다. 대학이 하나, 고등학교가 둘, 거기에 초등학교 다니는 자기 장남까지 합친다면 그야말로 무서운 지출이었다. 피를 짜내듯 해서 거의 기적적으로 감당해 오고 있었다. 그 밖에 늙은 장모와 어린 처남 처제들만이 아득바득하고 있는 처가에도 다달이 쌀말 값이라도 보태 주지 않아서는 안 되었다. 하기는 그런대로 개업을 하고 있는 만기에게는 다소라도 수입이 있었다. 그러나 동란 이래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익준네 생활이 그만치라도 지탱되어 왔다는 것은 한편 수수께끼 같은 일이기도 했다. 익준은 취직을 단념하고 있었다. 왜정 때 겨우 중학을 나왔을 뿐 특수한 기술도 빽도 없는 데다가 나이마저 삼십 고개를 반이나 넘어섰고 보니 취직이란 말 그대로 별따기였다. 게다가 남달리 정의감과 결벽성이 세기 때문에 사소한 부정이나 불의를 보고도 참지 못하는 그는 설사 어떤 직장이 얻어걸렸다 해도 오래 붙어 있지 못했을 것이다. 사변 전에도 직장다운 직장을 오래 가져 보지 못했던 것은 오로지 그러한 그의 성격 탓이었다. 그렇다고 장사를 하자니 밑천도 없었거니와 이 또한 고지식한 그에게 될 일이 아니었다. 언젠가는 생각다 못해 노동판에도 섞여 보았다. 그 역시 해 보지 않던 일이라 한몫을 감당할 수도 없었거니와 사무실에서 **인부들의 임금을 속여 먹는** 줄 알게 되자 대뜸 쫓아가서 시비 끝에 주먹다짐까지 벌어졌던 것이다. 그러기 최근 일 년 동안은 양심적이고 동지적인 자본주를 얻어, 먹고살 수도 있고 동시에 국가 사회에도 이익할 수 있는 사업을 스스로 일으켜야 하겠다고 하며 그는 날마다 거리를 휘젓고 다녔다. 그가 말하는 국가 사회에도 보익(補益)하며 먹고살 수도 있는 사업이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상대의 일용 잡화 및 식료품 상회였다. 그의 친지 가운데 외국인 선교사들과 교섭이 잦은 기독교인이 있었다. 그 친지 말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 와 있는 외국 민간인들의 대부분이 식료품이나 일용품 같은 것을 거의 '도쿄'나 '홍콩'에서 주문해다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외국인 자신들에게 있어서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일 뿐 아니라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한국 상인의 물품은 그 가격이나 질에 있어서 도무지 신용을 할 수가 없**으니 부득이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상대로 식료품과 일용품을 공급해 줄 만한 양심적인 한국 상점의 출현을 누구보다도 외국인 자신들이 절실히 요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친구에게서 그 말을 들은 익준은 단박 얼굴이 벌게 가지고 병원으로 달려와서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손실을 자초하는 일이냐고 탄식했던 것이다.

– 손창섭, 「잉여 인간」

나 "빌려준 돈이 얼마나 돼요?" / 진영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 "오십만 환이야."

진영은 속으로 놀랐다. ㉠계를 해서 빚만 뒤집어쓴 줄 알았는데 그런 대금의 비밀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진영은 차갑게 아주머니를 쳐다본다. /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자식도, 남편도 없는 내겐 그것만이 남겨진 것이었어. 낸들 얼마나 돈을 떼였었니? 설마 내가 잘되면 빚이야 갚고 살겠지만 그때 그 돈마저 내주게 되면 난 아주 영영 파멸이지."

㉡진영은 어디 밑천 든 장사였더냐고 오금을 박아 주고 싶었다.

아주머니는 한참 만에 눈물을 닦고 일의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 내용인즉 죽은 사람은 돈을 쓴 회사의 전무였으며 5월달에 빌려 간 오십만 환의 이자라고는 한 푼도 받아 본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불안해진 아주머니는 전무에게 원금을 뽑아 달라고 졸랐으나 영 내놓지 않아서 생각다 못해 같은 신자에게 의논을 했더니 그의 남편인 김 씨가 일을 봐주겠노라 하기에 일을 맡겼다는 것이다. ㉢그 김 씨란 사람이 수단이 비상하여 마침내 사장 명의로 된 약속 어음을 받게 되고 그 며칠 후에 전무는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라 한다. 사장 명의로 된 약속 어음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다행한 일이었으나 웬 까닭인지 김 씨란 사람이 약속 어음을 도무지 주지 않고 **무슨 협잡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의심한다거나 비위를 거슬러 놓는다면 돈 준 사람도 없는 지금, 여자인 내가 어떻게 사장이란 사람에게 받아 낼 수도 없고, 이렇게 속이 탄다고 하면서 아주머니는 가슴을 치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진영은, / "대관절 그 전무란 사람을 어떻게 알고서 그런 대금을 주었어요?"

"저…… 저 왜 그 상배 있잖아, 그 상배 아버지야." / "뭐예요? 영세받았다던 상배 학생 말이에요?"

아주머니는 얼굴이 빨개진다. 진영은 기가 딱 막혔다. 그러고 보니 사업 때문에 상배 아버지가 서울로 오게 될 거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감쪽같이 종교를 이용했군요." / 아주머니는 진영의 눈길이 부신 듯이 눈을 내리깐다.

"글쎄 지금 생각하니 모두가 계획적이었어. 영세 받은 것만 해도……."

㉣"신용 보증으론 종교보다 더 실한 게 있어요?"

아주머니는 비꼬는 진영의 말에 풀이 죽는다. 진영은 풀이 죽는 아주머니로부터 눈을 돌렸다.

영세를 받았기 때문에 믿고 돈을 준 아주머니, 신자이기 때문에 믿고 일을 맡긴 아주머니, 단순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영은 다시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다. 그의 약점을 추궁할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 "그래서 어떡허실 작정이에요?" / "글쎄 말이다. 그래서 의논이지."

"제 생각 같아서는 ㉤김 씨가 일은 봐주되 어음은 아주머니가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음을 찾아간다고 일을 안 봐주면?"

"그땐 벌써 그이에게 딴 야심이 있었다고 봐야지요."

"그런 김 씨가 일 안 봐줄 적에 네가 좀 협조해 줄 수 없을까? 여자 혼자니 아무래도 호락호락해 보일 것 같아……." / 아주머니의 말투는 애원이었다. / "글쎄……."

그런 일에는 아주 딱 질색이었다. 그러나 진영은 약점을 안 뒤에 거절을 해 버리는 것이 무슨 악마 취미 같아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 "같이 저도 가지요."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가 점심을 차려 왔다. 점심을 먹으면서 아주머니는 한결 마음이 후련해졌는지 여러 가지 잡담을 꺼냈다.

"글쎄 돈이 있어도 문제야. 이젠 영 겁이 나서 남 줄 생각이 없어." / 진영은 무표정하게 밥을 삼키고,

"아무 말씀 마시고 돈 찾거든 장사하세요. 체면이고 뭐고…… 저도 자본이나 장만해서 장사할래요."

"너야 뭐 취직하면 되지."

"취직이 그리 쉬운가요? 하다 안 되면 거리서 빵이라도 구워 팔아야지요."

"너야 공부 많이 했으니까 할려면 취직 못할 것 없잖아. 난 정작 장사라도 해야겠어. 그러나 돈 벌기론 계가 제일이야. 힘 안 들고……."

아주머니는 숟갈을 놓고 성냥 가지로 이빨을 쑤시면서 말한 것이었다.

진영은 아무렴 그렇겠지, 그런 배짱이면…… 하다 말고 아주머니의 눈을 들여다본다. 아무런 악(惡)의 그늘도 없는 맑은 눈이었다. / "아무튼 돈을 벌어야 해. **돈이 제일이야. 세상이 그런걸**……."

– 박경리, 「불신 시대」

[22001-0305]

05 **(가)와 (나)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익준과 (나)의 아주머니는 각각 만기와 진영에게 심적으로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② (가)의 만기와 (나)의 진영은 직업이 있다는 점에서 각각 익준과 아주머니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

③ (가)의 만기는 익준에게 연민을 느끼는 데 비해, (나)의 진영은 아주머니에 대해 반감과 연민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④ (가)의 익준은 부정이나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임에 비해, (나)의 진영은 부정이나 불의한 상황에 무감각한 성격이다.

⑤ (가)의 만기는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버겁게 생각하지만, (나)의 아주머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22001-0306]

0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만기가 익준을 오해했던 자신을 반성하게 한다.
② 만기가 익준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③ 만기가 익준이 하려던 사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한다.
④ 만기가 익준이 자신에게 사회를 비판했던 이유를 알 수 있게 한다.
⑤ 만기가 익준이 왜 가족들에게 소홀한 채 밖으로 도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22001-0307]

07 ㉠~㉤을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을 보면 진영은 아주머니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을 보면 진영은 아주머니가 곗돈을 유용하여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을 보면 아주머니가 상배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어음을 김 씨가 받아 내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을 보면 상배가 영세를 받은 것은 아주머니가 상배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근거가 됨을 알 수 있다.
⑤ ㉤을 보면 진영은 김 씨가 아주머니의 일을 봐준 이유가 어음 때문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001-0308]

08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6·25 전쟁이 끝난 직후의 1950년대는 사회적으로 극도로 혼탁한 시대였다. 모든 것이 파괴된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도덕과 윤리를 내팽개치는 타락한 인간상이 나타났다. 생존이 지상 과제였던 사회 환경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 풍조가 만연하였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였다. 이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도덕과 정의를 앞세우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현실에 무기력한 사람으로 치부되기 쉬웠다. 손창섭의 「잉여 인간」과 박경리의 「불신 시대」는 이와 같은 전후의 시대 현실을 적나라하고 사실적으로 그려 낸 작품이다.

① (가)는 '자신 생활에는 극도로 시달리고' 있는 만기의 모습을 통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현실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군.
② (가)는 가난한 노동판의 '인부들의 임금을 속여 먹는' 사무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타락한 인간상을 보여 주는군.
③ (가)는 '한국 상인의 물품은 그 가격이나 질에 있어서 도무지 신용을 할 수가 없'다는 외국인들의 반응을 통해 부조리한 당시 사회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군.
④ (나)는 '무슨 협잡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을 통해 서로에 대해 불신하는 사회의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군.
⑤ (나)는 '돈이 제일이야. 세상이 그런걸'이라는 아주머니의 말을 통해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 풍조를 읽을 수 있군.

[0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임을 그리워하여 울더니 / 내 님믈 그리ᄉᆞ와 우니다니
산(山) ⓐ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 산(山) 졉동새 난 이슷ᄒᆞ요이다
아니시며 거짓인 줄을 / 아니시며 거츠르신ᄃᆞᆯ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실 것입니다 /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ᄅᆞ시리이다
㉠넋이라도 임과 한곳에 가고 싶어라 아으 / 넉시라도 님은 ᄒᆞᆫᄃᆡ 녀져라* 아으
우기시던 이 누구였습니까 /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없습니다 / 과(過)도 허믈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무리들의 말입니다 / 슬프도다 아으 / ᄆᆞᆯ힛마리신뎌* / ᄉᆞᆯ읏븐뎌 아으
임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 니미 나ᄅᆞᆯ ᄒᆞ마 니ᄌᆞ시니잇가
㉡아아 임이시여 돌이켜 들으시어 사랑해 주소서 /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정서, 「정과정」

* ᄒᆞᆫᄃᆡ 녀져라: '함께 지내고 싶어라'로 풀이하기도 함.
* 벼기더시니: '어기시던 이', '다짐하시던 이' 등으로 풀이하기도 함.
* ᄆᆞᆯ힛마리신뎌: '허황된 말씀이시도다', '나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었네', '편안케 하려고 하신 말씀이구나', '그만두신 것이로구나' 등의 의미로 풀이하기도 함.

나 ㉢개야미 불개야미 잔등 부러진 불개야미
앞발에 정종(疔腫)* 나고 뒷발에 종기 난 ⓑ불개야미 광릉(廣陵) 샘재 넘어 들어 가람*의 허리를 가로물어 추켜들고 북해(北海)를 건넌단 말이 있습니다
임아 임아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임이 짐작하소서**

– 작자 미상

* 정종: 단단하고 뿌리가 깊으며 형태가 못과 같은 부스럼.
* 가람: 몸에 어룽어룽한 줄이 있는 범.

다 유비자(有非子)가 무시옹(無是翁)에게 찾아가서 말하였다.
"근자에 여럿이 모여서 인물을 평론하는데 어떤 사람은 당신을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신은 왜 **어느 사람에게는 사람대접을 받고, 어느 사람에게는 사람대접을 받지 못**합니까?"
"㉣남이 나보고 사람이라 하여도 내가 기뻐할 것이 없고, 남이 나보고 사람이 아니라 해도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나를 사람이라 하고, '사람 아닌' 사람은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나는 나를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 하면 나는 기뻐할 일입니다. '사람 아닌'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면 나는 또한 기뻐할 일입니다. 단지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면 나는 두려워할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 아닌'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 하면 또한 두려워할 일입니다.

기뻐하거나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나를 사람이라 하고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능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며 능히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어진 사람인지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어진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유비자가 웃으면서 물러갔다. 무시옹이 이것으로 잠(箴)*을 지어 자신을 일깨웠다.

자도(子都)*의 어여쁨이야 누가 아름답다 아니하며, / 역아(易牙)*가 만든 음식을 누가 맛있다 아니하랴. / 좋아함과 미워하는 것이 시끄러울 때는 / ㉠어찌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리오.

– 이달충, 「애오잠병서」

* 잠: 훈계하는 뜻을 적은 글의 형식.
* 자도: 춘추 시대 정(鄭)나라의 미남자.
* 역아: 제(齊)나라 환공(桓公)의 신하로서 음식을 잘 만들기로 유명하였음.

[22001-0309]

09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호감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세간의 평가, 즉 평판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나에 대한 평판은 보통 나와의 상호 관계에서 타자가 직접 얻은 정보에다 그 타자가 어딘가 다른 경로로부터 얻은 정보들이 합쳐져 형성된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나라는 존재 혹은 나와 관련된 사건이 주목받기 시작하면 대개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이들에 의해 소문이 급속히 번져 나가고, 확산의 정도가 임계치를 넘으면 어느새 그것은 객관적 사실로 취급된다. 그런데 이렇게 나에 대해 한번 형성된 평판은 비록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진실과 다르더라도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으며, 또 쉽사리 뒤집히지도 않는다.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평판에만 초점을 맞추는 '확증 편향'에 빠진 이들은 기존의 평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사라져도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① (가)의 '잔월효성이 아실 것입니다'에서 화자는 자신에 대한 평판이 진실과 다름을 알고 있는 초월적 존재를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② (가)의 '임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는 청자가 화자에 대한 소문을 공동체 내에 퍼뜨리고 나서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③ (나)의 화자는 '온 놈이 온 말을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소문이 임계치를 넘을 만큼 확산하여 자신에 대한 나쁜 평판이 어느새 객관적 사실처럼 취급될까 우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④ (나)의 '임이 짐작하소서'에는 청자가 어딘가 다른 경로로부터 얻은 정보를 무턱대고 믿지 말고 화자에 대해 주체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⑤ (다)에서 무시옹이 '어느 사람에게는 사람대접을 받고, 어느 사람에게는 사람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시옹에 대한 상반된 평판이 공존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2001-0310]

1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임에 대한 송축의 태도를 청유문으로 부각하고 있다.
② ㉡: 화자의 바람을 제시하면서 상대를 높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③ ㉢: 대상의 범위를 점차 한정해 가는 표현을 구사하며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태도가 대구를 포함한 문장으로 드러나 있다.
⑤ ㉤: 자신에 대한 성찰의 중요성을 설의적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다.

[22001-0311]

11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와 달리 ⓑ는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존재이다.
② ⓐ와 달리 ⓑ는 인격을 부여한 청자로 설정되어 있다.
③ ⓑ와 달리 ⓐ는 화자가 풍자의 소재로 삼고 있는 대상이다.
④ ⓑ와 달리 ⓐ는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대상이다.
⑤ ⓐ와 ⓑ는 모두 당대의 절대적 권력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22001-0312]

12 (다)에서 알 수 있는 '무시옹'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떤 사람이 타인을 사랑하거나 미워하기 위해서는 먼저 갖추어야만 할 자격이 있다.
② 나의 인격에 대해 누군가가 평가했을 때 먼저 따져 보아야 할 것은 그 평가자의 인격이다.
③ '자도'와 '역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보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존재도 있을 수 있다.
④ 인격이 보잘것없는 이가 나의 인격을 탓하는 것과, 그가 나의 인격을 칭찬하는 것은 모두 기뻐할 수 없는 일이다.
⑤ 인격이 훌륭한 이가 나의 인격을 탓하는 것과, 인격이 보잘것없는 이가 나의 인격을 칭찬하는 것은 모두 두려운 일이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평안 감사 김진희야, 이혈룡을 모르느냐?"

두세 번 큰소리 내니 감사 듣고 한참 보다가 호장 불러 호통하니, 호장 수령 겁을 내어 일시에 달려들어 뺨도 치며 등도 밀고 상투 들어 부복하니, 사또 분부하되,

"너 이놈, 들어라. 웬 미친놈이 와서 휘욕하느냐?"

하거늘, 혈룡이 어이없어 하는 말이,

"오냐, 내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었다가 통기 못하여 일삭이나 지나더니, 노자도 떨어지고 기갈을 견디지 못하여 전전걸식하고 다니다가 오늘날 너를 보니 죽어도 한이 없다. 나는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더니 이다지 괄세하니, 대대 친구 쓸데없고 결의형제 쓸데없다. 나 같으면 이다지 괄시 아니 하겠다. 다만 전백(錢百)이라도 주었으면 부모 처자를 먹여 살리겠다."

하며 대성통곡하여 우는 말이,

㉠"이 몹쓸 김진희야, 푼전 노수 없어 한양 천 리 어이 가리."

하니, 사또 분을 내어 호통하되,

"미친놈이로다."

하며 대동강 사공을 불러 왈,

"이놈을 배에 싣고 강중에 던지어라."

하고 분부 지엄하니, 사공들이 영을 듣고 물러 나와 혈룡을 결박하여 배에 실을 적에 옥단춘이 넌지시 보매 비록 의복은 남루하나 얼굴이 비범하다.

불쌍히 생각하고 감사 전에 여쭈오되,

"소녀 금시에 오한이 일어나며 만신이 고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니, 감사 이르는 말이,

"그러하면 물러나가 치료하라."

하거늘, 옥단춘이 물러 나와 사공을 급히 불러 왈,

"저기 가는 저 사공아, 잠깐 머물러라."

하니 사공이 머물거늘, 옥단춘이 하는 말이,

"값을 후히 줄 것이니 이 양반을 죽이지 말고 죽은 모양으로 모래 속에 은신하고 오라."

하니, 사공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사또 영이 지중한들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리오."

[중략 부분 줄거리] 이혈룡은 자신을 구해 준 옥단춘과 연분을 맺고, 옥단춘의 후원으로 학업에 매진하여 과거 급제한 후 암행어사가 된다. 이혈룡이 걸인 행색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김진희에게 찾아가자 김진희는 이혈룡을 구해 준 옥단춘을 치죄하려 한다.

옥단춘이 일평생 그런 일을 안 보다가 오늘날을 당하여 네 수족을 벌벌 떨며 어사또를 돌아보며 하는

말이,

"여보시오 낭군님아, 이것이 웬일이오. 집 보라고 하였더니 귀신 들려 여기 왔소, 살매 들려 여기 왔소. 내 집 재물 가졌으면 호의호식 지낼 것을 어찌하여 여기 와서 이 지경이 된단 말고. 애고애고 낭군님아, 어허이고 낭군님아. 어찌하여 사잔 말가. ㉡죽을 목숨 살리어서 백년해로 언약하고 사잤더니, 일 년이 못 지나서 영별 죽음 한단 말가. 애고애고 낭군님아, 야속하오 낭군님아. 나는 지금 죽더라도 원통할 것 없건마는 낭군님은 대장부로 생겨나서 공명 한 번 못 해 보고 황천객이 되단 말가. 원통하고 가련하다, 낭군 팔자 내 팔자가 전생 무슨 죄목으로 이다지 험하기도 험하도다. 사주팔자 이러하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제 죽어도 후세에 다시 만나 미진한 우리 정을 백년해로 살아 보사이다. 님아 님아 서방님아, 어찌하여 사잔 말가. 아무리 원통하여 후세에 서로 만나 살자 한들 죽어지면 허사로다."

하며 무수히 통곡하니, 뉘 아니 설워하며 뉘 아니 불쌍타 하리오.

어사또 하는 말이,

"우지 마라. 네 울음 한 마디 내 간장 다 녹는다. ㉢내 죽고 네 살거든 내 원수를 네가 갚고, 네가 죽고 내가 살거든 네 원수를 내 갚으마."

이렇듯이 당부할 제, 순사또 분부하되 사공을 호령하니,

"저 연놈을 한 배에 싣고, 내 보는 데 대동강 깊은 물에 던지어라."

추상같이 호령하니, 사공이 영을 듣고 물러 나오니, 또다시 영을 놓아,

"북소리 세 번 들리거든 연놈을 한데 죽이어라."

하며 형리 놈을 또다시 호령하니 형리 엎디어 아뢰되,

"과연 사또 전에 죽여 마땅하오니 일후 거행 보옵소서."

무수히 애걸하니, 순사또 분을 풀어,

"물리치라."

하시더라.

이때에 어사또 사공에게 끌려 배에 잡혀 오를 적에 탄식하여 하는 말이,

"붕우유신 쓸데없고 결의형제 쓸데없다. 이전에 너와 나와 사생동거(死生同居)하자고 태산같이 맺은 언약 철석같이 믿었더니, 살기는 고사하고 죽이기를 일삼으니 무심하고 야속하다. 오륜 박대하고 보면 앙급자손(殃及子孫)하나니라."

대동강 맑고 맑은 물 바라보며 대성통곡하여 왈,

"㉣대동강 맑은 물아, 날과 무슨 원수 있어 한 번 죽기 어려운데 두 번이나 죽으라고 이 모양을 시키느냐? 참말로 죽게 되면 가련하고 원통하다."

옥단춘이 또한 어사또의 손을 부여잡고 만경창파 바라보며 애통하여 왈,

"원통하고 가련하다. 무죄한 우리 목숨 천명을 못다 살고 어복(魚腹) 중의 혼이 되니 이 아니 원통할까. 명천(明天)은 감동하와 무죄한 이 인생을 제발 덕분 살려 주오."

무수히 통곡할 제 한 번 북소리 들리거늘 옥단춘이 더욱 기가 막혀,

"애고애고 이 일이야, 이 일을 어찌할꼬. 님아 님아 낭군님아, 어찌하여 살아날꼬."
어사또 하는 말이,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죄 없으면 사느니라. 울지 말고 진정하여라."
북소리 두 번 들리거늘 옥단춘이 또다시 놀라면서,
"님아 님아 서방님아, 이제는 못 살겠소. 살려 주오 살려 주오. 무죄한 이 소첩을 제발 덕분 살려 주오. 아무 죄도 없나이다."
무수히 통곡할 제 세 번째 북소리 들리거늘 사공이 재촉하되,
"어서 물에 들어가옵소서. 일시라도 지체하면 내 목숨이 죽을 터이니 어서어서 들어가소서."
성화같이 재촉하는지라. 옥단춘이 넋을 잃고 정신없이 하는 말이,
"여보 사공님아 들어 보소, 그대도 사람이지 무죄한 이 인생을 어찌 그리 죽이랴오. 나는 자결할 것이니 우리 낭군 살려 주오."
저 사공 대답하되,
"아무리 야속한들 명령이 엄숙하니 살릴 묘책 없나니, 다 어서 바삐 조처하라."
하거늘, 옥단춘이 하릴없어 하는 거동 보소.
눈을 아주 질끈 감고 치마로 머리 쓰고 이를 바짝 갈며 벌벌 떨며,
"애그머니, 나 죽는다."
한 소리에 펄쩍 뛰어들려 하는지라, 어사 또한 깜짝 놀라 옥단춘의 손목을 부여잡고 하는 말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하며 잡아 앉히고 연광정을 건너다보며,
"서리, 역졸들 어디 갔느냐?"
하는 소리 천지진동하니, ㉤난데없는 역졸들이 벌 떼같이 내달으며 달과 같은 저 마패를 일월같이 높이 들고 우레 같은 저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면서,
"암행어사 출또하옵시오, 하옵시오."

– 작자 미상, 「옥단춘전」

[22001-0313]

13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옥단춘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혈룡을 무시하는 김진희에게 반감을 갖게 되었다.
② 이혈룡은 마지막 북소리가 울린 후에도 옥단춘에게 자신이 어사또임을 알리지 않았다.
③ 김진희는 다시 자신을 찾아온 이혈룡을 보고 그가 어사또가 되었음을 짐작하고 있었다.
④ 이혈룡은 김진희가 두 번이나 자신을 죽이려 하자 다시는 그를 찾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⑤ 옥단춘은 이혈룡을 살려 준 것이 발각되어 관아에 끌려갔을 때 장차 이혈룡이 자신을 구해 주리라고 믿었다.

정답과 해설 117쪽

[22001-0314]

1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옥단춘전」은 유교의 중요한 덕목인 '신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의 주인공 옥단춘은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현명함을 지닌 주체적 인물로 그려지는데, 그녀는 신의를 지키려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결국 위기를 극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처럼 이 작품은 옥단춘의 삶을 중심으로 친구 간의 신의와 남녀 간의 신의, 지배층과 하층민의 신의를 대비하여 조선 사회의 주류에 해당하는 양반들의 신의 없음을 풍자하고 있다.

① 옥단춘이 남루한 의복을 입고 있던 이혈룡을 처음 보았을 때 그가 비범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그가 어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녀가 현명한 인물임을 알 수 있군.
② 김진희는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결의형제를 맺은 이혈룡이 몰락하자 그를 돌보기는커녕 죽을 위기에 몰아넣었다는 점에서 작가가 풍자하려는 대상임을 알 수 있군.
③ 옥단춘이 기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평안 감사인 김진희를 속여 이혈룡을 구하고 그를 낭군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녀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④ 옥단춘이 김진희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공명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된 이혈룡의 처지부터 걱정하는 것에서 그녀가 신의를 중시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군.
⑤ 사공들이 옥단춘의 부탁으로 이혈룡을 살려 주었지만 나중에는 사또의 명으로 이혈룡을 죽이려 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신분에 따라 신의를 지킬지 말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22001-0315]

1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설의적 표현으로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김진희에 대한 원망을 강조하고 있다.
② ㉡: 과거와 현재 상황을 대비하여 현재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③ ㉢: 대구와 대조의 방식을 통해 반드시 김진희에게 복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④ ㉣: 자연물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운명을 거역할 수 없다는 체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⑤ ㉤: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을 역동적으로 그리고 있다.